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6

백두청년회 산하 백두산편집부



차 례

16장 압록강을 넘나들며

17장 조선은 살아있다

18장 중일전쟁의 불길속에서

제16장



압록강을 넘나들며

무송원정
소탕하에서의 일행천리
경위대원들
삼천리방방곡곡에서
권영벽
스쳐버릴 수 없었던 사연
유격대의 어머니

■ 시기 : 1937. 3 ~ 1937. 5

1. 무송원정

도천리와 이명수에서 ≪동기대토벌≫에 혈안이 되어 돌아치던 적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후 나는 주력부대를 이끌고 또다시 장백산줄기를 넘어 북상행군의 길에 오를 결심을 하였다.

내가 무송원정안을 공포하였을 때우리 부대의 대원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해하였다. 이제 당장 국내에 들어가서 적들을 답새기게 되었다고 가슴들을 들먹이며 명령을 기다리는 때에 갑자기 북상행군이라는 웬일인가, 모처럼 개척한 서간도와 백두산을 등지고 북으로는 왜 간다는 것일가, 이것 참 모를 일이다 하는 표정들이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잘되어가는 때에 부대가 무송으로 원정을 떠나야 할 이유란 전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였다.

당시는 우리 군민이 사기가 절정으로 치달아 오르고 있던 시기였다. 적들과의 거듭되는 혈전에서 우리는 연승하고 있었다. 적의 발악적인 ≪토벌≫공세와 정치, 경제, 군사적 봉쇄작전에도 불구하고 유격대오는 새로운 참군자들로 나날이 확대되였으며 무장장비와 전투력은 상당한 정도로 강화되였다.

백두산지구와 압록강연안 일대는 온통 우리 세상으로 되어 있었으며, 싸움의 주도권은 우리의 손에 튼튼히 장악되어 있었다. 우리의 지하조직망들은 서간도전역으로 조밀하게 뻗어갔다. 남호두를 떠날 때 우리가 세웠던 일차적 목적은 성과적으로 달성된 셈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내진공작전이였다. 하루빨리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해야 조국강토에 반일민족 통일전선의 선풍도 세차게 일굴 수 있었고 새 형의 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도 본격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었다. 조국에 진출하여 원쑤들을 징벌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품고 있던 가장 큰 꿈이었을 뿐 아니라 국내인민들의 가슴에 타 번지던 최대의 소망이기도 하였다.

국내 인민들이 우리의 조국진출을 얼마나 고대했는가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었다.

지양개에는 난덕이라고도 부르고 나하덕이라고도 부르는 괴상한 이름을 가진 동네가 있었다. 이 마을의 구장이며 조국광복회 특수회원인 유호는 원군사업을 잘하였다. 언제인가 그는 후방물자를 가지고 마을사람들과 함께 우리 밀영으로 찾아온 일이 있다. 그런데 그간 인솔해온 짐군들속에는 갑산에서 들어온 농민도 세 사람이나 있었다.

그때 갑산 사람들은 좁쌀과 귀밀 미시가루 그리고 미투리를 잔뜩 짊어지고 경계가 삼엄한 압록강을 건너 우리 밀영에까지 찾아왔다. 그 많은 후방물자를 셋이서 지고 왔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이 백두산 원시림속에서 향방을 잃고 헤매는 동안 몇 끼씩이나 굶으면서도 원호미만은 한줌도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밀영까지 지고 왔다는 사실이었다.

미투리에 깃든 사연도 그만 못지 않게 우리의 심금을 울리었다. 그때 그들이 가지고온 미투리는 자그마치 200여 켤레나 되였다. 삼오리를 꼬아 신총을 만들고 신바닥에도 삼오리에 누릅끈을 섞어 정성스럽게 삼은 그 미투리들은 하나같이 맵시가 있고 탐탁한 것들이었다.

김산호가 갑산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자 그들은 어쩔 바를 몰라하였다. 옛말에

나오는 도사처럼 채수염을 길게 드리운 좌상영감은 김산호의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하였다.

≪백두산장수들에게 미투리밖에 삼아올리지 못하는 이 불충불의한 백성들을 용서해주시외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수고를 노고라고 하니 오히려 몸둘 바를 모르겠소이다. 초라한 신발들이지만 이걸 군화 삼아 신고 우리 갑산 땅에서도 저 섬나라 오랑캐 놈들을 요절내준다면 죽어도 눈을 감겠소이다. 우린 그저 혁명군만 기다리겠소이다.≫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군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은 비단 갑산의 농민들뿐이 아니었다. 언제인가 원군물자를 지고 우리 밀영에 찾아왔던 경상도 출신의 이병원 노인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적이 있다.

≪장군님, 대체 언제쯤이면 저 쪽발이들을 조선 땅에서 내쫓게 되겠는지 내 생전에 그런 날을 보게 될까요?≫

조국동포들이 우리에 대해 품고 있은 불같은 그리움과 따뜻한 정을 우리는 거의 매일매시마다 절감하고 있었다. 갑산사람들이 마련해온 미투리를 한 켤레씩 받아안은 우리 동무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한시가 새롭게 조국에 진군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과 염원에 휩싸여 있었다. 나의 심정 역시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나는 전우들에게 조국방향과는 정반대 되는 북쪽방향으로 행군하라는 명령을 내리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고 의혹을 금치 못해하는 전우들에게 북상행군을 후퇴라고 생각하지말라, 우리는 북행길에 오르지만 그것은 사실 조국으로 가는 남행길이나 다름없다, 조국으로 나가자면 부득불 이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잠시 무송 쪽으로 가는 것도 결국은 국내진공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무송원정을 작전하면서 우리가 달성하려고 한 기본목적은 이정화령의 영활한 전법으로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장백지방에 집결되고 있는 ≪토벌대≫역량을 최대한으로 분산시키며 적들의 주의를 딴데로 돌림으로써 이 일대에서 번성하고 있는 지하조직망 건설사업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대부대에 의한 국내진공작전 실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자는데 있었다.

적들은 1936년 겨울의 ≪동기대토벌≫이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혁명군을 고립압살시키려는 기도를 조금도 버리지 않고 조선강점군과 국경수비대를 비롯하여 위만군과 경찰대의 방대한 역량을 우리 부대의 활동구역에 계속 투입하고 있었다. 이런 정황에서 우리가 주동에 튼튼히 서서 우리의 구상과 결심대로 혁명을 줄기차게 상승시키자면 활동지역을 얼마동안 다른 고장으로 옮겨야 하였다. 그래야 적들을 피동에 몰아넣고 서간도와 국경일대의 혁명운동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장백에 집중되고 있는 적들의 ≪토벌≫역량을 분산시키고 압록강연안의 혁명조직들을 보호하는 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에도 좋은 조건을 지어주는 것으로 되었다. 인민혁명군이 국내에 들어가서 대부대활동을 하려면 우선 우리의 후방이며 출진기지인 서간도에 적들의 대병력이 집중되지 못하게 하여야 하였다.

≪도문회담≫의 내용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적들이 서간도일대에 무력을 집중하는 목적은 인민혁명군부대들을 장백의 오지에 몰아넣고 압살하자는데도 있었지만, 기본은 우리의 국내진출을 결사적으로 막자는데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대부대가 미구에 국내진격을 단행하게 되리라는 것은 적들에게 있어서도 기정사실로 되어있었다. 사실상 대부대에 의한 국내진출은 시간문제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제일 두려워한 것이 바로 이 점이었다. 인민혁명군의 대부대들이 조선에 들어가서 군사정치활동을 벌인다면 그것은 일본본토를 들이치는 것

과 같은 굉장한 효과를 낼 수 있었다.

적들은 우리가 국내에 나가서 몇 방의 총소리를 울리기만 하여도 그것이 어떤 화단으로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백두산지구에 자리를 잡은 그 해 겨울부터 그들은 인민들을 동원하여 매일 밤 압록강의 얼음을 까는 소동을 벌이었다. 인민혁명군이 개별적으로든지 집체적으로든지 조선땅에 스며들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였다. 우리의 국내진공을 얼마나 무서워했으면 적들이 그런 유치한 방비책에까지 매달렸겠는가.

일본천황이 자기의 시종무관을 보내여 조만국경을 3주일간이나 시찰하게 한 사실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바가 있지만 일본 정계와 군부의 우두머리들은 우리 나라 북부국경에서도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시종무관은 그때 국경경비인원들에게 국경을 철벽으로 지키라는 천황의 어지도 전하고 천황부부의 하사품도 전달하였다. 그 야단스러운 전달식장면을 놓고 우리대원들은 일본천황도 인민혁명군이 조선으로 쓸어 나올가봐 조마조마해하는 모양이라고 하면서 고소를 금치 못하였다.

대부대에 의한 국내진출을 성사시키자면 반드시 적들이 ≪동장철벽≫이라고 떠드는 국경경비진에 몇 개의 돌파구를 뚫어야하였다. 이 돌파구를 뚫기 위한 선행작업이 바로 장백의 산과 들에 와글와글하는 적의 ≪토벌≫역량을 최대한으로 분산시키는 것이였다. 적들을 분산시키자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장백땅에서 자리를 뜨는 흉내라도 내야하였다. 우리가 부대를 데리고 다른 고장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적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것이고 국경방비도 자연히 허술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였다.

우리는 무송원정과정에 무송현과 임강현, 몽강현의 접경지대에서 활동하는 최현부대와 1군 2군사의 동무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국내진공작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협동작전계획도 세우려고 하였다.

우리가 무송원정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한 다른 하나의 목적은 이 원정을 통하여 신대원들을 조성된 정세의 요구와 조선 인민혁명군의 사명에 맞게 정치, 군사, 도덕적으로 충분히 고양하고 훈련시키자는데도 있었다.

백두산지구에 새로운 형태의 근거지가 창설된 후 우리는 수백 명에 달하는 참군지망자들로 대렬을 보충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적극적인 군사, 정치활동과 그 성과에 고무된 서간도 일대의 청년들은 앞을 다투어 우리 부대에 입대하였다. 국내에서도 연일 애국청년들이 무장투쟁에 참가하려고 우리를 찾아 왔다.

부대의 역량이 양적으로 늘어난 조건에서 우리는 그 질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지 않을 수 없었다.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 기본으로 되는 것은 지휘관과 대원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였다. 그들의 사상의식 수준과 군사실무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부대를 백전백승하는 대오로 만들 수 없었다. 그런데 수백 명에 달하는 우리 부대의 신병들은 하나같이 계급의식도 강하고 혁명열의도 높았으나 아직 전투경험이 없었으며 유격전법에 정통하지 못하였다. 정치문화수준도 높지 못하였다. 우리의 신병들은 어제날까지 부대기발을 뚜지거나 날품팔이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고달프게 살아온 순박한 산골내기들이였다. 호미질, 가래질, 작두질같은 일이라면 펄펄 날아도 군사에서는 까막눈들이였다. 초보적인 사회발전의 원리는 고사하고 조선글 자모조차 모르는 문맹자들이였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고생도 많이 하고 노동에도 단련된 청년들이기는 하나 그들은 유격대생활에서 겪게되는 고난들을 잘 감당해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동요도 하고 투정질도 하였다. 잠이 모자라고 행군이 고되다고 투덜거리는 청년도 있었고, 신이 꿰

지거나 옷이 해지면 자기 손으로 기워야할텐데 그런 것마저 하지 못하고 구대원들에게 부담을 끼치는 청년도 있었다.

제식동작도, 야간행군법도, 방위판정법도 모르는 햇내기들, 총이 고장나면 구대원들더러 ≪이것좀 봐주시오.≫하고는 우두커니 서있는 그런 신대원들을 그대로 데리고 조국진출을 단행할 수는 없었다.

신대원들을 받아들인 후 짬이 나는 대로 구대원들을 붙여 속성으로 훈련도 시키고 토막상식도 배워주면서 자질을 높여주느라고 하였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그많은 신병들을 유격전의 요구에 맞게 다방면적으로 준비시킬 수 없었다. 이상적인 방도는 적들의 주의가 덜 미치는 울창한 수림지대에 가서 얼마동안 품을 놓고 신대원들에 대한 군사정치 훈련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등사그림
≪나팔수≫

이런 본격적인 교육과정이 없이는 그들을 쇠소리가 나는 군인들로 키워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장백땅은 평지나 오지나 할 것 없이 다 적들에게서 ≪참빗질≫을 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신병 훈련의 적지로 혁명군의 후방밀영들이 집중되어 있는 무송지구를 택하였다.

총괄적으로 볼 때 무송원정은 적의 대병력이 집요하게 달려드는 조건에서도 주도권을 계속 튼튼히 틀어쥘 수 있게 하는 진공적인 대책이었으며 부대의 전투력을 일층 강화하고 혁명군의 국내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영활한 전술적 조치였다. 이 원정은 우리가 백두산지구에 진출한 후 반년동안 쌓아올린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발전시키는 길이었다.

1937년 3월 어느 날 우리는 무송원정의 길에 올랐다. 거기에는 기본전투성원들과 함께 재봉대와 작식대, 무기수리소 성원들을 포함한 후방부문의 성원들까지 다 참가하였다.

위증민과 전광, 조아범도 우리와 동행하였다.

첫날의 행군목표는 되골령을 넘는 것이었다. 하루종일 행군을 하였는데 눈이 어찌나 많이 쌓이고 날씨가 얼마나 추웠던지 영을 다넘지 못하고 중턱에서 하루밤을 숙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해 겨울 장백산줄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눈이 내리였다. 적설이 어떻게나 심했던지 어떤 골짜기에는 눈이 몇 길씩 쌓인 데도 있었다. 그런데서는 몸으로 눈을 밀어제끼면서 한치한치 앞으로 전진해야만 하였다.

장백산줄기에 얼마나 많은 눈이 내리는가 하는데 대하여 새 세대들이 똑똑한 표상을 가지려면 그 당시 무송원정에 참가했던 투사들의 체험담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원정을 끝내고 해토가 되어 백두산쪽으로 나올 때 우리는 이깔나무정수리에 미투리 한 짝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장백에서 입대한 신입대원이 무송으로 행군해갈 때 눈속에서 잃어버린 미투리였다.

3월 초면 조국의 벌방지대에서는 눈석이가 한창이자만 백두산일대에서는 아직도 동장군이 판을 친다. 엄혹한 설한 풍속에서는 천막조차 제대로 칠 수 없었다. 설사 친다 해도 바람을 견디여내지 못하였다. 우리는 이런 정황에 부닥칠 때마다 깊은 눈속에 한 개 분대정도의 인원이 숙영할 수 있는 구뎅이를 파고 노루가죽이나 나무껍질을 깔고 배낭에 기대여 앉아자는 수밖에 없었다. 구뎅이입구에는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백포를 쳤다. 에스키모인들이 얼어죽지 않고 눈집이나 얼음속에서도 능

히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원정과정에 체험을 통하여 터득하였다.

우리는 그때 무릎까지 올라오는 큰 버선에 갑산사람들이 삼아준 미투리를 신고 있었다. 백두산일대에서는 그런 차림새가 아니고서는 겨울에 밖으로 나다닐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모두 미투리를 신은채로 우등불 옆에 누워서 숙영하였다.

우리는 다음날에야 되골령을 넘어섰다. 이 원정이 보통원정이 아니었다. 우리 인민들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면 남패자에서 북대정자에 이르는 1938년 겨울의 행군을 의례히 생각한다. 물론 그 행군이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울 수 있으리만큼 간고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간고성으로 말하면 무송원정도 그에 못지않은 어려운 행군이었다. 행군거리를 따지면 100킬로미터도 되나마나할 것이다. 기일은 25일 정도였다고 생각한다. ≪고난의 행군≫당시의 100여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원정도 매우 간고한 노정이었다.

추위에 시달리고 굶주림에 쪼들리고 수면부족으로 고통을 당하고 　무슨 고생인들 없었겠는가. 싸움을 여러 번 하다나니 피도 많이 흘리고 희생도 많이 내였다.

무송원정은 노대원들에게 있어서조차 이빨을 악물고 참아내지 않으면 안되었던 엄청난 시련이었다. 그런즉 입대한지 몇 달밖에 안되는 신대원들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나는 모든 구대원들이 신대원들을 한 명씩 맡아 돌보아주도록 하였다. 나도 3-4명 되는 약골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 대원들은 모두 신대원들의 착실한 형구실을 하였다. 행군할 때에 는 잠자리도 마련해주고 옷이나 신발이나 모자같은 것도 기워주었다.

주경동출신의 한 신입대원은 양쪽 엄지발가락이 시뻘겋게 드러나도록 신발이 험하게 해졌지만 쉴참에 그것을 손질할 궁리는 하지 않고 휴식구령이 내리기 바쁘게 우등불곁에서 코를 골며 잠을 잤다. 구대원들은 장백에서 신고 떠난 갑산 미투리도 아직 꿰뜨리지 않았는데 그는 예비로 가지고 떠난 지하족마저 해뜨렸다.

나는 그에게 나의 예비신발을 갈아 신기고 돗바늘로 그가 신고 있던 지하족을 손질하였다. 손질한 지하족은 배낭속에 건사해두었다가 다른 신입대원에게 갈아 신기였다. 해진 신발을 손질할 때면 본인들이 딱해할 것 같아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몰래하군 하였다. 그러다가 한번은 신발임자에게 들키고 말았다. 그 대원은 눈물을 떨구면서 나에게 매달려 무작정 바느질 깁던 신발을 빼앗아 냈다.

그날 나는 신입대원들에게 이렇게 타일렀다.

≪동무들이 집에서는 아버지가 삼아주는 짚신을 신고 어머니가 기워주는 옷을 입고 지내다보니 바느질도 못해보았겠지만 유격대원이 된 이상 옷도 신발도 다 자기 손으로 기워입고 기워 신을 줄 알아야한다. 자기가 살 도리는 자기가 해야 한다.

오늘은 나와 함께 신발 깁는 법이나 배우자.≫

그들은 사령관에게 당치 않은 부담을 끼쳤다고 하면서 몹시 미안해하였다.

신발이나 옷이 제일 심하게 해지는 경우는 얼음 버캐가 덮인 눈우를 지날 때이다. 그래서 나는 얼음 버캐가 덮인 눈 우를 걸을 때에는 발을 어떻게 옮겨놓아야 하는가 하는 요령을 대주었다.


동강

무송원정은 주림을 이겨내는 투쟁과정이기도 하였다. 많은 고난이 시시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군 하였으나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가장 심각하게 우리를 위협한 것은 식량난이었다. 행군속도가 예상보다 어방없이 떠지는 바람에 장백을 떠날 때 마련해가지고 온 얼마 안되는 식량은 되골령을 넘어서기 바쁘게 인차 떨어지고 말았다.

언풀 뿌리조차 캐먹을 수 없는 눈판에서 무슨 수로 먹을

것을 얻어내겠는가. 출로는 적의 군량을 빼앗는 것인데 우리는 어디에 적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때 식량고생을 하던 인상이 너무도 강해서 훗날 나는 어느 동무에게 무송원정은 사실상 ≪기아원정≫이나 다름없었다고 말한 일까지 있었다. 옹근 하루동안 강냉이 한 알 입에 넣어보지 못하고 맹물과 눈으로 창자를 달래면서 수십 리를 행군한 날도 있었으니 그 끔찍스러운 기아의 고통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원정이 거의 끝날 무렵에 동강 부근의 수림속에서 있은 일이었다. 우리는 그 수림속에서 중국집 한 채를 발견하였다. 이틀째나 낟알 구경을 하지 못하고 맹물로 끼니를 에워온 우리는 그 집을 보자 혹시 식량을 구할 수 있지않을가 하는 한 가닥의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산에 숨어서 아편 농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체로 식량의 예비가 있었다.

우리는 집주인에게 부대가 며칠째 낟알 구경을 못하고 있는데 식량이 있으면 다분 얼마만이라도 팔아달라고 사정하였다. 그러나 집주인은 산림부대가 몽땅 털어가버려서 한줌도 없다고 딱 잡아뗐다. 매들밑에 강냉이 겨가 그득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 강낭쌀이나 강낭가루를 많이 내둔 같은데 아무리 사정을 하여도 막무가내였다. 우리는 궁색스러운데로 매들밑에 내버린 강냉이겨로 끼니를 에우기로 하였다.

강냉이겨는 조겨나 피겨와 달라 닦아 먹어도 식도에 자꾸 붙기만 하고 잘 넘어가지 않았다. 매들에 갈아먹어도 넘기기가 어려웠고 설사 물에 풀어서 억지로 넘긴다고 해도 시장기를 더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생각다 못해 전령병 백학림을 불러 지시하였다.

≪여기서 고개를 몇 개만 넘어가면 오의성부대가 있을 것이요 사령은 지금 없겠지만 그 부하들은 더러 남아서 항전을 계속하고 있소. 동무는 거기 가서 내가 왔다는 걸 알리고 식량을 얼마간이라도 보태달라고 이르고 오시오. 쌀이 있으면 지난날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의 청을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요.≫

백학림은 오의성부대로 달려갔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오의성부대의 지휘관이 강냉이겨 한 마대를 메고 일부러 찾아와서 나에게 양해를 구하였다.

≪**김**사령께서 모처럼 하시는 부탁을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돕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저희들도 식량이 떨어져서 굶고 있는 형편이라 이런걸 가지고 찾아왔다고 나쁘 생각지 말아주시오.≫

그날 우리 대원들은 그 중국집 안팎을 두루 살피다가 앞마당에 놓인 관속에 강낭쌀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만주지방사람들은 훗날에 쓸 관을 미리 만들어서 집앞에 놓아두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신성불가침의 장의물로 되고 있었다. 이런 풍습으로부터 항일혁명때 만주지방에서는 관과 관련된 일화들이 많이 생겨났다.

집주인들이 관속에 쌀을 감추어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 관속의 쌀이 그만 우리 동무들의 분격을 자아냈다. 제일 심하게 격노한 것은 신입대원들이었다. 주경동에서 입대한 한 신입대원은 나한테 뛰어와서 이런 속사정을 하였다.

≪장군님, 이 집주인들은 심보가 아주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소나 말 같은 짐승들이 제 집뜨락에 들어와도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예절인데 이 집사람들은 너무 고약합니다. 도대체 피가 있는 인간들입니까. 한번 혼내줍시다. 그리고 식량은 압수합시다.≫

나는 그 대원을 설복하였다.

≪압수라니?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집 식량을 조금이라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차

라리 우리가 굶는 것이 낫다≫

그 신입대원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시면서 물러갔다.

우리는 관속의 식량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기미를 조금도 보이지 않고 강냉이겨로 식사를 대신해가며 집주인들을 꾸준히 교양하였다.

주인들은 우리와 작별을 하면서도 관속에 식량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종시 말하지 않았다. 쌀을 압수하자고 제기하던 신입대원이 나를 찾아와서 ≪그것 보십시오. 저런 사람들한테 교양이 통하지 않습니다.≫하고 말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신입대원들은 인민들속에는 각이한 유형의 인간들이 있다는 것, 그런 것만큼 교양도 천편일률식으로 해서는 안되며 무슨 일이나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때만이 성사된다는 것, 그러므로 군대가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고 해서 인민의 재산을 함부로 침해하거나 그들의 호의나 도움을 강제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었다.

만일 그때 우리가 노여움을 삭이지 못하고 집주인들을 혼살냈거나 그들이 우리를 속인데 대한 벌로 식량을 압수하였더라면 신입대원들은 인민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는 좌우명을 어기고 인민들앞에서 쩍하면 호령을 하거나 특전을 바라는 관료라든가 마적과 같은 인간들로 변질되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만강줄기를 따라 내려가다가 멀리서 행군대오의 뒤를 쫓아오고 있는 처서군 두 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단두산목재소 노동자들이었다. 행색이 하도 수상하기에 어째서 우리 대열을 계속 따라오는가고 물었더니 적들한테서 유격대의 종적을 탐지하여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솔직하게 자백하였다. 그들이 하는 말이 유격대의 종적을 알아오면 그 정보의 가치에 따라 품삯을 많이 받고 그냥 돌아가면 ≪통비분자≫로 몰리거나 모진 곤경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노동자들을 통하여 단두산목재소에는 수많은 인부들과 산림경찰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힘든 싸움을 하게 되더라도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 목재소를 치기로 결심하였다.

이 싸움에 7연대와 8연대를 동원시켰다. 두 연대의 전투원들은 목재소를 치고 창고를 수색하였으나 한 포대의 쌀도 얻지 못하였다. 목재소주인들은 유격대의 습격이 두려워 쌀을 창고에 저장해두지 않고 매일매일 딴 곳에서 실어다 먹고 있었다. 목재소마을에서는 예상치 않았던 700-800명의 적들이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들이 쓸어나와 우리 전투원들에 대항해 나섰다. 우리 주력부대가 무송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토벌≫에 새로 증파되어온 자들이었다.

7연대와 8연대는 목재소에서 끌어온 20마리 정도의 소를 몰고 본대로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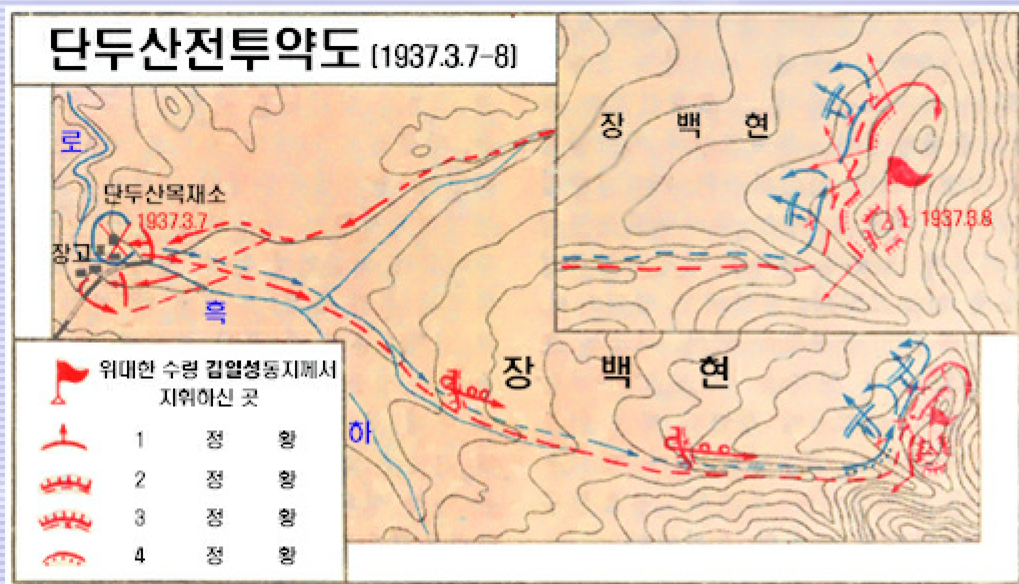
추적하는 적은 오중흡이 책임진 방차대가 막았다. 오중흡은 각 소대에서 결사대원들을 선방하여 무려 10여 차례에 접전을 하면서 적들을 완강하게 견제하였다. 날이 밝은 다음에 보니 적들은 50미터 밖에까지 와있더라고 하였다.

방차대원들이 적을 막아내는 동안 주력은 동쪽에 있는 두 개의 봉우리를 차지하고 전령병을 보내여 그 두 봉우리 사이의 새초밭으로 오중흡이네 방차대가 적을 유인하며 빠지도록 하였다. 방차대의 유인전술에 걸려 무여한 새초밭에 들어선 적≪토벌대≫는 수많은 시체를 남기고 도주하였다.

주력이 전투에 참가하기 전에 일부 대원들은 장대 뒤에서 소를 잡았다. 잡는 족족 우등불에 구워냈는데 소고기냄새에 창자가 뒤집히는 듯하였다. 나머지 소들은 각을 떠서 배낭속에 간수하였다. 우리는 그 고기를 날것 채로 먹으면서 행군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2-3주일 후에는 그것마저



만강뒤산



도 다 동이 나고 말았다.

적들의 추적이 심해지자 전광은 동만강에 있는 밀영으로 가버리었다.. 그는 밀영에 돌아가자 우리 대원들에게 통밀 몇 말을 주어보냈다.

우리 대원들은 정치주임이란 사람의 인심이 고작 그것뿐인가? 덩치값을 못한다고 하면서 전광을 비난하였다.

어떤 대원들은 그를 용기 없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욕하였다. 그들은 전광이 무송현성전투때 보조적으로 하게 되어있었던 만량하습격전투를 포기함으로써 전반적인 작전에 혼란을 주었던 사실에 대하여 여전히 의혹을 품고 있었다.

전광이 간부티를 내는데다 어렵고 위험한 모퉁이에서 매번 몸을 사리었기 때문에 우리 부대의 관병들은 대체로 그를 시답지 않게 보고 있었다. 군중의 감각은 정확하였다. 전광은 그 후 변절하여 우리 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였다.

부대는 적들을 뒤에 달고 만강물골을 따라 무송쪽으로 행군을 계속하였다. 전광이 보낸 통밀 몇 말도 인차 바닥이 났다. 우리는 또다시 절량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후 우리는 뒤따르는 적들을 따돌리고 두도령이라는 고에서 얼마간 머물렀다. 식량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행군을 더 계속할 수 없었다. 강태옥을 비롯한 만강출신의 신입대원들이 먹을 것을 해결해오겠다고 자청해 나선 것이 바로 이때였다. 그들은 그 전해 만강에서 연극 ≪피바다≫와 ≪한 자위대원의 운명≫을 보고 격동되어 즉석에서 참군을 탄원해 나섰던 신입대원들이었다.

부대가 만강 가까이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김택환을 앞세우고 나를 찾아왔다.

≪장군님, 우리가 가서 식량을 좀 구해보겠습니다. 만강이 코앞인데 유격대가 굶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만강에 쌀은 바르지만 감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에 유격대를 원호하려고 모아두었던 감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 장소를 압니다.≫

그런 말이라도 들으니 마음이 좀 놓이었다.

이렇게 되어 10명 정도의 식량공작대가 만강으로 떠나갔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보다 수확은 신통치 않았다. 군량으로 쓰자고 저장했다던 그 감자는 멧돼지들이 달려들어 다 파먹고 없더라고 하였다. 식량공작대원들은 멧돼지들이 먹다가 버리고

간 얼마 안되는 감자를 지고 귀로에 올랐다. 아무 것도 없는 우리의 처지에서는 그것도 큰 소득이였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였다. 본대로 돌아오던 식량공작대원들이 그만 시장기를 참지 못해 숙영지 가까이에 와서 우등불을 피워놓고 감장구이를 하는 엄중한 실수를 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새벽에 숙영지 근처에서 우등불을 피움으로써 자기자신들 뿐 아니라 전부대의 위치를 노출시켰으며 적들을 발견한 다음 보초소에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고 무작정 숙영지로 뛰어왔기 때문에 취침중에 있던 부대가 미처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전투에 말려들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최금산

자유주의란 종종 이처럼 예상치 않은 후과를 빚어내군 하였다.

나는 신입대원들에게 늘 유격대에서 자유주의는 금물이다, 규율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부담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규율은 군대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숙영할 때 신을 벗고 자지 말며 어디에 가든지 흔적을 남기지 말라, 상관이 지정해주지 않은 장소에서 우등불을 피우지 말며 추격을 받을 때에는 밀영이나 숙영지의 위치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적들을 유인하라, 파악이 없는 풀은 함부로 먹지 말라는 등 유격대가 지켜야할 규율과 행동규범에 대하여 강조하군 하였다.

그러나 만강에 다녀온 식량공작대원들의 과오로 하여 우리는 적들과의 접전에서 아까운 전우들을 잃었다.

나는 그때 그들을 비판하지 않았다. 비판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전우들의 죽음은 비판을 대신하고 남음이 있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비판이나 처벌보다 더 준엄한 것이었다.

전령병 최금산도 그때 전사하였다. 우등불을 발견하고 우리의 식량공작대원들을 은밀하게 뒤따르던 적들은 숙영지를 포위하고 총질을 시작하였다. 그 위기일발의 순간에 최금산은 일신이 그대로 방패가 되어 사령부 쪽으로 다가드는 적을 막아 결사적으로 싸웠다. 내가 맨후위에서 철수하는 것을 보자 그는 이봉록과 함께 내옆으로 뛰여와 몸으로 나를 막으면서 적들에게 맹렬한 사격을 가하였다. 그때 그들이 나를 결사적으로 호위해주지 않았더라면 내 신상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지 모른다.

여러 발의 적탄에 치명상을 입었지만 최금산은 마지막탄알이 다할 때까지 엄호사격을 그치지 않았다. 그의 군복은 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이봉록이 눈속에서 최금산을 안아 일으켜 등에 업었다. 나는 후위에서 싸창으로 리봉록을 엄호하였다. 이봉록이 맥이 진할 때면 내가 최금산을 업었다.

포위를 돌파한 다음 이봉록의 등에 업혀있던 금산이를 내려놓고 보니 그는 이미 숨이진 몸이었다.

최금산은 남보다 특별히 잘난데도 없고 기질상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의 인상에 남을 수 있으리만큼 모가 나게 두드러진 데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 사령부성원들은 그를 친동생처럼 사랑하였다.

그는 꿈이 많고 공상이 많은 소년이었다. 그가 바라는 것 중의 하나는 기차를 많이 타보는 것이었다. 그는 조국이 독립된 다음에는 기차를 몰고 다니겠다고 늘 말하군 하였다.

≪참, 나이가 아깝소! 이 애가 아직 스무두살도 안됐지?≫

숨진 최금산을 우등불 곁에 내려놓았을 때 내 등뒤에서 누구인가 한말이다. 그 한마디의 말에 그만 온 부대가 오열을 터뜨리었다.

시체를 안장하기 전에 최금산의 배낭을 헤쳐보니 그 안에는 갑산사람들이 삼아준 미투리와 미시가루 한 봉지밖에 없었다.

이국 땅에서 내어나고 이국의 물을 마시며 자라난 유랑민의 아들 최금산의 가슴속에 간직된 가장 큰 소망은 고국땅을 밟아보는 것이었다. 전령병이 되어 먼 북만의 남호두에서 백두산으로 나올 때에도 그는 매일 같이 나에게 이제 얼마나 더가면 조국땅을 볼 수 있는가, 동해바다가 기막히게 멋있다는데 장군님은 가보았는가, 앞으로 몇 해안에 평양이랑, 서울이랑, 부산이랑 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의별 질문을 다하였다. 그가 갑산 농민들이 삼아온 미투리를 신지 않은 것은 조국진군의 날을 맞을 때까지 아껴두자는 생각에서였다.

최금산은 나와 함께 한 모포를 덮고 오랜 기간 사령부 전령병으로 일해온 귀염둥이었고 어린 전우였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전우들과 영결할 때보다 더 슬프게 울었는지 모른다.

두도령의 땅거죽은 왜 그리도 모질게 얼어붙어 있었는지 도끼로도 총창으로도 도저히 흙을 뚜져낼 수가 없어 우리는 최금산을 맨눈을 덮어 안장하였다. 훗날에라도 그를 다시 온전히 묻어주고 싶어 표적을 해두었다.

눈이 다 녹은 다음 무송원정을 총화하고 백두산쪽으로 다시 나갈 때 나는 부대와 함께 최금산을 안장하였던 그 장소로 찾아갔다.

우리는 동강밀영에서 마련해가지고 온 새 군복을 그에게 갈아 입히고 양지바른 땅속에 그를 온전히 안장해주었다. 무덤앞에는 몇 그루의 진달래도 떠다 심었다. 그가 죽어서라도 그 꽃나무에서 조국의 향기를 맡게 해주고 싶었다. 이국에서 자란 꽃나무에서 조국의 향기를 맡게 해주고 싶었다. 이국에서 자란 꽃나무일 망정 그 향기야 무엇이 다르겠는가. 진달래는 그가 가장 사랑하던 꽃이었다.

(금산아, 잘 있거라! 우리는 또다시 백두산으로 나간다. 이번 여름에는 네가 소망하던 대로 부대를 데리고 기어이 조국으로 진군하련다. 조국에 나가면 너의 원수를 백 배, 천 배로 갚아 주마.)

나는 마음속으로 최금산과 이런 말을 하며 그의 영전에 작별인사를 남기였다. 그때의 정경을 회고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난다. 그가 살아있다면 지금 백학림의 나이만큼 되었을 것이다.

1937년 봄 무송원정때 우리는 아까운 전우들을 많이 잃었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이라는 노래의 구절과도 같이 우리는 그때 가는 곳마다에서 피를 흘리었다. 우리앞에 놓인 한치한치 피로써 헤쳐나갔다.

이 글에서 나의 전우들이 발휘한 그 빛나는 위훈과 그들이 바쳐온 노고를 그대로 실감있게 그려내지 못하는 것이 유감스럽다. 하지만 붓이 아무리 무딘들 정성이야 다 고이지 못하겠는가. 무송의 그 험한 영과 골짜기에서 조선을 끝까지 찾아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우리의 곁을 떠나간 전우들, 죽으면서도 나에게 건강하십시오, 잘 싸워주십시오 하고 미소를 보내던 사랑하는 전우들의 영전에 비문을 쪼아박는 심정으로 나는 이 글을 쓴다.


백두밀영을 목숨으로 지켜내는 최금산
(예술영화 - 민족의 태양)

2. 소탕하에서의 일행천리


소탕하

만강부근에서 여러 차례의 격전을 치른 다음 우리는 부대를 이끌고 양목정자밀영으로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었다.

양목정자는 시난차에서 노령으로 올라가는 산중턱에 있었다. 이 지명은 버들이 많은 고장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영으로 올라가는 오솔길 좌우에 밀영이 각각하나씩 있었는데 한쪽 밀영을 동양목정자밀영이라 하였고 다른쪽 밀영을 서양목정자밀영이라 하였다. 우리가 먼저 간 밀영은 서양목정자밀영이었다. 그 밀영에 바로 유참모부대가 있었다. 동양목정자밀영에서 남쪽으로 고개 하나를 넘어가면 얼마 멀지 않은 곳에 고려보자밀영이 있었다. 노령을 중심으로 하여 삼각으로 놓여있는 이 세 밀영을 통칭하여 사람들은 양목정자밀영이라고 한다.

양목정자밀영은 창설 후 여러 해 동안 이용해오다가 임수산이 ≪토벌대≫를 끌고와서 대규모적인 습격을 감행한 1940년 3월에 폐영되었다. 그 ≪토벌≫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밀영은 불타버렸다.

양목정자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고장이다. 여기서 나의 전우이며 믿음직한 조언자인 리동백이 희생되었다. 경위중대의 중대장으로 있던 이달경이 중상당한 몸으로 담가에 실려 왔다가 희생된 곳도 이 밀영이었다. 우리가 ≪서광≫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라는 논문을 발표한 고장도 다름 아닌 양목정자였다. 우리는 이 밀영에서 위증민을 비롯한 군부간부들과 여러 번 만나 연합작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논의하였다.

나는 양목정자밀영에서 1937년 여름의 조국진군과 관련된 작전적 구상을 무르익혔고 그 준비를 다그치였다.

국내진공을 준비하는데서 중요한 한 고리가 후방물자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나는 양목정자에서 오중흡을 책임자로 하는 소부대를 편성한 다음 그들을 김주현이 기다리고 있는 장백으로 파견하였다.

이 소부대에는 재봉대의 여대원들과 동상자들, 허약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 사람당 하루에 강낭죽 한 그릇도 차례지지 못하는 고달픈 설상행군에 비하면 그래

도 장백에 나가서 후방물자를 마련하는 일이 한결 헐할 수도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후방물자 공작을 위한 소부대와 함께 서간도일대와 국내에 침투하여 활동하게 될 정치공작원들도 파견하였다.

그 후 원정부대는 적들을 유인분산시키고 식량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목정자를 떠나 소탕하의 밀림속에 있는 4사 후방 밀영으로 찾아갔다. 그 밀영에는 술통, 귤상자, 사과상자 같은 것도 있었다. 4사의 전우들은 정안군을 치고 빼앗은 전리품이라고 자랑하였다. 그 전리품 중에는 기관총도 3정이나 있었다.

4사 동무들은 우리에게 이틀 분의 식량으로 될만한 강냉이를 퍼주었다. 부대가 4사밀영을 떠날 때 몇 동무들이 비로까대를 구슬려서 술통도 하나 메왔다.

나는 술통을 보자 금주령을 내리었다. 우리는 원래 술과 담배를 장려하지 않았다. 그 두 가지가 다 군사활동에 지장을 주는 때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해였던가 잘 기억되지 않으나 행군을 하다가 혼란에 빠진 일이 있었다. 쉴참에 인원을 점검해보니 2명이 행방불명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찾기 시작하였다. 나중에 알게된 일이지만 두 대원은 행군도중에 슬그머니 음식점에 새여들어가서 술을 마시었던 것이다. 물론 그들은 비판을 되게 받았다.

술통을 보자 능구랭이들은 날씨도 추운데 한 대포하자고 이동학중대장을 구슬리기 시작하였다.

이동학은 자기 둘레를 맴돌며 검질기게 달라붙는 그들의 간청을 막아낼 수 없었다. 그는 통에서 술을 뽑아 대원들에게 한잔씩 골고루 권하였다.

≪사령관동지 모르게 한 모금씩만 마시자. 한 모금쯤이야 일없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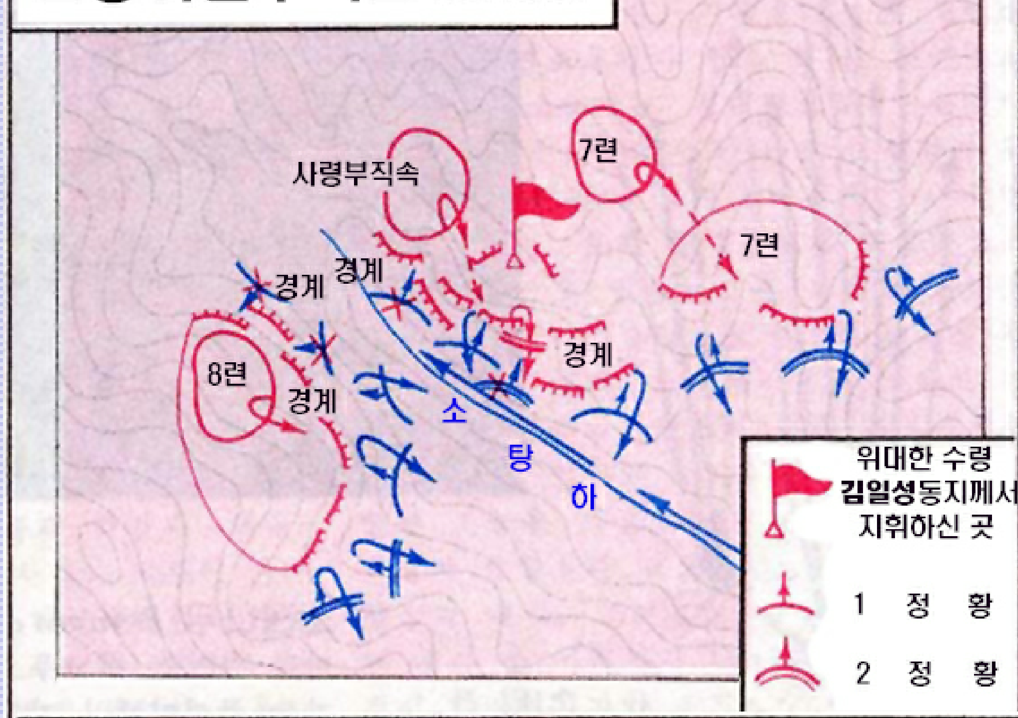
이렇게 되어 그날 경위대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원 술을 마시게 되었다. 다른 중대들에서도 다 술을 마시었다. 어쨌든 이 황당한 평균분배로 하여 우리는 소탕하전투에서 큰 낭패를 볼번하였다.

이동학의 경력 가운데서 과오가 있었다면 아마 그날의 과오가 제일 엄중한 것이었으리라고 생각한다.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진 사람들이 술을 마셨으니 취기가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다가 그날은 보초병도 규정을 어기고 경솔하게 행동하였다. 그날 아침 숙영지어귀에서 보초임무를 수행한 것은 8연대 대원이었다. 그가 보초를 서고 있을 때 숙영지로 수백 명의 위만군들이 포위해 들어오고 있었다. 보초는 인기척 소리를 듣고 ≪누구야?≫하고 소리쳤다.

그런데 그 보초에게 걸려든 위만군이 능청스러웠다. 그가 ≪우리는 4사부대이다. 너희들은 **김**사령부대가 아니냐?≫하고 말하는 바람에 얼떨떨해진 보초는 그들을 4사부대라고 속단하고 ≪그렇다. 너희들은 어디서 오는 길이야?≫하고 묻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노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의 친필원고 (1937.11.10)



까지 하였다. 이러는 사이엔 위만군 ≪토벌대≫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포위환을 바싹 조이었다.

위만군은 보초에게 너희가 정말 **김**사령부대라면 대표를 보내라고 하였다. 인민혁명군이 인접부대를 만날 때 대표를 보내는 것은 원래 규정에도 없는 것이였다. 그러나 8연대 보초는 위만군측에 자의로 대표를 한 사람 보냈다. 능선을 다 차지한 적들은 그 대표를 체포하고 무장해제까지 시킨 다음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렇게 되어 얼마동안 우리는 피동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전투정황을 유리하게 역전시킨다는 것은 조련치 않았다. 적들은 벌써 사령부가 자리잡고 있는 능선에까지 기여오르고 있었다. 나는 전부대에 고지를 차지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동학이 대원들에게 술을 먹인 후과가 나타난 것이 이때였다. 나는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도 인차 고지에 오르지 못하고 기슭에서 어물거리는 대원들을 여러 명 보았다. 후에 알아보니 그들은 다 술을 마실 줄 모르면서도 무턱대고 받아 마신 사람들이였다. 경위중대 기관총수였던 강위룡도 그들 중의 한 사람이였다. 내가 고지를 빨리 차지하라고 여러 번 고함을 쳤지만 그는 계속 아래에서 뭉개고만 있었다. 훗날 그가 고백한데 의하면 술기운 때문에 다리가 떨리고 눈앞이 어질어질해서 도무지 발을 옮겨 놓을 수 없더라는 것이였다. 기관총수가 그 지경이니 나도 어지간히 당황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적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나니 고지우에서는 혼전이 벌어졌다. 이동학의 배낭은 적의 몰사격에 여러 군데 찢기우고 한 대원은 적탄에 한쪽 귀가 떨어져나갔다.

설상가상으로 김택환이 지휘하는 7연대 2중대는 아직 포위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도 경위중대는 기관총수들이 그날 은을 내었다. 기관총수들은 위치를 자주 옮기면서 적들에게 맹사격을 들이대였다. 그러는 사이에 8연대가 포위에서 빠져나왔다. 김택환이네 중대도 한 개분대를 잃기는 하였으나 혼전속에서 구출되였다.

전투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이 전투에서 우리는 수백 명의 적을 살상하고 많은 전리품을 노획하였다. 싸움에서 이기기는 하였으나 그 전투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아픈 상처를 남기였다. 우리측에서도 손실이 적지 않았다. 김산호는 대원들을 구출하느라고 사방으로 뛰어다니다가 여러 발의 적탄을 맞았다.


김산호

그는 마지막 순간에 창격전의 명수인 김학률을 불러 돌격로를 개척하라고 명령하였다.

김학률은 신창동에서 한태룡과 함께 입대한 힘장사였다. 기운도 세지만 대바르고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는 성시 습격전투를 할 때마다 앞장에서 돌격로를 개척하였으며 전투가 끝난 다음에는 쌀창고나 후방물자창고를 헤치고 선참으로 무거운 짐짝들을 매내군 하였다. 언제인가는 100키로그램짜리 쌀포대를 단꺼번에 2개나 메고 나와 전우들을 놀라게 한일까지 있었다. 눈속에 굴을 뚫고 전진할 때에도 선두에는 언제나 그가 서있었다.

명령을 받은 김학률은 적들의 무리속에 뛰어들어 육박전을 벌이었다. 그는 총창으로 여라문명 되는 적병들을 찔러 눕히었다. 그러는 과정에 여덟군데나 부상을 당하였다. 참으로 불사신같은 사람이었다. 김학률은 창격전을 할 수 없게 되자 수류탄으로 적들을 족치였다. 그러다가 마지막 한 발의 수류탄을 안고 적들의 무리속으로 굴러들어갔다. 요란한 폭음이 고지를 흔들어 놓았다. 전우들은 모두 입술을 깨물며 비통한 심정으로 그와 영결하였다.

가장 큰 손실은 8연대 정치위원 김산호를 잃은 것이었다.

김산호는 오가자 시절부터 나와 여러 해 동안 고락을 같이해온 사람이었다. 우리는 보통사람들이 혁명을 통해 얼마나 비약적으로 발전하는가를 말할 때마다 그 전형적인 실례로 김산호를 들군하였다. 그리하여 ≪머슴군으로부터 연대정치위원으로!≫라는 말은 혁명이 보통사람들의 발전과정을 얼마나 강력하게 추동하며 노동자, 농민 출신의 평범한 근로청년들이 혁명의 와중에서 정치사상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나 문화도덕적으로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 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도표와도 같이 되어왔었다.

김산호의 죽음 때문에 나는 그날 저녁식사를 하지 못하였다.

대원들이 우등불을 피워놓고 ≪사령관동지!≫, ≪사령관동지!≫하면서 나를 찾았으나 나는 불길에도 다가가지 않았다. 온몸이 그대로 얼음덩어리가 되어 눈속에 묻혀있을 김산호를 생각하니 불을 보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는 것 같은 심정이었다.

8연대장 전영림도 그날은 나처럼 저녁식사를 하지 못하였다. 김산호가 조선사람이고 전영림이 중국사람이었지만, 국적의 차이가 그들의 혁명적 우정을 방해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전영림은 언제나 김산호의 의사를 존중하였고 김산호는 항상 뒤에서 전영림의 일을 성심으로 떠밀어주었다.

전영림이 김산호의 죽음을 두고 얼마나 슬퍼하였던지 그의 부하들도 전원이 단식하였다. 김산호와 김학률의 도움으로 포위에서 구출된 대원들은 자기들을 사지에서 끌어낸 생명의 은인들과 희생된 전우들을 생각하며 끝내 식사를 하지 않았다.

싸움이 끝난 다음에도 적들은 철수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분명 병력을 증강하여 포위망을 완성한 다음 우리를 소탕하골안에 몰아넣고 전멸시키려고 하는 것 같았다. 자칫하다가는 그 포위망에 빠져 오도가도 못하고 녹아날 수 있었다. 이런 때일수록 주동에 튼튼히 서서 적을 피동에 몰아넣는 것이 유격전이 요구였다.

나는 부대를 수림 속 멀리로 철수시키는 척하다가 은밀히 되돌아와 우리가 싸우던 전장을 차지하고 거기서 하루밤을 숙영하게 하였다. 제자리를 뱅뱅 돌면서 적을 혼란에 빠뜨리는 우리 식의 고유한 전술이었다.

우리가 이런 눈속임을 하고 있는 사이에 적들은 적들대로 우리의 결판을 준비하느라고 병력을 계속 투입하고 있었다.

아마 적들도 그 봄에는 ≪동기대토벌≫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사생결단을 하기로 결심한 것 같았다. 적들은 소탕하골안으로 끊임없이 밀려들고 있었다. 마치도 만주땅에 있는 무력은 다 골안으로 밀려오는 것만 같았다. 날이 어두워진 다음 장대에서 평지를 내려다보니 소탕하 수십리골안에 난데없는 우등불의 바다가 펼쳐지었다. 대도시의 야경을 방불케하는 광경이었다. 우리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적의 불무지들이었다. 그 많은 불무지들을 방향별로 대충 세여 보게 하고 불무지당 병력수를 추산해 보았더니 수천 명에 달하는 놀라운 병력이 산출되었다.

불의 바다를 바라보는 대원들은 다들 표정이 굳어졌다. 이제는 소탕하의 골안에서 최후를 각오해야 한다는 비장한 생각들이 든 것이 틀림없었다.

≪사령관동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사전을 준비하는게 어떻습니까?≫

7연대장 손장상이 내곁에 다가와서 비장하게 하는 말이었다. 다른 지휘관들도 꼭 같은 표정들이었다.

손장상의 ≪결사전≫이라는 말은 어쩐지 내귀에 공허하게만 들리었다. 500명도 못되는 적은 역량으로 수천 명의 적과 결사전을 벌인다는 것은 털어놓고 말해서 자포자기적인 만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었다.

결사전을 해서 우리가 다 죽더라도 그 덕으로 내일 당장 혁명이 승리하게 된다면 어찌 그것을 마다하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일단 시작한 혁명을 성공에로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었다.

≪동무들, 살아남는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살아서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 우리앞에는 국내진공작전이라는 큰 과제가 놓여있다. 이것은 시대와 역사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성스럽고도 영예로운 과제이다. 이런 대사를 눈앞에 두고 우리 어찌 죽음의 길을 택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모두가 살아서 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조국으로 반드시 진출해야한다. 그러니 난국을 타개할 길을 생각해보자≫

≪사령관동지, 용수도 정도가 있지 이런 함정속에서 어떻게 솟아나겠습니까?≫

손장상은 여전히 사태를 파국적인 것으로만 보고 있었다.

전부대가 명령을 기다리며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사령관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힘든가를 그때처럼 뼈에 사무치게 절감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나는 크고 작은 우등불로 가득차있는 골안을 굽어보면 포위망을 뚫고나갈 묘책을 궁리하였다. 문제는 어느쪽으로 어떻게 뚫고나가 적의 포위를 멀리 벗어나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만일 소탕하 골 안에 널려있는 ≪토벌대≫의 병력이 수천 명을 추산된다면 적의 후방은 지금 텅비어 있을 것이다, 적들은 우리가 포위환을 벗어나는 경우 분명 더 깊은 산속을 빠지려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적의 포위가 비교적 약한 큰 길쪽에 붙어서 살짝 빠져나가는 것이 상책이다. 그 다

음에는 큰길을 따라 일행천리하자, 이러한 생각이 내머리에 떠올랐다.

나는 즉석에서 명령을 내리었다.

≪동무들, 죽기를 각오하는 것은 좋으나 그 누구도 죽어서는 안된다. 우리에게는 살길이 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소탕하의 수림지대를 버리고 주민지구로 나가야한다. 주민지구에 나가서 큰길을 따라 동강쪽으로 행군하자는 것이 나의 결심이다≫

지휘관들은 ≪큰길≫이라는 말에 일제히 고개를 쳐들었다. 이동할 때 은밀성을 보장하는 것은 유격대의 활동에서 철칙으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적들의 대병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때에 주민지대에 나가 대도로를 따라 행군하라고 하니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

손장상이 내 곁에 다가와 지나친 모험이 아닌가고 불안스럽게 말했다. 그가 나의 탈출작전을 지나친 모험이라고 우려한 것은 공연한 것이 아니었다. 어느모로 보든지 그것은 모험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아슬아슬한 작전이었다. 왜냐하면 적들이 큰길을 지키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저들의 후방에 일정한 병력을 남겨놓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원래 항일무장투쟁 초기부터 군사모험주의를 반대해왔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하였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는 발을 들이밀지 않았다. 우리가 모험에 매달린 것은 피치 못할 경우뿐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실행한 모험은 어느 것이나 다 성공을 전제로 한 모험이었으며 우리의 힘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한 그런 모험이었다.

백 번 하면 백 번 다 과녁을 명중하는 성공적인 모험, 그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과 투지와 용기를 가져야만 단행할 수 있었다.

내가 소탕하의 장대우에서 결심한 주민지대에로의 탈출과 대로행군은 전술은 승산이 확실한 모험이었다. 내가 그것을 승산이 확실하다고 본 것은 바로 그 모험속에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고 피동에서 주동으로 넘어가려는 우리 식의 투철한 공격정신이 깃들어있고 적의 약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한 과학적인 타산이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싸움이란 결국 지혜와 지혜의 대결인 동시에 신념과 신념의 대결, 의지와 의지의 대결, 용기와 용기의 대결이기도 하다.

적들이 소탕하일대에 수천 명의 병력을 집결시킨 것은 수적인 우세에 의한 대규모적인 인해전술로 우리를 포위서 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인해전술에 의한 대포위전은 그들이 혁명군을 ≪토벌≫할 때마다 항용 쓰는 상투적인 수법이었다. 적들은 이미 세상에 수백 번도 더 알려진 그 진부하고 판에 박힌 전술로 우리를 전멸시키려고 하였다. 적들이 믿는 것은 오직 수천 명이라는 그 방대한 수자뿐이었다. 바로 여기에 그들의 전술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제한성이 있었다.

적들은 소탕하 수십리골안에 우등불의 바다를 펼쳐놓음으로써 자기들의 역량이 얼마만큼 된다는 것과 어떤 전술로 인민혁명군을 섬멸하려 한다는 것을 죄다 노출시키였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작전문건을 탈취당한 것과 같은 실수를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실수로 하여 그들은 벌써 우리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셈이었다.

나는 우리가 반드시 안전지대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였다. 그래서 손장상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에게 미소를 지어보이었다. 그리고는 지휘관들을 향해 말하였다.

≪...적들은 지금 이곳에 수천 명의 병력을 집결 시켰다. 이것은 그들이 소탕하주변은 물론, 무송일대의 모든 주민 거주지들에 널려있던 군대와 경찰들만이 아니라 자위단 무력까지 깡그리 긁어모아가지고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즉 이 마을과

대로들은 텅 비여있을 것이다. 적들은 현재 밀림속에만 주의를 돌리고 있다. 우리가 설마 대도로로 빠지리라고는 상상도하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 바로 적들의 빈구석이 있다. 우리는 그 빈공간을 이용하여 동강밀영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그때 내가 한말과 나의 행동거지가 아마도 퍽 여유작작했던 것 같다.

지휘관들의 얼굴에는 비로소 화색이 돌았다. 그들은 신바람이 나서 대열에 출발구령을 주었다. 먼저 8연대가 골짜기로 내려갔다. 그 뒤를 경위중대가 따르고 7연대가 따랐다. 행군종대는 불무지들을 피해가며 큰 길쪽으로 소리없이 움직이었다. 집단의 생사를 판가리하는 복잡한 정황이나 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지휘관이 취하는 자세와 개개의 언행이 전 대오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그때 나는 크게 절감하였다. 지휘관이 태연하면 전사들도 태연하고 지휘관이 당황해하면 전사들도 당황해하는 법이다.

예견했던 바대로 신작로에는 개미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않았다. 마을어귀에 불무지 자리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궤도우를 질주하는 급행렬차처럼 여러 개의 마을들을 거침없이 통과하면서 동강으로 행군하였다.

우리는 총한방 쏘지 않고 텅빈 적구를 무사히 통과하였다. 우리가 총을 쏜 것은 단 한 번 8연대 대열이 두 부분으로 갈라져서 서로 뿔뿔이 행군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였다. 두 토막으로 갈라진 앞대열과 뒤대열사이의 거리는 500미터도 더 되었을 것이다. 마을과 대로들을 지나는 사이에 우리의 대원들은 긴장을 늦추기 시작했던 것이다. 8연대 대원들 중에는 졸면서 행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나는 후위에 있는 지휘관을 시켜 총을 한 방 쏘게 하였다. 그 총소리가 울린 다음부터 행군속도는 곱절 빨라졌다. 걸으면서 조는 사람도 더는 나타나지 않았다.

소탕하에서 실현한 대로행군전술을 우리는 훗날 조국에 나와서 베개봉을 떠나 무산지구로 진출할 때에도 적용하였다. 그 전술을 일행천리전술이라고 한다.

훗날 잡지 ≪철심≫을 보고 요해한데 의하면 적들은 소탕하전투때 일본, 만주국, 독일, 등 3국의 기자들로 구성된 기자단까지 끌고 왔다고 한다. 기자들이 종군을 하는 것은 어느 전쟁에서나 볼 수 있는 예상사이지만 만주에서 수천수만 리나 떨어져 있는 나치스독일의 기자까지 전장에 굴러온 것을 보면 일본의 ≪토벌≫전문가들이 무송지구작전에 상당한 의의를 부여했고 또한 그들이 이 작전을 다이긴 싸움으로 치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철심≫에 실린 ≪동변동토비행≫이라는 기사에 의하면 이 기자단은 일본의 주요신문들인 ≪도꾜니지니찌신붕≫, ≪요미우리신붕≫, ≪호찌신붕≫의 기자진과 함께 신경방송국 성원들과 만주국의 외교부 관리들, 나치스독일의 국가통신사 통신원인 요한 네벨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야말로 일, 독, 만 출판보도계와 언론계의 연합진에 외교관들까지 합세한 어마어마한 참관단이었다. 아마도 적들은 무송지구 ≪토벌≫작전을 전세계에 자랑할만한 시범작전으로 판단하고 이 작전에서 달성하게 될 저들의 ≪혁혁한 전과≫를 만천하에 널리 소개하고 싶은 열의로 퍼그나 들떠있었던 것 같다.

때를 같이하여 만주국 군정부 군사조사부 핵심간부 와시자끼와 사무관 나가시마, 안동특무기관단장 다나까도 현장에 출두하였다. 그들도 그 해 봄에는 무송의 험산준령과 골짜기들에서 일본군이 인민혁명군을 전멸시키고 ≪동양평화의 암≫을 영원히 근절시키게 될 것이라는 망상에 잠겨 있었을 것이다. 와시자끼는 만주지방의 공산주의운동 실상에 정통한 인물이었고 그것을 박멸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서 주동적 역할을 한 간단치 않은 모사였다. 그는 ≪만주공산비의 연구≫라는 비밀도서의 주간 집필자로서 만만치 않은 필력도 가지고 있었다.

조국해방 전쟁(1950-1953) 말기 이승만이 정형고지라는 자그마한 고지에서의 싸움을 구경시키려고 술한 외국기자들을 끌어들인 일이 있는데 그 보고를 받고 나는 무송원정시절을 새삼스럽게 회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승만의 경망스러운 행위와 일본의 ≪토벌≫계의 우두머리들의 허장성세에는 어딘가 모르게 일맥상통한 점이 있었다.

상대방을 깔보고 자기를 과대평가하는데서 히틀러나 도죠나 무쏠리니나 이승만이는 매일반이었다.

기자단일행을 맞이한 ≪토벌≫사령관은 자기 부대들이 산에서 순수한 **김일성**공군과 조우했는데 **김일성**은 30살도 안되며 모스크바 공산대학에서 훈련을 받았고 500명이 되는 병력을 가지고 있은 동변도에서 첫째가는 큰세력이지만 ≪지금은 자루안에 든 쥐신세≫ 라고 뽐냈다. 그는 독일말을 아주 유창하게 했는데 나치스 통신원에게 통역을 거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그 당시 일본신문들은 내가 모스크바공산대학을 졸업했다고 굉장히 떠들었다. ≪자루안에 든 쥐신세≫라는 ≪토벌≫사령관의 말에 기자단일행은 환성을 울리었다.

그러나 우리 주력부대가 쥐도 새도 모르게 포위망을 돌파하여 종적을 감추게 되자 ≪토벌≫사령관은 다시 기자단앞에 나타나서 공산군은 300명 정도인데 다 도주했다고 하고는 ≪포로병≫한 명을 궁색스럽게 보여주면서 그를 취재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기자단이 취재한바에 의하면 그 ≪포로병≫이라는 군인은 통화에서 위만군에 복무하다가 얼마전에 혁명군편으로 넘어왔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서 히죽히죽 웃고 있더라는 것이였다. 솔직히 말하건데 우리는 그때까지 통화계선에 나간 일이 없었다.

연극도 분수가 있지, 기자단이 얼마나 아연실색했겠는가 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소탕하의 수해속에 적들이 펼쳐놓았던 우등불의 바다는 우리에게 비단 대로행군 전술만 착안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국경일대에 집결되어있던 적들을 무송쪽으로 끌어오자던 원정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달성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인민혁명군이 수천 명에 달하는 대병력의 포위를 성과적으로 돌파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는 통보를 받은 적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적들은 혁명군의 행방을 가늠하지 못하여 갈팡질팡하였다. 적 사병들속에서는 여러 가지 요언들이 유포되었다. ≪유격대의 전술은 귀신도 곡할 전술이다.≫, ≪조선빨치산에는 제갈량을 찜쪄먹을 도사가 있다.≫,≪조선인민혁명군이 수 년 내에 서울도 치고 도꾜도 친다더라.≫, 이런 말들이 민간에까지 흘러나와 농촌마실방에 모여드는 늙은이들의 화제거리로도 되었다. 이 행군을 통하여 우리 부대에 대한 민화와 전설은 더욱 풍부해졌다.

두도령에서 동강부근가지의 행군 역시 심한 식량난을 동반하였는데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일행천리하여 동강 가까운 밀림에 도착한 우리는 그곳에 한 달쯤 머물러있을 작정을 하고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공작에 착수하였다. 수백 명이 한 달동안 먹을 식량을 마련한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데 예상외로 우리에게 식량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게 되었다. 밤중에 보초임무를 받고 망원초로 나갔던 대원들이 우연히 초소 가까이에서 강냉이 밭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전해에 심어놓고 수확을 하지 않아 밭에는 겨울난 강냉이들이 그대로 있었다. 백두산주변의 심산들에는 그런 밭들이 적지 않았다.

며칠째 낟알 구경을 하지 못하고 겨와 맹물로 연명을 해온 보초병들은 부대의 동료들을 생각하여 돌아올 때 강냉이를 따가지고 왔다. 그런데 그들은 밭임자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밭임자가 나타나지 않은데다가 그가 어디에서 사는지 알 수도 없었고 보초교대시간이 되어 알아볼 경황도 없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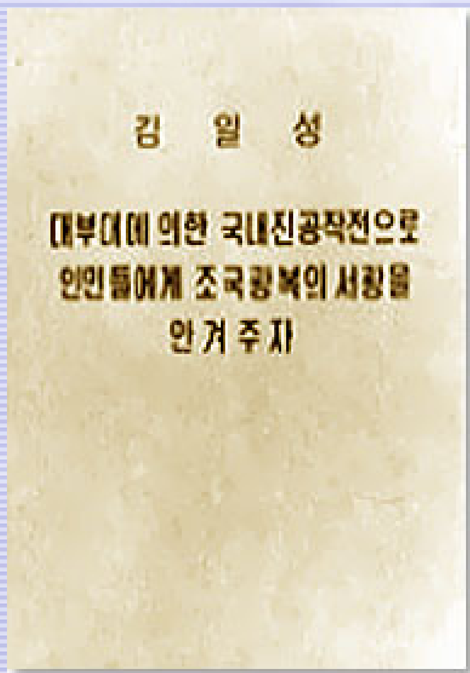
나의 엄한 꾸중을 듣고 주인을 찾아 떠났던 보초병들은 몇 시간 후 머리가 하얀 중국노인 한분을 데리고 내앞에 나타났다.

나는 부대를 대표하여 그 노인에게 사죄하고 현금 30원을 내놓았다. 그러자 그 노인은 펄쩍 뛰면서 강냉이, 몇 배낭이 무엇이기에 대장이 이 하찮은 늙은이에게 그런 사죄를 다하는가, 토비군이 먹는 것은 아까와도 혁명군한테서 먹는 것은 아깝지 않다. 강냉이 얼마 때문에 혁명군한테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훗날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 사연을 알게 되면 나를 뭐라고 욕하겠는가, 나는 돈을 받을 수 없고 이 강냉이도 가져갈 수 없다고 하였다.

나는 노인에게 강냉이는 노인네 밭에서 따온 것인만큼 응당 받아야하는 것이고 돈도 손해를 끼친 대가로 무는 것이니 받아야한다고 하였다.

내가 양보를 하지 않고 완강하게 고집하는 바람에 노인은 마지못해 돈과 강냉이 배낭들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갔다. 그 늙은이는 자기를 마을까지 호송해주려고 따라가는 우리 대원들에게 방금 전에 자기를 만난 대장이 누구인가고 물었다.

우리 대원들은 **김일성**장군이라고 사실대로 말해주었다.


김 일 성

대부대에 의한 국내진공작전으로 인민들에게 조국광복의 서광을 안겨주자

서강회의에서 하신 연설

그러자 노인은 자기가 오늘 평생 씻지 못할 대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그는 마을에 돌아가자 일가 친척들을 동원하여 우리 보초병들이 강냉이를 따온 그 밭에서 강냉이를 모조리 따서 발구에 싣고 다시 나를 찾아왔다.

≪내 오늘 **김**대장을 만나보고 몹시 감복되었습니다. **김**대장이 저 같은 백성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니 이 늙은 것은 황송하기만 하외다. 인정으로 갚는 것이니 저 발구의 강냉이를 사양 말고 받아주시오.≫

이번에는 노인의 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가 가져온 강냉이덕으로 우리는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그 노인은 나에게 식량을 구할 수 있는 통로까지 대주었다 만강 물곬을 따라 20리쯤 내려가면 양삼포전이 있는데 그 포전 주인들과 교섭을 하면 알도리가 있다고 하였다. 늙은이의 말에 의하면 그 양삼밭자리에 콩과 강냉이를 심었으나 주인들은 자기네처럼 가을을 하지 않고 곡식을 세워둔채 밭을 통채로 팔아버리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김**장군부대에서 요구한다면 자기가 직접 나서서 흥정을 해볼 용의가 있노라고 하였다.

나는 전령병을 한 명 붙여 그 노인을 양삼밭이 있다는 곳으로 보냈다. 전령병은 뜻대로 락착을 볼 것 같다는 소식을 가지고 부대로 돌아왔다.

우리는 경위중대와 7연대에서 건장한 대원 몇 사람을 골라 양삼포전으로 보냈

다. 식량공작대가 식량공작을 하는 동안 부대는 얼마동안 강냉이로 끼니를 이었다. 며칠 후 공작대에 망라된 경위대원들이 대두박을 지고 부대에 나타났다. 그것은 양삼포전 주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였다. 우리는 그 대두박을 생것채로도 먹고 찌어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었다.

대두박을 지고온 대원들의 말에 의하면 양삼포전 주인들은 혁명군이 식량 때문에 고생한다는 말을 듣자 심심한 동정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양삼밭자리에는 콩과 강냉이를 심었는데 아직 수확을 하지 않은 곡식들이 그대로 밭에 있더라는 것이였다. 그것은 우리 부대의 한 달분 식량을 대고도 남을만한 량이였다. 식량공작대원들이 그 곡식을 팔라고하자 양삼밭 주인들은 **김일성**장군의 부대를 돕는 일인데 어찌 돈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콩과 강냉이가 없어도 살수 있으니 다 가져다 먹으라고 하였다.


서강회의 장소
(무송현 양목정자)

그러나 7연대의 식량공작대원들은 그들에게 억지로 돈을 떠맡기고 밭곡식을 통채로 샀다.

우리는 저녁식사를 끝낸 다음 인차 양삼포전으로 강행군을 하였다. 포전에 도착하자 전부대가 달라붙어 강냉이도 따고 콩도 거두었다. 강냉이는 이삭채 따서 보관하고 콩은 포기채로 거두어 마당질을 하였다. 도리깨가 없는 마당질이여서 몽둥이로 치기도 하고 발로 밟기도 하였다. 콩과 강냉이를 합쳐서 셈하니 수십섬이 되었다.

나는 양삼포전주인들을 만나 고맙다고 인사하였다.

선량한 양삼포전 주인들은 우리가 한달 동안 먹고도 남을만한 소금까지 져다 주면서 더 잘 싸우라고 고무해주었다.

우리는 식량문제가 해결되자 부대를 이끌고 동강밀영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장백지구를 떠날 때부터 우리가 군정학습터로 내정해두었던 지점이었다.

나는 이미 그 전 해 봄과 여름에 허락여노인을 통하여 동강의 밀림속에 어느 한 지점에 가면 옛날에 고려보자 또는 고려보자라고 부르던 마을터가 있으며 그 마을터에 우리 선조들이 무예를 익히던 보루의 주춧돌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었다. 허락여노인은 말하기를 자기가 만강의 화랍자마을에 이사짐을 풀어놓았던 10대의 소년시절에만 해도 고려보자주변에는 순조선사람들만 사는 마을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곳의 화전들은 땅이 걸어서 곡식도 아주 잘되었다고 하였다.

청일 전쟁과 러일전쟁의 여파가 백두산 기슭에까지 미칠 때 일본군대가 고려보자에까지 나타나 마을사람들에게 함부로 난도질을 해댄적이 있었다. 그때 격노한 마을의 청장년들은 활과 창과 석전으로 왜적을 쫓아냈다고 한다. 고려보자가 홍범도부대의 련병장으로 이용될 때에는 이 마을 청년들이 대부분 그 부대에 입대하여 교련을 받았다.

경신년 대≪토벌≫은 고려보자를 폐허로 만들어 버리었다. 마을은 모조리 불타서 재가 되고 보루는 폭파되고 주민들도 전멸되다싶이 하였다. 천행으로 살아남은 얼마안되는 사람들마저 밀림속에 숨어서 은거생활을 하다가 몇 해전에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져가다보니 옛 고려보자에는 인적이 끊어졌다는 것이다.

허락 여촌장한테서 이런 예비지식을 얻은 다음 지도를 펼쳐 보았더니 과연 고려

보자라는 지명이 있었다.

백두산을 중심으로하는 100리 안팎에는 고려보자라는 이름을 가진 고장이 한둘만 있는 것이 아니였다. 그런 이름을 가진 마을은 임강에도 있었고 장백에도 있었다. 안도현에는 고려위자라는 곳이 있었다. 그것은 고려사람들의 보루가 있는 고장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지명이였다. 백두산의 동쪽과 남쪽 지대에는 요와보, 보천보, 나난보, 신무성, 창평, 창동, 혜산진, 신갈파진 등등의 이름을 가진 곳들이 또한 많은데 그 지명들이 담고 있는 뜻이 말해주는 것처럼 옛날에 보루나성, 혹은 군수창고나 파수병들이 지키는 나루터가 있었던 고장이였다. 이것은 고려시기나 고구려시기는 말할 것도 없고 고조선시기부터 벌써 우리 조상들이 백두산주변의 여러 처소들에 성과 보루를 쌓고 국방에 힘써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허노인의 이야기를 듣고나서 애국 선열들이 축성한 옛보루와 그들이 겪어온 고난의 자취가 어려있다는 동강밀림속의 그 지점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다.

고려보자의 옛마을 자리를 찾아간 우리는 양삼배자들이 사용하다가 비우고 갔다는 두 채의 빈집을 발견하였다. 무송지방에는 산에 들어와서 인삼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 중에는 추운 겨울이 오면 도시근처에 있는 자기네 마을에 가서 지내다가 여름 한철만 산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가 발견한 두 채의 빈집은 과송산이라는 꼭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산기슭에 있었다. 과송산이란 잣나무가 많은 산이라는 뜻이다. 잎이 5개씩 한묶음으로 달려있는 소나무라는 뜻에서 오엽송이라고도 부르는 이 잣나무를 무송사람들은 한자말로 과송산이라고 불렀다. 동서량쪽에 쌍둥이처럼 사이좋게 마주서있는 두 과송산에는 이름 그대로 잣나무가 많아 고산지대의 웅건장중한 풍치에 호방한 맛을 보태어주었다.

우리는 두 채의 빈집을 수리하고 거기서 정치학습과 군사상학을 진행하였다. 연병장은 동쪽 과송산의 밀림속 공지에 꾸리었다.

한 달분 이상의 식량을 장만하고 밀영에 자리를 잡게되자 적지 않은 대원들은 부대가 당분간 ≪장기휴식≫에 들어가게 되는 모양이라고 추측하면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그런 추측을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였다. 오랜 강행군과 격전의 후과로 하여 피로가 극한점에 달한 대원들은 누구나 다 휴식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휴식을 할만한 여유가 없었다.

우리는 대원들이 피로를 풀사이도 없이 동강밀영에서 중대 정치지도원급이상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무송원정을 총화하였다. 이 총화모임에서는 원정과정에서 발현된 옹간애병의 미거들이 널리 소개되고 앞으로의 활동에서 그런 미풍을 더욱 조장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었다.

이 모임에 이어 소집한 회의가 바로 항일혁명투쟁사에서 하나의 역사적 분기점으로 되는 서강회의이다. 회의는 서양목정자밀영에서 사흘동안 진행되었는데 2사와 4사의 간부들과 위증민, 전광을 비롯한 군부간부들도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국내진공작전방침이 토의되었다. 이 방침과 관련하여 내가 연설을 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모두 내가 내놓은 국내진공작전방안을 찬동하였다.

우리는 회의에서 국내진공작전과 관련된 매 부대들의 임무와 활동방향, 활동구역도 결정하였다.

그 회의 후 동강밀영에서 진행된 군정훈련의 전과정은 국내 진공을 위한 정치군사적 준비를 갖추는데 전적으로 바쳐졌다.

정치상학과정안에서 기본을 이룬 것은 조선혁명의 노선과 전략전술문제, 국제국내정세에 대한 강의였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대한 해설강의는 조선혁명에

관한 우리의 주체적 노선을 이해하는데서 큰 도움으로 되였다. 이 강의를 통하여 신입대원들은 백두산밀영에서 섭취한 지식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었다.

우리는 이때에도 독경식학습을 반대하였다. 그 대신 실천과 결부된 학습토론과 문답식학습을 적극 장려하였다.

사령부성원들과 군정간부들, 경위중대대원들에 대한 강의는 내가 직접 담당하였다. 나는 그때 혁명노선에 대한 강의와 함께 사회발전의 초보적인 원리도 강의해주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혁명가들과 영웅호걸들, 파시즘의 대표자들에 대해서도 강의해주었다. 국제정세에서 우리의 초점을 끈 것은 이디오피아와 이탈리아의 전쟁, 에스파니아인민전선군의 전과,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파쑈화에 대한 것이였다.


마동희

그 당시 적들의 잡지에는 히틀러가 지방 군시찰을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났었는데 나는 그 사진을 보이면서 히틀러의 위험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였다.

중국농민 동의 저명한 활동가의 한 사람인 방지민열사도 우리의 화제에 올랐다. 방지민의 영웅적 한 생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청강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동강군정훈련에서 모범으로 평가되였던 대원들가운데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은 마동희이다. 그는 열성도 높았지만 토론도 아주 잘하였다. 마동희는 이 동강군정훈련을 통하여 훌륭한 정치일군으로 성장하였다.

우리 선조들의 옛보루가 있었던 고려보자에서 어제날의 부대기농사군들과 날품팔이군들은 광복거사의 주공전선을 담당하게 될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훗날 항간에서는 우리가 백두산의 어느 한 깊은 곳에서 수많은 군사를 길러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것이 와전되여 어떤 고장에서는 우리가 백두산중의 깊은 동굴에서 훨훨 날아 다니는 장수 수만 명을 길러냈다는 전설까지 나돌았다. 그런 전설을 낳은 고장이 다름아닌 동강의 군정훈련터 고려보자였다.

동강군정훈련이 끝나가고 있던 1937년 5월초 우리는 밀영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내기관지인 ≪서광≫을 창간하였다. 신문의 제호에는 해방된 새날의 조국에서 살려는 우리 민족의 절절한 숙망과 그 새날을 기어이 앞당겨 맞이하려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결의가 힘차게 고동치고 있었다.

이 신문의 창간호를 세상에 낸 다음 우리는 인차 조국진군을 위해 동강밀영을 떠났다.


조선화 – 일제놈들이 유격구로 ≪토벌≫온다. 경각성을 높이자

3. 경위대원들


경위대원들과 함께

나는 생애의 많은 부분을 전장에서 보냈다. 항일전쟁 15년에 반미대전 3년을 합치면 스무해 가까운 세월을 포연탄우속에서 보낸 것으로 된다.

그런데 기적이라고 해야할지 천행이라고 해야할지 나는 단 한 번의 상해도 입지 않았다. 항일전쟁시기 유격부대들에서는 이신작칙을 몹시 강조하였다.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는 언제나 지휘관들이 서 있었는데 그들은 이신작칙을 하는데서 보람을 찾았다. 공격할 때에는 대오의 앞장에서고 퇴각할 때에는 대오의 뒤에 서서 전우들을 돌보는 것이 인민혁명군지휘관, 정치일군들의 기풍이 되고 도덕으로 되어있었다. 나도 역시 그 기풍과 도덕에 충실하려고 최선을 다하였다. 어떤 때에는 대원들을 구원하려고 탄막속에 뛰어들기도 하였으며 어떤 때에는 동무들의 권고를 마다하고 목숨을 내거는 모험도 서슴지 않았다. 기관총을 직접 틀어잡고 1선에서 적들과 치열한 화력전을 전개한적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하건만 나는 이상하게도 매번 무사하였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유격대지휘부는 중대장급 이상의 지휘관들이 돌격로의 앞장에서는 것을 삼가라는 원칙을 내놓았다. 우리 지휘관들이 그때부터 모험을 삼간 것은 사실이지만 위험한 고비에 맞다들 때마다 가슴을 내대고 위기를 타개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그 본성이야 어디에 가겠는가.

조선전쟁때에 미국사람들은 우리를 해치려고 무척 많은 화약을 소비하였다. 가령 우리 당 지도부에 앉아있던 박헌영이나 이승엽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날 몇 시에 어디로 간다는 무전을 날리면 그 길목에 비행기를 보내여 쪽쪽 줄폭탄을 퍼붓군 하였다. 어떤날은 최고사령부 옆에도 폭탄이 떨어졌다. 그래도 나는 변함없이 건재하였다.

우리가 사민복을 입고 길림이요, 정춘이요, 하얼빈이요, 카륜이요 하고 돌아다니면서 지하 활동을 하던 시기에는 권총과 곤봉으로 무장한 ≪ㅌ·ㄷ≫성원들, 조선혁명군대원들, 공청원들, 반제청년동맹원들 소년탐험대원들이 나를 보호해주었다.

나를 친자식이나 친형제처럼 살뜰히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인민이라는 보호자는

어디에 가나 있었으며 어느 고장에 가나 무수한 ≪교하의 아주머니≫들이 있었다.

상월, 장울화, 진한장의 실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중국인민들과 중국공산주의자들도 나의 신변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었다. 상월선생은 공안국경찰들이 학교에 나타날 때마다 나를 담장너머로 빼돌리었고, 진한장은 군벌의 추격을 피해다니던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숨겨주었다. 장울화가 내 신변의 안전을 위해 사진 현상약을 먹고 자결한데 대하여 나는 이미 국제주의의 모범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주보중은 우리 부대의 지휘관들을 만날 때마다 나의 신변호위를 잘하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2군 군장 왕덕태와 1군 2군사 사장 조국안이 희생된 다음부터 동만의 항일무장부대들에서도 지휘관들의 신변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왕덕태는 싸창을 빼들고 1선에서 돌격하다가 아깝게도 전사하였다.


왕덕태

왕군장은 연길현의 조선인부락에서 성장하였고, 조선에 나가 노동을 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사람이였다. 그는 유격대생활의 첫걸음도 조선인부락에서 떼였다. 그래서인지 왕덕태를 조선사람이라고 하는 일제 관헌기록도 있다고 한다. 왕덕태는 초기에 최현과 같은 분대에서 평대원으로 싸웠다. 그는 평대원으로부터 군장으로까지 성장한 노동계급출신의 호탕하고 군중성이 풍부한 군사지휘관이였다.

왕덕태와 조국안을 비롯한 주요군정간부들의 희생은 항일연군의 모든 지휘관들과 대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들속에서 경위사업과 관련된 활발한 논의를 불러일으키였다. 적지 않은 단위들에서 경위사업을 전문으로 맡아보는 부대들이 속속들이 조직되었다.

이런 흐름을 타고 우리의 측근에 있던 전우들도 사령부호위를 전문으로 하는 부대를 조직할 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의를 하였다. 일단 성숙되자 나한테까지 찾아와서 경위부대를 내오자고 정식으로 제기하였다.

하지만 나는 전우들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적인 호위대가 없이도 우리 부대의 지휘관들과 대원들이 사령부 호위를 잘하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그러나 1937년 봄에 와서는 나자신도 전우들의 의사를 더는 거역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백두산지구에 밀영을 꾸리고 활동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적들은 우리의 내부와 주변에 많은 밀정들과 암해분자들을 박아넣었다. 그런 특무들 중에는 도끼를 가진 자도 있었고 비수를 가진 자도 있었으며 늑거리춘화나 독약을 가진자도 있었다.


위증민

적들은 우리가 밀영에 있을 때에도 자객들을 들이밀었고 원정을 할 때에도 자객들을 침투시키었다. 어떤 간첩들은 지하 조직에 망라되어 가짜 열성을 내는 방법으로 신용을 얻은 다음 조직의 추천까지 받아가지고 유격대에 입대하여 사령부를 해칠 기회를 노리었다.

일본의 특무 기관들에서는 위증민 몇천 원, 전광, 진한장 몇천 원, 최현, 안길, 한인화는 또 얼마 하는 식으로 이름있는 지휘관들에게 현상금까지 걸고 그들을 사로잡으려고 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나에게는 그보다 더 많은 현상금이 붙어있었다고 한다.

적들이 사령부지휘성원들을 소멸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는 조건에서 우리도 부득불 그것을 격파할만한 대응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부대 지휘관들은 또다시 사령부 호위문제를 가지고 떠들었다. 위증민까지도 합세해나섰다.

≪**김**사령은 몸을 아끼지 않는게 탈입니다. 공격의 초점이 **김일성**동지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적들이 괜히 **김**사령의 몸값을 높이 매긴줄 압니까. 경위부대조직을 서둘러야 합니다.≫


김평

나는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만 사람이 다하자는 일을 나혼자서 굳이 반대한다면 그것을 일종의 무의미한 고집으로 될 수도 있었다.

우리 사령부산하에서 경위대가 정식으로 발족한 것은 1937년 봄이었다고 기억된다. 그 때 이 사업을 선두에서 주관한 사람은 사령부 조직과장 김평이였다. 내가 중대규모에서 경위대를 조직해보라고 하자 그는 신바람이 나서 뛰어다니였다. 하루밤사이에 인원선발도 끝내고 지어는 경위중대가 갖추어야 할 무기명세까지 다 짜놓았다.

나는 조직과정이 만든 경위 중대원명단을 보고 그것을 반대하였다. 그 명단대로 하면 각 중대들에서 핵심이라고 할만한 쫄쫄한 사람들은 다 경위중대에 망라되게 되어있었다. 시난차전투에서 용맹을 떨친 김택환, 이름난 기관총수들인 오백룡, 강흥식, 힘장사인 강위룡, 여장군으로 소문난 김확실을 비롯하여 한다하는 싸움군들은 다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경위중대에 모조리 끌어오면 다른 중대들의 골간이 완전히 허물어질 수 있었다.

경위중대에 배당하기로 한 무장장비 또한 이만저만 요란하지 않았다. 조직과정은 이 중대에다가 기관총도 여러 정이나 주는 것으로 타산하고 있었다. 그 당시 우리 주력부대가 가지고 있는 기관총의 대부분을 경위중대에 주고나면 전투연대들에는 각각 1정씩의 기관총도 차례지지 못하는 것으로 되었다.

나는 이 구상에 동의할 수 없었다.

≪임원선발도 잘 하지 못했고 무장장비에 대한 타산도 잘하지 못했소. 다른 중대들의 전투력을 약화시킬 바에야 경위중대를 꾸려선 뭘하겠소. 기본전투단위인 중대가 허술해지면 연대가 약화되고 연대가 맥을 추지 못하면 사령부자체의 안전도 풍전등화의 신세가 되는 법이요.≫

≪사령관동지, 이것은 제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군정간부들의 의사를 종합한 것입니다. 대중의 소망을 한데 묶은 것이니 부결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김평은 대중이란 말에 역점을 찍으면서 어떻게 하나 나의 동의를 받아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의 제안을 기각해버리고 내가 짠 명단을 강다짐으로 내리먹이였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휘관들의 성화를 막아낼 길이 없었다. 그 명단에 의하면 경위중대의 대부분 역량은 전투경험이 미숙한 신입대원들을 기본으로 하여 꾸리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그 초년병들 중에는 심지어 총알을 한되박도 쏴보지 못한 마안산아동단 출신의 애숭이들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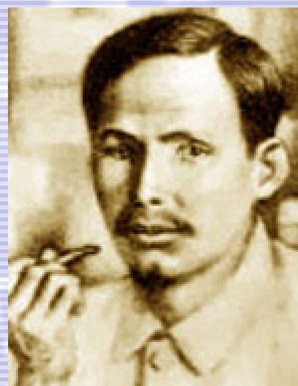
이 안은 발표되기 바쁘게 지휘관들의 완강한 반대를 불러일으키었다. 그들은 이동백을 부추겨서 나한테로 보냈다. 내가 ≪대통영감≫의 조언만은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타산한 모양이였다. 사령관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들 재삼 들고나올 때마다 그들이 이동백을 자기네 대변인으로 내세우군한다는 것은 나도 잘알고 있었다. ≪대통영감≫은 그 대변인역을 매번 훌륭하게 수행하군 하였다. 늘 하던 버릇대로 그는 이번에도 사령부에 나타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였다.

≪장군님, 겸양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애숭이들에게 사령부호위를 맡긴단 말입니까. 그 애숭이들이 짐이나 되지 않으면 오히려 다행이겠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이제 사령부가 그애들의 보모노릇을 하느라고 욕을 볼 수 있습니다. 애당초 단념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나는 ≪대통영감≫에게 말하였다.

≪경위대의 기본역량이 초년병들로 꾸려진다고 해서 겁낼 것은 하나도 없다 잠깐이면 그들도 싸움에 익숙해지게 될 것이다. 지난번 ≪동기토벌≫때 우리의 신입대원들이 싸움을 얼마나 잘하였는가. 또 그들이 생소한 유격대생활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적응되고 있는가 이제 무송원정까지 하고나면 우리의 신입대원들이 모두 구대원들과 다름없는 강자가 될 것이다. 내가 신입대원들을 기본으로 하여 경위중대를 꾸리자고 하는 이유는 그들을 옆에 바싹 끼고 다니면서 똑똑한 싸움꾼들로 키우자는데 있다. 그들이 모두 끌끌한 전투원으로 자라나게 되면 사령부는 하나의 믿음직한 예비대를 가지게 되는 셈이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유격대생활에 아무리 미숙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잘 키우면 다 강병으로 될 수 있다. 인재를 키우는 사업을 떠나서는 혁명승리에 대하여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동백

이런 내용으로 일장 해설을 하였더니 ≪대통영감≫은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그가 나의 대변인이 되어 지휘관들을 설복하였다. 이동백마저 태도를 바꾸어 나의 안을 지지해나서게 되자 지휘관들도 더는 자기네 주장을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 나라 혁명무력 건설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경위중대는 이런 곡절을 거쳐 탄생하였다. 경위중대가 탄생한 고장을 그 당시는 수피창자밀영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경위중대에 3개의 소대와 기관총반을 두었다. 사령부 전령병들과 작식대원들도 조직생활은 경위중대에서 하였다. 첫 중대장으로는 이동학이 임명되었다. 과오를 범하고 평대원으로 생활하던 ≪보따지≫는 중대장으로 복직되자 여간만 사기가 나지 않았다. 이동학의 과오란 수하의 신대원들이 군중공작조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이였다. 잘못은 대원들이 저질렀지만 그는 부하들을 잘 교양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중대장 자리에서 철직되었었다.

경위중대가 조직된 날 이동학은 대원들앞에서 기관총연발사격을 해대는 것과 같은 빠른 말씨로 훈시를 하였다.


이동학

≪우리 중대의 기본임무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령부를 잘 호위하는 것이요. 우리의 혁명선배들은 유격구시절부터 장군님을 잘 호위하였소. 그들이 오늘은 우리에게 계주봉을 넘겨준 셈이요. 그런데 우리 형편은 어떠한가 다 신대원들이 아니면 애숭이들이요. 나는 우리가 사령부를 호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령부가 도리어 우리를 호위하게 될가봐 걱정이요. 내가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이 한 가지뿐이요. 사령부가 우리를 호위하게 하지 말고 명실공히 우리가 사령부를 호위하자는 것이

요.≫

≪보따지≫의 이 연설이 경위대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대원들은 중대장이 대원들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언짢아지더라는 말도 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이동학이 연설을 너무 과격하게 하였다고 탓할 수는 없었다. ≪보따지≫의 걱정은 공연한 것이 아니었다. 초기의 경위중대실태를 그대로 말한다면 얼마동안은 우리가 그들을 호위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경위중대는 사령부를 호위하는 기본임무와 함께 한 개 전투단위로서의 임무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 경위대원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였다.


김정덕

경위중대의 애숭이들은 우리에게 걱정을 기치지 않으려고 매사에 처신을 어른스럽게 하였다.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인격상으로 자기들에게 성인대접을 해주지 않는 것이었다.

언제인가 이동학이 공식석상에서 자기 중대의 소속되어있는 마안산출신의 아동단원들을 보고 햇병아리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 말을 들은 경위중대원들은 모두 실망을 금치 못하였다. 김정덕은 저녁밥도 먹지 않고 시무룩해있었다. 그는 마안산에서 데리고온 수십 명의 소년대원들 중에서도 제일 어른티가 나고 행동거지가 숙성한 대원이였다.

나는 그가 저녁도 먹지 않고 덤덤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물었다.

≪너 왜 밥도 먹지 않고 그러고 있느냐? 혹시 누구하고 말다툼이라도 한게 아니냐?≫

≪아닙니다. 중대장동지가 우리를 햇병아리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

김정덕은 말끝을 흐리면서 얼굴을 붉히었다.

나는 그의 천진스러운 대답에 그만 소리를 내어 크게 웃고 말았다.

≪햇병아리란 소리가 그렇게도 듣기 싫더냐? 그거야 너희들이 귀여워서 하는 말인데.≫

≪중대장동진 귀여워서만 그러는게 아닙니다. 사실 병아리들은 병아리들이니까요. 이런 풋병아리들이 어떻게 사령부를 보위해드립니까. 저두 정말 야단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김정덕이 우울해한 것은 이동학의 말대로 자기네가 사령부 호위중책을 훌륭히 수행해내지 못한 것 같은 위구심 때문이었다.

나는 김정덕을 바라보면서 네가 벌써 어른이 다되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하기는 그의 나이가 17살이었으니 어리다고만 보아서는 안되는 나이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사실 취침시간이 될 때마다 경위중대의 애숭이들은 정말 병아리들처럼 내결에 모여들어 저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실갱이질을 하군 하였다. 그들이 노리는 제일 좋은 자리란 나의 양쪽 옆구리에 붙어서 잘 수 있는 곳이었다. 그 당시 나에게는 모포가 한 장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애숭이들이 양옆으로 몰려와서 다가붙으면 잠자리가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부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에도 비길 데 없는 즐거움으로 되었다.

나는 잠자리에 들 때면 두 팔을 벌이여 ≪얘들아, 어서 오너라!≫하고 어린 경위대원들을 찾군하였다. 그러면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내옆으로 모여들어 저마다 더 가까이에 눕겠다고 승벽내기를 하였다.

나의 옆자리는 대체로 이오송과 같은 여라문 살짜리 경위대원들에게 차례졌다. 나는 이오송이네 또래에게 그런 특전을 베풀면서도 모든 아이들이 누구나 단 한 번씩은 내곁에서 잘 수 있도록 매일 잠자리를 바꾸게 하였다. 내가 혹시 순서를 헛갈려서 어느 한 아이에게 공평치 못한 ≪혜택≫을 베풀면 항의를 하느라고 야단들이었다.

한번은 김평이 무슨 일로 해서인지 밤중에 나를 찾아 왔다가 잠자리 때문에 실갱이질을 하는 아이들을 보고 못마땅해한 적이 있다.


이오송

≪사령관동지 저것 보십시오. 저런 철부지들이 어떻게 경위사업을 감당한다는 말입니까. 저애들이 사령관동지앞에서 저렇게 버르장머리없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경위사업은 고사하고 아무짝에도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욕을 많이 해서 좀 버릇을 때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는 곱지 않은 눈으로 경위대원들을 쏘아보았다. 원래 아동단출신들이 경위중대에 들어오는 것을 한사코 반대하던 김평이다보니 비판도 이만저만 호되게 하지 않았다.

나는 김평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부모형제의 사랑이 그리워 밤이면 잠자리다툼을 하는 것인데 꾸중을 해서는 뭘하겠는가고 꼬마들을 두둔해주었다.

한 장의 모포를 놓고 여럿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자는 것을 그때 우리는 ≪따바리잠≫이라고 하였다. 10여 명이 발을 모포속에 밀어넣고 따바리모양으로 빙 둘러누워서 자는 잠이었다. 덮을 것이 늘 모자라고 한지에서 자야 하는 유격대생활에서는 경위중대의 애숭이들이 고안해낸 이 ≪따바리잠≫이 매우 실용적이었다.

해방 직후 혜산쪽에 나가서 지방공작을 하던 이오송이 사업보고를 하려고 나를 찾아온 일이 있었다. 그 당시의 우리 숙소는 지금의 당창건사적관이 자리잡고 있는 해방산기슭에 있었다. 나는 그 숙소에서 얼마동안 우리 동무들과 함께 산에서처럼 공동숙식을 하였다. 지방공작을 하는 동무들이 평양에 오면 그 숙소로 꼭꼭 찾아오군 하였는데 이오송도 상례대로 내앞에 나타났다.

취침시간이 되자 투사들은 이불을 펴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오송이 ≪장군님과 같이 잘때야 ≪따바리잠≫을 자야지.≫라고 하면서 그 이불들을 와락 밀어제끼였다. 그날 숙소에 있던 북만출신의 동무들은 ≪따바리잠≫이 어떤 것인지를 잘몰랐다.

이오송은 내팔을 잡아끌며 ≪장군님, 오늘만은 백두산시절처럼 ≪따바리잠≫을 자보시지 않겠습니까?≫하고 물었다.

하지만 나는 그 청에 인차 응할 수가 없었다. ≪따바리잠≫을 자자면 부득불 숙소의 모든 투사들을 ≪따바리≫속에 다 끌어들어야 하는데 그들이 그런 노숙을 달가와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내가 주저하는 눈치를 보아 이오송은 다짜고짜로 나를 자리에 눕히며 ≪자, 누워주십시오. 다리를 좀 구부리십시오. 장군님의 오른쪽에 김책동지가 누우시고 그 옆에 최현동지, 장군님의 왼쪽 옆자리는 내 자리입니다.≫하면서 잠자리를 억지로 잡아주었다.

이 어처구니없는 지령 때문에 김책도 옴짝달싹못하고 ≪따바리≫속에 끌려들어갔다.

나는 경위중대의 애숭이들을 몹시 사랑해주면서도 그들을 무원칙하게 어루만지지는 않았다. 잘못을 저지르면 눈물이 나게 꾸중도 하였고 어려운 일거리를 많이 맡겨 단련도 시키었다. 기온이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겨울날에도 우리는 그들에게 보초임무를 주어 눈보라치는 한지에 내보냈다. 때로는 구대원들과 꼭같이 혈전의 길에도 내세웠다. 규율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중대들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비판도 하게 하였고 1평방미터도 되나마나한 동그라미안에 서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자기 잘못을 돌이켜보게 하였다. 그러다보니 가슴아픈 때도 한두 번이 아니였다.


이을설

내가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무리 엄한 비판을 하고 모진 단련을 시켜도 그들이 나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이였다. 한번은 이오송이 연락을 가다가 길을 헛갈려 시간을 어긴 일이 있었다. 내가 정해준 길로 가지 않고 제멋대로 노정을 바꾼탓이였다. 나는 그때 이오송이 사령부의 지시를 제때에 집행하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책망하지 않았다. 이 전례 없는 처사는 이오송을 서운하게 하였다.

(나는 사령관동지에게 비판을 받을만한 자격도 없단 말인가. 사령관동지는 지금도 나를 코흘리개로 알고계시는게 아닌가.)

이런 옥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히던 그는 나를 찾아와 다른 사람들한테는 책벌을 주면서도 왜 자기한테는 책벌을 주지 않는가고 하면서 규율을 위반했으니 자기한테도 처벌을 달라고 졸라댔다.

참다운 사랑과 믿음이 있는 곳에서 처벌은 오히려 하나의 믿음의 표시가 된다. 우리가 비판을 하고 처벌을 주어도 경위대원들이 그것을 조금도 탓하지 않고 달게 받아들인 것은 가식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주고 믿음을 준데 대한 보답이였다.

경위대원들의 성장을 위하여 우리가 특별히 힘을 기울인 것은 학습이였다. 나는 보통날이나 밀영에서 집중적인 군정학습을 하는 날이나 그 어느 때를 막론하고 경위대원들의 교사가 되어주었다. 그 당시 사령부에는 ≪동아일보≫, ≪만선일보≫, ≪조선일보≫를 비롯한 국내외 신문들과 ≪레닌주의의 제 문제≫, ≪사회주의의 대의≫, ≪국가와 혁명≫같은 책자들을 비롯하여 식견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 출판물이 수두룩하였다. 우리는 경위대원들에게 이모든 자료들을 읽을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다. 그 대신 그들에게서 구두나 서면으로 된 독후감을 어김없이 받아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경위중대는 학습에서 인민혁명군의 모든 부대들이 따라배우는 모범단위가 되었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고 주는 정이 있으면 받는 정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경위대원들에게 정을 준 것만큼 그들에게서 또한 정을 받기도 하였다.


강위룡

경위대원들은 사상적으로나 군사실무적으로 빨리 발전하였다. 그들은 사령부호위도 본때있게 하였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그들의 도움으로 위험한 고비를 여러 번 모면하였다.

어느 때인가 우리는 안도현의 한밀영에서 임수산이 끌고온 적 ≪특수부대≫의 포위에 들었던 일이 있다. 임수산은 우리 주력부대에서 참모장으로 있다가 변절하여 유격대 ≪토벌≫을 전업으로 하는 ≪특수부대≫대장이 된 자였다. 그는 서간도 일대를 돌아치며 우리가 꾸려놓은 후방밀영들을 닥치는대로 파괴하였다.

그날아침 우리는 밀영을 뜨려고 조반을 일찌지었다. 짧은 시간에 식사를 끝내고 출발을 서둘러야겠는데 보초를 교대해 줄 사람이 없었다. 당번 보초는 이을설이었다. 그래서 내가 보초를 대신하였다. 이을설이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 나는 인적기가 나지 않는가를 주의깊이 살피었다. 안개가 자욱한 날이여서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아니나다를까 보초소근방에 수상한 인적기가 났다. 그것은 삭정이가 부스러지는 소리었다. ≪적이다 !≫하는 순간적인 판단과 함께 나는 진대나무밑에 엎드리면서 무작정 싸창을 꺼내 갈기였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10여미터앞에서 적의 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그날 아침 내가 인적기를 느끼고 진대나무밑에 엎드리면서 싸창을 갈긴 순간은 눈깜박할 사이었다. 그처럼 짧은 순간 식사중에 있던 강위룡과 이을설은 나의 안전을 염려하여 보초소로 뛰어왔다. 먼저 강위룡이 나를 완력으로 진대나무밑에서 끌어내였다. 그러는 사이에 이을설이 경기관총을 휘둘러댔다. 솔직한 고백이지만 나는 그 순간 우리의 운명이 여기에서 결판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하였다. 그래서 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강위룡이 나를 진대나무밑에서 끌어내려고 모지름을 쓸 때에도 그들이 죽으면 나도 함께 죽으리라는 비장한 생각까지 하였다.


김택만

그러나 그 불사신같은 경위대원들은 탄막속에 몸을 통채로 내대고 천신만고하여 나를 사경에서 구원하였다. 적들이 포위환을 좁히며 다가들자 이을설은 수류탄을 뽑아들고 우뚝 서서 ≪이놈들아 덤빌테면 덤벼들라.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고 부르짖었다.

그 기세가 어찌나 서슬푸르고 도고했던지 적들은 비실비실 뒤로 물러났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강위룡은 나를 탄막속에서 완전히 뽑아내였다.

임수산은 우리가 철수한 다음 밀영을 몽땅 털어갔다. 그 바람에 우리는 아깝게도 문건, 사진, 소책자, 의약품이 들어있는 배낭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특수부대≫가 철수한 다음 밀영에 되돌아가 내가 대리보초를 서던 자리를 보니 한아름이나 되던 싸리나무 떨기가 칼로 후려친 것처럼 중둥이 일매지게 끊어져있었다. ≪특수부대≫의 기관총화력이 이만저만 세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보고 ≪동무들이 아니였더라면 내오늘 저 세상에 갈번 했소.≫하고 말하였다.

우리 부대 경위대원들이 자기 사령관을 얼마나 충실하게 호위했던지 그 소문이 인접부대의 중국인 지휘관들한테까지 퍼져갔다. 그들은 늘 우리가 똑똑한 전령병들과 경위대원들을 두고 있는데 대하여 부러워하였다. 만나면 농담삼아 적선을 하는 셈치고 좋은 전령병을 한 명만 달라고 하든가 **김**사령이 데리고 다니는 경위대원들 중에서 아무 사람이라도 좋으니 중국말을 좀 아는 대원을 몇 명만 달라고 하였다. 우리 주력부대의 경위대원이나 전령병들을 탐내는데서는 양정우나 위증민이나 주보중이나 조아범이나 할 것 없이 다 체면을 가리지 않았다.

무송원정직후 조아범은 나에게 조선사람들 가운데서 전령병감을 골라달라고 하였다. 나는 우리 부대의 전령병들 중에서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김택만을 조아범에게 보내면서 그를 잘 보호해주라고 하였다. 조아범이 반≪민생단≫투쟁때 조선사람들에게 원한을 많이 끼치고 또 그가 내 개인의 활동에도 제동을 많이 건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를 배척하거나 그가 모처럼 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다. 우리가 새사단을 조직하였을 때 조아범이 우리 주력부대의 정치위원으로 오게 되어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의 신변안전을 담보할 수 없

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부대에는 반≪민생단≫투쟁때 조아범한테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모두 조아범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다. 내가 부대의 정치위원을 겸하게 된 것은 그 때문이었다. 김택만은 나의 부탁대로 조아범을 잘 보호해주었다.

조아범은 김택만을 총명하고 충직한 청년이라고 하면서 훌륭한 전령병을 보내준데 대하여 여러 번 감사를 표시해왔다.

양정우도 우리에게 여러 번 좋은 사람을 달라고 하였다. 양사령이 1군, 2군의 군정간부들의 모이는 회의에 참가하려고 남패자에 나타났을 때 나는 그에게 내가 데리고 다니던 전령병들을 여러 명 넘겨주었다. 그리고 수백 명의 대원들과 지휘관들을 떼내여 그에게 독립여단을 잘 꾸려주었다.



위증민도 양정우나 조아범처럼 우리가 키워낸 사람들을 곁에 두고 싶어하였다. 그가 너무도 간절하게 조선인 경위대원들을 요구하기에 나는 황정해와 백학림을 보내주었다. 김철호, 전문욱, 임은하, 김득수 등도 한동안 위증민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모두 위증민을 충실히 도와주고 호위하여주었다. 한때 주보중은 조선사람인 박락권을 경위대장으로 두었다. 3방면군 군장 진한장도 마안산 아동단 출신인 손명직을 전달장으로 두었다.


백학림

나는 우리가 보내준 동무들이 항일연군의 각부대들에서 국제주의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희생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흐뭇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경위중대에 망라된 대원들은 모두 나의 생명의 은인들이었고 친위전사들이었다. 우에서 지적한 동무들 외에도 나를 지켜준 전우들은 수없이 많다. 김운신, 최원일, 김학송, 한익수, 전문섭, 김홍수, 최인덕, 최금산, 조명선, 지봉손, 김봉석, 이학송, 이두익, 오재원, 그들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외우면 수천수만 갈래로 뒤엉킨 지난날의 사연들이 추억속에 저절로 어려온다.

첫 경위중대장 이동학은 연대장으로 승진된 후 1938년 만경의 전장에서 장렬하게 희생되었다.


이달경

이동학의 후임으로 경위중대장이 된 이달경은 원래 4사에서 기관총수로 있던 사람이었다. 그는 백발백중의 명사수였다. 어찌나도 총을 잘 쏘았던지 이달경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는 경위중대의 정치지도원으로 얼마간 있다가 이동학이 연대장으로 소환되어간 다음 중대장으로 임명되었으나 몇 달도 못되어 전사하였다.

이달경 다음으로 경위중대장을 한 박수만도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는 쌍산자전투에서 나에게로 집중되는 적의 화력을 다른데로 돌리기 위하여 기관총사수를 데리고 이곳저곳 자리를 옮겨가며 싸우다가 흉탄을 맞고 그 후과로 운명하였다.

경위중대의 초대중대장인 이동학으로부터 4대 중대장인 오백룡에 이르기까지 사령부 호위를 위해 복무한 모든 중대장들이 다 나를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고행도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으며 나의 명령, 지시를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은 충실한 전우들이였다.


박수만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생명의 은인들 중에는 이권행이라는 10대의 젊은 경위대원도 있었다. 그는 나를 친형처럼 따르고 존경하였다.

어느 해 겨울이었던지 추격해오는 적들을 꼬리에 달고 강행군을 할 때에 있었던 일이다. 겨울치고는 아주 지독하게 추운날이였다. 그런데 아무리 눈속을 헤치며 행군을 계속해도 발이 얼어들지 않았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신발을 벗어보았더니 바닥에 솜처럼 보드랍게 다져진 울로차가 차분히 깔려 있는 것이었다 전령병들은 리권행의 소행이라고 나에게 가만히 귀띔해주었다.

중국사람들은 인삼, 록용, 초피(동피)를 ≪관동(동북)3보≫라 이르는데 어떤 강

추위에도 발을 얼지 않게 해주는 울로초도 ≪동북 3보≫에 넣고 있었다. 진펄에만 돋는 이풀이 어떻게 되어 내 신발바닥에까지 깔리게 되었는가. 아마도 이권행은 나를 위해 울로초를 발견할 때마다 한줌두줌 뜯어 배낭속에 간수해두었던 것 같다.

그가 장백현 15도구전투때 몸으로 나를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 살아남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권행이 몇 번이고 지휘처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자고 하였으나 나는 그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자리는 적아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곳이였다.


이권행

그런데 적탄이 불시에 나에게로 쏠리기 시작하였다. 이 위급한 순간에 이권행은 두 팔을 벌이고 몸으로 나를 막아섰다. 그가 방패처럼 나에게 안긴 순간 적탄이 그의 다리뼈를 부수어 놓았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이권행을 품에 안고 총상자리를 살펴보는 나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겠는가.

나는 담가를 따라가며 이권행에게 ≪넌 죽지 않아!≫, ≪넌 죽지 않아!≫하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고무해주었다.

이권행은 오히려 ≪사령관동지, 저는 죽지 않습니다. 제 걱정은 말고 다시 만날 때까지 아무쪼록 건강하십시오.≫하고 나를 위로하였다. 그 때 내표정이 몹시 비장했던 모양이다.

그것이 그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가 후방병원에 후송된 후 편지를 썼다는데 나는 그것을 받아보지 못하였다. 내가 입수한 것은 이권행이 후방밀영에서 치료를 받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었다는 것과 그가 장백현경찰서에서 매일 같이 혹독한 고문을 받았지만 사령부 위치를 대지 않고 절개를 지키다가 최후를 마쳤다는 소식뿐이었다.

사령부 경위대원들 중에는 ≪륙크사크≫라는 별명을 가진 동무도 있었다. ≪륙크사크≫란 등산용 배낭을 말한다. 그에게 ≪륙크사크≫라는 괴이한 별명이 달린 것은 그가 언제나 유달리 큰 배낭을 지고다녔기 때문이었다. 그가 왜 그처럼 부피가 큰 배낭을 지고다니는지 그것은 누구도 몰랐다.

그 배낭의 비밀이 드러난 것은 임강의 어느 전투때에서였다. 적아간에는 맹렬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그날 따라 ≪륙크사크≫동무는 내곁에서 한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전호의 흉벽에 적탄이 배길 때마다 혹시 상처라도 생길 것 같아 그를 끄당겨 안아 흉벽밖으로 얼굴을 내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면 그는 어느새 내품에서 빠져나가 적들이 오른쪽으로 달려들면 내 오른쪽 옆구리에 다가붙고 적들이 왼쪽으로 달려들면 내 왼쪽 옆구리에 다가 붙군 하였다.

싸움이 끝난 다음 진지에서 솜타는 냄새가 몹시 나기에 전호를 돌아보았더니 놀랍게도 총알 구멍이 두 개나 난 ≪륙크사크≫동무의 배낭에서 연기가 새여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주인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옷이 탄다고 고함을 치면서 동료들을 들볶고 있었다. 대원들이 달라붙어 그의 배낭을 헤쳐보았는데 차곡차곡 개여넣은 명주솜갈피에서 뜨끈한 적탄알이 두 알이나 굴러나왔다. 그때에야 나는 그가 왜 배낭을 메고 줄곧 내곁에서 감돌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은 ≪륙크사크≫동무의 그 명주솜이 나를 위험에서 구원해준 셈이었다.

나는 ≪륙크사크≫동무에게 어떻게 되어 그처럼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고 물었다. 그는 **김정숙**동무가 나의 동복을 만들 때 명주솜을 두면서 이런 솜을 두면 총알 뚫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부터 자기도 나를 위하여 방탄용 배낭을 만들 작정을 했다고 대답하였다.

항일전쟁에서 경위전사들이 쌓아올린 공로를 한두 마디로 다 말로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조선혁명의 명맥을 지켜가는데서 이룩한 공적만으로도 그들은 마땅히 후손들의 찬양과 절을 받을만하다는 것이다. 그들이 혁명의 사령부를 위해 바친 그 숭고한 동지적 의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시대의 꽃으로 피여나고 있는 충효일심의 시원으로 되고 있다.

나는 항일혁명시절의 경험에 기초하여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에도 10대의 혁명가유자녀들로 친위중대를 무어 최고사령부를 호위하게 하였다. 친위중대원들은 나의 신변을 호위하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고 위험한 고비도 많이 겪었다. 어느 해 겨울인가 나는 연합작전을 위해 성천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부대에 갔다오다가 적폭격기편대의 기습을 받은 일이 있다. 그때 그들은 나를 밭고랑에 억지로 넘어뜨리고 모두가 방탄벽이 되어 두 겹, 세 겹, 네 겹으로 내우에 엎드리었다. 이와 비슷한 일은 그 후에도 여러 번 있었다.

1950년 가을의 그 간고한 일시적 전략적 후퇴시기에도 나와 함께 마지막까지 평양에 남아 최고사령부를 호위한 것은 바로 그 용감무쌍한 친위중대 대원들이었다.

노도와 같은 남진으로부터 후퇴에로의 전쟁국면의 급격한 변화는 수도 시민들을 의기소침하게 하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최고사령부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최고사령관이 전쟁의 전망을 두고 무슨말을 해주는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방송연설을 통하여 후퇴는 일시적인 것이다. 도처에서 빨치산투쟁을 하라, 승리는 우리 인민의 편에 있다고 언명하였다. 그런 다음 친위중대원들을 시켜 시내를 한바퀴 돌면서 가창행진을 하라고 하였다. 이 뜻밖의 명령을 받고 친위중대원들은 아연해하였다. 대동강, 건너편에서 벌써 적의 포소리가 쾅쾅 들려오는데 태연하게 가창행진은 왜하라고 한가 하는 표정들이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들은 최고사령관이 가창행진을 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씩씩하게 거리로 행진해나갔다.

후퇴를 앞둔 음산한 수도의 거리에서는 갑자기 친위중대원들이 부르는 ≪조국보위의 노래≫가 우렁차게 울리기 시작했다.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달려나왔다. ≪친위중대다!≫, ≪친위중대다!≫ 도처에서 이런 목소리가 날아왔다.

(친위중대는 우리 곁에 있다, 친위중대가 남아있으니 최고사령관도 지금 우리 가까이에 있을 것이다.)

그때 평양시민들은 친위중대가 가창행진을 구경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다고 한다.

친위중대는 평양시내의 모든 기관들이 후퇴를 개시한 그때에야 비로소 나와 함께 수도를 떠났다.

항일전쟁시절의 경위중대원들이 지금은 어느덧 환갑이 훨씬 넘은 늙은이들이 되었다.

그들을 대신하여 지금은 혁명의 3세, 4세들이 당중앙위원회와 최고사령부를 호위하고 있다. 세대는 바뀌고 있으나 새로운 경위중대, 친위전사들은 끊임없이 자라나고 있다. 그것이 몇 만, 몇십 만인가를 구태여 헤아릴 필요가 있겠는가.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모두가 경위대원이 되고 친위전사가 되어 당과 혁명을 보위하고 있는 것이다.

4. 삼천리 방방곡곡에

백두산기슭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조국광복회건설운동은 만주전역과 삼천리 방방곡곡에 요원의 불길처럼 거세차게 번져갔다.

나라와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된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구절구절은 민족의 넋에로 새로운 활력을 심어주고 삼천리 온 강토가 광복열망으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민족주의자들, 노동자, 농민과 더불어 지식인, 청년학생, 수공업자, 종교인, 민족자본가를 포함한 애국적인 온 겨레가 하나의 광복전선에 합세하였다.

조국광복회건설운동은 장백을 비롯한 선간도와 만주땅에서 먼저 활발히 벌어졌다.

만주지방에서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은 것은 이 지방의 항일운동역사가 깊고 토대가 좋았기 때문이였다. 90만에 가까운 재만조선인들은 그 한명한명이 다 인화성이 강한 화약과 같은 존재들이였다. 그들은 불시가 와닿기만 하면 아무 때나 폭발할 수 있는 위력한 폭탄들이였다.

반일애국역량의 총집결이라는 대과제는 만주지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코 생소한 것이 아니였다. 카륜회의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문제가 하나의 의정으로 심각하게 논의되였고 이회의를 시발로 하여 조선의 혁명가들이 각계각층의 항일역량을 망라하는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피어린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것은 세상에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만주지방사람들은 통일전선운동의 시련에 찬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토양우에서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씨앗이 빠른 속도로 움트고 자라난 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우리는 조국광복회조직건설사업에서도 역시 시범단위를 먼저 꾸리고 그것을 모체로 하여 사방에 조직을 늘여나가는 방침을 취하였다. 그런 시범단위들은 우선 조직건설의 기초가 있고 운동경험이 있는 곳, 군중의 사상동향이 좋고 혁명성이 강한 곳, 지하전선을 움직여나갈 수 있는 지도역량이 일정하게 마련되여 있는 곳들에 선참으로 꾸리였다.

회원 3명 이상이 되면 분회를 꾸리게 하였고 분회가 3개 이상이면 지회를 꾸리게 하였으며 지회가 3개 이상이면 구회를 꾸리게 하였다. 조국광복회 현조직은 여러개의 구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였다.

우리는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적의 군대와 경찰기관, 관공서에도 꾸리게 하였다. 적기관들에 복무하면서 지하혁명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그 당시는 조국광복회 특수회원들이라고 하였다. 이런 특수회원들은 일본지도관들의 감시가 살벌한 정안군내에도 있었다.

한편 우리는 조국광복회조직건설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작전지역에 조직들을 내오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그 인접구역들과 국내깊이에로 조직을 확대해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조국광복회창립 직후 우리는 밀영에서 먼저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 지휘관들

과 대원들의 회의를 열고 부대내 전체 병사, 지휘관들을 조국광복회에 가입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조치는 부대안의 모든 지휘관들과 대원들의 일치한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그들은 사령관이 조국광복회 회장으로 추대되었는데 우리도 회원이 되어 통일전선운동을 위해 힘을 보태야하지 않겠는가고 한결같이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조국광복회조직에 받아들이고 전민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묶어세우는 선전자, 조직자가 되라고 고무해주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모두가 자기앞에 부과된 역사적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각당, 각파, 각계각층 군중을 조국광복회조직에 결속시키는 통일전선운동의 기수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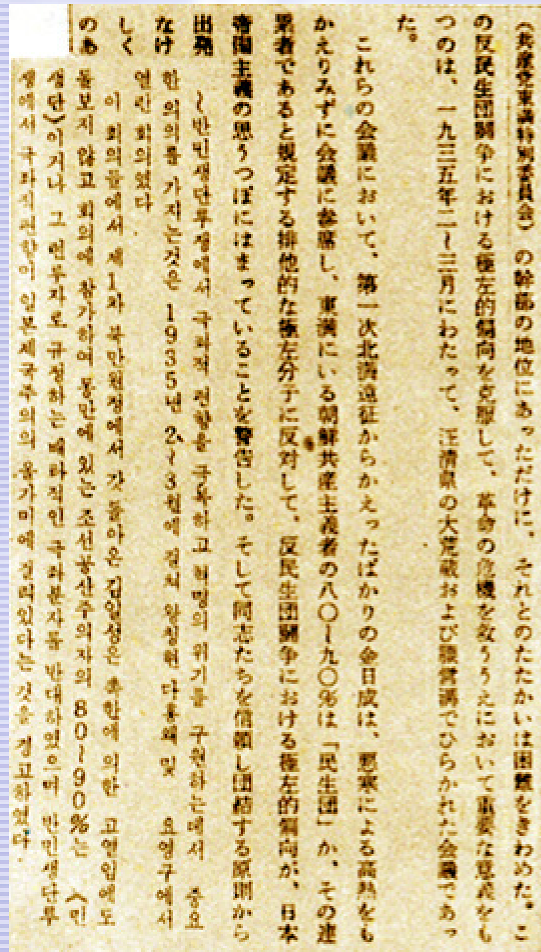
우리가 서간도일대의 거의 모든 마을들에서 조국광복회조직을 빠른 속도로 내세울 수 있었던 전체의 하나가 바로 이 기수들의 역할에 있었다.

그 당시 조국광복회조직건설에서 주역을 담당한 것은 조선인민혁명군 무장대오에서 선발된 정치공작원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한때 조국광복회준비위원회에 망라되어 활동하던 성원들도 포함되어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불씨가 되어 만주 대륙에 통일전선운동의 열풍을 일으키었다.

1936년 가을에 벌써 왕청, 화룡, 훈춘, 연길을 비롯한 동만의 여러 현들에서는 조국광복회조직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전날 대황구유격구가 자리잡았던 병랑구에는 농민협회성원들을 핵심으로 하는 조국광복회 훈춘현 병랑지구위원회가 결성되었다. ≪3·1월간≫창간호는 북간도에 파견된 한 정치공작원이 화룡지방혁명가들의 열렬한 찬성과 일치한 동의안에 4개의 중심촌에 조국광복회 분회와 무장부대를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을 끝내데 대한 소식을 실었는데 이 하나의 실례만 놓고 보더라도 그곳인민들이 우리의 통일전선노선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남만일대에서 조국광복회조직건설사업을 주관한 것은 동강회의에 참가하였던 대표들이었다. 그들은 먼저 항일 연군부대안의 조선인 병사, 지휘관들을 조국광복회조직들에 가입시키고 그 병사, 지휘관들을 우리의 통일전선노선으로 무장시키었다. 그 다음에는 그들 중에서 정치적 식견도 높고 선동력도 좋은 사람들을 선발하여 조선인 거주지역들에 파견하였다. 이 사람들이 지방의 혁명가들과 손을 잡고 반석, 화전, 통화, 즙안, 공강, 환인, 관전, 휘남을 비롯하여 남만의 여러 도시들과 농촌들에 조국광복회조직들을 내왔다.

조국광복회 조직망은 북만땅에도 뿌리를


(東満特別委員会) の幹部の地位にあっただけに、それとのたたかいは困難をきわめた。この反民生団闘争における極左的偏向を克服して、革命の危機を救ううえにおいて重要な意義をもつのは、一九三五年二~三月にわたって、汪清県の大荒崴および腰営溝でひらかれた会議であった。

これらの会議において、第一次北満遠征からかえったばかりの金日成は、悪寒による高熱をもかえりみずに会議に参席し、東満にいる朝鮮共産主義者の八〇~九〇％は「民生団」か、その違反者であると規定する排他的な極左分子に反対して、反民生団闘争における極左的偏向が、日本帝国主義の思うつぼにはまっていることを警告した。そして同志たちを信頼し団結する原則から

出発

なけ

しく

のあ

~반민생단투쟁에서 극좌적 편향을 극복하고 혁명의 위기를 구원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1935년 2~3월에 걸쳐 왕청현 다홍왜 및 요영구에서 열린 회의였다

이 회의들에서 제1차 북만원정에서 갓 돌아온 김일성은 혹한에 의한 고열임에도 돌보지 않고 회의에 참가하여 동만에 있는 조선공산주의자의 80~90%는 (민생단)이거나 그 련루자로 규정하는 배타적인 극좌분자들 반대하였으며 반민생단투쟁에서 극좌적편향이 일본제국주의의 올가미에 걸려있다는 것을 경고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홍왜 및 요영구회의를 지도하신데 대하여 쓴 출판물

내리었다.

우리는 동강에서 조국광복회를 창립한 후 인차 북만의 항일연군부대에서 당사업을 하고 있던 김경석에게 조국광복회창립선언과 10대강령을 보내주었다. 그는 동만에 있을 때에도 연길현 삼동만일대를 중심으로 당사업을 하였다. 나는 삼도만에 있는 동만특위 비서처를 방문하였을 때 그를 처음으로 만나보았다. 그 당시 김경석은 ≪민생단≫혐의 때문에 기를 펴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홍왜회의소식을 듣고 너무 반가와 눈물을 흘리었다고 한다. 우리는 주보중의 요청으로 그를 북만부대에 보내주었다. 김경석은 조국광복회창립선언과 10대강령을 5군내의 조선인 병사, 지휘관들속에 침투하고 핵심들을 선발하여 조국광복회 지부를 내왔다. 주보중은 우리의 요청에 따라 5군 군장의 자격으로 이 지부의 결성을 적극적으로 떠밀어주었다.



김경석

이것이 효시로 되어 조국광복회조직들은 방정, 통하, 발리, 탕원, 요하, 영안, 밀산을 비롯하여 북만의 여러 현들에도 우후죽순처럼 솟아났다. 그 사품속에서 액목현반일동맹도 조국광복회조직으로 개편되었다.

이 동맹의 맹원들속에 조국광복회창립선언과 10대강령을 맨처음으로 전달해주고 동맹을 조국광복회조직으로 개편하도록 유도한 인물은 그 당시 방진성과 함께 독립여단을 이끌고 관지 부근에서 활동하던 최춘국이었다.

북만의 조국광복회조직건설사업에 대하여 말할 때 김책의 노고를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김책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입수하자 그 강령을 한자한자 목판에 새겨가지고 수백부나 찍어냈다. 그가 손수 찍어낸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북만의 항일연군부대들과 각현의 지방혁명조직들에 널리 배포되었다. 김책은 여러차례의 회의들을 통하여 조국광복회조직망을 확대하고 그 조직들을 실천투쟁속에서 단련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다.

요하현 삼의툰의 조선인공산주의자들은 격문을 발표하여 우리의 조국광복회운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그 격문에서 ≪제군들이여! 조국을 잊지말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방당파를 불문하고 사소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반일을 하는 동포들은 모두 단결하여 반일 공동전선에 매진하자. 일반 동포들은 돈있는 사람은 돈을, 무기있는 사람은 무기를, 노력있는 사람은 노력을 조국독립을 위한 반일전선에 바치라.≫고 호소하였다. 북만사람들의 이 호소는 우리의 목소리와 일치하였다. 남만의 전우들도 같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최춘국

이처럼 만주지방의 조선사람들은 우리의 통일전선노선을 민족대단합의 경륜을 가장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공명정대하고 애국애족적인 노선으로 받아들이었다.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의 주되는 목표는 어디까지나 2천여만의 동포들이 살고 있는 국내에 있었다. 그것은 당건설과 조국광복회조직건설도, 무장투쟁의 확대발전도 다같이 조국을 기본무대로 하여 전개하며 조국인민의 힘을 주력으로 삼아 수행한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한 남호두회의의 정신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조국광복회조직망을 국내깊이 확대하는데서도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들이 품을 들여 육성한 서간도지방의 핵심적인

혁명가들과 우리와의 직접적인 영향밑에서 통일전선운동에 매진하던 북부국경지대의 선각자들이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국내에서의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은 일본침략자들의 무자비한 탄압과 종파분자들의 노선상 착오로 말미암아 매우 간고하고 복잡한 조건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제는 조국광복회조직들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국내깊이에로 밀려오는 통일전선운동의 과도를 어떻게 하나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공격의 예봉은 우선 국경일대의 애국자들과 애국적 인민들에게로 돌려졌다. 우리의 공작선이 와닿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들과 개인들, 우리의 사상과 노선에 동조하며 우리의 무장투쟁에서 민족재생의 길을 찾는 모든 애국지사들과 운동자들은 적들이 가장 엄중시하는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압록강이남의 조국인민들은 서간도의 성시와 부락들에서 총소리와 나팔소리가 나고 화광이 충천해도 그것을 마음대로 들을 수도 구경할 수도 없었다. 인민혁명군이 대안의 성시나 부락들을 치는 날이면 적들이 강변에 나와서 구경군들이 얼씬하지 못하게 단속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저들의 패망상이 인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니 혁명군 정치공작원들이 국내에 침투하는 것이야 얼마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경계하였겠는가.


김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혁명군의 투쟁소식을 알고 싶어하는 국경일대의 인민들은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압록강을 건너와서 슬금슬금 전장을 돌아보군 하였다. 인민혁명군이 적들을 요정내고 돌아간 직후이면 압록강세관을 통과하여 서간도쪽으로 흘러드는 도강자수가 몇 곱절이나 불어나군 했다는 삼수, 갑산, 후창 지방 사람들의 증언은 조국인민들이 우리의 무장투쟁에서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가를 보여주는 생동한 실례로 된다.

종파분자들도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발전에 큰 장애를 조성하였다. 그들은 자파세력확장에 혈안이 되어 반일 애국역량을 분열시켰으며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기성이론을 교조적으로 주장하면서 애국적인 지식인들과 양심적인 민족자본가들을 일률적으로 배척하고 적대시하였다. 혁명은 계급적 토대가 견실한 특수한 몇몇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견해이고 지론이었다.

좌경의 지휘봉밑에서 진통을 겪는 대중운동에 각계각층의 애국역량을 망라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암중모색의 길에서 헤매는 공산주의자들에게 광명을 안겨줄 수 있는 출로는 국내혁명에 대한 우리의 영향을 강화하며 조국광복회조직을 전국적 범위로 확대하는데 있었다.

우리는 국내에서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을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치적 영도가 가장 손쉽게 미칠수 있는 북부국경지대의 압록강연안에서부터 시작하여 국내 종심깊이 확대하는 방향에서 진척시키였는데 이 사업의 주요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갑산과 삼수, 풍산 지구였다. 이 지구는 우리와 지역상으로 가까웠을 뿐 아니라 거기에는 국내 여러 곳에서 모여온 형형색색의 운동자들과 선각자들, 서간도 지방에 친척, 친우, 친지들을 둔 연고자들이 많았다.

갑산, 풍산, 일대에서의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은 우리가 권영벽, 이제순, 박달, 박인진을 통하여 직접 지도하였다. 박달이 우리를 만난 후 동지들과 함께 갑산공작위원회를 조국광복회 국내조직인 조선민족해방동맹으로 개편하고 그 산하에 여러 가

지 이름을 가진 수십 개의 하부조직들을 꾸리였다는 것은 이미 서술한바 있다.

갑산지방에 조국광복회조직을 꾸리는데서는 조국광복회 장백현위원회와 그 하부조직들도 한몫하였다. 장백현 18도구 주경동지회는 갑산군 강구리에 조국광복회 지회를 내올 때 큰역할을 하였다. 강구리는 주경동대안에 있는 마을이였다. 지회에서는 허리에 점심밥곽을 차고 주경동에 매일같이 건너와서 밭을 경작하는 강구리의 한 농민을 전취하여 그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 농민은 강구리에 돌아가 뜻을 같이하는 청년들로 곧 조국광복회 지회를 조직하였다. 갑산군 운흥면의 백암리 지회도 장백현에서 활동하던 조국광복회조직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결성되었다.

조선민족해방동맹을 비롯한 갑산군안의 조국광복회조직들의 산하에는 수많은 임업노동자들과 화전민들, 교인들이 결속되었다.

조국광복회 장백현위원회는 하강구 대안에 위치한 삼수지구의 조국광복회조직건설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조국광복회 광생리지회는 장백현 17도구 왕가동지회 청년부 책임자이며 훗날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이 된 최경화의 영향과 지도밑에 조직되였다.

조국광복회조직건설에서 성적이 제일 좋은 고장은 풍산이였다. 풍산은 오래전부터 반일사상이 강한 곳으로서 유명하였다. 풍산지구에는 일제의 2조선강점과 함께 고향에서 농토를 빼앗기고 살길을 찾아 북행길에 올랐던 영남지방 출신의 한 화전민들과 허천강발전소 공사장에 끌려온 모집인부들이 많았다. 그 당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일본본토와 조선, 만주의 경제적 잠재력을 침략전쟁확대에 모조리 동원하기 위한 계획의 한 고리로 신흥재벌 노구찌를 내세워 수십 만 킬로와트의 발전능력을 가진 허천강발전소를 건설하게 하였다. 발전소건설에 동원된 수천 명에 달하는 그 인부들이야말로 통일전선에 가장 쉽게 묶어세울 수 있는 커다란 역량이였다. 풍산땅에는 또한 수백 명의 애국적인 천도교도들과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다.

풍산지구를 조국광복회망으로 뒤덮으면 백두산 근거지를 개마고원일대에로 확대할 수 있었으며 후치령동쪽의 여러 지방들에 조국광복회조직을 내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개마고원일대를 혁명화해야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함경남도와 동해안일대도 혁명화하며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불길을 국내깊이에까지 지펴올릴 수 있었다. 우리가 풍산땅을 보는 전략적 시야는 이런 것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백두산지구에 진출한 후부터 풍산지방의 선각자들은 우리와 연계를 가지려고 장백땅에 부지런히 드나들었다. 그런 선각자들 중에는 혁명군에 입대할 꿈을 꾸는 사람들도 많았다.

풍산땅에 조국광복회의 씨앗을 심은 박인진, 이창선, 이경운을 비롯한 천도교계통의 인물들은 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치적 영도를 목마르게 기다리면서 장백에 건너와있던 풍산출신의 애국자들이였다. 맨먼저 이창선이 참군에 성공하였고 그의 소개와 주선으로 박인진이 우리와 만나 통일전선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이경운이 우리 부대에 입대하였다가 개마고원일대에 정치공작원으로 파견되였다.

풍산땅에 간 이경운은 수전공사장의 노동자들속에 들어가 우리의 통일전선노선과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정열적으로 소개선전하면서 동지들을 규합하여 1937년 봄에 조국광복회 풍산지회를 조직하였으며 그 후 박인진과 함께 핵심적인 천도교 청년당원들로 생산유격대를 조직하였다.

조국광복회 풍산지회는 짧은 시일내에 수백 명의 천도교인들을 회원으로 흡수하였다. 천남면에서는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인 홍군지구 반일노동회가 조직되었다. 1937년 여름 **김정숙**이 도천리－시판지구 공작을 하면서 풍산지구에 파견한 조국광복회 회원 김유진은 리창선과 함께 황수원 언제 공사장의 핵심노동자들로 조국광

복회 배상개덕지회를 조직하였다.

개마고원일대의 조국광복회조직건설에서 풍산지구가 성적이 제일 좋았던 것은 그곳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치적 영도가 많이 미치였던 것과도 관련되어있다. 혁명군의 여러 소부대들 과 소조들이 풍산지구에 진출하여 그곳 혁명조직들을 도와주었다. 나도 신흥지구에 가서 국내혁명가들을 만나고 돌아오던 길에 풍산비밀근거지에 들려 천도교인들과의 사업을 하였다.

조국광복회하부조직은 1930년 탄부들의 폭동으로 전국적 인민들의 동정과 지지를 불러일으켰던 신흥지구에도 뿌리를 내리었다. 신흥지구를 처음으로 개척한 것은 장백현 도천리에서 국내공작원으로 파견되어나온 조국광복회원 이효준이였다.

압록강연안과 개마고원일대에서의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은 점차 동해안일대의 도시들과 농촌지역들에로 확대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들은 동해안일대를 개척하는데서도 비상한 조직력과 전개력을 발휘하였다. 그들은 1937년 여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낭림, 부전, 신흥, 홍원, 북청, 이원, 단천, 허천 일대에 나와 이주연, 이용, 주동환을 비롯한 국내혁명가들과의 밀접한 연계밑에 조국광복회조직건설사업을 진행하였다.

주동환은 우리와의 연계를 맺어보려고 서간도에 뻔질나게 드나들었다. 그러다가 그는 서간도에서 왕가등촌장의 소개로 권영벽의 공작선에 흡수되었다. 권영벽과 주동환은 용정대성 중학교 시절의 동창생이였다. 주동환이 장백과 연길 지방에서 반일계몽사업을 많이 해왔고, 또 국내에 나가서도 혁명운동에 관계하다가 서대문형무소에서 2년이상이나 감옥살이까지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권영벽은 그에게 북청, 단천 지방에서의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을 맡기였다.

주동환은 국내에 나오자 북청에서 조정철과 함께 김경식 등을 흡수하여 조국광복회 지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지구위원회산하에는 짧은 기간에 10개에 달하는 분회가 조직되었다.

그 후 주동환은 고향에 돌아와 동료들과 함께 조국광복회 단천지회를 조직하였다. 단천지회는 산하에 단천읍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분회를 두고 북방친목회와 남방친목회와 같은 친목단체들을 조직하여 거기에 많은 군중을 묶어세웠다.

중일전쟁이 일어난 후 조국광복회 장백현 하강구위원회에서는 많은 공작원들을 국내에 침투시키였다. 그때 위안찬도 여러 동무들과 함께 흥남지구에 파견되었다. 군수공장들이 많이 집결되어있는 산업중심지 흥남에서 하강구의 지하공작원들은 조국광복회 흥남지구위원회를 내오는데 성공하였다.

그와 거의 같은 시기에 원산에 침투한 정치공작원들은 선진적인 반일청년단체인 고려회 성원들을 조국광복회조직에 묶어세웠다. 고려회는 대중을 의식화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일제의 ≪황민화≫정책을 반대하는 투쟁과 일본인악질교장을 축출하기 위한 동맹휴학도 조직하였다.

조국광복회 도천리 지회조직에서 파견된 지하공작원들은 흥원지방에도 조국광복회하부조직을 내왔다. 그 조직의 명칭은 홍원농민조합이였다. 조합은 자기 산하에 여러 개의 지회를 두었다.

조국광복회하부조직은 이외에도 이원과, 부전, 함흥 등 여러 지방들에 뿌리를 내리었다.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은 동해안의 북부 여러 산업중심지들과 농어촌들에서도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이 지방은 북부국경지대의 도들가운데서 일찍이 ≪길림바람≫이 많이 들어간 고장이였다. 우리가 동만에서 유격구를 꾸려놓고 무장투쟁을 할 때에도 이 고장 인민

들속에는 혁명적 영향이 크게 미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인 영향과 후원밑에서 이 지방 인민들은 일찍부터 반일구국투쟁에 적극적으로 떨쳐나섰다. 이 지역의 농조운동은 그 적극성과 완강성으로 하여 우리의 주목을 끌었다. 함경북도지방은 어느 모로 보나 대중의 의식화, 조직화를 비교적 빨리 다그쳐나갈 수 있는 곳이었다.

우리는 이 지방에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수한 정치공작원들을 수많이 파견하였다. 국경을 끼고 있는 북부 시, 군들에는 소부대들까지 들이밀었다.


청진항

조선인민혁명군의 소부대들과 소조들은 함경북도안의 여러 곳에서 비밀근거지들과 활동거점들을 꾸리고 그에 의거하여 조국광복회조직건설과 대중운동을 지도하였다.

한편 우리는 이 지방의 여러 시, 군들에 반일운동관계자들과 대중단체 지도자들을 근거지에 데려다가 일정한 기간 교양을 준 다음 출신지역들에 다시 들여보내여 통일전선운동을 지도하게 하였다. 청진사람이 청진지방운동을 지도하거나 무산출신이 무산지방운동을 지도하는 것은 실정에 맞는 사업지도를 할 수 있게 하는 점에서도 유리하였지만 항일혁명이 심화되는데 따라 점점 더 늘어나는 공작원의 수요를 보충하는데서도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었다.

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들과 애국투사들에 의하여 함경북도 지방에서는 노동계급이 많이 집결되어 있는 무산, 청진, 어대진, 연사 일대와 길주-혜산선철도를 낀 농조 세력이 강한 남부시, 군들에서부터 먼저 조국광복회운동의 불길이 일기 시작하였으며 1937년 여름에는 벌써 이 고장들에서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의 결성을 보게되었다. 조국광복회조직은 날을 따라 더욱 확대되어 1940년대 전반기에 이르러서는 그 조직의 수가 수십 개에 달하였다.

함북지방에서 조국광복회조직을 꾸리기 위한 운동이 가장 폭넓고 심도있게 벌어진 곳은 연사와 무산 지구였다. 그것은 1930년대 후반기 우리가 서간도를 떠난 후 연사, 무산대안의 올기강유역에서 주로 정치군사 활동을 하였고 또 그 무렵에 국경지대의 혁명운동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연사, 무산 지구에 소부대들과 소조들을 자주 들여보낸 사정과도 관련된다. 최일현도 소부대를 데리고 연사지방에 다녀왔고 오일남도 7-8명으로 구성된 소조를 인솔하고 그 지구를 다녀왔다. 오중흡연대장 역시 50여명으로 구성된 4중대 성원들을 거느리고 이 고장에 진출하여 활동하였다. 우리의 소조들과 소부대들이 연사땅에 한번씩 들어갔다가 나올 때마다 이 고장에서는 조국광복회 지회들과 분회들이 조직되군 하였다.

연사지구의 조국광복회조직건설에 공헌을 한 지하공작원은 최원봉과 윤경환이였다. 최원봉이 연사지구 조국광복회 책임자라면 윤경환은 연사지구 당조직책임자였다. 그 두 사람은 다 장백에서 우리가 키워낸 공작원들이었다.

지금 대성산의 혁명열사릉에 안치된 항일혁명투사들 가운데 최원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형이 바로 최원봉이다.

최원봉은 줏대가 굳고 궁냥이 깊으며 혁명성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의 이런 우점을 맨먼저 찾아내고 그것을 값높게 평가한 사람이 바로 김주현이었다. 김주현은 동

강에서 선발대의 임무를 받고 장백에 나와있을 때 최원봉을 찾아내여 권영벽과 이제순에게 소개하여주었다.

장백현 18도구 영화동이라면 원군사업을 잘하는 것으로 이름난 고장이였고 항일혁명투사들을 많이 배출해낸 것으로도 유명해진 고장이다. 바로 이 영화동에서 조국광복회 지회장 겸당소조 책임자로 활동한 사람이 최원봉이였다. 그의 활동을 배후에서 지도한 사람은 김주현과 김세옥이였다. 그들의 지도와 격려밑에 최원봉은 조국광복회조직도 내오고 당소조도 뭇고 생산유격대도 조직하였다. 김주현은 18도구에 올 때마다 최원봉과 김세옥의 집 뒤고방에 거처하면서 지하혁명조직들의 사업을 도와주었다.


최원봉

최원봉은 유격대후방가족들을 잘 교양하여 그들을 고스란히 조국광복회조직에 받아들이였다.

1936년 가을 3종점 부근전투가 있은 후 나는 밀영에서 원군물자를 지고 짐군들과 함께 우리를 찾아온 최원봉을 만나 보았다. 얼핏보아도 똑똑하고 책임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체통이 별로 크지 않은 중키의 사람이였는데 군중을 잘 통솔하였다. 그의 구령 한마디에 짐군들이 모이기도하고 헤쳐지기도 하였다. 최원봉은 우리에게 군사정보도 여러 차례 보내주었다.

1937년 5월경 우리는 무산군을 비롯한 북부지방들에서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최원봉을 연사지구에 파견하였다. 연사지구에 도착한 최원봉은 다른 공작원들과 함께 연면수 상류일대의 떼무이공들과 유벌공들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분회조직을 꾸리였다.

최원봉의 성실한 방조자인 윤경환은 김일이 장백현 8도구 가재수에서 공작할 때 그 고장의 조국광복회조직에 망라되어 활동하던 사람이였다. 그는 김일과도 인연이 깊었지만 김성국과도 친분이 이만저만 두텁지 않았다. 그도 최원봉처럼 원호물자를 지고 우리 밀영에 여러 번 왔다갔다. 우리가 가재수를 치고 밀영으로 철수할 때에도 윤경환은 전리품을 지고 짐군들속에 섞여 우리를 따라왔다.

적들은 유격대에 짐을 지고간 사람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그들속에서 조직선을 찾아내려고 여러 모로 애를 썼다. 체포의 위험이 목전에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은 윤경환은 가족들을 데리고 동만에 옮겨와 신개촌이라고 부르는 올기강유역의 옥돌골 상촌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이동걸

그 후 우리는 윤경환을 연사지구에 파견하였고 그를 이지구 당조직 책임자로 추천하였다. 언제인가 윤경환은 조직성원들과 함께 후방물자를 지고 곧은골에 주둔하고 있던 우리 부대에 찾아왔다가 연사지구에 분포된 조국광복회 분회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구위원회의 조직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고 갔다고 한다.

나는 이미 국사봉회의에서 연사지구 동무들에게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언을 준 바가 있었다. 조국광복회조직건설운동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키자면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정연한 지도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했더니 그들이 다 그 조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였다.

윤경환이 짐을 지고 우리 부대에 찾아온 것은 이동걸(김준)이 적들에게 체포되기 전의 일이였다고 생각된다. 이동걸은 청봉밀영에서 과오를 범하고 책벌을 받은 후

연사, 무산 지구에 나와 정치공작을 하였다. 그는 최원봉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연사지구의 혁명운동을 지도하였다.

우리는 이동걸의 후임으로 국내공작경험이 있는 **김정숙**을 연사지구에 파견하였다.


이주연

김정숙이 연사지방 혁명가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고 조국광복회연사지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가 그 회의를 마치고 사령부로 돌아와서 연사조직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재봉기 한 대를 내놓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최원봉을 비롯하여 조국광복회연사조직에 망라된 애국자들은 무산지구전투때에도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다.

이동걸과 최원봉, 윤경환의 희생으로 하여 연사지구조직공작의 내막은 오래도록 비밀로 묻혀있었다. 그 비밀의 일단이 세상에 비로소 알려지게 된 것은 1970년대초 우리 당의 혁명역사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는 사업이 전군중적으로 벌어지던 때였다.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서선지방과 중부조선, 남부조선 일대에서의 조국광복회조직건설에도 응당한 주위를 돌리었다.

평안남북도지방은 황해도지방과 더불어 민족주의세력이 매우 강성했던 지역이였다. 서부조선일대는 천도교세력과 기독교 세력도 대단히 강하였다. 그런데 이 종교세력이 순수 신앙에만 매달려있은 것이 아니라 애국애족을 하였다. 3.1인민봉기 당시 천도교, 기독교, 불교를 포함한 조선의 3대종교세력이 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는 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최경민

서선지방의 청년들속에서는 김혁, 차광수, 강병선을 비롯한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도 많이 배출되였다. 우리는 공영과 강병선을 통하여 일찍부터 이 일대에 손을 뻗치였다. 우리의 공작원들은 불이 농장 소작쟁의로 전국에 널리 알려진 용천지구에 나가서도 군중을 의식화하였다. 불이 농장 소작쟁의는 반일에서 살길을 찾고 있던 이 지방 인민들의 강의한 투쟁정신과 애국열의 일단을 보여주었다.

서북조선일대에서의 조국광복회조직건설에서 신의주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1937년 7월초에 이 도시에서는 조국광복회 신의주지회가 결성되었다. 8월에는 빈농민들과 유별노동자들을 망라하는 리산반일회가 위원에서 조직되었다. 지하공작원들은 압록강중류지대의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을 연속적으로 꾸려놓았다. 강병선은 일가친척이 모두 천도교인이라는 유리한 점을 이용하여 교의 줄을 잡아쥐고 조직공작을 능숙하게 벌려 여러 개의 조직들을 만들어 놓았다.


평양의 일각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의 조직건설을 뿌리는 후창군과 철산군에도 뻗어갔다.

우리는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을 위하여

양덕과, 덕천, 평양과 해주, 벽성 등지에도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였다.

평양과 평안남도 일대의 조국광복회조직건설에서는 이주연, 현준혁, 최경민 등이 큰 공로를 세웠다.

이주연이 단천에 있다가 평양으로 나온 것은 반일운동을 새로운 고장에서 더 통이 크게 벌이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평양정창고무공장직공반일회, 평양곡산공장노동반일회, 남포반일회 등은 다 이주연이 꾸려놓은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이였다.

대구에서 감옥생활을 마친 후 평양으로 활동무대를 옮긴 현준혁은 우리의 통일전선노선을 받아물고 승호리세멘트공장 노동계급속에 들어가 조국광복회지회를 조직하는데 참가하였다.

나의 4촌동생 김원주가 망라되어있던 조국해방단과 강서지구의 일심광복회도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이였다.

한때 무송에서 우리 아버지의 혁명사업을 성심성의로 후원해주다가 조국에 나온 최경민은 양덕지구에서 통일전선운동을 맹렬하게 벌이였다. 그는 유교를 믿는 사람들속에까지 깊이 스며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각성시켜 조국광복회조직에 받아들이였다.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은 평안남도 온천지방에도 있었다.


민덕원

황해도지방에서의 조국광복회조직건설에서는 우리 공작원들에 의해 흡수된 민덕원이 주역을 담당하였다. 황해도일대에는 우리의 정치공작원들이 개척한 비밀근거지들이 많았다. 이 근거지들에서 활동하던 우리 공작원들이 민덕원을 쟁취하여 그를 조국광복회조직건설에 인입하였다. 민덕원을 비롯한 황해도지방의 애국자들에 의하여 도안의 곳곳에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이 연이어 태어났다.

동해안중부지방에서의 조국광복회조직건설엔 노동계급이 많이 집결되어 있는 천내지구와 양양, 고성, 문천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천내리세멘트 공장 반일노동회는 규모도 컸지만 실천투쟁을 잘한 것으로 유명하였다. 양양의 속초구국회의와 고성의 장진반일회도 조국광복회조직이였다.

남부조선에서의 조국광복회조직건설과 관련된 자료들은 국토분단으로 하여 충분히 발굴되지 못하고 있지만 일제 경찰자료 들에 남아있는 것들만 해도 그 수는 많다.

최근에는 일본에서의 조국광복회조직건설과 그 활동에 관한 자료가 여러 건 발굴되었다.조국광복회하부조직들이 오까야마를 비롯하여 도꾜에도 있었고 교또나 오사까, 호가이도에 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20여만의 회원을 가지고 전민항쟁에로 육박하던 조국광복회조직은 조선민족해방투쟁역사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쌓아올린 하나의 기념비이다. 조국광복의 기치밑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역량을 민족해방위업에 조직동원하는데서 이 조직들은 실로 거대한 공헌들을 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첫째는 인민대중의 혁명의식을 높이는데서 세운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인민들은 통일전선운동과정을 통하여 조선의 해방은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이룩하여야 한다는 사상, 무장한 원쑤들과는 반드시 무장으로 맞서야한다는 사상, 조선인민이 민족적 독립을 이룩하자면 계급, 성별, 연령, 당파, 종교의 차이를 초월하여 일치단결해야 하며 전세계 피압박 민중들과 연합하여 공동전선을 펼쳐야한다는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게 되었다. 인민대중의 비약적인 사상의식의

발전은 1930년대 후반기의 민족해방투쟁을 강력하게 추동하는 요인으로 되였다.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의 개조에서 특기할 것은 그들이 무장을 들고 일제와의 혈전을 벌이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조국해방의 주력으로 보고 우리에게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우리의 영도를 더욱 충실하게 받들어 나가게 되였다는 사실이다. 조선민족해방투쟁과 조선공산주의운동은 1930년 후반기부터 인민혁명군의 중심활동거점인 백두산을 축으로 하여 진행되였다.

조선의 인민대중은 백두산에서 울리는 목소리라면 어떤 것이나 다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였고 대소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실행하였으며 백두산을 지원하는 일이라면 지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조선혁명의 영도중심에 대한 인민대중의 충실성은 곧 인민혁명군에 대한 물심양면의 지원으로 표현되였다. 전국의 인민은 재력과 금력, 인력, 정신력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후원해주었다.

조국광복회조직들은 유격대를 도와주기 위한 전인민적인 운동을 힘있게 벌이였다. 조국광복회 갑산지회에서는 원래 천도교인들이 바치는 ≪성미≫를 천도교중앙에 올려보내군 했었는데 1930년대 후반기부터는 그 ≪성미≫를 조직적인 방법으로 인민혁명군에 보내였다. 인민혁명군이 식량고생을 한다는 소문만 들으면 서간도사람들은 결혼잔치, 환갑잔치, 생일잔치감으로 모아두었던 쌀마저 서슴없이 보내주었다.

조국광복회 신의주지회 조직성원들은 압록강에 수풍발전소의 언제가 준공되던 1938년경까지 우리 부대의 활동구역에 짐배로 원호물자를 실어왔다. 그 원호물자들 가운데는 천, 신발, 소금, 화약, 뇌관, 도화선을 비롯하여 별의별 것이 다있었다.

언제가 준공되고 뱃길이 막힌 후부터는 중국 단동시의 3번통과 6번통에 각각 원호물자를 모아두는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 물자를 집결시켰다가 자동차와 철도로 관전, 홍경, 통화지방에서 활동하는 인민혁명군의 대부대들과 소조들에 보내주었다. 마전동분회의 어떤 조직원은 반 톤 이상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돛배를 한 척 사서 낮에는 삯짐을 실어 돈벌이를 하고 밤에는 조직성원들이 수집한 원군 물자를 싣고 슬금슬금 인민혁명군을 찾아가군 하였다.

조국광복회회원들은 백두산에서 1.000리 이상이나 멀리 떨어져있는 서울에서도 혁명군의 활동에 필요한 후방물자를 구해서 보내주었다.

조국광복회북청조직의 한 성원이였던 전조협은 북청군 속후 ≪삐오네르사건≫에 관계한 ≪죄≫로 형무소에서 감옥살이까지 한 사람인데 1937년 이후부터는 조직의 위임에 따라 서울에 가서 지하공작을 하였다.

그는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공작을 벌이면서 한편으로는 유격대지원을 위한 모금사업으로 물지게 장사를 시작하였다. 원래 북청사람들은 물지게장사를 하여 서울공부를 하는 자식들의 학비를 대주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전조협에게는 서울공부를 시킬만한 자식이 없었지만 혁명을 위하여 물지게를 지였다.

그는 물지게장사를 하여 번 돈으로 천, 신발, 백로지, 의약품, 등사잉크를 비롯한 원군물자들을 마련하였다. 그가 원군물자들을 구하여 북청에 부치면 그곳 조직에서 우리한테 보내주군 하였다.

한번은 그가 아침 일찍 물지게를 지고 언덕길을 오르다가 노상에서 여자용금시계를 얻은 일이 있었다. 부자집 여인들도 흔히 찰 수 없는 고급시계였다.

그는 시계임자를 찾기로 결심하고 언덕 길주변의 집들을 돌아다니였다. 시계는 가게방집 딸이 약혼선물로 받은 것이었다.

시계를 찾은 가게방집 사람들은 그 시계의 본값보다도 더많은 사례금을 주었다.

결국 그 돈으로 많은 원호물자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 금시계건이 있은 다음부터 그는 가게방집사람들과 혈육처럼 가깝게 지냈다. 가게방집 사람들은 전조협의 영향을 받아 항일유격대를 무한히 동경하게 되었으며 유격대를 돕는 일이라면 성의를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전조협이 요구하는 물자들을 직접 장만하여 북청에 부쳐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서울의 평범한 소시민가정도 조국광복회원의 안내로 원군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조국광복회 국내조직들은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태업, 파업, 시위, 폭동, 소작쟁의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일제의 강도적 수탈을 반대하는 투쟁, 일제의 ≪황민화≫정책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 일제의 대륙침략과 전쟁정책 수행에 타격을 주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조직 지도하였다.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을 통하여 조선의 혁명가들이 얻은 또 하나의 소득은 이 운동을 통하여 당조직건설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더욱 튼튼히 마련한 것이었다. 우리는 조국광복회조직들에서 육성된 핵심들로 전국각지에서 당소조들을 무었다. 이 소조들이 결국은 조국광복회조직들도 지도하고 대중투쟁도 지도하였다. 투쟁속에서 태어나 투쟁을 통해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끊임없이 단련된 당조직들이야말로 장차 해방된 조국땅에서 근로대중의 위력한 정당을 창건할 수 있는 초석으로 되었다.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은 또한 조선의 혁명가들로 하여금 대중단체조직건설의 풍부한 경험도 쌓게 하였다. 이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해방 후 그처럼 짧은 기간에 민청, 직맹, 여맹, 소년단과 같은 계층별 대중단체들을 건설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조국광복회조직건설과정을 통하여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의 유구한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진실로 애국적이고 애족적이며 혁명적인 강유력한 통일전선의 참모습을 창조하였다. 백두산을 축으로 하여 형성된 반일민족통일전선은 우리 나라 민족통일전선운동의 전통으로 되었으며 우리 인민의 억센 기상을 유감없이 과시하였다.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의 전 과정은 조선인민이 분열이나, 대립보다 통일이나 화합을 더 좋아하는 인민이며, 당파와 소속, 신앙에 관계없이 하나의 기발밑에 뭉쳐 싸워나갈 수 있는 뛰어난 의지를 가진 인민이라는 것을 확증해주었다.

노동당시대의 우리 인민들은 그 단결력의 최고형태인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이미 오래전에 실현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쪽으로 갈라진 북남의 통일이다. 조국통일은 나의 일생을 관통하고 있은 변함없는 의지이고 신념이다.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마땅히 하나의 통일국가에서 살아가야 하며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민족통일과 관련된 우리의 입장이고 관점이다. 무슨 담보를 가지고 북남통일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하는가. 우리에게는 민족대단결이라는 위력한 무기가 있다. 그리고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을 통해 이룩한 민족통일전선의 풍부한 경험이 있다.

반세기전에 이미 통일전선의 경륜을 훌륭하게 이루어온 우리 민족이 왜 지금에 와서 민족대단결을 실현하지 못하겠는가. 그 이유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무조건 통일전선을 해야한다. 통일전선만이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서 우리 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통일전선은 민족이 민족으로 살아남는데 필요한 영원한 생존방식이다. 민족이 살아나갈 길도 통일전선에 있고 민족이 부흥하고 번영하는 길도 통일전선에 있다. 이것이 내가 해내외의 우리 동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5. 권영벽


권영벽

권영벽은 말수더구가 적은 사람이었다. 선전일군이라면 의례히 말을 잘하는 것으로 통하고 있지만 그는 사단선전과장으로 사업할 때에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요긴한 말을 조리있게 몇 마디 할 뿐 실속없는 빈말을 늘어놓거나 한번 한 말을 다시 곱씹는 법이라고는 없었다. 얼굴표정이나 외모를 보아서는 그의 생각과 감정상태를 좀처럼 가늠할 수 없었다.

권영벽은 거짓말을 하거나 허장성세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였다. 그는 자기가 한다고 말한 것은 몸이 열 쪼각 나도 기어이 해내는 사람이었다. 언행의 일치, 아마 그것이 권영벽의 사람됨을 단 마디로 규정지을 수 있는 특징이며 인간적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백두산과 서간도를 주되는 활동지대로 삼고 싸우던 당시 권영벽에게 장백현당위원회 책임자의 중책을 맡긴 것도 기실은 그 인간적 매력을 중시하였기 때문이었다.

장백현당 책임자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자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장백현당은 우리가 백두산밀영에서 인민혁명군당위원회를 열고 무슨 노선을 세우거나 긴급한 과업을 제기하면 그것을 제일 먼저 접수하고 집행하는 중추적인 당조직의 하나였다. 우리가 내놓은 노선이나 과업들은 많은 경우 장백현당과 국내당공작위원회, 동만당공작위원회를 통하여 서간도와 북간도, 국내에 전달침투되었으며 그 집행과정도 대부분은 이 통로를 거쳐 인민혁명군당위원회에 보고되었다.

장백현당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위와 역할은 우리가 백두산밀영에 활동거점을 잡은 조건에서 서간도 땅을 또 하나의 발판으로 삼아 국내와 만주에서 혁명을 확대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던 사정과 조선공산당이 해산된 후 새 형의 당을 창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민혁명군당위원회가 국내당공작위원회와 동만당공작위원회, 장백현당위원회 등을 통하여 당조직건설과 전반적인 항일혁명을 영도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사정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1930년대 전반기 우리가 동만에서 유격근거지를 꾸려놓고 싸울 때 소왕청이 항일혁명의 중심지로 되었던 것처럼 후반기에는 서간도를 포함하는 백두산근거지가 항일혁명의 중심지로 되였다. 백두산밀영은 그 중심에 있는 핵이였고, 백두산주변 국내의 넓은 지역과 함께 장백땅은 그 핵을 둘러싼 살이었다. 장백땅에는 우리가 건설한 밀영들이 많았다. 그 밀영들을 보호하고 보존하자면 장백땅을 우리 세상으로

만들고 장백지방의 인민들을 혁명화해야 했다.

장백에서 조국광복회조직건설운동을 전개해나가자면 적들과의 첨예한 대결이 불가피하였다. 만주국의 통치는 서툴었지만 장백에 있는 일본의 첩보세력이라든가 일만군경의 ≪토벌≫역량을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국내로 진출할 때 장백땅을 반드시 경유한 것처럼 적들도 우리를 치자면 반드시 장백땅을 거쳐야하였다. 장백은 적아쌍방이 다같이 중시하는 군사전략상 요충지였다.

이런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장백현당 책임자를 선발하는데서 기준을 높이 세웠다. 장백현당 책임자라는 중책을 감당하자면 큰 담력과 선도력, 포옹력, 조직력, 활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였다. 지하전선을 움직이는 것만큼 정확한 판단력과 치밀성, 임기응변의 지략도 지니고 있어야 하였다. 특히나 시야가 넓어야 하였다.

이런 표징을 갖춘 인물을 고를 때 내 머리에 선참으로 떠오른 사람이 다름아닌 권영벽이었다. 김평도 그를 추천하였다.

나와 권영벽은 동창도 아니였고 동향인도 아니였으며 유격구 시절부터 한 가마밥을 먹으며 고락을 같이한 사이도 아니었다. 1930년대 전반기 유격구가 한창 번성하던 시절에 나는 왕청에 있었고 권영벽은 연길에 있었다. 권영벽은 교하원정을 참가하였다가 1936년 10월에야 백두산밀영으로 찾아와 주력부대에 편입되었다.

권영벽은 일찍이 중학시절부터 반일운동에 참가하였다. ≪불온학생≫으로 지목되어 퇴학처분을 당한 다음부터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직업적인 혁명가가 되었다. 나는 동만지구에 있을 때 오중화인가 박영순한테서 권영벽에 대한 일화를 들은 일이 있었다. 그 일화란 아버지의 장례날 그가 당한 참극과 그때에 나타낸 그의 비상한 자제력에 대한 것이었다

어느 날 공작지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는 부고를 받은 권영벽은 저녁어스름을 타서 집으로 달려갔다. 그가 상복을 입고 아버지의 영구앞에 서기도 전에 어느새 낌새를 챘는지 말탄 헌병들이 장례현장에 달려들어 식구들을 밖으로 끌어냈다. 그리고는 권영벽에게 네놈이 권창욱이냐고 물었다. 창욱이란 그의 아명이었다. 권영벽은 헌병들 중에 자기 얼굴을 아는놈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인차 간파하고 공손하게 동생 창욱이는 오래전에 집을 떠난후 어데 가있는지 몰라서 부고조차 보내지 못했다고 대답하였다. 그 시각에 형 권상욱은 마침 도가에 가고 없었다. 그 통에 권역벽은 권상욱의 역할을 한 것이다.

적들은 권영벽을 잡지 못한 분풀이로 영구가 놓여있는 집에 불을 지르고 집이 다 타서 재가 되는 것까지 보고서야 물러가버리였다.

권영벽은 아버지의 시신이 처참하게 불타는 광경을 보면서도 입술을 앙다물고 비분을 참고 견디였다. 공작지로 돌아간 그는 동지들이 부어주는 술도 마시지 못하였다. 자기의 이발에 깨물리운 혀와 입술의 상처가 너무 심해서 며칠동안 죽도 먹지 못하였다.

권영벽은 동만의 공산주의자들속에서 비상한 자제력을 가진 청년투사로 알려지게 되었다. 혁명가가 원쑤들을 타승하고 대의를 성취하려거든 권영벽쯤은 되는 참을성을 가지고 일시적인 충동이나 고통을 참을 줄 알아야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장례날의 그 일화를 들은 사람들이 다 권영벽을 찬양한 것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두 번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권영벽이 대항해나서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자식으로서 어찌 처신을 그렇게 한단 말인가, 무슨 수를 써서든지 놈들이 영구를 불태워버리지 못하게 막아나서야 할 게 아닌가고 비난하였다.

그런 비난을 두고 권영벽의 지지자들은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해버리었다. 보통

사람이 그런 순간에 놈들에게 대항해나선다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권영벽은 적들앞에 자기 정체를 드러내서는 안될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적들에게 항거해나서면 즉석에서 총살당할 것이고 잘되는 경우라야 감옥에 잡혀가겠는데 그러면 혁명도 못하고 말 것이 아닌가고 하였다.

권영벽은 혁명의 길에 나설 때 집을 떠나면서 안해에게 이런 작별인사를 하였다고 한다.

≪나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요. 설사 살아서 돌아온다 하더라도 혁명이 10년후에 성공하게 될지, 20년 후에 성공하게 될지 그것도 기약할 수가 없소. 그러니 당신은 나를 기다리느라 하지 말고 당신 나름대로 살길을 찾소. 당신이 나를 이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치고 재혼한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탓하지 않겠소. 다만 부탁할 것은 아이가 자라서 철이 들면 아버지의 뒤를 잇도록 키워달라는 것이요.≫

이 작별인사 역시 시비거리가 되였다. 안해에게 하는 작별인사치고는 너무도 몰인정하다는 것이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여성일반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였다. 같은 값이면 왜 나는 이기고 돌아온다,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하지 못하는가, 안해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그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 조선여자들에게는 나라가 독립될 때까지 혁명의 길에 나선 남편들을 기다릴만한 절개와 의리도 없단 말인가, 여자들을 얕보아도 분수가 있지 않느냐고 하였다.

권영벽이 안해에게 했다는 말을 직선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보다 더 혹독한 비난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혁명의 길에 한 몸을 서슴없이 바칠 각오가 되어있는 사람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며 안해를 참답게 아끼고 사랑할줄 아는 사람만이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일단 혁명은 시작하면 끝장을 볼 때까지 온몸과 넋을 깡그리 연소시킬 준비가 되어있는 투사가 아니고서는 그처럼 솔직하고 비장한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권영벽의 그말에서 오히려 참다운 인간상을 발견하였다.

여러 해가 지난 1935년 봄에 나는 요영구에서 권영벽을 처음으로 만나보았다. 당시 거기서는 동만각지의 유격부대들과 혁명조직들에서 활동하는 일군들을 선발하여 군사정치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단기군정강습을 주었는데 그 수강생들 가운데 권영벽도 끼여있었다.

광란적인 반≪민생단≫투쟁소동으로 수많은 애국청년들이 이국의 고혼으로 사라진 그때 강습장에서 그를 대하게 되니 마치 다정한 옛 벗을 보는 것만 같아 반가움을 금할 수 없었다. 물론 우리는 서로 통성도 하고 담화도 하였다. 첫 상면치고는 꽤 진지한 담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가운데는 안해와 헤여지던 때의 장면도 있었다.

≪안해에게 좀더 살뜰한 말을 남기고 떠날걸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의 가슴이 덜 아팠을게 아닙니까.≫

내가 이런 말로 아쉬움을 표시하자 권영벽은 머리를 가로젓는 것이였다.

≪아무 때건 당할 아픔인데 뒤로 미룰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동무는 지금도 살아서 안해의 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권영벽은 그 물음에도 태연하게 대답하였다.

≪살아서 조국이 광복되는 것도 보고 고향에도 돌아가고 싶지만 그런 행운이 나한테는 차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적들과의 결전에서 뒤자리에 설 생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원한을 풀기위해서라도 언제나 맨 앞자리를 차지할 작정입니다. 선두에서 결사전을 벌려야 할 이 몸이 어찌 살아날 생각부터 하겠습니까. 그런 우연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가 한말에는 진실이 담겨져 있었다.

권영벽의 그 후 행적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는 실제로 혈전장에서나 지하전선에서나 가장 치열하고 위험한 앞자리에 서군 하였다. 2연대가 교하원정을 할 때 권영벽은 2중대 당지부서기로 있었다. 원정대가 적들의 포위속에 들어 괴멸당할 번한 위기를 여러 번 겪었으나 그때마다 그는 오중흡을 비롯한 전우들과 함께 연대를 구출해내군 하였다.

개미 한 마리도 얼씬하지 못한다는 국경경계마을을 뚫고 압록강을 건너가서 박달에게 나의 사신을 맨처음으로 전달한 사람도 권영벽이였다.


오중흡

우리가 권영벽을 장백현당 책임자 후보로 내정하게 된 다른 하나의 이유는 그가 1930년대 전반기 간도에서 사업할 때 일정한 지하공작경험을 쌓은 사람이라는데 있었다.

권영벽의 가장 큰 우점은 사람과의 사업을 아주 능숙하게 할줄 안다는데 있었다. 그는 사람들을 잘 끌어당기였을 뿐 아니라 끌어당긴 사람들을 원만하게 통솔할줄 아는 일군이였다.

황남순(황정열)은 지금도 그가 옹성라자에 가서 그 마을 좌상노인과의 사업을 능숙하게 하던 일을 감명깊게 회상하고 있다. 그 좌상노인의 성미가 이만저만 드세지 않았던 모양이였다. 공작원들이 여러 번 옹성라자를 개척하려고 침투해보았으나 그 노인 때문에 발도 붙이지 못하고 다 쫓겨났다고 한다. 원인은 공작원들이 마을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친숙해지기도 전에 성급하게 사상부터 주입하려 한데 있었다. 특히 그들은 좌상노인과의 사업을 잘하지 못하였다. 그 노인을 봉건이라고 하면서 무작정 따돌리기만 하고 쟁취할 궁리는 하지 않았다. 옹성라자의 그 좌상노인이 분명 오가자의 ≪변트로츠키≫ 영감만치나 대가 세고 완고하였던 것 같다.

권영벽은 자기 식대로 그 좌상과의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는 우선 노인이 예의범절을 잘지키지 않는 사람들과는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격식을 차려 초면 인사부터 깍듯이 하였다. 노인앞에 나타나자마자 조선예법대로 방바닥에 엎드려서 ≪노인님, 저는 생활이 넉넉치 못해서 떠돌아다니며 품팔이를 하는 사람이올시다. 이 마을 인심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잘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정중하게 절을 하였다.

권영벽의 남다른 예절과 인품에 기분이 흐뭇해진 좌상노인은 ≪그 젊은이 과연 인사범절이 밝다. 뉘집 후손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절지키는걸 보니 속이 익었거든. 우리 마을 인심이 무던한데 여기서 마음을 맞추며 살아가세나.≫라고 하면서 점심까지 대접하였다. 옹성라자에서는 이 노인을 쟁취하는 것이 전투장에서 하나의 고지를 점령하는 것만치나 힘든 일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권영벽은 조선절 한 번으로 그 고지를 어렵지 않게 점령하였다. 이렇게 되어 마을혁명화도 쉽게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는 권영벽을 장백현당 책임자로 내정한 다음 그로 하여금 현을 한바퀴 돌아보게 하였다. 현실연구를 시키자는 것이었다.

권영벽은 한 달가량 현지답사를 하고 나서 밀영에 돌아왔다.

1937년 2월 우리는 권영벽을 비롯한 여러 명의 지하공작원들과 함께 황산밀영에서 모임을 가지고 장백현당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 회의의 결정에 따라 권영벽은 현당책임자의 직무를 정식으로 맡게 되었다. 현당부책임자로는 이제순이 추천되었다. 회의에서는 또한 산하의 구당과 당소조들을 확대할 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나는 이날 권영벽에게 사업범위를 넓혀 당조직건설과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을 국

내깊이에로 확대할 데 대하여 강조하고 참군희망자들을 혁명군에 추천해보내는 문제, 적기관복무자들을 쟁취하여 조직에 받아들이는 문제, 조직성원들의 힘으로 군사정찰을 진행하는 문제 등 장백현당앞에 나선 여러 가지 과업을 제기하였다.

그 후 나는 인차 그를 적구에 파견하였다. 권영벽이 적구를 내려갈 때 우리는 그에게 황남순을 방조자로 붙여주었다. 권영벽과 황남순은 공작상 필요에 따라 부부로 위장하였다. 이것은 신변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적절한 위장방법이였다.

황남순은 일찍부터 지하공작경험을 쌓은 여자였다. 그는 15살 때 석인구 지장골이라는 마을에서 지하공작을 한 적이 있었다.


황남순(황정열)

어느 날 황남순은 지장골의 한농가에 가서 주인들의 일손을 도와주다가 그 집 부엌에 걸려있는 가마를 보고 깜짝 놀랐다. 부암촌유격구에서 살 때 자기 집에서 쓰던 바로 그 가마였기 때문이다.

(어떻게 되어 유격구에 있던 가마가 이 집 부엌에 와 걸려 있을가. 혹시 이 집 주인이 ≪토벌대≫를 따라갔다가 놈들한테서 받아온 것이 아닐까.)

황남순은 며칠동안 이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지장골의 지하조직성원들은 그 사연을 알게 되자 개가 틀림없으니 그 집을 아예 마을에서 들어내자고 하였다. 하지만 황남순은 인내성있게 주인집사람들을 알아보기에 노력하였다. 그 는 과정에 그 가마가 ≪토벌대≫가 부암촌유격구에 쳐들어가 집마다 불을 지르고 가재도구들을 소각해버릴 때 적들이 뽑아던진 가마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달구지와 함께 ≪토벌대≫에 강제로 끌리어 부암촌까지 따라갔던 집주인이 불탄 집터 옆에서 나딩구는 황남순네 집가마를 처싣고 돌아왔던 것이었다.

그런데 황남순과 지창골에 나갔던 임수산은 지하공작에서 실패하였다. 임수산은 이론도 있고 풍채도 좋은 신수 멀끔한 사람이였지만 군중들과 어울릴줄 모르다보니 호감을 사지 못하고 식객취급을 당하였다. 그는 어떤 반일회원네 집에 울방자를 틀고 앉아 하루 세끼씩 차려주는 밥이나 축내면서 집주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지시만 하였다. 어쩌다가 외출이라고 문밖을 나서는 경우에도 뒤짐을 지고 마을사람들에게 그 무엇인가를 검토하는 듯한 질문을 연거퍼 들이댐으로써 상대방은 물론이거니와 곁에서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불쾌한 감을 느끼게 하였다. 임수산은 지장골 사람들속에 종시 발을 붙이지 못하고 유격구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자기를 인민의 머리위에 군림한 특수한 존재로 여기게 되면 결국 군중의 버림을 받는 가련한 존재가 되고 만다. 물우에 뜬 기름방울처럼 사람들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곁에서만 맴돌면 군중의 호감을 살수도 없고 그들을 쟁취할 수도 없다.

권영벽과 황남순을 장백으로 파견할 때 우리 밀영에는 장백현에서 활동하는 지하공작원들이 많이 와있었다. 권영벽은 그날 그들과 함께 나한테서 적구공작임무를 받았다. 그가 임무를 흔연히 받아들이었으나 나는 마음이 가볍지 못하였다. 그에게 너무도 아름찬 과업을 짊어지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였다. 장백지구는 7도구로부터 25도구까지 포괄하고 있어 사실 합법적인 당사업을 한다해도 헐치 않은 넓은 지역이었다. 게다가 그는 장백현당사업을 지도하면서 국내운동에도 깊이 관여해야 하였다.

장백으로 파견되는 지하공작원들과 헤여질 때의 인상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지양개의 농민들이 음력설을 쇠라고 보내준 감자엿을 깨여먹던 일이다. 식량사정이 곤란한 때여서 진수성찬은 차려주지 못하고 엿을 한쪼각씩 나누

어 먹었는데 왜 그런지 그것이 오히려 깊은 감회를 자아낸다.

≪나는 동무에게 장백을 맡긴다. 장백과 나아가서는 서간도를 다 장악해야 우리 인민의 지도원도 받을 수 있고 혁명군의 인적 후비도 마련할 수 있다. 서간도를 틀어쥐지 못하면 우리가 대부대로 압록가을 넘나들며 국내작전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해 봄이나 여름부터 조국진출을 단행하려고 한다. 동무는 이제부터 적구에서 인민들과의 사업을 잘해야한다. 동무의 임무는 당조직건설을 하면서 인민들을 조국광복회조직에 묶어세우는 것이다. 인민들을 전취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 결과는 동무에게 달려있다. 나는 동무를 믿는다.≫


왕가골

이것은 권영벽을 바래주면서 내가 한말이다.

권영벽이네가 공작지로 떠나는 날 오전 우리는 한차례의 전투를 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출발은 아주 부산스럽게 되었다.

권영벽은 17도구 따스포네 집과 20도구 이제순의 집을 거쳐 공작 거점으로 사령부가 이미 내정해준 17도구 토기점리에 무사히 침투해 들어갔다. 왕가성을 가진 중국인지주가 세도를 부리던 곳이라고 하여 일명 왕가골이라고 부르는 17도구는 장백현의 중심부에 놓여있는 고장이었다. 게다가 압록강만 건느면 호인, 혜산 등지를 거쳐 국내깊이에도 가닿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왕가동은 왕가골에 있는 한 개 부락이었다.

권영벽은 길회선철도부설공사장에서 일공노동을 하다가 일자리를 떼운 서응진의 외조카로 가장하고 토기점리에 자리를 잡았다. 서응진은 연길지방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반일조직에 망라되어 혁명사업을 해오다가 정체가 드러나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주해온 노숙한 지하공작원이었다. 서응진, 최경화를 비롯한 17도구의 혁명조직성원들은 권영벽이 적들의 의심을 받지 않고 왕가동에 무난히 발을 붙일 수 있도록 집도 마련해주고 뙈기밭도 떼주었으며 왕가동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뇌물로 아편을 찔러주고 거주 승인까지 받았다.

그때부터 권영벽은 권수남으로, 황남순은 황정열로 각각 변성명을 하고 조직원들이 마련해준 작은 집에서 가짜 부부생활을 시작하였다. 훗날 권영벽은 황남순을 부를 때마다 ≪동무≫라는 호칭이 튀여나와서 당황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였다고 실토하였다.

원군물자공작조를 데리고 17도구를 다녀온 김주현은 왕가동 주민들속에 벌써 새 ≪부부≫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더라고 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이 고장에 발을 붙인 첫날부터 진일, 마른일을 가리지 않고 동리 사람들의 일손을 직심스럽게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권영벽은 공작상 필요로 이집저집 돌아다니다가도 남자의 손이 닿아야 할 일거리가 눈에 띄우면 나무도 패주고 작두질도 해주고 마당도 쓸어주었다. 관혼상제를 하는 집에 가서는 떡도 쳐주고 돼지도 잡아주었다. 그가 돼지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는 솜씨를 본사람들은 권영벽을 가리켜 한결같이 백정 찜쪄먹을 사람이라고 하였다. 왕가동사람들은 소나 돼지를 잡을 일이 생기면 권영벽부터 찾군하였다고 한다.

두 공작원은 일솜씨와 일본새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놓았다. 그들은 남들이 자기네를 도와주는 것을 한사코 사양하면서도 자기네가 남들을 돕는 것은 응당한 일로 여기였다. 권영벽은 지하공작원이 남들에게 부담을 끼치는 존재로 된다면 그 공작은 벌써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제나름의 견해를 가지고 실농군처럼 자기

집일도 직심스럽게 하였다.

권영벽이네가 왕가동에 갓 자리를 잡았을 때 그곳 조국광복회원들은 지하사업으로 분망한 그들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 땔나무를 해다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권영벽은 그 선의를 한사코 막았다.

≪여러 분, 고마운 일이지만 이러지 말아야합니다. 평농사군한테 땔나무까지 해다주면 적들이 인차 우리를 수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도와주고 싶더라도 참아야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는 길입니다.≫

지하조직 성원들은 다른 수를 생각해냈다. 그들은 땔나무를 하면 권영벽이네 집에 직접 지어다주지 않고 그가 다루는 보리밭 머리에 몰래 가져다 놓군 하였다. 그런데 권영벽은 조직원들의 이 성의마저도 마다하였다. 그는 땔나무도 손수해오고 거름도 직접 져냈다.

권영벽은 왕가동에서 사업하는 동안 일찍이 잠자리에 들어본적이 없었고 늦게까지 누워있어 본적이 없었다. 그는 다른 공작지에 가서도 하루 3-4시간이상 자지 않았다고 한다.

권영벽은 허술한 봇짐을 메고 줄곧 어디론가 나돌아다니었는데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은 부부사이에 금슬이 좋지 못해서 아마 자주 외박을 하는지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였다고 한다. 하강구의 7도구로부터 상강구의 25도구에 이르는 수백 리의 노정을 권영벽은 한 달에도 몇 차례씩 발이 닳게 돌아다니였다. 장백현에 부락들이 많았지만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부락이란 거의 없었다. 그러니 나들처럼 잠인들 제대로 잘 수 있었겠는가.

언제인가 밀영에 사업보고를 하려고 들어온 권영벽을 보니 두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있었다. 몸을 돌보면서 일을 해야지 한두 해만 혁명을 하다말겠는가고 나무라는 말을 했더니 그는 조직을 내오는 재미가 어찌나 아기자기한지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것이였다.

권영벽과 그 전우들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1937년 초봄까지는 장백현의 거의 모든 중심부락들에 지하당조직들이 나왔다. 권영벽의 산하에는 수많은 당소조들과 조국광복회 지회, 분회 조직들이 태어나 역량이 급속히 확대되어가고 있었다. 생산유격대들도 당조직들의 보호와 지도밑에 맹렬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밤에 장백땅을 활보하며 민심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만주국의 관리가 아니라 권영벽의 손탁안에 들어있는 우리 사람들이였다.

권영벽은 이전보다 더 분망한 나날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가 직접 교양하고 육성한 믿음직한 공작원들이 여러 명 국내에로 들어갔다. 17도구의 지하혁명조직들은 지하공작의 담당자들을 양성해내는 원종장이나 다름없었다.

권영벽은 반군사조직인 생산유격대를 통해서도 청년들을 교양하고 단련시키였다. 생산유격대에 망라된 청장년들은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지하혁명조직을 보위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유사시에 무장투쟁에 나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

권영벽은 조직원들인 촌장들과 상론하여 자위단의 야간순찰대를 생산유격대원들로 꾸리게 하였다. 생산유격대원들은 야간순찰대라는 합법적인 명목으로 적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하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찰을 하였다.



권영백의
공작아지트

많은 생산유격대원들이 권영벽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며 투사로 자라났다. 최경화도 그의 지도밑에서 왕가동지회 청년부책임자 및 특수회원책임자, 왕가동당지부 조직담당책임자로 성장하였다. 그의 맏아들도 아동단조직에서 투사로 자라났다.

권영벽은 오래전부터 참군을 열망해온 최경화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를 우리에게 추천하여 보냈다.

사생활에서나 언제나 결백하고 양심적이고 고지식한 권영벽이였지만 지하전선의 중임을 맡은 다음부터는 순간순간마다 능란한 위장책을 써가면서 적들을 감쪽같이 속여넘기고 자기자신과 동지들과 조직들을 철저히 보호하였다. 조직의 핵심성원들을 적기관의 요직에 박아넣은 것도 일종의 위장책이였다.


최경화

권영벽은 지하당조직이나 조국광복회조직에 망라된 촌장들이 적들의 신임속에서 안전하게 원군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조선인민혁명군 군수관의 명의로 된 편지를 나누어주어 경찰에 가져다 바치게 하였다. 편지에는 아무날까지 어떠어떠한 원군물자를 마련해 놓으라고 요구와 함께 이 사실을 경찰서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촌장의 신변이 무사치 못할 것이라는 위협적인 경고가 첨부되어 있었다.

경찰서에서는 경고편지를 들고오는 촌장들을 충직하다고 치하하였다. 그런데 유독 왕가동촌장만은 권영벽이 짜준 각본대로 편지를 바치지 않았다. 이 유다른 행동이 적들의 주의를 끌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반절구경찰서 서장은 촌장을 불러다 놓고 노발대발해서 당신은 ≪공비≫와 내통하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 증거를 쥐고 있다. 그러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을러메였다.

왕가동촌장은 태연스럽게 증거가 있으면 내놓으라, 나는 혁명군의 ≪빨간콩알≫을 맞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리님들을 위해 촌장노릇을 하고 있는데 ≪통비분자≫라는 감투를 씌우니 매우 섭섭하다고 하였다.

서장은 당신은 정직하지 못하다, 정직한 촌장이라면 응당 이런 것을 가져다 바쳤을 것이 아닌가, 다른 촌장들은 다 바쳤는데 당신만은 왜 시치미를 떼고 있는가고 하면서 서랍을 열고 혁명군군수관의 편지를 꺼내놓았다.

왕가동촌장은 그제서야 괴춤에서 편지를 꺼내놓았다. 그리고는 나도 물론 경고장을 받았다. 혁명군이 나한테라고 왜 물자를 요구하지 않았겠는가, 자, 이것이 그 경고문이다, 그렇지만 난 나리님들을 생각해서 우정 바치지 않았다, 나리님들이 이 편지를 보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텐데 무슨 대책이 있는가, 한다하는 ≪토벌대≫들도 몇 백명씩 무리를 지어갔다가 혁명군한테 얻어맞고 쫓겨왔는데 이런 자그마한 경찰서에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이런 편지를 가져다 바친대야 오히려 나리님들을 딱하게나 만들지 않겠는가, 혁명군하고는 적당히 지내는게 상수다, 우리가 좋도록 처리할터이니 서장님은 모르는체 하고 있어달라고 하였다.

그의 말은 경찰서장을 감동시키였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서장은 그를 각별히 신임하게 되었다. 권영벽의 각본이 단발명중한 셈이다. 지하공작과정에 나 자신도 체험한 바이지만 적구에서 자기자신과 동지들과 조직을 위장하고 보호하는 것은 최대한의 지혜와 창발성을 요구하는 어려운 투쟁이다.

권영벽은 이 중하를 믿음직하게 감당해냈다.

우리는 1937년 봄에 국내 진공작전을 앞두고 국민의 협동으로 보천보시가지에 대한 여러 갈래의 정찰을 조직하였다. 보천보를 정찰할 데 대한 과업은 장백현당조

직에도 떨어졌다.

국내진공작전의 중대성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던 권영벽은 그 정찰임무를 자기가 직접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출발준비를 서둘렀다.

그런데 무슨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집을 떠나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정찰을 하자면 여러 날동안 외지에 가있어야 하는데 타당한 이유가 없이 길을 떠나게 되면 적들의 의심을 받을 수 있었고 심한 경우에는 미행을 당할 수 있었다. 농사군이 농번시기에 여러 날을 집을 비우고 나들이를 간다는 것은 정상을 벗어나는 일이었다.

권영벽은 이번에도 누구나 다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묘안을 생각해냈다.


보천보 시가

그것은 한조직원을 장백시내에 있는 우정국에 보내여 거기서 아버지의 사망을 알리는 전보를 치게 하는 방법이였다. 그 조직원이 장백에 가서 친 사망전보는 그날로 우편배달부의 손을 거쳐 권영벽에게 전달되었다. 배달부가 왕가동에 오면서 소문을 내는 바람에 그의 ≪불행≫을 마을 사람들도 알게 되고 적들도 알게되었다.

노인들은 부조를 돌고 권영벽을 찾아와 부친상을 당했다는데 왜 안떠나고 있는가고 하면서 걱정하였다. 권영벽이 남의 땅을 부치는 농사군이 바쁜 농사철에 하루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 자리를 비우자니 걱정이 되어 그런다고 대답하자 그들은 세상에 부친상보다 더 중한 일이 어디 있는가, 밭일은 우리한테 맡기고 어서 떠나라고 하였다. 그는 아무 의심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왕가동을 떠나 정찰임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나에게 보고할 수 있었다. 권영벽의 간절한 청원을 마다할 수 없어 우리는 그를 보천보전투에도 참가시키였다.

권영벽이 전투를 마치고 17도구에 돌아왔을 때 조직성원들은 그가 ≪상제≫구실을 원만히 할 수 있는 준비들을 갖추어 놓고 있었다. 그는 부친상을 치르고 돌아온 자식답게 상복차림으로 동네의 조객들을 맞아들이었다. 자신을 위장하느라고 선량하고 순박한 늙은이들까지 속이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때의 그의 심정이 어떠하였겠는가.

권영벽은 사령부가 작성한 기본노선에 근거하여 상급에 보고할 것은 보고하여 처리하고 자체로 결심할 수 있는 것은 제때에 결심을 채택하여 처리하면서 용의주도하고 능숙하게 지하공작을 해나갔다. 전화기나 무전기와 같은 현대적인 통신수단도 없이 쪽지편지와 같은 불편한 수단을 이용하면서 사령부와의 연계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실정에서 공작원들은 상급에 보고하여 처리하는 것보다 현지에서 자체의 판단과 결시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권영벽은 우리의 결론이 필요한 중요한 노선상 문제만 사령부에 보고하였지 대부분의 문제는 현장에서 조직성원들과의 합의를 거쳐 즉결처리한 다음 경위와 결과만 우리에게 보고하였다. 공작지와 밀영과의 거리가 멀고 또 우리가 노상 밀영에만 있는 것도 아니여서 만사를 다 사령부에 보고하고 결론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권영벽은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령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며 부담이 된다고 인정되는 문제는 상정시키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단 한번 집단부락건설과 관련된 차후 대책문제에 대해서만은 나에게 결론을 바란다고 하였다. 적들은 동만에서 하던 본새대로 서간도에서도 ≪비민분

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부락건설을 강제적으로 추진시키였다. 그런데 장백지방 인민들의 대다수는 집단부락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였다. 권영벽의 심정도 마찬가지였다. 농민들이 집단부락에 들어가면 생활상 고통도 심해질 수 있었고 지하사업이나 원군운동도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집단부락건설을 덮어놓고 반대할 수도 없었다. 적들은 집단부락에 들어가지 않는 집들에 불을 지르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철거를 단행하였다. 반항하면 총을 쏘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명안이겠는가? 현당위원회를 소집하고 논의도 해보았으나 종시 결정을 짓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나는 권영벽에게 집단부락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니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모두 거기에 들어가라고 권고하였다. 집단부락에 들어가면 우리의 활동이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철조망으로 강물을 막을 수 없고 성벽으로 바람을 다 막을 수 없듯이 우리 유격대와 인민들 사이에 강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통하는 군민의 정과 원군의 대하는 절대로 막아내지 못한다. 걱정말고 집단부락에 들어가라고 하였다.

권영벽은 공작지에 돌아가자 관도거리 집단 부락건설장에 앞장서 나갔다. 그가 나서는 것을 보고 완고파들도 따라나서서 열성스럽게 집을 짓고 토성을 쌓았다. 권영벽의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성원들은 적들의 시책을 고분고분 받아서 충실하게 집행하는 척하였다. 관도거리 집단부락은 현경찰당국으로부터 첫 번째로 ≪안민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7도구의 지하조직성원들은 관도거리 집단부락의 요직들을 다 차지하였다. 서응진은 자위단단장, 송태순은 자위단부단장, 전남순은 촌장, 권영벽은 학교교장의 자리를 각각 차지하였다. 다른 집단부락들에서도 사태는 마찬가지였다.

권영벽의 지하전선은 장백의 영역을 벗어나 함남북도와 평북도를 포함한 국내의 종심깊이에도 뻗어있었다. 권영벽은 군사활동을 통해서도 많은 공로를 세웠지만 인민대중을 의식화하는 지하전선의 긴장된 투쟁을 통해서도 무게있는 공적을 쌓아올리었다.

1937년 여름 그가 통신원을 통해 나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구절들이 적혀있었다.

≪사령관동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는 부대를 떠날 때까지만 해도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1선에서 2선으로 밀려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의 그 섭섭하던 심정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인민을 조국광복회조직에 묶어세우는 것이 항일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는 지름길로 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건만 나는 작별의 악수를 청하는 사령관동지의 곁에서 발을 가볍게 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고장에 와서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하전선을 2선이라고 보던 관점에서 멀리 벗어났습니다. 이 전선은 분명 2선이 아니라 1선입니다. 조직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사람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사는 보람을 느낍니다. 이 비옥한 토양의 주인으로 나를 세워준 사령관동지에게 감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인민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데서 사는 보람을 느낀다고 한 권영벽의 말에는 심오한 진리가 깃들어있었다. 인민을 조직동원하는 것은 혁명가들이 한시도 놓쳐서는 안되는 항구적인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민을 부단히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 여기에 바로 우리 혁명의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구불멸성이 있다.

혁명가가 만일 이 사업을 외면하거나 경시한다면 그의 정치적 생리에는 변질현상이 생기게 되며 그는 혁명가로서의 존재를 끝마치게 된다.

권영벽은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민을 조직동원하는 사업에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영용하게 싸우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었다. 감옥에서 그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자기자신과 동지들이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며 자래운 조직들이 무더기로 파괴되는 것이였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다문 한 사람이라도 더많이 살려내여 조직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권영벽은 일신이 그대로 방패가 되어 혁명조직들이 당하고 있는 출혈을 최대한으로 막아보려고 애썼다. 그는 우선 이제순에게 이런 백글쪽지를 보냈다. 백글이란 펜이나 연필이 아니라 손톱으로 쓴글을 말한다.

≪모든 것을 나에게 밀 것!≫


이제순

권영벽의 의도를 알아차린 이제순은 지체없이 회답 쪽지를 보냈다.

≪우리는 일심동체!≫

그 전보문 같은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권영벽은 잘 알고 있었다.

권영벽과 이제순은 서로 딴방에 갇혀있었고 그 이상 더 쪽지교환도 하지 못하였지만 두 전우의 심장은 한마음 한뜻으로 고동치고 있었다. 그들은 실로 일심동체가 되어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결사적인 구출작전에 나섰다.

≪도정님이 백두산에 갔던 일과 그 후의 모든 일은 나와 도정님과 장군님밖에 모르는 일이니 도정님만 입을 다무시면 아무런 죄도 씌울 것이 없게 됩니다.≫

이것은 권영벽이 혜산경찰서에서 취조를 받을 때 박인진도정에게 귀띔한 말이다.

권영벽이 그런 귀띔을 하고 있을 때 이제순은 이주익에게 같은 당부를 하였다.

권영벽과 이제순의 희생적인 구출작전의 덕으로 박인진, 이주익을 비롯한 수많은 피검자들이 재판정으로 끌려가기 전에 유치장에서 풀려났거나 예상보다 퍼그나 가벼운 형을 마치고 살아서 조국광복의 날을 맞이할 수 있었다. 변절자들이 미처 다 알 수 없었던 장백과 국내의 지방조직들에 대한 권영벽의 조직연계와 지도내용은 영원한 비밀속에 묻혀있게 된 까닭에 그 조직들과 조직성원들은 고스란히 생존하여 은밀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권영벽은 조직을 살리고 동지들을 살리는 대신 이제순, 지태환, 마동희 등의 투사들과 함께 결연히 죽음의 길을 택하였다.

그는 혜산경찰서에서 함흥으로 이송되는 열차안에서도 동지들에 대한 배려를 멈추지 않았다. 그때 그의 수중에는 돈이 7원이 있었다. 권영벽은 그 최후의 7원마저도 동지들을 위해 바치기로 결심하고 호송 경찰에게 말했다.

≪경관나리, 이 돈으로 과일과 과자를 사다주시오. 당신들이 우리에게 수갑을 채웠으니 일본당국을 대표하여 싫은대로 심부름을 들어주어야겠소.≫

다른 동지들도 주머니를 뒤져 30여원을 보태어주었다.

호송경관은 이상하게도 그 청을 곱상곱상 들어주었다.

권영벽은 호송경관이 사다주는 과일과 당과류들을 동지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었다. 100여명의 투사들은 달리는 열차안에서 그 과일과 당과류들을 먹으며 말없는 눈빛과 미소로 정을 나누었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만이 즐길 수 있는 정신적인 향연이었다.

호송경관들은 한가족처럼 친밀한 그들의 분위기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공산주의자들이란 참 별난 사람들이다. 당장 형벌을 받겠는데 인정을 나누는가? 그래 말해보라. 그렇게 하는 것이 공산주의인가?≫

≪그렇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산다. 일제를 타승하면 우리는 전민이 한

형제로 되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권영벽씨, 당국은 당신에게 그런 나라를 건설할 자유를 주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아무 때건 교수대에 올라야 하니까.≫

≪내 한 몸은 죽어도 나의 전우들이 반드시 그런 이상향을 건설할 것이다.≫

권영벽은 그때의 이 주장을 공판정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조국강토에서 일제를 내쫓고 우리 민족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항일대전에 나선 조선의 애국투사들이며 이 나라의 당당한 주인들이다. 누가 누구를 감히 재판하는가. 재판을 받아야할 진짜 범인은 바로 너희들이 아닌가. 남의 나라를 강점하고 남의 나라 사람들을 마음대로 학살하고 남의 나라의 재물을 제멋대로 도적질해가는 너희들이야말로 희세의 강도범들이고 살인범들이다. 역사가 공정한 심판을 내려 우리를 민족의 수호자로 받들고 네놈들을 매장해버릴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지태환

쏘련군이 동구라파의 약소국들을 해방하면서 서쪽으로 서쪽으로 진격하고 있을 때, 미군의 폭격으로 도꾜의 거리를 이 불바다로 되고 있을 때, 조선인민혁명군이 백두산지구와 원동의 훈련기지에서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위한 대일작전준비를 다그치고 있을 때 권영벽은 서울서대문형무소 교수대에서 혁명만세를 부르며 최후를 마치였다. 그가 이 세상에 남기고간 일점 혈육은 어언 열대여섯 살의 사내애가 되어 청진거리에서 거름달구지를 끌고다니고 있었다.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 여름 나는 서울에 얼마동안 머무르며 남반부의 해방구사업을 지도한 적이 있었다. 서울에 처음으로 가보는 나로서는 다녀보고 싶은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다른 곳은 다 제쳐놓고 서대문형무소부터 찾아갔다. 나의 친지들과 전우들 중에는 그 형무소와 피맺힌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인민군용사들은 이 도시에 입성하자마자 탱크로 형무소의 대문을 짓부시고 수인들을 해방시키였다.

서대문형무소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이 땅에서 저지른 죄악과 범행의 수치스러운 대명사였다. 바로 악명높은 이 형무소에서 권영벽, 이제순, 이동걸, 지태환을 비롯하여 우수한 아들딸들이 귀중한 생명을 잃고 한줌의 흙으로 되였다. 형권삼촌 역시 마포형무소에서 옥사하였다. 나는 산에서 싸울 때 나라가 해방되면 서울에 가서 그들의 묘지라도 찾아보리라고 생각하였다. 그 소망을 해방이 된지 5년만에야 성취하게 된 것은 조국을 두토막으로 갈라놓은 38선 때문이였다. 패말도 없는 무덤들은 찾을 길이 없었지만 그들의 피와 숨결의 어려있는 형무소의 지붕과 담벽만이라도 보니 한결 마음이 가라앉았다. 해방이 되어 5년 세월이 흘렀지만, 옛 전우들의 조의방문조차 받아볼 수 없었던 동지들의 영령앞에서 나는 오래 참아왔던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나는 이 세상에 아들하나를 남기고 간다. 나한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아들이 자라서 아버지가 하던 일을 계속해달라는 것이다.≫

권영벽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전우들에게 이런 부탁을 남기였다.

형무소를 돌아보고 거리에 나서니 그 말이 새삼스럽게 종소리처럼 머리를 울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권영벽과 같이 한 생을 값있게 산 혁명가들만이 남길 수 있는 고귀한 말이었다. 나는 지금도 이따금씩 그 말을 상기하군 한다.

6. 스쳐버릴 수 없었던 사연

무송원정을 끝낸 다음 부대를 이끌고 장백땅에 다시 돌아와 신흥촌 근처에 머무르면서 조국진군준비를 갖추고 있던 1937년 5월 하순이었다. 어느 날 나는 전령병을 데리고 신흥촌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길성촌이라는 마을로 향하였다. 길성촌은 우리가 백두산지구에 나온 첫해 겨울부터 인연을 맺어온 동네였다.

우리는 장백에 나와서도 군중공작을 많이 하였다. 원호물자를 가지고 밀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였고 중간연락지점이나 이러저러한 비밀장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기도 하였으며 주민지구에 직접 내려가 군중들과 어울리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런 사업을 통하여 민심도 포착하고 적들의 동향도 요해하였으며 군중들에 대한 계몽도 하였다.

나는 장백지방에 있는 많은 마을들에 가보았다. 길성촌에 처음 갔을 때는 그 마을에 사흘동안 머물러있다가 돌아왔다.

농호가 10집도 되나마나한 오붓한 동네여서 사흘사이에 사람들의 얼굴을 다 익혀둘 수 있었다. 우리는 이 마을에서 군중정치 사업도 하고 국내공작원들도 만나보았다.

포수로 가장하고 길성촌에 기여든 다나까라는 일본인 밀정도 이때에 적발하여 처단하였다. 다나까는 전문특무기관에서 계통적으로 훈련을 받고 장백지구에 파견된 노회하고 교활한 밀정이였다. 조선에서 나서자란 그는 우리 나라 말도 토배기들 못지 않게 잘하였다. 우리 나라 풍습과 예절에도 정통하고 있어 19도구와 20도구 사람들은 그가 몇 달 동안 사냥총을 메고 장백땅을 돌아치는 것을 보면서도 일본사람이라는 것으로 모르고 있었다.

다나까가 밀정이라는 것을 포착한 것은 길성촌의 지하조직이였다.

나는 길성촌에 가있을 때 장씨성을 가진 노인네 집에 거처를 잡았다. 그 집은 방도 널직하고 살림살이도 다른 집보다는 괜찮았다. 이 마을 늙은이들은 내가 장노인네 집에 가있는 동안 그 집에 매일 같이 마실을 왔다. 등에다 대통을 꽂고와서는 밤이 깊도록 고담도 나누고 미나미가 어떻게 만주국이 어떻고 하면서 시국평도 하였다. 그 늙은이들이 배운 것은 별로 없지만 정세분석만은 아주 그럴듯하게 하였다. 국권을 강탈당한 나라의 인민들에게서 제일 빨리 발전하는 것은 아마도 정치의식인 것 같다.

하루는 해질녘에 머리를 빡빡 깎은 30살 전후의 농사군 청년이 그 늙은이들과 함께 장노인의 집에 나타났다. 상등 씨름군처럼 생긴 용모나 허우대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숫되고 어리무던 한 젊은이였다.

30살이면 세상을 다안다고 뽐낼 때이다. 시골마실방에 가면 30대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제일 높았다. 10대나 20대가 무슨 주장을 내세우면 젖비린낸가 난다고 깔보면 50대나 60대가 무슨 훈계를 하면 봉건냄새가 난다는 감투를 씌우는 것이 바로 혈기왕성한 30대의 사나이들이였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늙은이들의 등뒤에 웅크리고 앉아 내처 내 말을 듣기만 하였다. 노인들이 내 부탁을 받고 마을실정을 소개할 때에도 젊은이는 거기에 끼여들지 않았다. 늙은이들이 백두산에 있는 **김**대장 군사가 총 몇 명인가, 빨치산에 속사포도 있다는데 그게 정말인가, 일본이 대체로 몇 해만 있으면 망할 것 같은가, **김**대장의 춘부장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등 별의별 질문을 다했지만 그 젊은이는 늙은이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 벙긋벙긋 웃기만 하였다. 그러다가도 나와 눈이 마주치면 앞사람의 등뒤에 몸을 움츠리고 감추며 움츠러뜨리군하였다.

무엇인가 물을듯 말듯한 표정을 하였다가도 풀이 죽어서 단념해버리는 것을 볼 때면 그가 혹시 벙어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까지도 하였다. 그 청년의 부자연스러운 행동거지는 어쩐지 나까지도 부자연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노인들에게서 살림살이 형편을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그 청년에게도 몇 가지 물어보았는데 청년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방안의 노인들이 모두 민망스러운 눈길로 젊은이를 돌아보았다. 한 노인이 그를 대신해서 입을 열었다.

≪장군님, 저 사람은 머슴군이올시다. 혈혈단신 노총각입지요. 이름은 김월용이라고 하는데 남도출신이라는 것만 알지 고향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외다. 나이도 어림쳐서 서른 안팎이라고만 하지 확실한 것은 모르오다.≫

사람이 자기를 잃으면 의사표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얼마나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으면 묻는 말에도 대답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겠는가.

그의 곁에 다가앉아 손을 잡아보니 북두갈구리 같았다. 얼마나 고역에 시달렸으면 손이 이지경이 되었을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허리도 활등처럼 굽고 옷주제도 말이 아니였다. 그가 노인들의 등뒤에 자꾸 숨은 것은 그 옷주제 때문이였는지도 모른다. 남이 묻는 말에 대답 한마디하지 못하는 그런 성미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가 유격대사령관이 거처하는 마실방에 찾아온 것을 보면 속대가 있고 궁냥도 어지간히 깊은 것 같았다. 정말 고마웠다.

언제부턴가 머슴살이를 했는가고 물어보니 ≪어릴 때부터 ≫하고는 외마디 대답을 할 뿐 말을 잇지 못하였다. 말씨로 보아서 전라도사람 같았다. 서간도를 포함한 동북지방에는 전라도사람들이 많았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만주의 토지를 대량적으로 약탈하기 위한 악명높은 ≪선농이만정책≫에 따라 ≪집단개척≫이라는 명목으로 수만 명의 조선농민들을 중국 동북지방에 부락채로 이주시키였다.

마실꾼들이 헤여진 다음 나는 집주인인 장노인에게 물었다.

≪노인님, 저사람이 장가는 왜 아직 못갔습니까?≫

≪어릴 적부터 머슴으로 굴러다니다보니 서른이 넘도록 장가 못들고 외롭게 살아가오다. 사람은 진국인데 짝이 없소이다. 어디 딸을 주겠다는 집이 있어야지요. 홀몸으로 고생하는걸 보자하니 가긍하기가 그지없소이다. 저기 보이는 저 녀석도 새서방이랍시고 어른대접을 받는데 .≫

나는 장노인이 손짓하는 문밖을 내다보았다. 공책장만한 유리를 한복판에 대고 창호지를 바른 문밖에서 여나무살 되나한 아이가 제기를 차고 있었다. 꽁다리 연필

만한 그 아이가 새신랑이라니 기막힌 생각이 들었다. 조혼에다가 억혼, 매혼까지 행하는 시대였지만 혀를 차지 않을 수없었다.

좀 후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 부대에도 그 아이와 비슷한 ≪꼬마신랑≫들이 있기는 있었다.

장백출신의 유격대원 김홍수도 기실은 10살 되나마나한 나이 장가를 간 ≪꼬마신랑≫이였다. 그는 ≪꼬마신랑≫이라는 별명에 어울리게 키도 유달리 작았다.

30살 안팎의 노총각과 10살 안팎의 ≪꼬마신랑≫, 이 웃지 못할 대조앞에서 나는 울분과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노총각이나 ≪꼬마신랑≫이나 시대의 수난자라는 점에서는 처지가 엇비슷하였다. 그러나 나는 30살이나 되도록 가정을 이루지 못한 노총각에게 더 깊은 동정심을 느끼였다. 조혼의 희생물이라고는 하나 그래도 ≪꼬마신랑≫에게는 안해가 있고 생활이 있지 않은가.

그날밤은 김월용에 대한 생각으로 잠도 오지 않았다. 한인간이 걸어온 비참한 반생이 눈앞에 자꾸만 어려와 도저히 마음을 진정할 수 가 없었다. 김월용의 존재는 그대로 수난의 가시밭을 걸어가는 내 나라의 모습이였고 그가 살아온 부평초와 같은 한생은 망국조선이 눈물로 엮어가는 역사의 축소판이였다.

그에게 배우자를 물색해주어야겠다는 충동을 받은 것이 그날밤이였다. 한 인간에게 가정도 무어주지 못한다면 수탈당한 조국은 어떻게 찾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혁명군에도 물론 혼기를 놓친 노총각들은 많았다. 그들이 혼기를 놓친 것은 승리의 날을 기약할 수 없는 장기적인 무장투쟁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이였다. 유격전은 모든 형태의 투쟁가운데서 가장 간고하고 희생적인 투쟁이다. 기동이 심하고 활동반경이 큰 반면에 식의주조건은 매우 불리하였다. 이런 투쟁을 하면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보통사람들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렵고 실행하기도 어려운 일이였다. 적지 않은 여대원들이 무장대오에 들어서면서 자식들을 시부모에게 떼맡기든가, 지어 남의 집 양자나 양녀로 주고온 것은 그때문이였다. 그 유격부대들에 부부가 함께 입대하여 싸우는 사람들도 더러 있기는 하였지만 사실 그 부부생활이라는 것은 명색뿐이였다. 우리는 외세에 의해 인위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은 셈이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극소수의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제한 조선민족 모두를 정상적인 생활궤도에서 사정없이 밀어냈다. 국권의 상실과 함께 민족고유의 풍토우에서 이어오던 생활까지 박살이 났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 생존조건, 전통적인 풍습들은 여지없이 초토화되였다. 일제는 조선인민이 잘먹고 잘사는 것을 바라지 않았으며 사람답게 사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개, 돼지나 마소와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애썼다. 그래서 ≪우민화≫라는 말도 나왔다. 공부할 나이의 아이들이 학교로 가지 못하고 거지와 유랑민들이 거리에서 방황하며 시집장가를 가야 할 처녀총각들이 생활고 때문에 혼기를 놓쳐버리며 안해와 남편들이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고 산중에서 고생하건만 그들은 조선사람이야 어떻게 됐건 상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외면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관심사로 되였다. 우리는 부득이해서 가정을 못이룬다하자.



손정도목사의 집과 그의 딸

그러나 김월용과 같은 노총각들이야 왜 장가를 못가는가. 나라가 망했다고 가정가지 이루지 못한다는 법이야 없지 않은가.

나는 20대가 되기 전에 청년학생운동과 지하활동을 하면서 혼사일에 몇 번 관계한 적이 있다.

그 하나의 실례가 바로 이 회고록의 2권에서 짤막하게 서술한바있는 손정도목사의 맏딸손진실의 혼사였다. 내가 손진실의 혼사에 관계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은 돌이켜보건대 순전히 우연 이었다.

그런데 이일이 얼마동안 길림교포사회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방학이 되어 무송의 집에 가니 어머니도 길림의 학우들처럼 혼사 중매란 잘되면 술 석 잔이고 안되면 뺨이 세 대라는 옛 사람들의 말을 되풀이하였다.


안신영

나는 어머니의 훈계를 명심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일부 동무들 가운데서는 흔히 연애니, 사랑이니, 결혼이니 하는 것을 다 소부르조아적 감상주의로부터 오는 생활잡사로 치부하였으며 혁명과 학습, 노동을 떠난 모든 공상들에 대하여 잡념이라고 단정해버리였다. 나라를 통채로 빼앗기고 망국노가 되었는데 사랑은 무슨 청승맞은 사랑인가, 국권도 찾지 못한 처지에 연애는 해서 무엇하며 사랑은 해서 무슨 성수가 나겠는가 하는 입장이였다. 물론 이런 입장과 태도가 어느 정도 극단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으나 일부 민족주의자들과 구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사랑이니, 연애니, 가정문제니 하는 것 때문에 이러저러한 곡절을 겪거나 지어 혁명대열에서 타락하는 현상을 보게 되면서부터 더욱 확고한 것으로 되었으며 가정을 가진 적지 않은 학우들이 공부를 뒤전으로 밀어던지거나 이러저러한 가정잡사에 몰두하는 폐단들을 보게 되면서부터 하나의 견해로 굳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사랑까지도 다 망한다는 법은 없다. 망한 나라의 울타리안에서도 생활은 생활대로 흐르고 사랑은 사랑대로 꽃피기 마련이다. 나이가 되면 눈이 맞는 처녀총각끼리 연애도 하고 가정도 우리고 아들딸들이 생기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타령도 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는 뜻을 같이하는 ≪ㅌ·ㄷ≫성원들이 사랑 때문에 고민도 하고 희열도 느끼고 결별도 하고 결합도 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김혁은 혁명을 하면서도 숭소옥과 연애를 하였고 유봉화는 이제우를 사랑하던 나머지 그를 따라 혁명사업에 몸을 내던지였다. 신영근은 공청사업을 하는 과정에 반제청년동맹원으로 활동하던 안신영을 안해로 맞아들이었으며 최효일부부는 무장투쟁준비에 보탬을 주기 위하여 무기를 여라문정이나 빼내가지고 일본인 무기상점을 탈출하여 고유수의 우리한테로 찾아왔었다. 차광수는 소설 ≪등에≫에 나오는 젬마오 같은 애인을 꿈꾸고 있었다.

사랑은 혁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골고루하고 떠밀어주는 추동력으로 되었다. 최창걸이 가정을 이룬 사람이라는 것은 남만원정을 할 때 간단히 언급하였다. 그는 유하천에 두고온 처자를 생각하면서 항상 힘을 얻었다. 숭소옥의 청초한 모습은 열정의 사나이인 김혁이한테서 시를 낳고 음악을 낳게 하는 샘으로 되었다. 전경숙은 김이갑이 대련감옥에 갇히자 탈가하여 9년동안이나 그의 옥바라지를 하였다. 옥바라지라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대련방직공작에 직공으로까지 취직하였던 것이다. 독실한 기독교도의 딸인 전경숙을 이처럼 세상이 다 아는 열녀로 만든 것도 역시 다름아닌 사랑이었다.

그 과정에 우리 동무들은 점차 사랑과 결혼, 가정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게 되었다. 가정을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혁명을 잘할 수 있다는 것, 가정과 혁명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 가정은 애국심과 혁명성을 낳는 샘이며 시발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의 가정으로 체득하게 되었다.

나는 오가자에서 활동할 때 변달환의 혼사에도 관여한 일이 있었다. 변달환은 그 당시 오가자 농민동맹 책임자로 사업하느라고 매우 분주하게 보내고 있었다. 농사일을 하면서 그 여가 시간에 사회사업을 하다보니 늘 바쁘게 돌아다니었다. 부자가 다 쓸쓸한 홀아비생활을 하고 있었다.


변달환

변달환은 나이로 볼 때 이관린네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였다. 우리 아버지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쌀함박앞에 웅크리고 앉아 가마뚜껑같은 손으로 돌을 골라내든가 버치나 물동이를 들고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볼 때면 어째서인지 처량한 생각이들었다. 지금은 나이가 30살이 되어도 장가갈 구이를 하지 않고 태평스럽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오히려 이웃들이 덩달아서 이제는 장가를 가야하지 않나 하고 부추기면 천천히 가지요 뭐, 그까짓 것하고 대답하는 것이 통례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청년학생운동을 하던 그 시절에는 30살이라는 말만 들어도 여자들이 남자를 셈에 넣지 않고 중늙은이처럼 대접을 하면서 제껴놓았다.

변달환은 남자치고는 보기 드문 미남자였고 인간치고도 보기 드문 호인이였다. 광고만 내면 처녀장가라도 들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변달환 자신이 두벌장가를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않는 것이었다. 당자가 무관심하면 아버지라도 김을 불어넣어야겠는데 변대우도 속수무책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씨 고운 여자를 물색하여 변달환에게 붙여주었다. 우리가 이 인생대사에 대담하게 관여해나선 것은 순수한 동정심때문이었다.

변달환은 후처를 얻은 다음부터 농민동맹사업에 더 열정을 쏟아부었다. 변대우를 비롯한 오가자의 유지들은 길림청년들이 혁명도 잘하지만 인정도 깊다고 하면서 우리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변달환의 가정문제를 풀어줌으로써 우리는 결국 여러 가지로 소득을 본셈이었다. 결혼은 결코 혁명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들의 사랑이나 우정 같은 것을 무심히 대하지 않았다.

우리가 왕청지방에서 유격구생활을 할 때였다. 어느 날 나는 오백룡이네 중대를 데리고 소왕청을 떠나 가야허방향으로 행군해가고 있었다. 중대가 영을 넘고 있을 때였다. 앞에서 낯설은 처녀하나가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우리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대오를 발전한 처녀는 걸음을 멈추고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대열이 가까워오자 눈을 내리깔고 종종걸음으로 우리옆을 바삐 지나가 버리는 것이었다. 시골처녀치고는 용모나 몸가짐이 꽤 단아하고 말쑥하였다.

중대는 행군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대열 맨 뒤에 선 대원하나가 얼핏 뒤를 돌아보는 것이었다. 그 대원은 머리를 푹 숙이고 줄곧 깊은 생각에 잠겨 걸음을 옮기였다. 대열이 100미터쯤 지나갔을 때 대원은 다시한번 처녀가 지나간 쪽을 돌아보았다. 그 눈길에는 알지 못할 우수와 애틋한 그리움이 비껴있었다.

나는 그 대원을 대열 밖으로 불러낸 다음 조용히 귀속말로 물었다.

≪동무,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오? 혹시 방금 지나간 처녀하고 무슨 인연이라도 있는게 아니요?≫

대원은 갑자기 화색을 띠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주 솔직하고 소탈한 사람이었다.

≪저 처녀는 저의 약혼녀입니다. 입대한 다음 한번도 만나지 못했댔는데 머리도 들지 않고 바람처럼 지나가버리니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머리만 쳐들었으면 군복을 입은 내모습도 보았을게 아닙니까.≫

대원은 그런 말을 하고나서 또 처녀가 사라진 쪽을 돌아보았다. 내 마음속에서는 대원을 도와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치밀어 올랐다.

≪그렇다면 지금 얼른 뛰어가서 약혼녀를 만나고 오오. 군복을 입은 모습도 보이고 잠시 회포도 나누란 말이요. 그러면 그 동무가 얼마나 기뻐하겠소. 시간을 넉넉히 줄 테니 하고 싶은 말을 다해도 되오. 우리는 동무가 돌아올 때까지 요 아래동네에 가서 휴식하겠소.≫

대원의 눈굽에는 눈물이 핑도는 것 같았다. 그는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 남기고서는 총알처럼 달음박질을 해갔다. 나는 약속대로 다음 동네에 가서 중대를 휴식시키였다. 30분이 지났을까 말까한 때에 약혼녀를 만나러 갔던 대원이 돌아와서 나에게 경과보고를 하였다. 내가 그런 문제는 보고 안해도 된다고 하였으나 막무가내였다.

≪그 동무는 군복을 입은 나를 보더니 딴 사람 같다고 하였습니다. 유격대원의 안해답게 일을 잘하겠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난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자, 봤지. 난 조선이 독립될 때까지 혁명군에 몸을 바칠 사람이야. 당신은 혁명군의 안해가 될 여자구. 혁명군의 안해답게 살려면 당신도 조직에 들어서 사업을 해야 해.≫ ..≫

애인을 만나고온 대원은 그 후 싸움을 본때있게 하였으며 그의 약혼녀도 지방 혁명조직에 망라되어 일을 잘하였다. 사랑은 역시 열정의 샘이고 창조의 원동력이며 생활을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염색소이다.

나는 길성촌을 떠나면서 장노인에게 이런 부탁을 하였다.

≪노인님, 한 가지 어려운 부탁이 있습니다. 나는 간밤 김월용이란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마을 노인님들이 협력을 해서 좋은 혼처도 구하고 성례도 치르어 주면 어떻겠습니까?≫

장노인은 그 부탁을 받고 몹시 당황해 하였다.

≪장군님께 그런 걱정까지 끼쳐 죄송하외다. 우리가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나 그 사람을 장가보낼테니 마음을 푹 놓으십시오.≫

길성촌의 노인들은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다.

조국광복회조직에서는 김월용의 좋은 혼처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그에게 딸을 준사람은 18도구 절골의 김노인이었다.

우리가 길성촌에 와서 한노총각의 혼사문제를 걱정하였다는 소식이 20도구 지경을 넘어 18도구에 가지 날아갔던 모양이었다.

김노인은 그 소문을 듣자 김장군이 중히 여기는 사람이라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하면서 길성촌에 건너와 장노인과 혼사를 하였다. 그렇게 되어 그의 혼사는 예상외로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그 김노인이 참으로 쉽지 않은 분이었다.

김노인네 집은 산자락 농사에 명줄을 건 가난한 집이었지만 잔치를 자기네가 몰밀어 하겠다고 자청해 나섰다고 한다. 그러나 신랑측의 후견인들이 굳이 반대하는 바람에 성례는 결국 길성촌의 장노인네 집에서 치르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나는 후방 부관으로 사업하고 있던 김해산에게 전리품들 중에 제일 좋은 천과 식료품을 골라서 길성촌에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김해산은 어떻게 된 셈판인지 그 지시를 시들하게 접수하였다. 대답을 하고 나서도 내방에서 나가지 않고 그냥 서있었다.

≪장군님, 우리가 그 혼사에 꼭 예장감을 보내야 합니까?≫

뜻밖의 질문이였다.

≪보내야지 왜 마음이 내키지 않소?≫

≪우리 전우들은 지금까지 밥 한 사발 놓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사실 예장감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을 한 그릇의 밥으로 굼때고 싸우다가 희생된 동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해산

나는 김해산의 심정을 이해하였다. 전우들의 결혼식을 할 때에는 한 그릇의 밥밖에 놓아주지 못하였는데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잔치에 예장감으로 보내라고 하니 볼이 부어오를만도 하였다.

≪그런 사연들을 생각하면 나도 역시 가슴이 아프오. 그러나 해산동무, 우리가 밥 한 그릇으로 결혼식을 굼땐다고 해서 인민들도 그렇게 해야한다는 법은 없지 않소. 하기는 우리 인민들속에서도 그런 식으로 혼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오. 동무는 그게 분하지 않소? 물론 밀영창고에 있는 전리품으로 조선민족을 다 구제할 수는 없소. 하지만 민족을 재생시키겠다는 결심을 품고 총을 멘 조선의 젊은이들이 김월용이라는 한 사람의 잔치야 왜 보란 듯이 차려주지 못하겠소.≫

김해산은 그날로 예장감을 꾸려가지고 대원 한 사람과 함께 길성촌에 다녀왔다. 그가 이불거죽이며 잔치쌀이며 통졸임이며를 가지고 밀영을 떠날 때는 나는 그에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주었다. 김해산이 길성촌에 갔다와서 싱글벙글하는 것을 보면 대접도 잘 받은 것 같고 결혼식도 잘된 것 같았다. 그는 신랑이 예장감을 받고 황소처럼 울더라는 것과 마을사람들의 인심이 이만저만 후덕스럽지 않더라는 것만 말하고 다른 것은 보고하지 않았다. 그 대신 나에게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다.

≪서간도 청년들의 예장감은 우리가 다 마련해 줍시다.≫

훗날 동행했던 대원에게서 들은 바이지만, 김해산은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잔을 찧을 때 몹시 울었다고 한다. 나는 그 이유에 대하여 구태여 묻지 않았다. 분명히 그 정황에서는 당시 조선사람 일반이 공통적으로 느끼군하던 민족적 설움이 폭발하였을 것이다.

나는 김해산의 귀환담을 듣고 아무 때건 짬을 내여 그들의 새 가정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였다. 살림도 구경하고 새 생활의 길에 들어선 신혼부부의 장래도 축복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내가 국내진공준비로 바삐 보내던 그때 부대를 숙영지에 두고 전령병들과 함께 길성촌으로 굳이 찾아가려 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사람의 짐이란 참으로 이상야릇한 것이다. 내가 김월용을 만난 것은 단 한번이였고 주고 받은 대화도 단 몇 마디뿐이었다. 말을 너무도 하지 않아 의사소통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대상인데다가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고 지나치게 순박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 내 마음을 그렇게도 잡아끄는지 그것은 나로서도 잘 알 수 없었다.

그는 특별한 매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 매력이 있었다면 이세상의 그 어떤 때에도 오염되지 않은 숫눈과도 같은 천진난만성이라고나 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만나지 않고서는 못견딜 충동을 느끼었다.

그날 나를 김월용의 집으로 안내한 사람은 장노인이었다. 그집은 누가 쓰다가 버린 헛간을 간편하게 개조한 것이었다. 유감스럽게도 신랑은 산에 나무하러 가고 없었다. 그 대신 절골 김노인의 딸이라는 새색시가 반갑게 나를 맞이하였다. 미인은 아니지만 큰집 맏며느리처럼 무던하게 생긴 여자였다. 성미도 여간히 활발하지 않았다. 저런 성미라면 남편을 인차 감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생을 월용동무와 함께 살기로 결심한 것을 우리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친정집 아버님에게도 우리의 인사를 전해주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인사를 하자 여인은 고개를 숙여 큰절을 하였다.

≪고맙다는 인사는 오히려 저희들이 남편을 도와 세간을 잘하겠습니다.≫

≪아들딸을 많이 낳아 기르면서 오래오래 사십시오.≫

내가 여인과 이야기하는 사이에 우리 동무들은 집앞에 나무를 산더미처럼 패놓았다.

김월용의 안해를 만나고나니 어째서인지 답답하던 가슴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 부부가 일생을 한 쌍의 원앙새처럼 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길성촌을 떠났다. 그날의 길성 촌방문은 우리 부대가 보천보를 치려고 곤장덕에 오르던 순간까지도 긴 여운을 남기였다.

우리가 머슴군 총각의 혼사를 성사시켜주고 그 총각의 잔치에 예장감을 보내주었다는 소식은 서간도 땅에 널리 퍼졌다.

그 소문이 퍼진 다음부터 인민혁명군에 대한 대중의 믿음과 기대는 훨씬 더 커졌다. 밀영으로 들어오는 원군물자의 양과 가지수도 나날이 늘어났다.

13도구 성문 밖에 사는 어떤 노인은 아들의 잔치에 쓰려고 모아두었던 피쌀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틀 후에 당장 결혼잔치를 하게 되어있다는 아들이 형과 함께 그 피쌀을 지고 유격대에 찾아온 것이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쌀을 사양해도 그들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다. 집으로 도로 지고가게 되면 아버지한테 쫓겨난다고 하면서 두 형제가 그냥 받아달라고 간청하였다. 우리는 그들의 성의를 더 사양할 수 없었다. 김광운이라는 그 청년이 그 후 잔치를 무엇으로 어떻게 치르었는지 우리는 모른다. 잔치쌀을 마련하느라고 퍽그나 고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후물등판에서 그들과 헤여질 때 아무것도 주지 못한 것이 지금도 가끔 후회된다.

나는 서간도를 떠난 후 김월용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길림을 떠난 후로는 손진실도 만나보지 못하였다. 풍편에 그가 미국 유학을 한다는 소리는 얼핏 들었지만 결혼후의 구체적인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감감 모르고 지냈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그가 행복하기를 바라마지 않았다.

나는 한평생 손진실과 변달환과 김월용을 잊지 않았다. 아마도 사람은 자기가 애정을 바친 것만큼 지난날의 친지들과 벗들과 동지들과 제자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다.

손진실은 미국에서 사망하였다. 부고를 받고나서 손원태선생에게 조전을 보냈는데 살았을 때 한번 만나 회포라도 나누고 병문안이라도 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월용도 건강한 사람이였으니 장수하였을 것이다.

7. 유격대의 어머니


장철구

백두산에서 여러 해 동안 우리와 함께 고락을 같이한 전우들 가운데는 ≪어머니≫로 불리운 여성 유격대원이 한 명 있었다. 그는 사령부 작식대원 장철구였다. 부대에는 여대원들이 수십 명씩이나 있었고 작식대원들도 여럿이였지만 유독 장철구만은 ≪어머니≫로 불리웠다.

나이는 우리보다 10살나마 이상이었다. 10살정도의 차이라면 ≪누이≫나 ≪동무≫라고 불러도 무방할 나이이다. 그러나 나도 평시에는 그를 ≪동무≫라 부리지 않고 ≪철구어머니≫라고 부르군 하였다 장철구보다 나이가 어방없이 많은 ≪대통영감≫까지도 ≪철구어머니≫,≪철구어머니≫라 하여 웃음을 자아냈다.

장철구가 사령부 작시대원으로 된 것은 우리가 1936년 봄 마안산에서 ≪민생단≫문서보따리를 불살라버린 다음부터였다.

나는 그때 김홍범이 뭉테기로 내놓은 ≪민생단≫혐의자들의 문서를 검토하면서 장철구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무슨 까닭이었던지 그의 문서장만은 빨간색 잉크로 씌여져있었다.

그 문서장에는 연길현의 당사업을 하던 남편이 ≪민생단≫으로 판명되어 두 해전 처단되었다는 것과 장철구도 연길현 왕우구에서 부녀회주임으로 사업할 때 군량미를 고의적으로 매몰하여 대원들을 굶기는 등으로 암해책동을 하였다는 몇 가지 ≪죄상≫들이 적혀있었다.

빨간색 글씨의 문서장과 남성의 이름을 가진 중년의 여성이라는 특징만으로도 그는 벌써 나의 주의를 끌었다.

장철구는 외모도 어지간히 표가 났다. 여대원들 가운데서 키도 제일 작았고 눈섭도 매우 성글었다. 어찌나 성글었던지 눈섭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었다.

장철구는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혁명에 발을 들여놓은 여자였다. 남편을 끔찍이 따르던 나머지 그가 하는 일까지도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남편이 하라는대로 삐라도 붙이고 연락 쪽지도 나르고 사람도 숨겨주고 글도 배우고 비밀모임에도 참가하였다. 그러는 과정에 혁명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그처럼 믿고 따르던 남편은 부당하게도 ≪민생단≫으로 몰려 처단당하였다. 장철구도 왕우구공작현지에서 체포되어 ≪민생단≫감옥에 갇혔다. 언제인가 집에 와서 남편과 함께 더운 피쌀밥과 갓김치를 달게 먹던 ≪왕동지≫가 그에게 몽둥이 찜질을 가하고 머리칼을 잡아 휘둘렀다. 그러나 유격대원들과 혁명군중

은 심판장에서 그를 처단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장철구는 처단을 면했으나 ≪민생단≫혐의자라는 오명만은 벗지 못하였다.

나는 신성한 혁명을 모독하고 죄없는 사람들을 참살하는 교형리들이 사람들의 목에 걸었던 ≪민생단≫혐의자의 올가미를 벗겨주면서 장철구를 우리 사령부의 작식대원으로 임명하였다.

장철구가 작식을 맡은 때로부터 우리의 식찬은 한결 다양해졌다. 그는 장이나 김치를 속성으로 만드는 재간을 가지고 있었다.

아마 지금 사람들은 하루이틀사이에 간장이나 된장을 만들여 먹는다고 하면 잘 믿지 않을 것이다. 콩을 타지 않을 정도로 닦아서 뜨끈한 물에 담그면 시뻘건 물이 우러나는데 그 물에 소금을 넣고 졸이면 간장처럼 된다. 삶은 콩을 단지에 넣어 더운데 두면 뽀얏게 발효된다. 거기에 소금을 치고 끓인 것이 썩장이다. 그맛은 꼭 명태장국맛과도 같다.


백학림

장철구가 속성으로 만들어준 썩장이나 참나물김치는 우리 모두가 명절성찬처럼 맛나게 먹던 상등요리들이였다.

장철구는 강냉이눈을 닦아서 기름을 짜내군하였다.

언제인가 전령병이였던 백학림이 중병에 걸려 일어나지 못한 일이 있었다. 평시에는 나무껍질까지도 씹어 삼키군하던 그는 푹 삶은 통강냉이죽조차 구역질이 난다면서 입에 대지 않았다. 장철구는 눈속에서 마른 산채잎을 뜯어다가 물에 불구어 우려내고 그것을 삶은 다음 강냉이눈으로 짠기름에 볶아냈다. 그렇게 만들어낸 찔게에 학림은 입맛이 돌아섰다.

장철구는 말그대로 유격대의 ≪어머니≫였다. 부대가 싸우러 갈 때면 그는 나어린 대원들의 바지주머니에 슬그머니 가마치를 넣어주군하였다.

최금산이나 백학림과 같은 애숭이 전령병들은 물론이고 오중흡이나 이동학과 같은 구대원들도 장철구앞에서는 배고프다는 소리까지도 무랍없이 털어놓군하였다.

장철구가 제일 사랑한 대원은 우리 부대의 막동이인 ≪가마치대장≫ 이오송이였다.


이오송

장철구는 그가 먼발치에 와서 얼씬거리기만 해도 치마폭에 가마치를 감춰가지고 나가서 그의 주머니에 넣어주군하였다. 이오송은 그 가마치를 자기 또래들과 함께 꼭같이 나누어 먹었다.

나는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여자가 남자들보다 자식들에게 더 허물없고 친밀한 육친으로 되는 까닭이 어디에 있겠는가를 생각해보았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자식들에게 일생동안 더 가까운 육친으로 되는 것은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는 일을 주로 모성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후대를 먹여주고 입혀주는 일은 모성들에게 부여된 고정 분공이다.

그러므로 ≪어머니≫라는 말의 참의미는 먹여주고 입혀주는 가장 은혜로운 보호자라는데 있을 것이다.

이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한 장철구는 우리 모두의 가장 친밀한 ≪어머니≫로 되었다.

우리가 곤란하게 잠든 깊은 밤에도 그는 다음날 식사준비 때문에 산나물도 다듬고 망질도 하고 키질도 하였다. 밤중에 절구질을 해야 할 때면 눈보라가 사납게 울부짖는 한지에 나가서 쌀을 찧었다.

장철구는 노상 불앞에서 살다싶이 하였다. 그 때문에 옷도 남보다 갑절 빨리 꿰지

였다.

한번은 밀영에서 오락회가 벌어졌는데 그가 지명을 받았다. 전우들은 모두 그의 노래를 듣고 싶어하였다. 음식 솜씨는 대단한데 노래솜씨는 어떨가하는 심정으로 다들 박수까지 쳐가며 그가 나서기를 고대하였다. 그런데 장철구는 훌쩍 일어나 숲속으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그 돌발적인 행동은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나는 장철구를 변호하였다.

≪철구어머니가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고 다르게 생각할 것은 없소. 그 어머니가 대중앞에 나서지 못한 것은 옷차림 때문이였을 거요. 동무들도 보았겠지만 철구어머니가 기운 옷을 입고 있소. 기운자리가 열 군데도 더 될거요. 그런 옷으로 군중앞에 나서야 할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해보오.≫


백두산밀영지의 일부

오락회 모인 사람들은 그말에 다같이 공감하였다. 사실 장철구 자신도 훗날 자기가 그 때 달아난 것은 옷주제 때문이였다고 실토하였다.

그 후 나는 소부대를 데리고 전장에 나갔던 기회에 장철구를 위해 좋은 옷천 한 감을 마련하였다. 대원 한 사람을 파견하여 값에는 구애되지 말고 제일 좋은 것으로 고르라고 하였더니 중년기의 여인들에게 꽤 어울림직한 회색목세루천을 사왔다. 천물계를 좋아하기에 나도 마음을 놓았다.

나는 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는 옷 한 벌 장만해드리지 못했다. 소사하 갈밭속의 허술한 초가집에 앓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남만원정의 길을 떠날 때 어머니에게 드린 좁쌀 한말조차 우리 동무들이 마련해 준 것이였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준 일이 있다면 오직 한번 팔도구시절에 고무신 한 켤레를 사올린 것뿐이였다. 하지만 그때 고무신을 사느라고 쓴 돈도 실상은 운동화를 사신으라고 어머니가 준 것이지 내가 마련한 것은 아니였다. 나의 어머니는 자식의 성의는 단 한 조각도 받아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시였다. 살아서 자식덕을 한번도 못보았고 돌아가신 뒤에도 아들의 흙 한 줌, 눈물 한 방울 받아보지 못하고 어머니는 소사하강반에 쓸쓸히 묻히였다.

철구어머니에게 옷감을 마련해가지고 갈대의 나의 마음속에는 생전에도 사후에도 자식덕을 못본 친어머니에 대한 연민의 정도 비껴있었다.

그런데 싸움을 마치고 밀영에 돌아오니 우리가 전장에 나가있는 사이 장철구가 김주현의 지시로 후방병원에 갑자기 옮겨갔다는 것이였다. 그가 어째서 사령부작식대에서 일하다가 한적한 후방밀영으로 조동되어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다. 그 소식을 듣자 동무들은 한 사람처럼 서운해하였다. 나 역시 허전한 심정을 금치 못하였다.

그 당시 우리 부대에서는 작식대나 재봉대, 병원, 병기창 같은 후방기관들을 모두 후방부관이 관할하고 있었다. 그런 것만큼 후방사업을 담당한 김주현이 자기의 관할하에 있는 작식대에서 사람을 뽑아 다른 데로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였고 또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였다.

문제는 사령부작식대에서 만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맡은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온 장철구가 무슨 이유로 후방병원에 조동되었는가 하는데 있었다.

장철구와 함께 밀영에 남아있던 **김정숙**에게 알아보았더니 그도 그 동기가 무엇이였는지 몰랐다.

≪후방병원쪽에서 철구어머니를 요구했거나 무슨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던가 봅니다. 철구어머니는 울면서 밀영을 떠났습니다. 어찌나도 섭섭해하는지 우리가 막 송구할 지경이였습니다.≫

김정숙은 장철구가 후방병원으로 떠나가던 정경을 이야기하면서 슬그머니 눈굽을 훔치였다. 그가 눈물까지 흘리는 것으로 보아 장철구와의 이별이 작식대원들에게 아픈 추억을 남긴것만은 틀림없었다.

나도 방금 이별을 당한 사람처럼 가슴일 알알해났다. 후방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내가 돌아온 다음에나 보낼 것이지, 그러면 옷이라도 한 벌 해입히고 가게 했을 것이 아닌가 하는 고까운 생각가지 들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분노한 것은 김주현한테서 장철구의 조동이유를 들은 다음이었다.

≪저는 조막도끼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사령관동지의 신변가까이에 깨끗한 사람들만 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주현이 고백한 장철구의 조동이유였다. 그가 조막도끼사건에서 큰 충격을 받고 사령부호위를 잘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면 그것은 긍정할만한 일이었다. 사령부의 안전을 걱정하는데서 김주현은 부대의 모범을 내세울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각별히 사랑하여 주었다.

서간도전체가 참군열의로 끓어번지던 1936년 가을에 우리는 입대를 탄원하는 청년들로 몇 개의 보충중대를 뭇고 교관들을 파견하여 곰의골밀영에서 그들에 대한 속성훈련을 조직하였다. 그런데 이 보충중대의 신병들속에는 조막도끼와 독약봉지를 가지고 나를 해치기 위해 침투한 첩자도 끼여있었다.

출신으로 보아서는 적들에게 흡수될만한 건덕지가 조금도 없는 순박한 농사군 청년이었는데 적들의 권모술수와 간계에 속아서 밀정으로 전락되었던 모양이었다. 하루는 인민혁명군복장을 한 적들이 청년의 집에 뛰어들어 ≪비적≫행실을 하였다. 청년이 나무를 해다 팔아서 앓는 어머니의 약값으로 마련할 돈도 빼앗고 양식도 털고 닭도 잡고 .. 아무튼 눈에 걸리는 것은 다 강탈해갔다. 그 뒤로 선무공작반이라는데서 파견된 놈이 나타나 청년이 당한 불행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그가 저들의 요구에 응해나설 때까지 집요한 반공선전과 협박을 들이대었다. 이렇게 되어 청년은 본의 아니게 반혁명의 하수인으로 되어 우리 대오에까지 기여들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적에게 매수된 간첩이라는 것을 누구도 몰랐다. 밀영으로 들어올 때 허리춤속에 찌르고온 조막도끼마저 사령부주변에 깊숙이 감추고난 뒤여서 그를 간첩으로 볼만한 표적은 누구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어느 날 나는 곰의골밀영에 갔다가 보충중대의 신병들이 며칠째 맨시래기죽으로 끼니를 에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생을 각오하고 유격대에 입대한 사람들이라고는 하나 집을 떠나온 지 몇 달되지도 않고 아직 고난에 익달되지도 못한 신대원들인 것만큼 사전에 교양을 잘하지 않으면 나약한 생각에 빠질 수도 있었고 동요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날밤 신입대원들을 한 자리에 모여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동무들이 부모처자가 있는 아늑한 집을 떠나 한지에서 추위에 떨며 시래기로 끼니를 에우자니 마음에도 동요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라를 찾자고 나선 청년들이 큰 뜻을 이루자면 고생스럽게도 지내도 조국을 광복한 다음에는 싸운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조국을 광복한 다음 삼천리 강토우에 살기 좋은 인민의 나라를 세우고자 한다. 착취하는 사람도 없고 압박받는 사람도 없으며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골고루 잘사는 인민의 낙원을 세우자는 것이다. 공장도 땅도 인민의 소유로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병치료해주는

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하는 민중제일의 나라를 세우자는 것이다. 그때에는 세상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와보고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신입대원들 중에는 적들에게서 간첩임무를 받은 그 청년도 섞여 있었다. 청년은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놈들에게 속아서 좋은 사람을 헤치려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설사 엄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정체를 밝히고 깨끗이 자수하자고 생각하였다.

청년은 결심대로 우리앞에서 조막도끼와 독약봉지를 꺼내놓고 자기 정체를 밝히였다. 그가 솔직하게 고백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관대하게 용서해주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지휘관들을 크게 각성시키었다. 그들은 자기나름대로 교훈을 찾았다. 어떤 지휘관들은 사령부 호위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떤 지휘관들은 입대심사를 실속있게 하여 우연분자들과 불순이색분자들이 대내에 끼여들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어떤 지휘관들은 서간도전역에서 적의 주구들과 악질적인 반동들을 숙청하기 위한 투쟁을 군중적 운동으로 벌려 한명의 간첩이나 밀정도 밀영에 범접하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김주현의 생각은 이보다 좀더 복잡한 경지에 있었다.

≪나는 그때 우리 사령부를 잘 호위하자면 안팎을 다 잘 살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이 외부에만 있고 내부에는 없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외부의 적이 우리 내부에 보호색을 쓰고 숨어 있는 반동들이나 동요분자들과 연계를 가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경력이 복잡한 사람들을 사령부 측근에 두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결국 장철구와 같은 ≪민생단≫혐의자는 사령부작식대원으로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였다.

나는 분하고 격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오직 성실성 하나만을 가지고 혁명을 위해 애쓰는 순박하고 무던한 그 어머니를 어쩌면 그렇게도 몰인정하게 대할 수 있단 말인가. 매사에 그처럼 대범하고 용의주도한 김주현이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였다고 생각하니 더구나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를 불같이 다불렀다.

≪동무가 우리의 안전을 위해 늘 마음을 쓰고 있는데 대해서 나는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은 동무에게 아픈말을 좀 해야겠다. 장철구어머니에 대해서는 동무자신도 진실하고 근면하고 인정있는 여성이라고 여러 번 칭찬해왔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동무의 마음속에는 그에 대한 믿음이 그처럼 쉽게 허물어질 수 있었는가.

그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를 대신해왔고 누이를 대신해왔다. 우리에게 하루 세끼씩 누가 더운밥을 지어주고 누가 더운국을 끓여주었는가? 철구어머니였다. 만일 그가 나쁜 여자였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기회야 얼마든지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우리는 철구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수백 그릇씩이나 먹고서도 모두가 건재하고 있다. 이것은 장철구어머니가 의심을 받을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좋은 여자이며 지난날 그가 받았던 ≪민생단≫혐의가 백 번 부당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뿐이다.≫

김주현은 훗날 그날처럼 땀을 많이 뽑아 본적은 없었다고 나에게 고백하였다.

사실 나는 김주현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실책을 범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였다. 김주현은 오랜 혁명경력을 가진 노련한 군사정치일군이었다. 우리는 늘 한 가마밥을 먹고 함께 지냈으며 한 상에 마주 앉아 사업을 의논하였고 늘 마음과 뜻을 같이해왔었다. 우리의 노선과 의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김주현이 공산주의자로서의 의리와 도덕을 떠나 인간의 운명을 그처럼 모질게 다룬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김주현의 잘못을 계속 비판하였다.

≪우리가 마안산에서 ≪민생단≫문서보따리를 불살라버린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상처도 거의 다 아물었다. 그런데 동무는 무엇때문에 다 아물어가는 그 상처자리를 들쑤셔놓았는가? 이제라도 산에서 내려가기만 하면 장철구는 새 남편을 얻어가지고 뜨뜻한 가마목에서 더운밥을 먹으며 편안히 살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우리와 같이 고생스러운 산생활을 하고 있다. 혁명을 하자고 결심했기 때문이며 우리를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무는 그를 사령부에서 내보냄으로써 우리가 그에게 준 믿음조차 기만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래 우리가 여느때에는 믿는 척하고 포섭했다가 위험할 때에는 서슴없이 배척해버리는 그런 용렬한 인간들이란 말인가? 믿음에는 가짜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박정숙

김주현은 그날로 후방병원에가서 장철구를 데려왔다. 다음날은 재봉대원들을 다과대여 그에게 입힐 옷까지 한 벌 지어 왔다.

하지만 장철구는 김주현의 지시를 매번 책임적으로 집행하면서도 그를 멀리하였다. 간혹 밀영의 소로길이나 식당에서 단둘이 만날 때에도 경례만 붙이고는 침묵으로 대하군 하였다. 결론을 받아야할 일이 생기면 다른 작식대원들을 내세워 김주현에게 보냈다.

장철구가 후방병원에서 보낸 며칠간은 시간으로 셈하면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며칠을 못잊어 장철구는 오래동안 마음속의 그늘을 지우지 못하였다.

참으로 불신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파괴력은 엄청난 것이다. 티끌만한 불신이 일생의 원망을 살수도 있고 10년 묵은 우정을 순간에 파괴해버릴 수도 있다.

장철구가 사령부작식대에 다시 돌아오자 밀영의 활기도 부활되었다. 음식맛도 대뜸 달라졌다. 어쩐지 같은 통강냉이죽도 이전보다 한결 더 달게 느껴졌다. 그것은 지성을 다하는 작식대원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장철구는 솜씨있는 요리사는 아니였다. 장철구는 전보다 더 극성스럽게 일하였다. 우리의 구미에 당기는 것이라면 100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구해오군하였다. 어느 날 나는 19도구를 지나가다가 이훈네 집에서 병풍쌈을 먹어 본 일이 있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그 쌈은 오히려 부루쌈보다 맛이 나았다. 밀영에 돌아와서 한담삼아 그 쌈맛에 대한 말을 꺼냈더니 장철구는 어느새 수십 리나 되는 19도구에 달려가 병풍나물을 한임 가득 이고 돌아왔다. 그 후에는 백두산밀영지에서 병풍나물을 찾아내였다.

장철구는 습기가 많은 작식터 근처에 나무가지와 가랑잎을 피고 늘 새우잠을 자군하였다. 그러는 과정에 그의 오른쪽팔이 점차 마비되었다. 엎치데 덮친 격으로 얼마후에는 열병에까지 걸리었다.

우리는 병치료를 위해 장철구를 안도현 오도양차골안으로 보냈다. 그때 박정숙과 백학림도 ≪간호병≫의 사명을 띠고 그를 따라갔다. 그 후에는 **김정숙**이 그의 병간호를 맡아하였다. 그들이 장철구를 거들어주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였다. 나도 지봉손 전달장을 데리고 오도양차에 있는 장철구의 풀막에 한번 가보았다.

장철구는 수십 일만에 열병을 털고 일어났으나 오른팔의 마비만은 고치지 못하였다. 그러다나니 작식도 변변히 할 수 없었고 총도 제대로 다룰 수 없었다. 자기가 부대의 짐으로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장철구는 날마다 고민속에 모대기였다. 그러던 끝에 그는 자기가 부대를 떠나야 전우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1940년대초, 우리가 무장대오에 그냥 세워둘 수 없는 불구자들과 노약자들을 쏘련으로 후송할 때 장철구는 자청하여 그 대열을 따라갔다.

작별을 앞두고 그는 자기가 늘 끼고다니던 은반지를 **김정숙**에게 주면서 조선이

독립되는날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장철구는 **김정숙**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만리타향에서 들었던 것이다. **김정숙**이 선사하였던 장철구의 은반지는 지금 조선혁명박물관에 진열되어있다.

장철구와 함께 우리 사령부의 작식일을 맡아한 사람들 가운데는 연합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중국인대원도 있었다. 그는 중국요리를 잘 만들었다. 장철구가 성실한 취사원이였다면 연합동은 솜씨있는 요리사였다. 그가 우리에게 온 것은 1936년 겨울이였다.

연합동은 우리 부대에 입대하자마자 얼마동안 장철구의 곁에 있으면서 유격대요리법을 배웠다. 그러는 과정에 두 사람은 아주 친밀한 벗으로 되었다.

장철구가 쏘련으로 파송되어갈 때 연합동은 몹시 허전해 하였다. 그는 중국음식을 한 보따리 만들어가지고 와서 철구어머니의 배낭에 넣어주었다.

장철구도 그와의 이별을 못내 아쉬워하였다.

연합동이 우리한테로 오게 된 사연속에는 희귀한 상봉극이 있다. 그 상봉극의 주인공이 바로 길림에서 교의 계율을 어기고 술과 돼지고기를 잘먹던 이슬람교도 마금두이다. 마금두는 길림육문중학교시절의 나의 동창생일 뿐 아니라 팔도구소학교시절의 학우이기도 하였다.

팔도구시절의 연고자들 가운데는 인상깊은 사람들이 많았다. 팔도구경찰서장의 아들 여현장도 나하고는 범상치 않은 인연을 맺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도 팔도구시절에 나와 소학교를 같이 다니였다. 여현장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병치료를 받던 단골손님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신세를 갚는 다고 하면서 명절때마다 선물을 들고 우리 집에 찾아오군 하였다.

나는 서간도 지방에서 부대를 데리고 활동할 때 여현장의 소개로 팔도구경찰서장과도 연계를 가지였다. 그때는 여현장의 아버지 대신 다른 사람이 경찰서장 노릇을 하였다. 그 경찰서장도 여현장의 아버지처럼 양심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와 싸우지 않기로 약속한 다음부터 인민들이 혁명군에 보내는 원호물자들을 하나도 다치지 않고 다들여 보내주군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장백현내의 다른 고장들은 다 치면서도 팔도구만은 한번도 치지 않았다.

마금두는 성격도 특이하였지만 사생활도 남다른데가 있었다. 그는 중학교 시절에 벌써 결혼을 하였다. 그것도 단꺼번에 두 여성에게 장가를 들었다. 그의 두 안해는 자매간이었다.

처음에 마금두는 자매중의 언니와 연애를 하여 약혼까지 하였다. 그런데 언니의 심부름을 하던 동생이 마금두에게 반해서 상사병을 앓게 되자 자매의 부모들은 딸형제를 모두 마금두에게 맡겨버리었다. 돈 부자인 마금두는 처부자로도 되었다.

나는 감옥에서 나와 길림을 떠난 다음에는 마금두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지냈다.

그런데 운명의 변덕이라고 할가. 이번에는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 적으로 맞서게 되었다. 우리가 백두산에서 나와 싸우던 첫해 겨울의 일이었다.

마금두는 이도강에 둥지를 틀고 있던 위만경찰 ≪토벌대≫대장이었다. 이도강은 곰의골밀영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적의 중요한 ≪토벌≫거점이었다. 이 고장에는 위만경찰 ≪토벌대≫의 무력과 함께 함흥 74연대에서 파견되어온 수백 명의 일본군 ≪토벌대≫병력도 주둔하고 있었다.

나는 처음에 마금두가 위만경찰 ≪토벌대≫우두머리 노릇을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 해 가을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이도강을 쳤을 때 우리 대원들이 도망친 위만경찰 ≪토벌대≫대장의 집을 수색하다가 권총을 쥐고 숨어있는 대

장의 처와 요리사를 데려왔다. 놀랍게도 그 대장의 처라는 여자는 마금두에게 출가한 두 자매중의 동생이였다.

마금두가 길림에서 결혼식을 할 때 나도 초청을 받고 거기에 참가했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인차 알아보았다. 그 여자도 역시 나를 알아보았다. 아주 극적인 상봉이였다.

여인의 말에 의하면 마금두는 어느새 네 아이의 아버지로 되였다고 하였다. 자기는 아들 둘을 낳았고 언니는 딸 둘을 낳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에게 자기 남편이 지금도 길림시절 이야기가 나오면 김성주선생을 외우군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되여 ≪**김일성**공비≫무리에 기여들게 되였는가고 물었다. 그는 어제날의 김성주가 바로 **김일성**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나는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공비대장≫이라고 말하는 **김일성**이란 바로 나다. 우리는 공비가 아니라 조중인민의 적인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혁명군이다. 남편이 오면 내 인사를 전달해 달라. 지난날의 우정을 가지고 동창생으로서 진심으로 권고하는데 여기서 승산없는 싸움을 하느라고 하지 말고 슬그머니 피하라고 하라. 피할 수 없으면 ≪토벌≫에 내몰리더라고 흉내만 내라고 하라. 우리는 악질적으로 저항하는 위만군은 치지만 그렇지 않은 위만군은 너그럽게 처리한다. 나는 마금두가 왜놈들의 총알받이가 되는 것도 바라지 않으며 혁명군의 총에 맞아 죽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는 우리의 벗으로 되여야 할 사람이지 원쑤로 되여야 할 사람은 아니다.≫

마금두의 부인은 ≪**김일성**공비단≫이 위만군에 대해서는 함부로 총질하지 않는다는 것을 남편도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 인민혁명군의 야간습격조가 곰의골어귀전투때 적숙영지를 기습하면서 일본군의 천막들만 답새기고 위만군의 천막들은 치지 않았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일본군 ≪토벌대≫의 우두머리들은 그 분풀이로 싸움에 참가하였던 위만군장교들을 모조리 총살해 버리였다.

마금두가 그 끔찍한 참살을 가까스로 모면할 수 있은 것은 감기를 핑계로 ≪토벌≫에 참가하지 않은 덕분이라고 하였다. 아마 마금두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우리의 대적 방침을 어느 정도 깨달은 것 같았다.

마금두의 부인은 **김일성**부대가 왜 위만군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한가를 이제는 알만하다, 성주선생이 학창시절에도 늘 조중친선을 강조하였고 중국의 학우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남편도 자주 말해왔다. 성주선생이 중국사람들을 그처럼 아끼며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위만군을 대해주는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한 가지 생각뿐이다, 남편을 설복해서 두 번 다시 혁명군에 총부리를 돌리지 않게 하겠다. 남편도 **김일성**대장이 어제날의 김성주선생이라는걸 알면 심사숙고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마금두의 부인에게 역사에 오명을 남기는 역적이 되지 않도록 남편을 잘 설복하라고 거듭 당부한 다음 그와 요리사를 돌려보내고 이도강에서 철수하였다.

요리사는 그때 마금두의 처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서 입대를 청원하였다. 그가 바로 연합동이였다. 그는 마금두의 안해들인 두자매가 한남편을 놓고 자주 싸움을 하는 짬에 끼워 시달림을 당하기에 지쳤다면서 혁명군에 받아달라고 청원하였다.

≪나는 마금두대장한테서 김성주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김성주선생이 바로 **김일성**장군이라는 것을 알게되니 장군곁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장군부대에서 싸우다 죽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의 청을 받아주었다. 그 무렵에 위증민이 횡산후방밀영에 와서 병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에게 중국요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요리사가 생기게 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였다. 그의 구미에 맞는 중국음식을 지을만한 작식대원이 없어서 사실은 나 뿐 아니라 김주현까지도 몹시 난감해하고 있던 터였다.

나는 연합동을 한동안 위증민의 곁에 가서 일하게 하였다. 위증민은 연합동이 일류급식당에 보내도 손색이 없을 재능있는 요리사라고 하면서 그를 몹시 사랑하였다.

연합동은 그때부터 1945년 9월, 일제가 패망하고 우리가 조국에 돌아올 때까지 오래동안 우리 곁에서 작식대원으로 일하였다. 그는 같은 감을 가지고도 별의별 요리를 다 만들어낼줄 아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밥은 큰가마에 해야 맛있다고 하면서 언제나 큰가마를 지고 다녔다.

1940년대 전반기 쏘만국경지대의 훈련기지에 가있을 때 우리는 중국동무들과 함께 쏘련동무들과도 연합군을 편성하고 종종 합동훈련을 하였는데 그럴 때마다 연합동의 요리솜씨가 얼마나 소문났던지 중국측 지휘관들은 물론이고 쏘련측 지휘관들까지 우리 부대의 야전식당에 뻔질나게 찾아들군 하였다.

어느 날 주보중은 연합동이 차려준 중국음식을 먹고나서 우리에게 그를 달라고 농을 하였다. 그런데 안길동무가 마침 잘되었다고 하면서 그 농을 받아넘겼다.

이 말이 진담처럼 전달되어 연합동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연합동은 울상이 되어 나를 찾아와 자기를 중국부대에 넘긴다는게 사실인가고 하였다.

≪어느 부대에 넘어가겠는지는 모르겠는데 동무를 탄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야단났고. 쏘련동무들도 동무를 달라는 구만. 만약 쏘련동무들이 더 조르면 쏘련측에 넘어갈 수도 있소.≫

나의 말에 연합동은 펄쩍뛰였다.

그는 중국부대고 쏘련부대고 다 가지않겠다고 하면서 고집스레 나를 바라보았다.

그 말이 빈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일본의 패망직후에 절실히 깨달았다. 해방된 조국으로 나올 때 나는 연합동을 불러놓고 10년 가까운 세월의 수고를 치하해준 다음 그를 주보중부대에 편입시키기로 한 당조직의 결정을 전달하였다. 주보중은 연합동이 자기 부대에 오면 연대장을 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연합동은 그 말을 듣자 자기를 꼭 조선을 데려가달라고 간청하였다.

≪이제는 장군님 곁을 떠나서는 못살겠습니다. 내가 중국사람이라고 해서 꼭 중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법이야 없지 않습니까. 연대장이고 뭐고 다 싫으니 나를 장군님 곁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왜놈의 총칼이나 만주바람도 끊지 못한 정인데 국적이 다르다고 그 정을 억지로 끊을 필요야 없지 않습니까.≫

연합동의 말은 나를 감동시키었다. 그가 한 말에는 혁명의 길에서 동지를 위해 피도 흘리고 눈물도 뿌리며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인생관이 집약되어있었다. 그의 말과 같이 사람은 산천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인정에 매여 산다고 할 수 있다. 백두밀림과 만주광야에서 항일투사들을 하나의 큰 가정속에 묶어세운 것도 역시 정이었고 사랑이었다. 인간이 사는 곳에 정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산천도 빛을 잃는 법이다.

연합동이 우리를 따라가겠다고 적극적으로 간청해나선 것은 국제주의정신의 숭고한 표현이기도 하였다.

나도 역시 연합동을 떼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소원이 정 그렇다면 동무가 하고 싶은데로 하라, 난들 왜 동무와 헤여지고 싶겠는가, 나는 국적을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동무의 입장이 딱해질가봐 심사숙고 할뿐이다. 동무도 알다싶이 지금 중국은 내전전야에 있지 않은가, 우리는 중국혁명을 돕기 위하여 강건을 비롯한 수많은 조선인 군정간부들과 투사들을 보내겠다는 것을 주보중에게 약속하였다. 조선사람

이 중국혁명을 도우려고 할 때 중국사람인 연합동이 자기나라 혁명을 외면하고 조선으로 간다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동무자신도 결코 마음이 편안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연합동은 중국으로 가는 길을 택하였다. 그는 중국혁명이 승리한 다음 조선에 나가 살겠으니 그때에는 평양미인들 중에서 색시감을 꼭 구해달라고 하면서 농까지 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그 청을 들어줄 수 없었다. 그가 연대장이 되어 장개석국민당군대와의 전투에서 용맹을 떨치다가 전사하였기 때문이다. 그 슬픈 소식을 듣고 나는 그를 조선에 데리고 나오지 못한데 대하여 후회하였다. 그러나 연합동은 중국인민의 기억속에 영원히 살아남는 사람으로 되었다.

연합동이 조선에 오지못한 대신 먼 중앙아시아 지방에 가있었던 장철구가 전후에 우리를 찾아왔다. 그가 온지 얼마안되어 백두산시절의 옛전우들이 한자리에 모이었다. 장철구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장군님, 옛날 백두산시절 동무들이 다모였는데 시간을 내여 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스무해만에 만든 통강냉이죽을 장군님께도 한 사발 올리고 싶어 그럽니다. 제가 만리타국에서 빈손으로 오다나니 장군님께 올릴 것이란 통강냉이죽뿐입니다.≫

나는 퍽그나 가고 싶었으나 갈 형편이 못되었다.

≪고맙지만, 나는 지금 지방으로 떠나자던 참입니다. 인민들의 약속한 걸음이여서 어길 수가 없으니 훗날로 미루어 주십시오.≫

그날 옛 전우들은 백두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장작불로 끓인 통강냉이죽을 달게 들었다고 한다.

그 후부터 나는 백두산시절이 사무치게 그리워질 때면 장철구에게 통갱냉이죽을 쒀달라고 부탁하군 하였다.

장철구는 우리 집 대문 맞은편에 있는 둔턱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는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나도 어쩌다 짬을 얻으면 장철구의 집으로 건너가군 하였다.

조국에 돌아와 살면서 그가 한 주되는 일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백두산에서 싸우던 옛전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다.

장철구는 1982년에 우리 곁을 떠났다.

그의 사망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나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친어머니가 돌아갔을 때처럼 비통한 감정에 휩싸이었다. 그는 모든 정성을 다하여 나를 친동기처럼 극진히 돌봐주었다. 그것은 사실 친어머니의 사랑에 못지 않은 사랑이였다.

우리는 혁명무력건설에서 커다란 공적을 쌓은 투사들과 꼭같이 그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크게 치르었다.

그 평범한 여성을 후대들이 길이길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성산의 혁명열사릉에는 그의 흉상을 앉혔으며 그를 원형으로 한 예술영화 ≪만병초≫도 만들었다.

우리가 평양상업대학에 장철구의 이름을 달았을 때 우리 인민들은 한 사람같이 기뻐하였다. 그들은 평양상업대학에 평범한 작식대원의 이름을 붙인 것은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우리 인민의 생활상 편의와 식의주를 위해 노고를 바치는 봉사일군들과 숨은 영웅들을 높이 내세우는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평양상업대학을 장철구대학이라고 명명할 때 우리는 후대들이 장철구처럼 혁명임무에 충실한 일군이 될 것을 바라마지 않았다.

제17장



조선은 살아있다

■ 시기 : 1937. 5 ~ 1937. 6

1. 보천보의 불길(1)



보천보의 횃불

보천보전투의 역사적 측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연구하고 이야기하였지만 이 전투를 직접 조직하고 지휘한 나에게는 정신적 체험이나 추억거리들이 적지 않다. 지금도 반세기전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정경들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보천보전투는 한마디로 말하여 생이별을 당한 어머니와 그 자식들의 상봉과 같은 사변이였다고 할 수 있다. 조국은 보천보에서 울린 총소리를 계기로 하여 자기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충직한 아들딸들을 만날 수 있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전투는 망국사의 흐름을 광복에로 돌려세운 결정적인 계기의 하나였다고도 표현 할 수 있다.

나는 해방 후 조국에 돌아와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전투담을 들려달라는 각계인사들의 요청에 접할 때마다 늘 보천보전투에 대해서 말해주군 하였다. 전과로 보면 이 전투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전투들이 얼마든지 있었다. 보천보를 칠 때 우리가 살상한 군경수는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일전쟁당시의 주요전투들을 소개할 때면 언제나 이 전투를 댄 웃자리에 놓군 한다. 그것은 내가 이 전투를 그 어느 전투보다도 특별히 중시하기 때문이다.

보천보전투에 대하여서는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대하였다. 적측의 손실

이라든가 피해정도 같은 것은 이미 전투 직후 지상을 통해 소개되었으니 새삼스럽게 확인할 것도 없었지만 그 작전의 동기에 대해서만은 누구나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요컨대 어떻게 되어 보천보전투를 하게 되었는가, 국경부근에 그런 정도의 고을들과 촌락들이 수십 개나 되는데 유독 보천보를 친 것은 무엇때문이였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천보전투를 조직한 목적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민족재생의 전기를 마련하려는데 있었고 좁은 의미에서 보면 항일혁명투쟁에서의 결정적인 단계, 질적 비약을 이룩하자는데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의 민족사는 피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이 피눈물은 일제가 강요한 것이였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항전을 개시하였다. 무장투쟁은 조선의 아들들이 선택한 항일의지이고 수단이였다. 우리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구호를 들고 한편으로는 무장투쟁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조직건설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전선운동과 반제공동전선운동을 하면서 항일혁명을 추진시켜왔다.

이 길에는 난관도 많았다. 어떤 사람들은 조선사람이 조선혁명의 구호를 들고 싸우는 것까지도 범죄시하면서 저들의 당리당략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우리는 혁명의 길에 나선 첫날부터 언제나 사고의 출발점을 조선혁명에 두었다. 몸은 비록 이국에 있었으나 마음은 항상 조국에 가있었고 주국의 동포들에게 가있었다. 1920년대 후반기부터 우리가 이국땅에서 한 모든 일은 다 조국을 위한 것, 조국의 해방을 위한 것이였다. 우리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선혁명의 기발을 들고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당당한 권리로 되고 의무로 된다는데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남호두회의에서는 다른 일련의 문제들과 함께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할 때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이 회의를 통해 표현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지향은 조선에 나가서 총소리를 크게 내자는 것이였다. 바꾸어 말한다면 활동판도를 국내깊이에로 확대하여 조선혁명을 앙양시키자는 것이였다. 1930년대 전반기까지의 우리의 주되는 활동판도는 만주지방이였다. 항일유격대창건을 전후로 하여 국내에도 여러 번 드나들었지만 그것은 제한된 활동이였다. 1930년대 전반기의 우리의 활동은 주로 힘을 축적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무장대오는 여러 개의 사단을 이룰만치 장성하였다. 이 힘을 가지고 국내에 나가면 못해낼 일이 없었다. 백두산에 틀고 앉아서 낭림산에도 1개사단, 관모봉에도 1개사단, 태백산에도 1개사단, 지리산에도 1개사단 하는 식으로 사방에다 무장부대들을 파견해서 근거지를 건설하고 적들을 연거퍼 답새기면 조선반도를 죽가마처럼 끓게 할 수 있었으며 2천 300만 조선민족을 전민항쟁의 마당으로 모조리 불러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자신의 힘으로 조국해방의 숙원을 달성할 수 있는 대통로를 열어놓을 수 있었다. 이것은 남호두와 동강, 서강 등지에서 열린 일련의 회의들에서 거듭되는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민족사의 요구, 항일혁명발전의 총화였다.

1937년 봄에 우리는 서강에서 수년간에 걸친 무장투쟁과정을 총화하면서 대부대에 의한 국내진출을 당면과업으로 내세우고 그에 따라 몇 가지 실무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 조치에 따라 혁명군무력을 3개의 방향으로 진출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군사작전이 세워졌다. 그 작전에 의하면 최현부대는 무송으로부터 안도, 화룡을 거쳐 두만강연안의 북부국경일대로 진출하게 되어있었고 다른 하나의 역량은 임강, 장백 일대로 진출하게 되어있었으며 내가 인솔하는 주력부대는 적의 공격이 두 부대에 집중될 때 혜산쪽에 쳐들어가서 한바탕 총소리를 내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이

작전의 총적인 지향점은 국내의 적을 치는데 있었다. 임강과 장백 일대에 진출하게 되는 2사부대의 활동도 기실은 국내에 진공하게 될 두 부대의 활동에 대한 배후지원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우리 인민들속에는 일본군의 강대성에 대한 일종의 환상이 조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일본군이 만주를 단숨에 삼켜버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세상에 이런 군대를 당해낼 군대는 없다고까지 생각하였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일본과 같은 강국을 상대로 하여 독립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닭알로 바위를 깨겠다고 덤벼드는 것과 같이 황당하고 무모한 짓이라고 하였다.

여러 가지 징후들로 보아 일제가 중국관내에로 침략전쟁을 확대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현실로 되었다. 중일전쟁은 시간문제로만 남아있었다. 일본군이 기세등등해서 전쟁의 불길을 넓혀가는데 따라 무적황군에 대한 공포와 환상은 점점 더 커질 것이었다. 적의 강대성에 대한 환상은 혁명의식을 마비로 만들려면 일본군에 대한 신화를 깨뜨려버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본군이 강군이기는 하지만 치면 꺼꾸러뜨릴 수도 있고 괴멸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어야 하였다.

우리가 한 5년동안 북간도와 서간도를 중심으로 하여 벌인 무장투쟁은 일본의 신화를 여지없이 깨뜨려버리었다. 그러나 혹심한 보도관제와 왜곡된 선전으로 하여 우리 군대의 전파는 국내깊이에까지 사실대로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다.

이런 때에 우리가 대부대로 국내에 쳐들어가게 되면은 나라 강산이 경탄과 감격으로 발칵 뒤집히고 인민들은 일제를 쳐부시고 조선을 독립시킬 군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조국해방을 이룩할 수 있는 조선의 혁명군대가 한다는 긍지와 자부심, 이것이야말로 2천 300만 동포들이 조국광복전선에 과감히 떨쳐나설 수 있는 힘과 의지의 기초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내진공작전에 일관되어있는 우리의 전략적 의도였다.

나는 그 당시 두 가지 점에 사색을 집중하고 있었다. 하나는 군사적으로 국내의 큰 요충지들을 공격해서 온 나라에 충격을 주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하조직망을 조밀하게 펼쳐서 전민을 반일항전에 준비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조국을 해방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가 도래할 때 무장투쟁과 전민봉기를 배합하여 일제를 격멸하고 독립을 실현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피와 땀을 많이 바쳐야 하는 어려운 전략이었지만 달리는 할 수 없는 길이기도 하였다. 백두산지구와 서간도일대에서의 우리의 모든 활동은 이 전략의 실현에 철저히 바쳐지고 있었다.

국내진공을 앞둔 때의 나의 제일 큰 관심사는 조국의 실정을 깊이 요해하는 것이었다. 출판물만으로는 국내의 실정을 속속들이 다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국내에 갔다오는 공작원들과 담화를 많이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지하조직원들을 불러다가 국내실정을 들어보기도 하였다. 실정자료는 새로운 통계수자나 충격적인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장마당풍경이나 길가의 객주집에서 울려나오는 아낙네들의 넉두리에서도 우리는 어용신문의 눅거리보도기사에서는 볼 수 없는 주요한 자료들을 모을 수 있었다.

그 자료들가운데서도 우리가 제일 중시한 것은 인민들의 동향이었다. 인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의 주되는 관심사였다.

그 해 4월이 아니면 5월이었다고 기억된다. 만포쪽에 나갔다가 돌아온 한 무장소조원이 나에게 사업보고를 하다가 산중에서 목격한 사실이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글쎄 팔다리가 젓가락 같이 여윈 10살 되나마나한 사내애들이 솔밭에서 삭정이를 줏고 있지 않겠습니까. 알아보니 학교에서 얼결에 조선말을 한 것 때문에 매를

맞고 벌금을 무느라고 나무를 한다는 겁니다. 그 애들은 모두 보통학교 2학년생들이였습니다.≫

무장소조원이 그 아이들한테서 들은데 의하면 일본인교원은 목검으로 아이들의 다리와 잔등을 굴뱀이 지게 두드려패고 머리에 물통을 뒤집어씌워 운동장에 장시간 꿇어앉히였다고 한다. 그리고 벌금까지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그 학급에서는 조선말을 한마디하면 5전, 두 번하면 10전, 세 번 이상하면 퇴학이라고 하였다. 다른 학교나 학급들에서는 아직 그런 규정을 내지 않았는데 일본인교원이 담당한 그 학급만은 유독 ≪국어상용≫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일본사람들이 조선말을 한 아이들한테서 벌금을 받아낸 것 자체는 별로 놀라울 것도 없는 일이였다. 나라를 통채로 빼앗은 일제가 무슨짓인들 못하겠는가. 나는 이전에도 조선총독부 당국이 조선사람들에게 일본말사용을 강제로 내리먹이지 못해 안달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었다. 경상북도에 있는 어느 한 보통학교에서는 벌써 1931년말부터 강제적인 방법으로 조선말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1937년 봄에 총독부 당국은 조선의 각급관공청들에서 일체 공문서작성을 일본어로 할 데 대한 지시를 내리먹였다.

이 모든 사실들은 일본의 치하에서는 달리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였다. 그것은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다잡을 수 없었다.

사람이 말까지 빼앗기면 한 민족이기를 그만두는 것이며 민족이 민족어를 빼앗기면 한 민족이기를 그만두는 것이다. 민족의 징표가운데서 피줄의 공통성과 함께 언어의 공통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된다는 것은 세상이 다 공인하고 있는 바이다.

민족어는 민족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언어를 빼앗고 말살하는 것은 민족의 전체 성원들에게서 혀를 잘라내고 얼을 빼앗는 것과 같은 잔학무도한 짓으로 된다. 영토와 국권을 잃은 민족에게 남는 것이란 언어와 정신밖에 없다.

그런즉,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민족전부를 숨쉬는 시체로 만들려는 것이다. ≪황민화≫의 본직은 조선사람들을 일본사람들과 꼭 같은 ≪1등국민≫으로 만들어서 흰쌀밥을 먹이려는 것이 아니고 아침마다 ≪궁성요배≫나 ≪신사참배≫를 하여 ≪황국신민서사≫를 외우는 일본국민의 종복으로 만들려는데 있었다.

언어를 빼앗는 것은 몇몇 사람들의 불행이나 희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였다. 그것은 온 겨레의 운명과 관련되는 문제로서 2천 300만동포를 한 줄에 세워놓고 그들 모두를 한칼로 쳐없애는 것과 같은 대살륙이나 다름없었다.

식민주의자들의 첫째가는 특성이 야만성과 탐욕성, 철면피성에 있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다. 국적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남의 나라를 강탈한자들은 모두가 포악하고 교활하고 후안무치한 놈들이였다. 그러나 나는 다른 나라의 말과 글을 빼앗는 자들, 다른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의 신사앞에 절을 하게 하는 그토록 야비하고 뻔뻔스러운 식민주의자들은 아직 한번도 보지 못하였다.

조선민족의 운명이 과연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무장소조원이 안고온 소식은 나의 피를 끓게 하였다.

(조국으로 하루빨리 진군해서 그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 조선민족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조선민족은 자기의 말과 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조선민족은 ≪내선일체≫와 ≪동조동근≫을 인정하지 않으며 ≪황민화≫를 거부한다는


일제의 ≪황민화≫ 교육

것, 조선민족은 일본이 망할 때까지 손에서 무장을 놓지 않고 항쟁을 계속한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렇게 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1937년 5월초였다. 나는 놀라운 국내소식을 또 하나 받아안게 되었다. 조선공산주의운동의 거물 이재유가 체포되었다는 ≪매일신보≫특간호의 상보를 접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옹근 4면짜리의 대대적인 특집이었다. 거기에는 경찰에 여섯 번이나 체포된데 대한 경위와 그에 대한 소개가 지나치다고 할만치 상세하게 적혀있었다. 신문은 이재유를 ≪조선공산운동괴별의 최후진≫이니, 공산주의운동 ≪20년역사 최후거물≫이니 하면서 그의 체포로써 조선공산주의운동을 영영 끝나게 되었다고 요란하게 떠들고 있었다.

부르조아정치일반이 워낙 지능적인 속임수로 되어있지만 그 시녀노릇을 하는 관보의 활자뒤에는 항상 지배계급의 검은 속심이 숨어있는 법이다. ≪매일신보≫의 그 호외도 예외가 아니였다. 워낙 잡도리부터가 총독부의 골방에 깊숙이 들어앉아 반공을 업으로 삼는 노회한 책사들이 야심적으로 꾸며낸 가면극이라는 것이 대번에 알리었다.



이재유의 체포를
보도한 신문

이재유가 이름난 공산주의자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는 삼수사람이었다. 일본에 건너가서 고학을 하다가 노동운동에 참가하였으며 귀국 후에는 서울을 활동무대로 하여 공산주의운동을 하였는데 주로 태평양노조조직들을 맡아가지고 함흥일대에까지 드나들면서 각 지방의 노조, 농조 운동을 지도하였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담력도 있고 임기응변하는 기지와 변장술도 있어 붙잡힐 때마다 매번 탈출에 성공하였다고 한다. 신문은 이이상의 탈출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조선공산주의운동은 최종적으로 막을 내린 셈이라고 단언하였다.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일제의 집요한 탄압과 모략선전은 기실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혼란시키고 있었다. 그 점에서 적들은 대단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대검거로 공산당이 무너지고 얼마 남지 않았던 개별적 공산주의자들마저 이재유의 체포로 활동의 종말을 고했다고 하니 그 실망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공산주의운동을 학문으로 연구하던 사람들속에도 허무감에 잠겨 맥을 놓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적들은 과녁을 면바로 고른 셈이였다. 그 과녁이란 조선민족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자는 것이였다. 그 목적을 이룩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들은 어떤 폭언이나 감언이설도 아끼지 않았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한 쪽으로는 총을 내대고 ≪복종하겠느냐, 아니면 죽겠느냐?≫하고 을러메는가 하면 다른 쪽으로는 ≪자, ≪동조동근≫에 ≪내선일체≫이니 신사참배도 같이하자≫, ≪만주에서는 ≪왕도낙토≫에 ≪오족협화≫와 꽃이 피여있고 일본에는 사꾸라꽃속에 복지가 기다리니 만주나 일본에 가서 부자가 되라≫, ≪남쪽에서는 목화를 심고 북쪽에서는 양을 치며 대일본의 신민이 되어 온 아세아를 주물러보라.≫하고 입에 침발린 소리로 구슬리기도 하였다.

조선민족이 당하고 있은 가장 무서운 비극적 사태는 정신이 무너진다는 바로 그 점에 있었다. 일제의 독재기관으로부터 유행가를 불어넣은 축음기판대기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 조선을 없애고 조선민족의 넋을 뿌리채 뽑아버리는데 집중되고 있었다. 조선은 사람이 살지 못할 생지옥으로 변하였다. 동방조선에 칠칠야밤과 같은 암흑이 끝없이 계속되었다. 그 밤은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지샐줄 몰랐다.

≪이 지리한 예속의 밤, 굴욕의 밤을 끝장내지 못한다면 우리 어찌 감히 자기들을

조선의 장부라고 할 수 있으랴. 어서 빨리 조국으로 나가자. 조국에 나가서 기나긴 악몽속에서 시 달리는 민족의 넋에 생명을 불어넣자≫

이것은 조국진군을 준비하던 나날 우리 지휘관들과 대원들의 머리를 지배한 생각이였다.

상수와 소덕수를 거쳐 5월중순경 지양개등판에 이른 우리는 거기서 국내진공을 위한 대오정비와 여러 가지 선동사업을 벌이였다. 한편 국내정세를 보다 상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박달을 불러다가 만나 보았다.

박달은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었다. 혜산, 갑산 방면으로부터 적들의 국경경비무력이 대대적으로 북상하여 최현부대가 진출하고 있는 무산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였다. 그 정보가 정확한 것이라면 최현부대는 포위를 면할 수 없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정황을 전혀 예견하지 못한 것은 아니였지만 적들이 혁명군의 움직임에 그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뜻밖이었다.


최현

서강회의 후 최현이 부대를 이끌고 작전지역으로 떠나간 것은 1937년 4월경이었다. 나는 그가 떠날 때 안도에 가면 이도선의 부대를 주의하라고 말해주었다. 그 부대는 만주지방의 ≪노번대≫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질적인 부대였다.

이도선은 안도에 와서 처음에는 소사하의 대지주 쌍빙준의가 병대장으로 있었다. 그때 그가 부화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소작인들을 총칼로 악착하게 다스린다는 소리를 나도 많이 들었다. 유격대의 습격에 몇 번 혼쌀이 난 이도선은 가난뱅이는 다 공산당편이라고 하면서 걸핏하면 부락들을 기습해서 불을 지르거나 생사람의 목을 치군 하였다. 주민들속에서는 이도선에 대한 원성이 그칠 날이 없었다.

수급졸개로서의 이도선의 야수같은 기질을 잘 알게 된 일제는 그를 간도지구 경비사령부산하 안도≪토벌대≫대장으로 임명하였다. 그 부대는 혁명에 앙심을 품은 자산계급출신의 망나니들로 꾸려져있었다. 이도선의 특기란 한 번 걸려든 대상은 살려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적아가 다 공인하는 명사수였다.

최현은 험한 산발을 타고 북상하여 거듭되는 싸움을 치르면서 무송오지에 적들을 깊숙이 끌어들인 다음 갑자기 방향을 꺾어 안도지구에 진출하였다. 그의 부대는 금강에 도착하자 난관에 봉착하였다. 부대가 건너가야 할 강물이 범람했던 것이다. 일부 대원들이 가교를 건설하는 동안 부대는 휴식하게 되었다.

대원들이 방금 잠에 곯아 떨어졌을 때 이도선부대와 버럭더미들을 사이에 두고 쌍방간에는 치열한 화력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총격전에서 주수동이 그만 전사하였다. 처음에는 적들이 주동에 서서 일방적인 공격을 하였다. 그러나 주수동을 대신하여 부대의 지휘를 담당한 최현은 불리한 정황을 재빨리 수습하고 역습으로 적들을 호되게 답새기였다. 적아간에 총격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 그 전판에 있던 인부들이 이도선이 도망친다고 소리질렀다. 그 금전군들이 아마


보천보전투당시 보천보시가

이도선의 용모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유격대원들은 도주하는 이도선을 뒤쫓아서 기관총몰사격으로 즉사시키였다. 그날 최현부대는 도망치는 적들을 15리까지 따라가서 족쳐대였다.

금창전투는 인민들의 원한을 통쾌하게 풀어준 유명한 전투였다. 최현이 이도선을 죽이고 ≪토벌대≫를 전멸시킨 소식은 그 당시의 신문들에 크게 소개되었다. 최현은 원래 이름난 싸움꾼이었다. 최현부대의 무산지구 진출과정에는 가슴아픈 회생도 없지 않았다. 그 과정에 그들은 ≪4사의 꽃≫이라고 불리우던 이경희를 잃었다.


붉은바위전투장

그가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이경희네 집안은 온 일가가 혁명사업을 하다가 희생된 애국정신이 강한 집안이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오빠들과 삼촌들을 잃고 할머니마저 잃었다. 그의 아버지는 유격대원이었다. 이경희도 원한을 품고 쓰러진 혈육들의 복수를 위해 무장대오에 들어섰다. 나이도 나이였지만 그마저 총을 잡는다면 이씨가문을 지킬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되겠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경희의 떼를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참군을 허락하고 말았다.

전우들이 ≪4사의 꽃≫이라고 하면서 이경희를 친딸이나 친동생처럼 애지중지하게 된 것은 그의 용모가 특별히 아름답고 그의 특기인 춤과 노래는 부대의 자랑이였다. 이경희가 유격대에 입대하였을 때 지휘관은 그에게 권총을 주었다. 체소하고 연약한 이 처녀에게는 보총이 적합치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경희는 권총으로 싸우는 것이 성차지 않아서 마상대총을 메고 다니였다. 그가 마상대를 메고 춤을 출 때면 전우들이 손벽을 치며 늘 재청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경희는 부대의 분위기를 조절할줄 아는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있었다. 가령 어떤 대원이 성을 내거나 울적한 기분에 잠겨있으면 그 대원에게 허물없이 감겨들어 웃겨놓으면서 귀엽게 어리광을 부리었다. 그가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기만 하면 지쳐서 쓰러졌던 대원들도 기운을 내여 자리에서 일어나군 하였다. 이경희는 바느질도 잘하고 수놓이도 잘하였다. 그가 만든 담배쌈지는 누구에게나 귀물이고 자랑거리었다. 깔깔한 풀도 경희의 손에만 들어가면 맛있는 요리가 된다고 하였다.

이경희는 ≪토벌대≫와 맞다들어 싸울 때마다 일부러 전우들의 곁에서 외따로 떨어진 곳에 좌지를 정하고 조준사격을 해가면서 자기가 쏘아죽이는 적을 한명한명 세군하였다. 어느 한 전투 때에는 적을 연거퍼 6명이나 쏴눕히었다. 그가 총알을 갈아재우는 사이에 두세 명의 적들이 도망쳤다. 이경희는 그놈들을 놓친 것이 분해서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보천보전투가 끝난 다음 3개 방면에서 활동하던 부대들이 지양개에서 만나 군민연환대회를 할 때 최현은 나에게 이경희의 최후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눈물로 수건을 적시었다. 이 범같은 사나이의 눈에서 소리없이 떨어지는 눈물을 보았을 때 나는 이경희의 죽음이 우리모두에게 있어서 얼마나 비통한 손실로 되는가를 가슴저리게 느끼었다.

최현이 치명상을 당한 이경희를 안아 일으켰을 때 그의 손가락짬으로는 피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고 한다.

≪ 여기가 조국땅이라지요? 그래도 조국땅을 밟아보았으니 다행입니다. 모두들 내 몫까지 잘 싸워주십시오.≫

이것은 최현의 품에서 전사할 때 그가 전우들에게 남긴 마지막말이었다.

그 후 이경희의 아버지도 회령쪽에 국내공작을 나갔다가 적들에게 학살당하였다. 아버지와 딸은 이렇게 조국땅에 묻히었다. 해방 후 나의 부탁을 받고 그와 한 부대에서 싸우던 전우들이 무산지구에 가서 이경희의 유물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전사한 지점이 아리숭한데다가 상황중에 평토장을 한 무덤이여서 도무지 찾을 길이 없었다.

우리는 이처럼 전우들의 피로 물든 징검돌들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조국진군을 하였다.

최현부대는 무산지구의 붉은바위일대에 진출하여 적을 타격한 다음 만주지경으로 일단 종적을 감추었다가 다시 백두산 동남쪽에 있는 일본인목재소의 상흥경수리 7토장을 들이치고 베개봉쪽으로 번개같이 이동하였다. 혜산, 호인, 신파 등지에 있는 특설경비대와 군경들은 도로를 따라 베개봉쪽으로 급속히 진출하였다. 최현은 통신원을 보내여 우리에게 부대가 처한 형편을 간단히 보고해왔다. 그러면서도 그는 구원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가 나에게 통신원을 보낸 것은 적의 움직임이 여사여사하니 작전상 참고하라는 것이지 도와달라는 것은 아니였다. 최현은 원래 곤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였다.

최현과 같은 노련한 싸움군이 최선을 다하여 난국을 타개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었다. 그러나 전국의 흐름을 낙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이 돌발적인 사태는 우리의 작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였다. 당시의 정황은 우리로 하여금 전면포 위의 위기에 처한 최현부대를 구출하는 일과 국내진공작전을 다같이 밀고나갈 수 있는 묘술을 찾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나는 지휘관들을 모여놓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4사가 포위에 들었다. 최현은 자체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결심을 믿고 우리가 가만있어야겠는가. 만일 그 결심이 미덥지 못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내진공을 뒤로 미루고 최현부대부터 구출해야 하는가, 아니면 국내진공을 먼저 한 다음 연이어 구출작전을 펼쳐야 하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 주력부대역량을 둘로 갈라서 두 개의 작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옳겠는가, 최현부대를 포위에서 구출하자면 국내의 어느 지점을 치는 것이 이상적이겠는가

모두가 긴장하여 나를 주시하였다. 어느것이나 다 절박하고 심각해서 논쟁은 처음부터 열을 띠였다. 지휘관들이 내놓은 의견을 종합하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다.

한 부류의 주장은 북쪽으로 몰려간 적들을 배후에서 타격하는 방법으로 먼저 최현부대부터 구출하고 그 후에 형편을 봐가다가 적당한 때에 국내진공을 단행하자는 것이였다. 이 의견은 여러 사람들의 반박을 받았다. 주력부대가 최현부대를 구출하는 작전부터 벌인다면 물론 성공할 수 잇겠지만 우리의 총소리를 듣고 북부조선과 서간도일대의 적들이 기동로를 따라 물밀듯이 쓸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력부대가 적의 포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였다.

다른 한 부류의 주장은 최현부대는 전투력이 강한 부대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체의 힘으로 포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은 것만큼 예정대로 한시바삐 국경1선인 혜산을 치자는 것이였다. 그렇게 되면 적들도 당황하여 최현부대에 대한 포위를 풀고 총소리가 나는 쪽으로 되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였다.

그러나 이 방안도 역시 허점이 있다는 이유로 하여 부정을 당하였다. 그 허점이란 최현부대가 전투력이 강한 부대인 것은 사실이나 거듭되는 전투와 행군 때문에 포위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주력부대가 혜산을 친다고 하여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무산지구로 북상하고 있는 적들이 과연 최현부

대에 대한 포위환을 풀고 돌아서겠는가 하는 것이였다.

나는 그때 두 가지 작전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우리는 반드시 국내에로 진공해야 한다. 이 작전에는 변동이나 취소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시급히 최현부대를 구원해내야 한다. 국내진공을 중시한다고 하여 혁명동지들을 사지판에 내버려두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출로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국내의 어느 한 지점을 때려 두 가지 목적을 단꺼번에 다 달성하는 것이다.≫

지휘관들은 ≪어느 한 지점≫이라는 말이 나오자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 지점이란 어느 고장인가고 이동학이 일동을 대표해서 물었다.

나는 지도를 짚어가며 설명을 계속하였다.

≪우리는 그 지점을 선택하는데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것은 적의 역량이 집결되어있는 베개봉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있는 고장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턱밑에 바싹 붙어있는 고장이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국내진공이 두 가지 효과를 다 낼 수 있다. 베개봉쪽에서 제일 가까운 요충지는 혜산과의 중간지점에 있는 보천보이다. 보천보를 때려야 베개봉쪽에 집중되어있는 적들이 우리 주력부대와 최현부대에 역포위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포위추격전을 포기하고 이미 진출했던 계선에서 철수할 수 있다. 보천보를 치면 혜산을 치는 것 못지 않게 국내에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보천보를 치는데 있다.≫

내가 이런 방안을 발표하자 지휘관들은 고개를 끄덕거리였다. 나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였다.

≪보천보를 치자면 여러 가지로 타산을 해보아야 한다. 첫째로, 수백 명에 달하는 부대가 적의 조밀한 국경감시망을 번개처럼 뚫고 들어가 적을 치고 번개처럼 빠져나오는 전격전을 할 수 있는가? 둘째로, 이 전투는 단순한 화력전이 아니라 국내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주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것만큼 화력전을 하면서 강력하고 신속한 정치선동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이런 신속한 선전선동이 가능한가? 셋째로, 우리는 이번 기회에 혁명군무력과 지하조직이 하나의 목표를 놓고 연합작전을 하는 모범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겠는가?≫

그 세 가지가 다 헐치않은 전제들이어서인지 지휘관들은 또다시 팽팽한 분위기에 휩싸이였다.

그러나 그 때 권영벽이 무게있는 목소리로 정적을 깨뜨리였다.

≪사령관동지, 해낼 수 있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해낼만한 담보가 있소?≫

나는 권영벽의 대답이 달리는 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우쳐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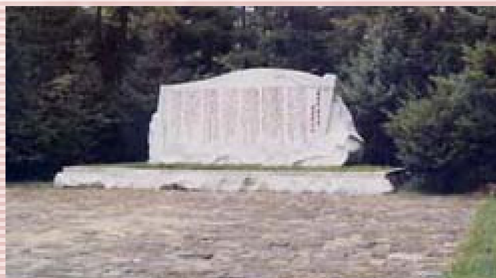
≪있습니다. 보천보야 조국이 아닙니까!≫

나는 그 대답을 귀로 들었다기보다는 자신이 웨친 것만 같았다. 어쩌면 권영벽의 심정이 내 심정과 그렇게도 같은가. 아니 다른 사람들도 마음속으로는 그런 대답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타향의 이슬비와 설한풍속에서도 연전연승하여온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어찌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혼을 준 사랑하는 조국땅에서 승리하지 못하겠는가.

짧은 모임이였지만 많은 것들이 논의되였다. 그러나 그 세부들은 세월의 연륜속에 묻혀버리였다. 다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 ≪보천보야 조국이 아닙니까!≫ 하고 자신있게 웨치던 권영벽의 음성뿐이다. 국내진공이라는 역사적인 출정을 앞둔 그 순간에도 우리의 가슴속에는 조국이라는 크나큰 존재를 강탈당한 망국노의 울분이 자리잡고 있었다.


곤장덕 사령부자리


곤장덕 헌시비


전투지휘소


혜산방향 차단대자리


적정확인장소


철수도중 휴식한 곳


대진, 무산 차단대자리

보천보전투약도 (1937.6.4)

보천보시가전투

포대
경찰주재소
소방회관
우편국
면사무소
산림보호구
가림천
구시물동
무산으로
압록강
중국
조선
곤장덕
보천보
가림리
혜산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휘하신 곳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진출로정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철수로정
습격
매복
차단조


경찰관 주재소의 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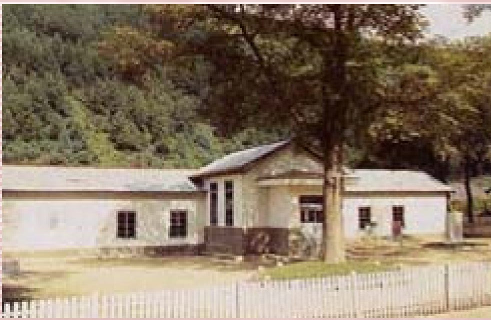

경찰관 주재소


우편국


소방회관


면사무소


농사시험장자리


산림보호구


군수물자를 노획한 상점

2. 보천보의 불길(2)



보천보의 불길

우리는 장백현 19도구 지양개에서 국내진공대열을 편성하고 대원들에게 일제히 여름군복을 갈아입히였다. 장사진을 이룬 대오가 일매지게 새 군복을 입고 지양개를 떠났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차림새가 그때처럼 좋은 적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걸음은 작전상의 단순한 위치이동이 아니였다. 그것은 망국의 한을 품고 이국의 하늘밑에 큰 총성을 울리기 위해 여러 해 동안 피흘려 준비해온 길이였다. 그래서 우리는 오랜 이별끝에 몹시 그리웠던 부모를 찾아가는 심정으로 조국인민들에게 혁명군의 위용을 보여줄 수 있도록 옷차림과 행장구를 최상의 것으로 갖추었다.

이전의 군복들가운데는 제나름으로 지은 것들도 없지 않았다. 혁명군의 군복은 재봉대가 맡아가지고 제작하는 것이 통례였으나 일손이 딸릴 때에는 주민주구의 아낙네들까지 동원시키였다. 그러다나니 모양새가 어설픈 것들도 더러 있었다. 군복과 사복이 혼탕을 이루어서 차림새가 얼럭덜럭한 경우도 간혹 있었다.

나는 국내진공작전을 결심한 때부터 사령부가 작성한 도안에 따라 부대 전체성원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군복을 지어 입히기로 하였다.

새로 작성한 군복도안에서는 모자에 붉은 별모표를, 군복저고리에는 영장을 달았다. 그리고 남대원들의 바지는 유격활동에 편리하게 약간 개조한 승마복형태였

고 여대원들에게는 주름치마나 바지를 입히는 것으로 하였다. 남여대원들의 저고리는 종전처럼 닫긴깃형태였다.

우리가 600벌의 군복을 만들기로 하고 재봉대를 포함한 후방부성원들을 장백으로 파견한 것은 양목정자에서였다.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천신만고의 무송원정길을 돌아가던 그 당시의 우리 형편으로 보면 군복 같은데 신경을 쓸 경황이 못되었다. 그때에는 군복보다도 당장 먹을 한두 끼의 식량이 더 절박했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조국진군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예견성있게 수백벌의 군복제작을 포치하였다.

600벌의 군복제작과업을 수행하느라고 오중흡과 김주현이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하였다.



보천보전투당시 유격대를 도와준 노인의 초상

오중흡이 인솔하는 후방공작조가 서강에서 장백으로 나갈 때 겪은 고초에 대해서 여러 투사들이 회고도 하고 증언도 하였으나 그 전모는 아직 완전히 알려지지 못하였다. 우리가 무송으로 북상 행군을 할 때에는 그래도 이명수전투에서 얻은 식량을 가지고 떠났다. 그런데 오중흡이 장백으로 데리고가는 후방공작조에는 한 되박의 식량도 없었다. 대원들은 허기가 나고 기력이 진해서 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맹물로 끼니를 때운다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노상 시장기를 달랠 수는 없었다. 그들은 굶다 못해 단두산쪽으로 발길을 돌리었다. 거기에 가면 단두산전투 후에 파묻었던 소대가리를 우려먹을 수 있다는 타산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소대가리를 파묻었던 현장에 가보니 살은 산짐승들이 다 뜯어먹고 뼈만 댕그렇게 남아있었다. 그래도 오중흡이네는 그 뼈를 우려먹고 얼마쯤 기력을 회복하였다. 기아는 또다시 그들을 위협하였다. 일행은 아사의 위협과 함께 동사의 위협도 동시에 받았다. 모두가 칼날같은 눈얼음에 옷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맨살이 드러나서 얼어죽을 지경이였다.

만일 조국진군이라는 목전의 대망을 단 한순간만이라도 잊었더라면 후방공작조성원들은 무송이나 장백의 어느 설령에서 더는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영영 눈속에 묻히었을지도 모른다.

김주현의 말에 의하면 오중흡이네 후방공작조가 소덕수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의 모습은 너무도 참혹하고 끔직해서 눈물이 없이는 볼 수 없더라는 것이였다. 겨우 숨이 붙어있는 그들을 소덕수인민들이 맞아들여다가 형체만 남아있는 누데기같은 옷을 가위로 째내고 새 옷을 갈아입혔는데 온몸에 피얼음들이 엉켜 붙어있어 상처자리부터 소금물로 소독하고 언독을 빼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것이다. 오중흡 이하 전원이 동상을 입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후방공작조성원들이 의식을 차리기가 바쁘게 일어나 재봉기앞에 마주앉더라는 것이였다. 이 소식을 들은 소덕수의 조국광복회원들과 인민들은 일심일체가 되어 600벌의 군복을 짓는데 필요한 천도 해결하고 제작도 끝내였다.

언제인가 박영순은 나보고 항일혁명투쟁시기 군대와 인민이 처창즈에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가 하는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하게 되면 후대들이 잘 믿지 않을수 있기 때문에 정 험한 것은 생략하고 줄여서 말한다고 했는데 그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다. 항일혁명당시의 고난을 직접적으로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상상력을 아무리 발동하여도 그때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언제인가 쏘련에서 발행하는 군사잡지를 보니 쏘련군사사상의 핵을 쏘비에트애국주의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쏘련군사사상의 핵으로 본 쏘련사람들의 관점을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성격과

활동을 관통하고 있던 군사사상도 그 핵은 애국애민에 두고 있었다. 우리는 항일유격대의 모든 대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조국과 인민의 참다운 해방자, 성실한 수호자가 되도록 부단히 교양하였다. 조국을 위해서라면 죽어서 한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거기에 항일유격대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던 애국주의의 본질이 있었다.

오중흡이 새로 지은 600벌의 군복을 가지고 지양개에 나타난 것은 5월말이였다.

전우들의 피땀이 스며있는 새 군복으로 옷차림을 일신한 행군대오는 1937년 6월초에 19도구를 떠나 20도구, 21도구, 22도구를 거쳐 구시산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곳에 와닿았다. 그때 우리의 길안내는 19도구사람인 천봉순이 하였다. 천봉순은 앞쪽에 바라보이는 등판이 제비등판인데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조국땅 곤장덕과 마주서있다고 하였다.


佈告

朝鮮人民革命軍
司令 金日成

보천보전투때
거리에 내붙였던
포고문

부대는 구시산마을에서 얼마간 머무르다가 제비등판에 올랐다. 6월3일 새벽이었다. 조국의 높고 낮은 산봉우리들이 키돋이를 하며 우리를 반기는 것 같았다.

그날 부대는 제비등판에서 노독을 풀었다. 김운신을 비롯한 선발대성원들은 구시물동에 가서 떼목다리를 마련하였다.

우리는 6월 3일 밤 압록강을 건넜다.

전원이 강을 도하할 때까지 자신도 모를 긴장감이 온몸을 엄습하였다. 적들이 1선, 2선, 3선도 모자라 4선으로 경계진을 치고 있다는 삼엄하고 조밀한 국경경비였다. 300여 개를 헤아린다는 북부국경지대의 경찰서와 경찰관주재소들, 거기에만도 수천 명의 폭압무력이 배치되어있었다. 기동성도 여간 아니었다. 혜산경찰서에서는 국경특설경비대라는 것까지 무어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에 대비하였고 후날 이 경비대의 대장이었던 오사와 슈이찌도 솔직하게 고백하였다.

국경지대의 경찰관주재소와 출장소 건물들의 주변에는 참호를 굴설하고 토벽, 철조망, 나무울타리 등 인공적인 장애물들로 보루를 축성하였으며 필요한 장소에는 감시대를 설치하거나 교통호를 파놓았다. 평안북도경찰수비대에는 비행기도 있고 기관총을 갖춘 두 척의 발동선도 있고 탐조등, 망원경, 철갑모를 분배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 대부대에 의한 국내침투는 거의나 불가능할 것 같은 형세였다.

하지만 아무리 삼엄한 국경경비도 우리를 주저하게 자리는 못하였다.

구시물동은 소연한 물소리로 우리의 도하를 감싸주었다. 근대조선의 소란스러운 민족사가 그 물소리속에 응축되어 만단사연을 속삭여주는 듯하였다.

우리는 지체없이 곤장덕에 올랐다. 곤장덕은 울창한 수림으로 덮혀있는 평평한 야산이었다. 여기서 부대는 보초를 세우고 하루밤을 숙영하였다.

다음날 아침부터 곤장덕 숲속에서 전투준비를 하였다. 포고, 삐라, 격문도 준비하고 지휘관부회의도 열고 정찰도 조직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미 장악한 적정자료를 현지에서 다시 확인 해 보는 것이었다. 마동희와 김확실에게 정찰임무를 주어 보천보거리로 내려보냈다. 그들은 어리무던한 농민부부로 가장하였다. 적당한 구실을 붙여가면서 여러 기관들에 들어가 수작을 붙이고 정보를 수집하였다 어찌나 정찰을 실속있게 했던지 그날밤에 다른데로 부임되어가는 산림보호구 주임의 송별연회가 있다는 정보까지 걷어가지고 돌아왔다.



불타고 있는
보천보 일제기관들

우리는 이미 여러 갈래의 선을 통하여 보천보에 대한 정

찰을 충분히 해두었었다. 권영벽이나 이제순의 선도 동원하고 박달의 선을 통해서 도 적정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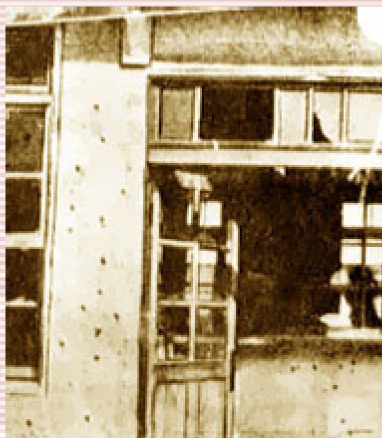
우리는 날이 어두워진 다음에 곤장덕을 내리었다. 거리에 돌아서자 대오는 여러 단위로 분산되어 소정된 위치를 차지하였다.

나는 거리초입에 있는 황철나무아래에 지휘처를 정하였다. 거기에서 주요공격목표인 경찰관주재소가지의 거리는 불과 100미터 안팎이였다. 시가전을 하는 경우 지휘처와 시가와의 거리가 이처럼 가까운 실례는 거의 없다고 한다. 이것이 보천보 전투가 가지고 있은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지휘관들은 나에게 지휘처를 시내에서 좀더 멀리 떨어진 곳에 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나는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가전의 움직임을 순간마다 포착할 수 있는 곳에 지휘처를 정하고 내 자신을 전투의 도가니속에 밀어넣으려는 것이 나의 소망이었다.

전투전야의 정경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지휘처근방의 농가앞 마당에서 장기를 두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지하활동을 할 때 같으면 그 사람들에게 말도 걸어보고 훈수도 하였을 것이다.

정각 10시, 나는 권총을 높이 쳐들고 방아쇠를 당기였다. 10여년세월 조국의 동포들에게 말하고싶었던 모든 사연들이 그 한방의 총성에 담겨 밤거리에 울려퍼졌다. 그 총소리는 우리 시인들이 노래하듯이 어머니조국앞에 드리는 상봉의 인사였고 강도 일제를 징벌의 마당으로 불러내는 호출신호였다.

나의 총성을 신호로 하여 사방에서 적기관들을 들부시는 사격소리가 자지러지게 들려왔다. 먼저 이 고장 경찰들의 소굴이며 온갖 폭압과 만행의 아성인 경찰관주재소에 주되는 타격을 안기였다. 오백룡의 기관총이 주재소창문을 향해 사정없이 불을 뿜었다. 그때 우리는 산림보호구역에 적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있다는 정보에 기초하여 거기도 드세게 공격하게 하였다. 순식간에 온 거리가 발칵 뒤집히었다. 전령병들은 연이어 황철나무곁으로 달려와 전투정황을 보고하였다. 나는 그들이 왔다갈 때마다 인민들을 절대로 다치지 않게 하라고 강조하군 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습격파괴한 보천보 경찰관주재소

얼마후에는 여기저기서 불길이 타래쳐오르기 시작했다. 면사무소, 우편국, 산림보호구, 소방회관을 비롯한 여러 개의 적통치기관들이 일시에 화염에 휩싸였다. 거리전체가 여러 개의 대형조명등을 설치한 무대처럼 환하게 밝아졌다.

우리 대원들은 우편국을 수색하다가 철궤속에서 일본각전을 많이 발견하였다. 그들은 보천보에서 철수할 때 그 각전들을 시내 여기저기에 다 줘던지였다. 주재소에 쳐들어가 ≪애국부인회≫의 이름으로 된 기관총을 노획해가지고 나온 오백룡이 기뻐 어쩔줄 모르던 모습도 꽤 인상적이었다.

나는 김주현을 앞세우고 거리 한복판으로 들어섰다.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총소리를 듣고 움쩍도 못했는데 우리 선동원들이 부르는 구호를 듣고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막 쓸어나왔다. 시인 조기천은 그때의 정경을 그리면서 ≪밤바다같이 웅실거리는 군중≫이라고 하였는데 그 표현이 참으로 적중한 것이었다.

군중이 우리를 둘러싸고 끓어대자 권영벽이 내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아무래도 조국동포들에게 인사 겸 연설을 한마디해야겠다는 것이었다.

운집한 사람들을 둘러보니 별빛같은 시선들이 일제히 나한테로 쏠리었다.

나는 모자를 벗어쥔 다음 팔을 높이 들어 흔들면서 만장을 향해 필승의 사상으로 일관된 반일연설을 하였다.

≪여러 분, 나라가 해방되는 날 다시 만납시다!≫

연설을 다친 다음 이런 말을 남기고 화랑이 충천하는 면사무소앞을 떠났으나 가슴이 그냥 저려들었다. 칼로 살을 도려낸 것처럼 몹시도 아파났다. 우리는 저마다 이 자그마한 국경의 거리에 심장의 한 부분을 떼두고 가는 것이였다. 가는 심장과 남는 심장이 이별앞에서 소리없이 통곡하였다.

부대가 곤장덕에 올랐을 때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구령도 없이 갑자기 대열이 흩어지는 것이였다. 대원들이 저마끔 흙을 움켜져 배낭속에 넣고 있었다.

지휘관들도 뒤질세라 조국의 흙을 간수하였다. 22만평방킬로미터라는 나라의 땅덩어리에 비하면 한줌의 흙이라는 것은 너무도 작은 것이였다. 그러나 그 한줌의 흙에는 삼천리가 담겨 있고 2천 300만이 담겨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옹근 조국과도 같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였다.

오늘은 우리 비록 한 거리를 치고 가지만 내일은 100개의 거리, 1000개의 거리를 치리라. 지금은 우리 비록 한줌의 흙을 안고 가지만 내일은 온 나라를 다 해방하고 독립만세를 부르리라!

우리는 이런 맹세를 다지면서 압록강을 다시 건넜다.

보천보전투는 대포도 비행기도 탱크도 없이 진행한 자그마한 싸움이였다. 보총과 기관총에 선동연설이 배합된 평범한 습격전투였다. 사상자도 많지 않았다. 우리측으로 볼 때에도 전사자는 없었다.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진행된 기습전이여서 어떤 대원들은 오히려 아쉬워할 지경이였다. 그러나 이 전투는 유격전의 요구를 최상의 수준에서 구현한 전투였다. 전투목표의 설정과 시간의 선택, 불의의 공격, 방화를 통한 충격적인 선동, 활발한 선전활동의 배합 등 모든 과정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입체적으로 맞물린 빈틈없는 작전이였다.

전쟁이나 전투의 가치는 군사적 의의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적 의의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전쟁이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하리라고 믿는다. 이런 이치로 볼 때 우리는 대단히 큰 싸움을 치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보천보전투는 조선과 만주대륙에서 아세아의 제왕처럼 행세하던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보기 좋게 후려친 통쾌한 전투였다. 인민혁명군은 조선총독부당국이 치안유지가 잘된다고 장담하던 국내에 들어가 한 개 면소재지의 통치기관들을 일격에 소탕해버림으로써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공포를 주었다. 일본인들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타격을 받은 셈이였다. ≪후두부를 꽝 하고 강타를 당한 것 같다.≫느니, ≪천 날동안 베여들인 새초를 한 순간에 태워버린듯한 한을 남겼다.≫느니 하는 따위의 군경 당사자들의 고백자체가 그것을 반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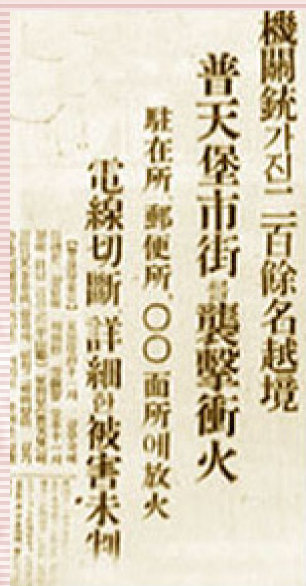

보천보전투시가의 전경

만국평화회의장 문전에 나타난 일본의 죄악을 고발하여 열강들에게 독립을 구걸하던 조서이라는 약소국에 세계 5대강국의 일원임을 자랑하는 일본군을 사정없이 쳐갈기는 혁명군대가 있으며 그 군사들이 일제가 축성한 ≪금성철벽≫을 바람처럼 넘어들어가 침략자들을 호되게 징벌하였다는 사실은 세계적인 판도에서도 큰 방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보천보전투를 통하여 일제란 칼로 내려치면 동강이 나고 불을 지르면 짚검불이나 북데기처럼 타번지는 일종의 폐기물같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해와 달도 빛을 잃어가던 조국땅에 있어서 보천보 밤하늘에 타오른 불길은 민족의 재생을 예고하는 서광이였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성일보≫를 비롯한 국내의 주요신문들은 일제히 인상적인 표를 달고 보천보전투소식을 전하였다.


機關銃가진二百餘名越境
普天堡市街 襲擊衝火
駐在所 郵便所 ○○面所에放火
電線切斷 詳細 被害未

국내진공소식을 보도한 각국의 신문자료들

≪도메이≫통신, ≪도꼬니찌니찌신붕≫, ≪오사까아사이신붕≫ 등 일본의 출판보도물들과 ≪만주일일신문≫, ≪만주보≫, ≪대만일신보≫를 비롯한 중국의 신문들도 이 전투를 광범히 취급하였다. 쏘련의 따쓰통신은 물론, ≪프라우다≫와 ≪크라스노예 즈나마≫도 이 전투를 위해 지면을 아끼지 않았다. 동방식민지 약소국의 변강에서 울린 한방의 총소리에 온 세계가 놀라움과 흥분을 금치 못하였다. 바로 이무렵 쏘련에서 발간되는 잡지 ≪태평양≫에 ≪북부조선지역에서의 빨치산투쟁≫이라는 제목으로 된 글이 실렸는데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언급하였다. 쏘련출판물에 우리의 이름과 투쟁소식이 크게 소개된 것이 이때부터였던 생각이 든다.

보천보전투에 대한 글은 에스페란트어잡지 ≪동방사자≫에도 실리었다.

≪동방사자≫의 발행취지는 일제의 야수성과 약탈상을 폭로하고 항일전쟁을 소개하며 동방문화를 선전하는데 있었다. 잡지에 제재된 모든 기사들은 대상국들에서 번역하여 다시 출판할 수 있었다. ≪동방사자≫의 이런 특징으로 하여 보천보전투소식은 이 잡지가 배포되는 많은 나라들에 광범히 전파되었다.

보천보전투는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부활시키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의지와 불굴의 투쟁정신을 내외에 널리 보여주었다. 이 전투를 통하여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자기 활동의 전 노정에서 시종일관하게 견지해온 투철한 반제적 입장과 자주적 입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으며 철저한 실행력과 유력한 전투력을 시위하였다.

우리는 또한 이 전투를 통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주도하고 있은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조국과 민족을 가장 열렬히 사랑하는 진실하고 참된 애국자들이며 민족해방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해나갈 수 있는 가장 헌신적이고 책임적인 투사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조국인민들로 하여금 무장투쟁을 주축으로 하는 항일혁명의 마당에 거족적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으며 국내에서의 당조직건설과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을 일사천리로 내밀 수 있는 분위기를 지어주었다.

보천보전투가 가지는 가장 주요한 의의는 조선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던 우리 인민들에게 조선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싸우면 반드시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이룩할 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준데 있다.

이 전투가 국내인민들에게 참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보천보를 들이쳤다는 소식을 듣고 여운형은 전투현장에 달려갔다고 한다. 그가 이 전투소식을 접하고 몹시 흥분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그는 해방 후 평양에서 나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다.

≪유격대가 보천보를 쳤다는 소식을 듣고보니 20여년 세월 왜놈들치하에서 수모를 당해온 망국민의 설움이 순간에 다 녹아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그때 보천보

에 가보고 무릎을 쳤지요. 이제는 됐구나, 단군조선이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절로 나지 않겠습니까.≫

안우생의 말에 의하면 김구도 보천보전투에서 이만저만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안우생은 오래동안 상해임시정부를 따라다니면서 김구의 서기로 있었다.

어느 날 김구는 신문을 뒤적이다가 보천보전투소식을 읽게 되었는데 어찌나 흥분했던지 창문을 열어제끼고 배달민족은 살아있다고 몇 번이나 고함을 질렀다는 것이다.



보천보전투
지휘터

김구는 그때 안우생에게 지금은 시국이 험한 때이다. 중일전쟁이 임박하니 운동을 한다던 사람들은 뒤골목으로 다 자취를 감추었다. 이런 판국에 **김일성**이 군사를 거느리고 조선에까지 쳐들어가서 왜놈들을 전면으로 후려친 것은 얼마나 장쾌한 일인가. 인제는 우리 임시정부가 **김일성**장군을 후원해야겠다. 수일내에 백두산쪽으로 사람을 보내자고 하였다고 한다.

이 일화는 김구를 비롯한 해내외의 명망높은 인사들이 보천보전투를 계기로 하여 항일무장투쟁에 직접적으로 참가하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을 얼마나 신뢰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실례로 된다. 이런 풍조는 반일민족통일전선에 각계각층의 애국적인 인사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다. 보천보전투가 있은 다음 적지 않은 민족운동자들이 우리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다. 그때에 받은 인상이 해방된 다음에도 계속 유지되어 새 조선 건설을 위한 합작에서 크게 은을 내였다. 그러고보면 우리가 보천보전투의 덕을 많이 본셈이었다.

나의 팔도구시절의 잊을 수 없는 친구 김종항은 일본 도꾜에서 신문배달을 하며 고학을 할 때 ≪아사히신붕≫지면을 통해 보천보전투소식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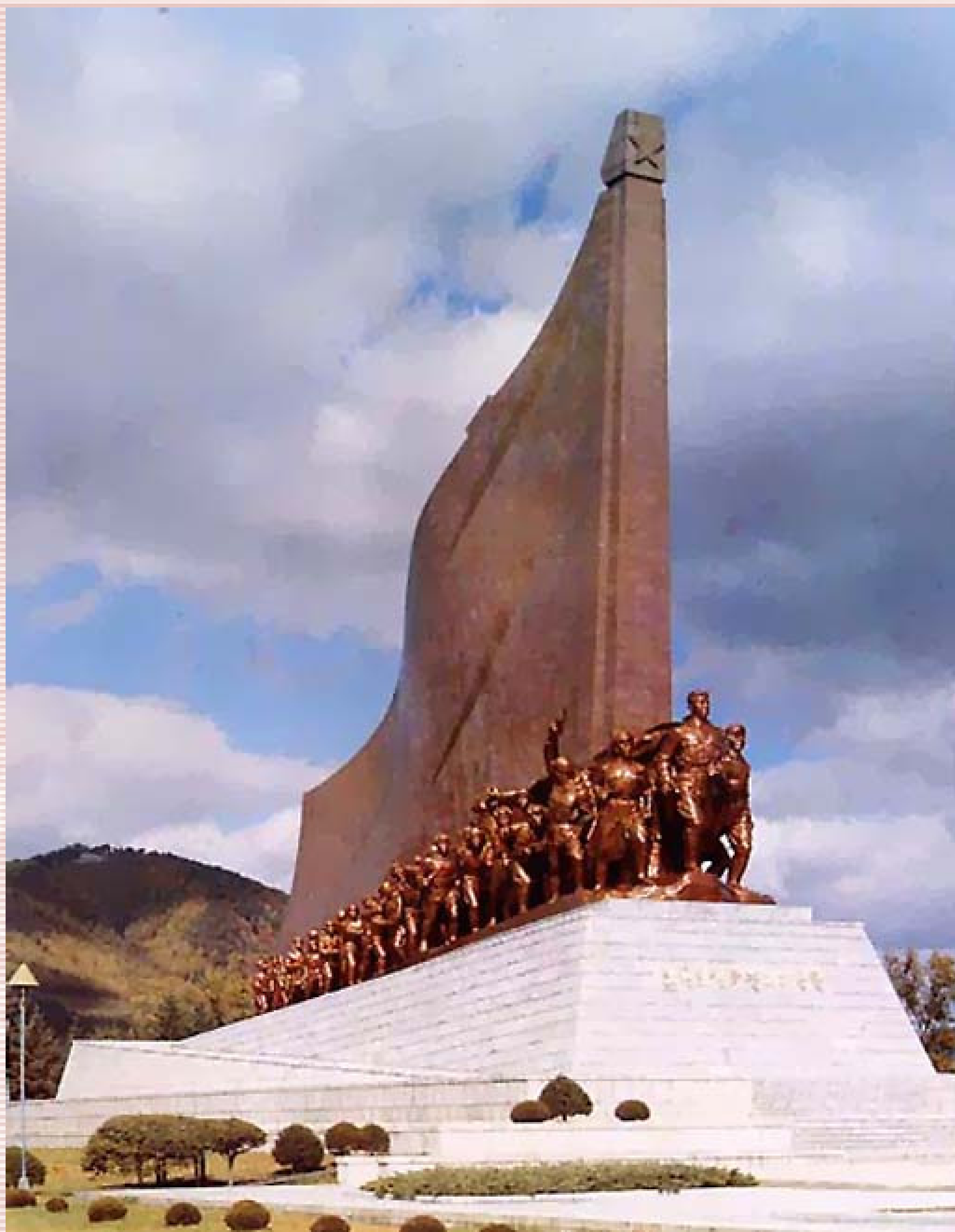
어느 날 새벽 ≪아사히신붕≫지국에 나간 그는 주인으로부터 오늘은 책임량외에 100부의 신문을 더 배달해야겠다는 지령을 받았다. 무엇 때문에 지국이 그런 지령을 내리는지 알 수 없어 신문을 펼쳐보니 거기에 **김일성**부대가 보천보를 쳤다는 놀라운 기사가 실려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종항은 보천보를 친 **김일성**이 팔도구시절의 김성주라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

지식인으로서의 김종항의 고민은 보천보전투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애국청년들은 무장을 들고 왜놈들과 싸우는데 나는 지금 도대체 이 일본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밥벌이를 하려고 대학을 다니는게 과연 옳은 인생인가하는 고민이었다.

김종항의 이런 자아반성은 유격대에 찾아가 무장을 잡으려는 심각한 결심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는 참군결심이 서자 지체없이 일본땅을 떠나 조국으로 돌아왔다. 귀국후의 그의 행로는 항일유격대를 찾는데 전적으로 바쳐졌다. 김종항은 조국에 돌아와서야 보천보를 친 **김일성**이 소년시절의 김성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백두산으로 찾아가려는 열의도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참군시도는 끝내 실현되지 못하였다. 우리의 상봉은 해방 후에야 실현되었다.

김종항의 실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보천보전투는 조선의 양심적인 지성인들의 인생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보천보의 밤하늘에 타오른 홰불은 조선의 모든 양심인들과 애국지사들에게 참된 인생의 좌표를 밝혀주는 등불로 되었다.



보천보전투 승리기념탑 전경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신 중심군상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군상 - 무장을 위하여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군상 - 곤난을 뚫고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군상 – 격멸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군상 – 조국진군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군상 – 진격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군상 – 필승의 신념

3. 지양개군민연환대회

보천보를 치고 귀로에 오른 대열이 구시골에 들어서자 대원들은 지휘관들을 통하여 나에게 하루의 휴식을 제의하였다. 그때까지의 항일전쟁행정에서 대원들이 사령부에 휴식을 요구한 전례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피곤이 겹쌓였으면 그들이 그런 제의를 하였겠는가. 사실 그 무렵에 우리 대원들과 지휘관들은 다 하루도 편안하게 쉬여본 적이 없었다. 곤장덕에 가서도 만 하루를 지냈지만 모두가 열에 떠서 잠을 자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피곤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런데 전투가 일단락을 짓게 되자 어느새 대오를 지배하고 있던 탕개가 풀어진 것이다. 대원들과 지휘관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안정과 휴식을 바라고 있었다. 나자신도 피로와 수면부족을 느끼였다.

그런데다가 구시골마을 농민들까지 우리 지휘관들을 보고 쉬다 가라고 권하였다. 떡도 치고 돼지도 잡았으니 마을사람들의 성의를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였다. 시장기를 느끼고 있던 대원들은 떡과 돼지고기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다. 그래서 연대정치위원들까지 합세해서 구시골사람들의 성의를 받아주자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휴식을 선포할 수 없었다. 이런 때일수록 지휘관들은 각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국경을 넘어섰다고 하여 긴장을 늦춘다면 큰 변을 당할 수 있었다. 국경일대의 수비대에는 보나마나 비상동원령이 내리고 대소동이 일어났을 것이었다. 그 병력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런지도 몰랐다. 적이 우리를 추격해오리라는 것은 전례로 보아도 명백한 일이었다.

적들이 우리의 뒤와 옆에 나타날 시간은 언제이며 앞쪽에 나타날 시간은 언제이겠는가.

대강 추산해보아도 구시골에서는 반 시간이상 머물러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이 몇 재밖에 안되는 자그마한 마을이여서 수백 명에 달하는 군대와 짐군들이 짧은 시간 안에 식사를 해낼 것 같지 않았다.

나는 전리품의 일부를 마을사람들에게 나누어준 다음 배낭들에 주먹밥을 싸넣게 하였다. 동시에 짐을 지고 따라온 보천보사람들의 일부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는 부대전원과 남아있는 짐군들을 데리고 구시산에 올랐다. 나는 어쩐지 싸움이 붙는다면 이 산에서 붙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구시산은 경사가 60도나 되는 물매가 급한 돌박산이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기가 헐치 않았다. 앞사람이 실수해서 돌 한 개만 굴려도 연쇄반응이 일어나 무서운 돌사태를 당할 수 있었다. 나는 백학림전령병을 시켜 돌을 굴리지 말라는 주의를 몇 번이나 주었다. 누구나 손으로 앞사람의 발을 안전하게 잡아주고 밀어주면서 조심스레 경사를 밟아올랐다.

나는 부대가 산꼭대기에 오르자 땀도 들이기 전에 전투배치부터 하였다. 지형의 특성에 맞게 돌싸움을 배합할 작정으로 전 대오가 달라붙어 곳곳에 돌무지를 무져놓았다. 그런 다음 주먹밥으로 간단한 아침식사를 하게 하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우리가 올라온 쪽으로 어느새 적들이 무리지어 기여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오가와 슈이찌가 이끄는 국경특설경비대 무력이었다. 오가와는 그 경비대의 대장이었다. 적은 제법 기세좋게 접근해왔다. 적이 우리 진지로부터 30미터가량 되는 곳에까지 다가왔을 때 나는 사격구령을 내리었다. 고지우에서는 보총

과 기관총들이 일제히 불을 뿜기 시작했다. 나도 보총으로 조준사격을 하였다.

적들은 돌짬에 납작 엎드려 필사적으로 기어오르고 있었다. 이런 정황에서는 아무리 총을 쏘아도 효과를 낼 수 없었다. 나는 돌을 굴리라고 명령하였다. 대원들은 돌을 굴리기 시작했다. 소왕청방어전투때 뾰족산에서 한번 돌싸움을 해보고 구시산에서 다시 해보았는데 그 위력이 대단하였다.

이 전투에서 우리 대원들은 싸움솜씨를 다시한번 잘 보여주었다. 보천보를 칠 때는 우리가 적들에게 반항할 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이 우리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좀 싱겁게 끝났기 때문에 싸움이 우리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사정이 달랐다. 적의 공격이 대단히 집요해서 싸움을 해볼만하였다.



구시산전투장

돌격나팔이 울리자 오백룡은 비호같이 달려내려가 적기관총부터 제껴버리었다. 김운신은 몸집이 장대한 적병과의 힘겨운 격투 끝에 척탄통을 노획하였다.

우리의 타격이 어찌나 드셌던지 구시산 서쪽으로 뒤늦게 밀려오던 위만군부대는 겁을 먹고 달려들지 못하였다. 먼발치에서 눈먼 총을 몇방 쏘고는 싸움을 구경하기만 하였다. 나는 기관총수들에게 그쪽으로 공포를 몇 방 쏴주라고 하였다. 위만군이 근처에서 어물거릴 때 헛총질을 하는 것은 간도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지켜온 하나의 관례였다. 위만군들자신이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했었다. 우리가 그 요구를 지켜주면 그들도 혁명군을 ≪토벌≫하지 않고 헛총질을 몇 번 하다가 물러가군하였다.

이날 방차대성원들도 구리다대위가 인솔하는 혜산수비대의 공격을 격퇴하였다.

보천보에서부터 짐을 지고 우리를 따라온 사람들은 구시산전투 전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인민혁명군의 위용앞에서 크게 감탄하였다. 그들은 적의 패전상도 똑똑히 보았다. 그때에 체험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결국은 말없는 교양자료가 되었다. 짐군들은 구시산전투까지 목격하고나서 인민혁명군의 전투적 위력을 재확인하게 되였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일본군이 자기를 ≪천하무적≫이라고 떠들어대지만 사실상의 천하무적은 일본군이 아니라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였다. 보천보전투에서 살아남은 적들은 너무 혼이 나서 한동안은 어디에도 전혀 출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박달의 말에 의하면 구시산까지 왔다가 겨우 살아돌아간 ≪토벌대≫가운데는 그가 잘 아는 조선인순사도 한 명 있었다는 것이다. 그 순사가 아주 약삭바른 사람이었던 것 같다.

순사는 구시산으로 오르면서 유격대의 신발자욱을 보고 산마루에 유격대가 틀림없이 매복해있으리라는 것을 직감하였다. 그는 각반을 고쳐매는 척하면서 일본인순사들을 앞세우고 슬그머니 뒤에 떨어졌다. 일본인순사들이 산마루에 거의 도달하자 기관총소리와 수류탄터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비명소리가 들리었다. 조선인순사는 산밑으로 도망하여 전투가 끝날 때까지 강가에 숨어있었다. 그는 이렇게 자기가 꾀를 잘 썼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다고 박달에게 자랑하였다.

구시산전투에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국경특설경비대장 오가와 슈이찌는 몇해전까지 일본에서 평범한 시민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말년에 그대의 패전상을 회고하는 글을 써냈다. 나는 그 글을 보고서야 오가와가 구시산에서 중상을 당하였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우리 대원들의 총알이 그의 혀바닥을 뚫었다

고 한다. 부상치고는 아주 괴망한 부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래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데 별로 효험이 없었던 모양이다.

아물지 않은 총상자리를 드러내보인 오가와의 사진을 나도 보았다. 오가와 역시 구일본의 수많은 군경들과 마찬가지로 악명높은 ≪황도정신≫의 희생물이 된 것이다.

구시산에서 우리가 거둔 전투승리는 그 후에 있는 간삼봉에서의 전과와 더불어 보천보전투에서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전투적 위력과 불패성을 다시한번 시위하였다. 국경일대의 적들은 공포에 떨었다. 적들의 문건을 보면 구시산전투에서 그들이 ≪다수의 적≫을 소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것은 완전한 날조이다. 우리측에서는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었다.


최현

적들은 시체운반을 위해 구시산근방의 부락들을 돌아다니며 인민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문짝과 이불을 닥치는대로 걷어갔다. 결국 우리는 혜산에 건너와서 치려던 적을 구시산에서 친 셈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구시산전투는 우리가 당초에 혜산진공작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였던 목적을 다 이룰 수 있게 하였다.

우리는 구시산전투를 끝낸 후 포위에 들었다가 무사히 돌아온 최현부대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다. 최현의 신발이며 옷주제를 보니 말이 아니었다. 그는 만나자마자 보천보와 구시산에서 우리가 거둔 성과를 떠들썩하게 축하해주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불쑥 꺼냈다.

≪우린 이번에 베개봉근방에서 놈들의 포위에 들었댔는데 그놈들이 갑자기 포위를 풀고 달아나버리더란 말이오다. 장군님, 이게 어떻게 된 감투끈이요?≫

나는 그 동안 최현의 4사를 구출하기 위해 보천보를 치게된 과정사를 간단히 말해주었다.

최현은 그 말을 듣자 껄껄거리며 웃었다.

≪갸들이 물러가는걸 보구 귀신의 조화라고 생각했더니 결국은 장군님덕이였구만요. 거 정말 굉장하오이다.≫

그는 말끝마다 ≪갸들≫이라는 대명사를 붙이였다. 그것은 그가 일본군경들을 멸시해서 곧장 사용하는 비칭이었다.

나는 최현에게 4사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으니 안내해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최현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지금은 만날 형편이 못된다고 하였다.

내가 이유를 캐여묻자 그는 대원들의 몰골이 너무 험해서 그런다고 하였다.

나는 김해산을 불러다가 4사동무들에게 군복을 공급해주라고 지시하였다. 그 군복들은 국내진공을 앞두고 제작한 600벌중에서 최현부대의 몫으로 남겨놓은 것이다. 최현의 말과 같이 4사전우들의 옷주제는 과연 말이 아니었다. 그 남루한 옷차림과 볕에 탄 적동색얼굴들은 그들이 헤쳐온 고난에 찬 노정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다. 최현은 군복을 입고 면도까지 한 다음에야 나한테 와서 정식으로 그 동안의 활동정형을 보고하였다. 전과가 간단치 않았다.

우리는 지양개에서 1군 2사동무들과도 상봉하였다. 2사도 자기 임무를 원만하게 수행하였다. 나는 4사와 2사 동무들에게 주력부대의 국내진공작전을 익측과 배후에서 후원하고 협조해준데 대하여 감사를 표시하였다. 서강회의의 결정에 따라 3개 방면으로 진출했던 혁명군부대들은 이처럼 회합장소로 내정되었던 지양개등판에 모여 전투적인 우애를 나누었다. 신록이 무르익는 등판은 명절처럼 흥성거리었다. 주고받는 이야기마다 신바람나는 무훈담들이었다.

서강회의방침을 실현하는 과정에 혁명군부대들이 거둔 전과를 직접 목격한 백두

산지구 인민들의 기쁨은 참으로 각별하였다. 박달이네 조직선에서 들어온 통보에 의하면 갑산, 풍산, 삼수 일대에서는 혁명군이 자기네 고장을 해방시킬 날이 박두했다고 하면서 남녀호소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이었다.

최현의 보고가운데서 이채로운 것은 상흥경수리 7토장을 칠 때 잡아왔다는 가와시마라는 일본인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목재소는 혜산에 본부를 둔 한 개 지소나 다름없는 작업장이였는데 가와시마는 거기서 현장책임자로 일하고 있었다. 4사사람들이 그를 지양개까지 끌고온 것은 그가 조선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또 조선여자를 데리고 사는 흥미있는 인물이였기 때문이라고도 하였으며 그를 인질로 삼아 경제모연공작을 해보고싶은 속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하였다.

최현은 가와시마의 운명처리문제 때문에 자기가 전광, 박득범 등과 언쟁을 했다고 하면서 그들이 가와시마를 처단하라고 자꾸 압력을 가하는데 장군님의 생각은 어떤가 물었다.

나는 단마디로 처단이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가와시마가 일본사람이기 때문에 처단해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억지요. 그가 재향군인으로서 목재소 현장책임자로 일한다고 해도 우리 인민에게 죄를 지은 것이 없다면야 무엇 때문에 처단하겠소. 사람들의 운명문제는 심중하게 다루어야 하오.≫

최현은 그 말을 듣고나서 동감이라고 하였다.

그날 나는 가와시마를 직접 만나보았다. 말을 몇 마디 건네여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조선말을 더 잘하였다. 혁명군이 무섭지 않은가고 물으니 처음에는 조마조마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그는 일본당국은 유격대를 ≪비적≫이라고 하는데 요새 혁명군을 따라 다니는 과정에 그 선전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비적이라면 남의 재산을 빼앗겠는데 나는 그런 것을 한번도 보지 못하였다, 유격대는 오직 조선독립을 위해서만 애쓰고 있다. 몇 일씩 굶는 때에도 주인없는 밭에 들어가지 않는다. 어쩌다가 먹을 것이 좀 생겨도 동무들의 입에 먼저 넣어준다. 이런 군대가 어떻게 비적일 수 있는가고 하였다.

나는 최현, 전광, 박득범들에게 가와시마는 큰 죄도 없고 눈도 바로 배긴 사람이니 교양을 잘 주어 곱게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훗날 조직선에서 들어온 통보에 의하면 가와시마는 목재소에 돌아가서, 조선유격대는 비적이 아니라 기강이 뚜렷한 혁명군≫이며 일본군대에 먹히울 약자가 아니라고 선전하였다고 한다. 그는 경찰에 연행되어가서도 자기가 직접 본 사실이라고 하면서 우리에 대한 선전을 그냥 하였다.

경찰당국은 적색분자라는 딱지를 붙여 그를 일본으로 쫓아버리었다. 가와시마가 인민혁명군에 대해서 했다는 말의 골자는 그 당시 국내신문에도 소개되었다.

최현은 신문을 보고 나에게 ≪가와시마가 유격대에서 먹은 밥값은 단단히 하우다. 장군님이 왜 그를 놓아주라고 했는지 이제는 가늠이 가우다.≫라고 하면서 크게 웃었다.

나는 가와시마의 실례를 통해서 비록 일본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나쁘게 모아서는 안되며 그들의 현행실태와 사상경향에 따라 심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

부대가 지양개에 도착한 그날 19도구 구장 이훈이 우리를 찾아왔다. 그는 보천보와 구시산에서 거둔 전승을 축하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변변치 못한대로 음식을 좀 준비하고 있으니 군대와 인민이 한데 어울려 식사나 한끼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훈이 말꼭지를 떼는 폼이 보통때처럼 점심이나 한 그릇씩 대접하자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을이 품을 놓고 한턱 차리겠다는 소리 같았다. 수백 명의 유격대원들에

게 밥 한 그릇씩만 해먹인다고 해도 19도구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런 폐를 끼칠 수 없었다. 그래서 이훈더러 식사준비를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말이라면 늘 고분고분하던 이훈이 이번만은 고집스레 버티면서 인민의 지성인데 받아주어야지 이제는 딴도리가 없다고 통사정을 하였다.

≪장군님, 이건 제 일개인의 청이 아니올시다. 19도구사람들의 민심이올시다. 이 청만은 제발 사양하지 말아주십시오. 시라소니라고 몰아대고 돌을 던질겁니다. 그건 글세 내가 참으면 되겠지만 온 마을에 울음판이 터질게 뻔한데 그건 어떡합니까?≫


김운신

듣고보니 구장의 청을 그냥 거절하기가 사실 난처하였다. 인민의 성의를 외면하고 지양개를 갑자기 떠나간다면 이 고장 사람들이 얼마나 섭섭해하며 유격대원들은 또한 얼마나 알찌근해 하겠는가.

나는 이훈에게 일이 이렇게 된 바에는 집집에서 음식이나 나누고 헤어지지 말고 차라리 군민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즐기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오월단오도 다되었는데 그날 군민연환대회라는 이름을 걸고 지양개등판에서 세상이 보란 듯이 청청대낮에 경축모임을 성대히 가지는 것이 좋겠다, 군대와 인민이 한데 어울려 서로 고무하고 정을 나누게 하자, 하늘땅이 들썩하게 오락회도 열고 운동회도 열어 그날은 모두가 만가지 시름을 다 털어버리고 단오명절을 즐길 수 있게 하자고 하였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4사와 2사의 지휘관들도 찬성하였다. 뜻을 이룬 이훈은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유격구가 해산된 후 군대와 인민이 한자리에서 어울리는 합동행사를 시도해본 적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군민연환대회장소로 내정된 덕부골은 이제순, 김운신, 마동회, 김주현, 지태환, 김일 등이 개척한 혁명촌이었다. 현으로부터 수십 리 떨어진 등판에 위치하고 있던 순사나 구장들도 자주 오지 못하는 고장이었다. 적통치기관들도 비교적 멀리에 있었다. 덕부골에서 제일 가깝다는 주재소가 우럭골에 있었는데 우럭골과 덕부골사이의 거리는 산길로서 퍼그나 멀었다. 우리는 덕부골에서 훗날 유격대원들도 많이 배출되었다.

나는 50여명의 병사, 지휘관들과 함께 조국광복회 지회장 안덕훈네 집에 거처를 정하였다. 이제순이 19도구에서 맨처음으로 손을 잡은 사람이 바로 이훈과 안덕훈이었다. 우리는 보천보전투 이전에도 이 집에 들렸고 그 이후에도 이 집에 들려 많은 신세를 지고갔다. 안덕훈이네 일가는 유격대원호를 잘하는 집안이었다. 그의 동생 안덕수는 좋은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 사업을 아주 정열적으로 도와주었다.

덕부골에는 송가성을 가진 부자가 있었다. 그는 나라야 어떻게 되든 자기만 잘살면 된다는 인생관을 가진 친일성이 강한 지주였다. 이 부자에게 돈이 많다는 것을 내탐한 우리 공작원들이 하루는 안덕훈이네 집에다가 송가와 이훈을 불러다놓고 유격대를 원호해달라고 호소하였다. 공작원들이 그 자리에 지하조직원인 이훈까지 불러들인 것은 그럴만한 타산이 있어서였다. 이훈이 먼저 얼마만큼 내겠다고 하면 송가도 아닌보살을 할 수 없을 것이었다. 그리고 공작원들이 이훈을 보고 떽떽거리게 되면 지하조직원으로서의 그의 정체도 더 잘 위장해줄수 있었다. 일은 예상대로 되었다. 이훈이 먼저 동리를 대표하여 얼마를 내겠다고 하자 송가는 공작원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150원을 넘겨준 것이 속에서 내려가지 않아 그 앙갚음으로 안덕훈이네 집에 유격대공작원들이 많이 드나든다고 주재소에 다니는 처남에게 넌

지시 귀뜸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훈은 공작원들과 의논하여 안덕훈을 유격대에 보내고 그의 가족들은 조선으로 빼돌리었다. 그런 구급대책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안덕훈일가는 틀림없이 멸살을 당하였을 것이다. 1937년 여름인가 가을에 적들은 ≪빨갱이촌≫이라는 구실밑에 덕부골마을을 모조리 불태워버리였다.

나는 안덕훈의 집에서 19도구의 유지들, 2사, 4사의 지휘관들과 함께 군민연환대회의 일정을 심화시킨 세부안을 작성하였다. 마을청년들은 그때 국수분틀을 50여개나 만들었다. 군대와 인민이 집집마다 한자리에 모여 밤이 지새는 줄도 모르고 노래도 부르고 고담도 나누었다. 천봉순의 보천보정찰담은 매번 폭소를 자아댔다.

1937년 5월말에 천봉순은 우럭골출신의 유격대원인 김운신을 통하여 보천보시내의 적의 무장장비와 무력배치 상태를 알아내라는 우리의 지시를 받았다. 그는 보천보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을 통하여 경찰관주재소에 7명의 순사가 있으며 경기관총은 1정이라는 것, 산림보호구역에는 5명의 일본인이 있는데 주임은 인차 다른 데로 전근되어간다는 것, 시내에 있는 집은 대략 200호가량 된다는 것을 알아내였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완전히 믿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천봉순은 보천보시내에 들어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비칠거리는 걸음으로 주재소앞에 있는 잡화상점으로 찾아갔다. 그는 술에 몹시 취한척하면서 1원짜리가 있었는데 어디 갔을가 하고 중얼거리며 후들거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지였다. 그리고는 5원짜리 한 장을 꺼내들고 ≪옳지, 여기 1원짜리 한 장이 있군.≫하면서 ≪마꼬≫담배 한 갑을 요구하였다. 그 당시 ≪마꼬≫한 갑 값이 5전이였다. 5원을 냈으니 거스름으로는 응당 4전 95전을 주어야 하였다. 그런데 엉큼한 여주인은 천봉순이 술에 잔뜩 취해서 5원짜리와 1원짜리를 분간하지 못하는줄로만 알고 95전만 던져주었다. 일은 천봉순이 바라는대로 되어가는 셈이었다. 그는 여주인에게 5원짜리를 냈는데 왜 거스름돈을 95전만 주는가, 4원을 더 내라고 요구하였다. 여주인은 어디서 이따위 협잡군같은 놈이 나타났는가, 1원을 내고도 5원을 냈다고 하니 천하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는가고 하면서 허튼수작말고 가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말다툼이 벌어졌다. 5원이라거니, 1원이라거니 하면서 싱갱이질을 하다가 여자쪽이 주재소맛을 보지 못해 그러는가고 위협할 때 천봉순이 그러면 순사나리들한테 가서 결판을 짓자고 하였다. 상점주인여자는 주재소측이 자기편을 들어주리라고 생각했던지 그 제의에 선뜻 응해나섰다.

두 사람은 주재소에 들어가서도 계속 상욕질을 해대며 말다툼을 하였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바람에 주재소측도 어느 편을 들어야 할 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두 사람의 말싸움을 구경만 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천봉순은 순사가 몇 놈인 있고 기관총이 몇 정 있으며 보총이 몇 자루가 있는가를 다 탐지해냈다.

그는 확인할 것을 다 확인하자 그러면 순사나리들이 우리와 같이 상점에 나가자. 내가 낸 5원짜리는 복판에 종이를 오려붙인 것이다. 그런 돈이 있으면 내가 이기는 것이고 없으면 저 년이 이기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당직순사를 앞세우고 당시 상점으로 나갔다.

천봉순이 말한대로 돈궤속에서는 정말 복판에 종이를 오려붙인 5원짜리 돈이 나왔다. 그러나 상점주인은 그 돈은 아침에 다른 손님한테서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그냥 생억지를 썼다. 결국 이 송사질에서는 상점주인여자가 이기였다. 천봉순은 그 여자에게 ≪마님, 익은 밥 먹고 선트림 하면서 호강하시오.≫하고는 상점문을 나섰다. 그는 속으로 상점주인을 정직하지 못한 여자라고 생각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고맙게 여기였다. 그 여자가 아니였더라면 주재소로 들어갈 수 있는 구실을 찾지 못할 번 했기 때문이었다.

덕부골의 지하조직원들은 천봉순의 정찰담을 듣고 힘을 얻었다. 그 정찰담은 그들의 자부심을 높여주었다. 인민혁명군의 국내진공작전을 보장하는데서 자기네 마을의 지하조직원이 한 몫 하였다는 것은 큰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온 동리가 연환대회준비로 분주한 때에 흥을 깨는 정찰정보가 들어왔다. 위만군 혼성여단장이 인민혁명군을 ≪토벌≫하겠다고 하면서 장백을 떠나 한가구쪽으로 출동하고 있다는 것이였다. 우리는 최현과 함께 맞받아나가서 그 부대를 일격에 소멸하였다. 여단의 패잔병들은 혁명군의 습격을 받고 어찌나 혼쌀이 났던지 자기네 동료들이 무리죽음을 당한 그 싸움터에 난길을 가리켜 ≪낭아도≫라고 하였다. ≪낭아도≫란, ≪이리의 이발같은 길≫이라는 뜻이다.

이 전투를 통하여 혁명군의 위신이 다시한번 올라갔다. 노획한 전리품들 중에는 연환대회준비에 보탬을 줄 수 있는 식료품들이 많았다.

날씨도 청청한 오월단오날 지양개등판에서는 군민연환대회가 열리었다. 3개 부대가 한데 모이니 넓은 등판이 군대로 가득찼다. 조국광복회 회원들만도 수백 명이나 모이었다. 조선민족해방동맹에서도 대표를 파견하였다. 각 부락의 구장들이 비밀보장을 위해 적의 앞잡이들을 사전에 따돌렸기 때문에 대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이날은 군대와 인민이 자리를 가리지 않고 한데 어울리였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이 많아서 무엇보다도 기뻤다. 음식들을 벌려놓고 빙 둘러앉아 마음껏 즐기였다. 그날 인민들이 마련한 음식가운데서 제일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쑥떡과 수리취떡이였다.

나는 최현과 함께 이훈, 안덕훈의 안내를 받으며 노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었다. 그다음은 청장년들, 아낙네들의 곁을 지나가며 그들에게 두루거리로 인사를 하였다. 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인민혁명군의 국내진공작전을 성심성의로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이였다.

그날 어떤 여대원들은 조선치마저고리차림으로 행사장에 나타났다. 낮이나 밤이나 벗을 수 없었던 군복을 잠시나마 벗어 놓고 향토시절로 돌아간 그들의 모습은 정말 선녀와 같이 아름다워 보였다. 그들은 마을처녀들과 함께 쌍그네도 뛰었다. 숲속에서는 노래소리가 울리고 춤판이 벌어졌다. 양푼에 물을 떠다놓고 바가지장단을 치는 여인들도 있었다.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난생처음 만난 사람들이 어찌하여 오래동안 생이별하였다가 다시 만남 혈육처럼 저렇게 뜨거운 정으로 얽힐 수 있는가. 나는 그날 군민이 한데 모여 꽃밭을 이룬 지양개등판의 정경을 둘러보면서 이런 생각에 잠기였다. 적들은 우리를 고립무원한 존재라고 하였지만 우리는 헌신적인 사랑과 지원이 파도치는 인민의 바다에 떠있었다. 지양개등판에 펼쳐진 군민합동경축모임은 유격대는 인민의 사랑을 받고 인민은 유격대의 보호를 받으며 험난한 역사의 가시밭을 헤쳐온 항일혁명의 축도였다.

나는 그날 인민혁명군을 대표하여 연설을 하였다. 군대와 인민은 떨어져 살래야 살 수 없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혁명군이 건재할 수 있고 백전백승한다는 사상으로 일관된 짤막한 즉흥연설이였다. 어느 대목에서인가는 국내진공작전

에 대해서도 간단히 개관하였던 것 같다.

그날 국내에서 온 조직대표도 연설을 하였다.

각계인사들의 연설이 끝난 다음 우럭골에서 왔다는 노인이 장백현 조국광복회조직을 대표하여 우리에게 축기를 전달하였다. 보천보전투 때 정찰임무를 잘 수행한 마동희가 위임에 따라 축기를 받았다. 붉은 양단천에 노란 명주실로 글을 새긴 자그마한 그 축기는 신흥촌의 부녀회성원들과 박록금이 감자움속에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 밀정들이나 군경들이 언제 달려들지 몰라 움밖에 보초를 세우고 한뜸한뜸 수를 놓았다는 말도 있다. 박록금과 같은 여공작원에게 그런 수놓이재간이 있었다는 것은 참말로 놀라운 일이였다.

그날이 군민연환대회는 성대한 열병식으로 막을 내리었다. 그것은 항일전쟁개시이래 우리가 거행한 여러 차례의 열병식들 중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큰 열병식이였다. 1948년에 있었던 열병식과 전승열병식 때에 나는 그 단상에서 바로 지양개등판의 열병식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지양개군민연환대회는 군민의 위대한 정치적 단결력을 만천하에 보여준 회합이였다.

이 연환대회에 참가했던 인민들은 1940년대 전반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혁명군이 다 소멸되였다고 선전할 때 그것을 누구도 믿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은 지양개군민연환대회가 인민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는가를 증명해준다. 항일유격대원들 역시 인민이 자기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후 곤경에 부닥칠 때마다 인민들을 찾아가군 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첫 여성중대장
박록금

그런데 그날 김철호를 비롯한 4사의 몇몇 대원들만의 식량난으로 걸음이 늦어져 이 성대한 연환대회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모임에 참가하지 못한 것이 몹시 허전하고 아쉬웠다.

여러 해가 지나 해방된 조국에서 단오명절을 쉴 때 나는 **김정숙**과 함께 그들을 모두 집에 초청하였다.


90년대 조미대결전에서 승리한 후 개최된 주체 89(2000)년 10월 10일 당창건55돌 기념군민연환대회

4. 사진과 추억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을 하면서 처음으로 사진을 찍은 곳은 장백현의 지양개등판이였던 것 같다. 군민연환대회가 끝날 무렵에 여러 동무들이 세 개 부대가 함께 만난 기념으로 사진을 찍자고 하였다. 마침 4사에 사진기가 있었다. 그래서 각 부대들에 있는 기관총을 다 모아다가 앞에 쭉 벌려놓고 사진을 찍었다. 모두들 표창이나 받은 것처럼 흡족해하였다.

그런데 어린 대원들은 한 장쯤 찍는 것으로는 도무지 성차해 하지 않았다. 독사진도 찍고싶어했고 분대별로 집체사진도 찍고싶어했으며 오래간만에 만난 다른 부대의 딱친구들과 함께 상봉기념으로도 찍고싶어하였다. 어떤 경위대원들은 나하고 단둘이서 찍고싶어 안달하였다.

그러나 무뚝뚝한 사진사는 사진기를 걷어메고 멀찌감치 가버리었다. 하기는 그도 몹시 난처했을 것이다. 요청자는 많고 사진종판은 적은데 누구를 찍고 누구는 찍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어린 대원들은 볼이 부어 돌아갔다. 나는 사진사를 다시 불러오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그럴만한 시간여유가 없어 단념해버리고 말았다.

사진을 못찍어 섭섭해하는 어린 대원들의 심정이 이해되었다. 그 시절이야 누구나 사진을 찌고 싶어하는 때가 아닌가. 내 마음도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나는 어린 시절에 사진을 얼마 찍지 못하였다. 타개죽도 변변히 먹지 못하는 형편에 사진관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사진을 한 장 찍자면 30리나 되는 평양성안이나 뺑대거리에 가야 했다. 간혹 성안의 사진사들이 세 다리사진기를 메고 시주변에 나와 돈벌이를 할 때도 있었지만 만경대 같은 외진 부락까지는 오지 않고 칠골 같은데 왔다가 돌아가군하였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한 번은 할아버지가 나에게 용돈으로 5전을 준 적이 있었다. 난생처음 돈이 생긴 김에 30리길을 걸어 평양성안으로 갔다. 나는 성안의 번창한 풍경에 넋을 빼앗기였다. 도로양옆의 가게방들과 장마당들에는 진귀한 물건들이 가득했다. 광주리장사군들의 ≪사구려!≫소리에 귀가 멍멍해질 지경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사진관을 향해 발길을 돌리었다. 사진을 찍고싶은 생각이 앞섰던 것이다.

그러나 5전을 쥐고 사진을 찍으려고 한 것은 천진난만한 생각이었다. 신식옷을 쭉 뽑아입은 신사숙녀들이 출납구앞에 서서 종이돈을 벌컥거리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못올 데를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황황히 사진관에서 나와버렸다. 5전으로 문명의 맛을 보겠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망상이었다. 그날 내가 사진관을 떠

나면서 느낀 것은 온 세상이 돈에 짓눌려 꺼져 내리는 것 같은 환각이였다. 내자신도 그 무게에 눌려 숨이 가빠지는 것 같았다. 그 후부터 나는 성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사진관을 외면하였다.

길림시절에도 사진과는 될수록 담을 쌓고 살았다. 영화관에 가는 일은 있어도 사진관은 넘겨다보지 않았다. 길림육문중학교는 부자집 자식들이 많았다. 그들은 유흥가나 음식점, 공원 같은 데를 늘 풍청거리며 돌아다니였다. 식도락이나 유흥을 위해 돈을 물쓰듯하는 그들의 풍족한 소비생활은 나를 아연케 하였다. 어머니가 푼전을 모아 마련하여 보내여주는 학비로는 겨우 월사금이나 물 수 있는 형편에 있던 나에게 있어서 제일 괴로운 순간은 그들이 사진관이나 식당으로 가자고 하면서 내 팔을 잡아끌 때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적당한 구실을 붙여가면서 그들의 청을 밀막아버리군 하였다.

한번은 어머니한데서 송금통지서와 함께 이런 편지가 왔다.

≪돈을 조금 더 보내니 생일기념으로 사진을 찍어보내다구. 너를 보고싶을 때 사진이라도 한 장 있으면 오죽 좋겠느냐.≫

나는 어머니의 청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철주동생의 말이 어머니는 내가 보구싶을 때면 다 해진 나의 속옷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지으신다고 하지 않던가. 얼마나 이 아들이 보고 싶으면 학비에 돈을 더 얹어 사진을 찍어보내라고 하셨겠는가.

나는 어머니의 분부대로 사진을 찍어 무송에 보내주었다. 그때 찍은 사진이 바로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길림육문중학교시절의 독사진이다. 그 사진을 수십 년동안 간수해두었다가 우리 나라 혁명전적지답사단이 중국 동북지방에 갔을 때 내놓은 사람이 내가 무송시절부터 잘 아는 부녀회원인 채주선이다. 그가 오랜 세월 적들의 살벌한 감시를 받으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사진을 보관해낸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채주선

그 후에도 이럭저럭 사진을 몇 장 찍었지만 대부분은 분실되고 별로 남은 것이 없다. 다부산자를 입고 고재룡과 함께 찍은 사진이 몇 해 전에 발굴되어 회고록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을뿐이다.

그런데 길림시절에 찍은 내 사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적들의 수중에 들어가 경찰들의 수사작전에 이용되었다. 한번은 밀정이 내 사진을 들고 카륜에까지 와서 마을경비를 담당하고 있던 소년탐험대원들에게 이런 사람을 본적이 없는가고 물어보기까지 하였다. 아이들이 밀정이 왔다고 제때에 연락해준 덕으로 나는 요행 봉변을 모면하였다. 우리를 해치려고 돌아치던 그 밀정은 조선혁명군 대원들에 의하여 처단되었다. 그 후부터 나는 한동안 사진을 찍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사진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지워버린 것은 아니었다.

때없이 이루어지는 상봉과 이별, 경사... 이런 것에 맞다들면 사진으로 남겨 두루두루 추억하고싶은 생각이 들군 하였다. 나의 지하활동과 유격대생활에는 사진으로 찍어둘만한 극적인 것이 많았다. 유격구시절에도 인상깊은 광경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 중의 어느 한 장면도 사진으로 남기지 못하였다. 그때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때 우리는 누구나 앞날을 위하여 어떤 기념물이나 상징적인 증거물 같은 것을 남길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 투쟁이 간고한데다가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들이 연달아 들이닥치다보니 색다른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경황이 없었다. 하지만 절해고도에 떨어져도 인생은 인생이라는데 유격대생활이라고 하여 노상 메마르게만 살라는 법이야 없지 않은가.

어린 대원들이 사진을 더 찍고싶어하는 광경을 보면서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4사에는 사진기가 있는데 내가 데리고 다니는 부대에 사진기가 없다는 사실이 우선 나로 하여금 자기를 반성해보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늘 산에서 살며 안중에 혁명밖에 없는 대원들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고 싶어하며 더구나 그 갈망이 보통정도가 아닌 것을 보니 오래전부터 사진과 담을 쌓고 살아온 나에게 있어서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날 나는 숙소에 돌아와서 몇몇 지휘관들에게 어린 대원들이 사진을 찍고싶어 4사의 사진사를 따라다니면서 시중을 들어주던데 우리도 사진기가 한 대 있기는 있어야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했는데 그 말이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다.


지태환

우리가 장백을 떠나 임강현 6도구밀영에 가있을 때인 1937년 여름이었다. 하루는 장백에서 지하공작을 하던 지태환이 밀영에 나타나 사업보고를 하다가 뜻밖에도 사진기를 구해왔다는 말을 하였다. 그때 나는 얼마나 기뻤던지 모른다.

지태환이 구해왔다는 사진기는 4사동무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과 꼭같은 캬비네형 삼각대사진기였다. 그는 중년나이의 사진사도 한 명 데리고 왔다. 지태환은 아마 내가 얼핏 내비친 말을 명심하고 깊이 새겨두었던 것이 분명하였다.

지태환은 김일이 지방사업을 하는 과정에 찾아내고 단련시켜 우리 부대에 보내온 사람이었다. 김일처럼 그도 입이 무겁고 실속이 있었다. 무슨 과업을 받아안기만 하면 실농군처럼 수걱수걱 해냈다. 김일과 지태환은 성격이며 일솜씨며 행동거지까지도 신통히 비슷하였다.

지태환에게서 사진기를 노획해온 과정사를 들었는데 모험 소설의 줄거리처럼 재미가 있었다.

지태환은 김학철이라는 유격대원과 함께 처음에 19도구 구장인 이훈을 찾아가 사진기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의존하였다. 구장은 그곳 조국광복회 회원들과 함께 방도를 모색하였다. 그러던중 하루는 이훈이 지태환을 찾아와 주민들의 거민증을 내고 주민등록을 하는데 쓸 사진을 찍으려고 20도구경찰분서에 사진기 한대를 가져다놓았다는 정보를 전해주었다. 그 사진기를 슬쩍 빼내올 수만 있다면 유격대에서도 요긴하게 쓸 수 있고 주민등록놀음도 그만큼 지연시킬 수 있으니 꿩먹고 알먹기라는 것이었다.

일제는 동만에서 실시해온 집단부락제도와 중세기적인 ≪보갑제도≫를 서간도에서도 강행하려 하였다. 그래서 호구조사도 하고 증명사진촬영놀음도 벌이었다. 적들은 그밖에도 통행(체류)허가증, 물품구매허가증까지 만들어가지고 인민들을 옴짝달짝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15살부터 65살에 이르는 사람은 거민증과 통행허가증이 없이는 거주도 통행도 할 수 없었고 물품구매허가증이 없이는 식량이나 천, 지하족 같은 것도 마음대로 살 수 없었다. 그런 증명서가 없이 상품을 산 것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통비분자≫로 몰아 다짜고짜 묶어갔다.

그런데 경계가 삼엄한 경찰분서마당에 있는 사진기를 어떻게 빼내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지태환과 이훈은 장시간 이마를 맞대고 묘책을 토론하였다.

다음날 이훈은 크게 낭패한 기색으로 20도구경찰분서장앞에 나타나 이제는 애가 타서 구장노릇도 못해먹겠다고 투덜거리었다 농군들이라는 것이 무식하다보니 경찰분서에 가면 사진을 찍어준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말하는데도 믿지 않고 구장

만 나타나면 포도대장을 만난 것만치나 무서워 벌벌 떨기만 하니 맥이 빠져서 못해 먹겠다고 하였다.

분서장은 그 말을 듣고 입만 쩝쩝 다시었다.

≪유지들은 또 유지들대로 잔뜩 비틀어져있수다. 19도구 100리 골안의 수백 여 세대를 20도구까지 끌고가서 사진을 찍느라면 가을이 다 갈텐데 낟알걷이는 집어치우고 사진이나 씹어먹으라는가고 다들 삿대질이니 이것 참, 어떡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수다.≫

이훈은 이런 말을 하고나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구장도 참 답답해. 분서에 와서 송사질을 하면 난들 어떻게 하라는건가. 대책이야 구장이 세워야지 무슨 방도가 없겠소?≫

이훈이 기다린 것은 분서장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한참동안 머리를 쥐여짜는 척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여기 경찰분서는 백성들이 무서워하고 19도구에서 거리가 너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차라리 19도구에 사는 이종술이네 집이 어떻습니까? 그 집 마당이 널직해서 사진을 찍기는 명당입지요.≫

이종술은 적들의 주구였다. 경찰들과 관리들이 가면 술대접을 극진하게 해주어서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가고싶어하는 곳이었다. 분서장은 명안이라고 하면서 이훈의 제의를 지지하였다. 이렇게 되어 사진기는 경계가 엄한 20도구경찰분서로부터 이종술이네 집마당으로 옮겨졌고 19도구주민들도 그 마당에 모이게 되었다.

분서장 역시 순사들을 데리고 이종술이네 집으로 향하였다. 이종술이 순사들을 위해 주안상을 차린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분서장은 순사 한 사람을 마당에 세워두고 술상에 마주앉았다. 얼마후에는 망을 보던 순사까지 술판에 끼여들었다.

경찰들이 술에 취해서 법석 떠들어댈 때 마을의 지하조직원이 방문을 와닥닥 열어제끼며 ≪비적≫들이 사진기를 들어간다고 소리쳤다. ≪비적≫들이 앞산, 뒤산에 누렇게 깔렸다고 그가 엄살을 떠는 바람에 분서장은 사색이 되어 권총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제법 돌격해나갈 태세를 취하였다. 술기운의 덕으로 생겨난 만용이었다.

이훈은 분서장을 제지시키였다

≪≪비적≫들이 한두 명두 아닌데 혼자서 무슨 수로 당한다고 그럽니까. 몸을 보존해야지요. 죽은 정승이 산 개만 못하다는데 .≫

그는 분서장을 뒤울안으로 끌고나가 무작정 돼지우리에 밀어넣고 북데기를 씌워주었다. 다른 순사들도 재간껏 몸을 숨기였다.

그사이에 유격대원들은 촬영현장에 나타나 사진을 찍으러 온 주민들에게 선동연설을 한바탕 한 다음 사진기를 메고 유유히 사라졌다.

사진기공작에 동원되었던 대원이 이런 이야기를 재미나게 들려주어서 나는 눈물이 나게 웃어보았다.

≪대안≪비적≫상황에 관한 건≫과 ≪혜산사건판결서≫라는 일제의 비밀문건에는 이런 내용의 기록이 있다.

≪소포도구에 이르러 주민 100명을 모으고 촬영중에 1시 30분경 권총휴대의 **김일성**일대로 인정되는 사람들이 나타나 사진사에 대하여 ≪무슨 목적으로 사진을 찍는가≫, ≪당신은 사진사로 생활하므로 도와주면 도로 보내겠으니 사진기만 내라≫고 하고 사진기와 종판 한 타스를 빼앗아갔다.≫

종판이란 지금의 사진필림 같은 것이다. 구식사진기에서는 필림대신 유리종판을 썼다.

그러고보면 지태환이 김학철, 이훈과 함께 우리의 소원을 훌륭히 풀어준 셈이다.

지태환이 적구에서 데려온 사진사의 이름은 한계삼이라고 하였다. 유격대에서는 그를 이인환이라고 불렀다. 그는 나이가 40살이 다 되어오는 사람이었다. 키가 큰데다가 힘이 장사여서 유격대생활에는 제격이었다.

나는 사진기술을 배워두었다가 필요한 때면 직접 대원들의 사진을 찍어주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사진사에게서 개별적으로 사진술을 익히었다.

이인환은 내가 사진기술을 진지하게 대하자 왜 이런 하찮은 일에 시간을 내는가고 묻기까지 하였다.

그는 촬영할 때 화폭을 예술적으로 잡는 방법이며 종판을 감광시키는 묘리도 가르쳐주었는데 아주 친절하고 까근까근하였다.

이인환은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안 다음부터는 자기 속을 다 털어놓았다. 그가 한 말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인상깊게 남아 있는 것은 ≪버섯쾌미≫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우리 부대에 오자마자 ≪버섯쾌미≫라는 것부터 찾았다고 하였다. ≪버섯쾌미≫란 무엇인가고 물으니 ≪귀를 베어 말린≫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인환의 말에 의하면 적들은 혁명군이 사람을 잡으면 귀를 베여 버섯쾌미처럼 꿰서 말린다고 선전한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산하에 각종 분과를 거느린 ≪선무반≫이라는 모략단체까지 조직해가지고 다니면서 유격대는 얼굴이 빨갛고 뿔이 돋은 식인종들이라고 선전하는데 자기도 얼마전까지는 그런 말을 곧이들었노라고 하였다.

≪이종술이네 마당에 유격대가 나타났을 때 나는 간이 콩알만 해서 검정보자기를 뒤집어쓴 채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귀부터 움켜쥐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격대를 보니 선량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인환이네 집에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하였다. 그런데 그가 오히려 말을 듣지 않았다. 자식들은 처가 돌볼 수 있으니 제발 자기를 쫓아보내지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그 결심이 하도 진실하고 드팀이 없으므로 나는 이인환을 유격대에 입대시키였다. 새 군복을 입히자 어찌나 좋아하는지 옆에서 보기에도 흐뭇하였다.

육과송전투와 쟈신즈전투가 있은 다음 우리는 부대에 많은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고 신입대원들로 여러 개의 분대를 조직하였다. 그 중 한 분대의 분대장을 이인환이 하였다.

그는 입대 후 유격대원들의 사진을 많이 찍었다.

이인환은 현상액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족족 현상하군 하였다. 그가 싸움도 잘하였기 때문에 대원들은 누구나 다 그를 존대하고 아끼고 사랑하였다.

한번은 사진사가 독감으로 드러누운 적이 있었다. 우리는 그를 정성껏 치료해주었다. 그가 잠잘 때에는 저마다 솜옷을 벗어 여러 겹으로 덮어주었다. 나도 덮개를 그의 머리에 둘러주고 곁에 앉아 책을 읽으면서 밤샘을 하였다.

잠을 깬 사진사는 내 손을 부여잡고 저 같은 게 무엇이 대단해서 이러는가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가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었다.

사진사는 우리와 생활하는 과정에서 난생처음 사람대접도 받고 참인생이 무엇인지도 알았다고 하면서 왜놈들의 머슴이 되어 밥을 얻어먹는 것보다 유격대에서 풀뿌리를 삼킬망정 하루를 살아도 가슴을 펴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하였다.

한번은 사진사가 내앞에 사진기를 마주세우고 나의 옷차림을 깐깐히 손질해주면서 말하였다.

≪오늘은 제 소원을 풀게 해주십시오. 장군님의 독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는 나의 사진을 찍어 직접 국내에 가지고 들어가 동포들속에 전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지성은 고맙지만 시진을 찍어 세상에 공개하는 것은 부대의 규율에 어긋나는 일이니 혁명이 승리하는 날 마음껏 찍자고, 해방이 되면 첫 독사진을 이인환동무가 찍어달라고 하였다.

그 말에 사진사는 울면서 웃었다. 나는 그런 미묘한 웃음을 처음으로 보았다. 그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삼삼하다.

소할바령회의 후 대부대활동으로부터 소부대활동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또다시 이인환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그는 부대에 그냥 남아서 싸우다가 애석하게도 전사하였다.

나는 지금도 사진을 찍을 때면 이인환이 구식사진기를 메고 사진을 찍자고 하면서 내앞에 다가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 환각을 가끔 느끼군 한다.

이인환은 희생되였으나 그가 찍은 사진들 중에서 몇 장은 그래도 기적적으로 역사에 남았다. 우리가 임강현 5도구밀영에서 찍은 사진과 올기강유역에서 여대원들이 찍은 사진도 그가 찍고 현상한 것이였다.

5도구밀영에서 찍은 집체사진은 국내공작에 나갔던 김주현소부대의 귀환을 기념하여 찍은 것이였다. 그 날의 사진은 내가 찍어주려고 하였는데 경위대원들이 같이 찍자고 그냥 조르는데다가 이인환도 셔터를 자기가 눌러주겠으니 같이 찍으라고 등을 밀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어 변장을 할 때 쓰고다니던 검은테안경을 낀 채로 그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나와 이인환이 찍은 사진들가운데서 대부분은 아쉽게도 소실되거나 분실되였다. 적들은 사진을 입수하기만 하면 그것을 우리를 지명수배하기 위한 모략에 써먹었다. 나와 경위대원들이 보관하고 있던 사진들은 임수산이 ≪토벌대≫를 끌고 황구령밀영에 달려들었을 때 없어졌다.

수십년의 세월이 흐른 뒤 우리는 그 사진들 중 일부를 과거 만주국의 고위경찰관이였던 가또 도요다까라는 일본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그는 자기가 우리의 사진 석 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장은 잃어버리고 두 장만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공개하였다.

가또 도요다까는 ≪만주국경찰 중요사진, 문헌자료 집성≫이라는 글에서 ≪신비로운 항일영웅 **김일성**≫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썼다.

≪ . **김일성** 및 중국공산당간부에 대한 ≪수배사진≫은 무엇보다도 현물로서 현실적 의의를 충분히 가지는 극히 중요하고 희소한 것이다 .≫

그는 당시 ≪토벌≫대원이 사진뒷면에 남긴 ≪**김일성**부대 본부원일동≫이라는 필적까지 사진 옆에 옮겨 소개하였다.

그 덕에 역사의 진실이 생생한 한 폭으로 세상에 나타났다. 거기에는 마귀나 야인같은 스산한 ≪비적≫이 아니라 대원, 지휘관들을 막론하고 꼭 같은 군복을 입은 혁명군대의 면모가 사실 그대로 반영되어있는 것이다.

우리의 대원들과 지휘관들 중에는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하고 전사한 동무들이 수없이 많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전사자가 나면 군공에 따라 표창도 하고 고향에 부고도 보내여 사회적 관심을 모은다. 그러나 항일 전쟁당시에는 희생자가 나도 부고를 보낼 수가 없었고 이름석자를 새긴 묘비도 세워줄 수 없었다. 적이 항시적으로 달려드는 정황에서 눈무덤이나 돌무덤을 쌓아주거나 그렇게도 할 겨를이 없으면 솔가지를 덮어주고 총총히 떠날 때도 있었다.

전사한 대원들을 안장할 때면 그 불같은 청춘을 황야에 묻어버리는 것이 너무도

기가막혀 한줌의 흙이 바위들처럼 무거웠다. 한 장의 사진도 없이 그렇게 가버린 열사들이 그 얼마이던가.

희생된 전우들과 헤어지는 것도 헐치 않았지만 산사람들과의 생이별도 빼근하였다. 그런 때에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 서로 교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은 여대원들이 그 꽃같은 모습을 한 장의 사진에도 남기지 못하고 희생되는 것이었다. 그런 여대원들이 피를 물고 쓰러질 때 우리의 가슴은 천갈래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들이 세상에 남기고 간 것이란 배낭 하나밖에 없었다. 그 속에 있는 것은 조선지도에 무궁화를 수놓은 자그마한 수예품뿐이었다.

그 수예품을 시신우에 얹고 거기에 한줌두줌 흙을 뿌릴 때 어느 장사의 손인들 떨리지 않겠는가.

세월은 너무도 많은 것을 마사버리고 희석하여 망각속에 묻어버린다. 기쁘던 일도 슬프던 일도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면 흐려지고 멀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내 경우는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다. 나는 희생된 전우들 한 사람한 사람을 도저히 잊을 수 없다. 떠나간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그렇듯 소금이 일게 한을 품었던 탓일가. 내 기억속에는 그들의 모습이 수백수천 장의 또렷한 청사진으로 남아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진도 색이 날고 기억도 희미해지기 마련이건만 그들의 모습만은 어이 일인지 세월이 갈수록 더 생생하게 살아올라 나의 심혼을 거머잡는다.

어떤 사람들은 대성산에 혁명열사들을 꾸릴 때 기념비를 웅건하게 잘 세우고 거기에 투사들의 이름을 새기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러나 나는 열사들의 모습을 세워주고 싶었다. 항일영웅들의 개성적인 모습을 재생시켜 후대들도 만나게 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사들은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하고 희생된 사람들이였다. 결국 내가 조각가들에게 그 투사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설명해주어 원형을 재생시키도록 하였다.

일제가 취급한 ≪혜산사건≫에 대한 자료집을 보니 거기에 여러 투사들의 사진이 나와있었다. 고리끼가 말하기를 가난한 사람의 사진은 그가 법을 위반했을 때에나 신문에 난다고 하였던 것 같은데 우리의 투사들도 족쇄를 차고서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되는 사진을 남겼던 것이다.

우리가 항일혁명시절의 모습을 몇 장이나마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지태환이 사진기를 공작해온 덕이었다. 그런데 지태환자신은 사진기앞에 나선 적이 없었다. 견결하고 솜씨있는 지하정치공작원이었던 그는 ≪혜산사건≫ 때 체포되면서 적들의 문건에 비로소 사진을 남기였다.

지태환은 포승에 묶이운 채 사진을 찍히웠는데 분통이 어린 얼굴을 외로 돌린 채 날카로운 시선을 땅에 박고 있었다. 자부심이 남달리 강한 그 사나이의 심장이 얼마나 원한으로 끓어올랐겠는가. 그는 사형선고를 받고도 태연하였다. 지태환은 ≪나는 일제놈들에게서 피값을 다 받아냈다.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면서 껄껄 웃었다고 한다.

나에게는 잠들 수 없는 밤이 많다. 일이 많을 때도 그렇지만 유언들 하나, 사진 한 장도 남기지 못하고간 열사들이 떠오르는 밤이면 졸음도 오지 않는다.

아마도 그 때문에 나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사진을 찍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된 것 같다. 공장이나 농촌에 나가면 근로자들이나 아녀자들과도 찍고 초소에 나가면 인민군군인들과도 찍는다. 어느 해인가는 연풍고등중학교에 들렀다가 반나절이나 학생들의 사진을 찍어주었다.

지금은 제도가 좋아서 사람과 직업에 층하가 없고 누구나 공훈을 세우면 영예도

누리고 만사람의 갈채도 받는다. 그리고 어디에 가나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노동속에서 속아나는 춤과 노래가 명절의 광장과 축전무대에 옮겨지고 불야성을 이루는 밤거리와 공원에는 행복한 사람들이 끝없이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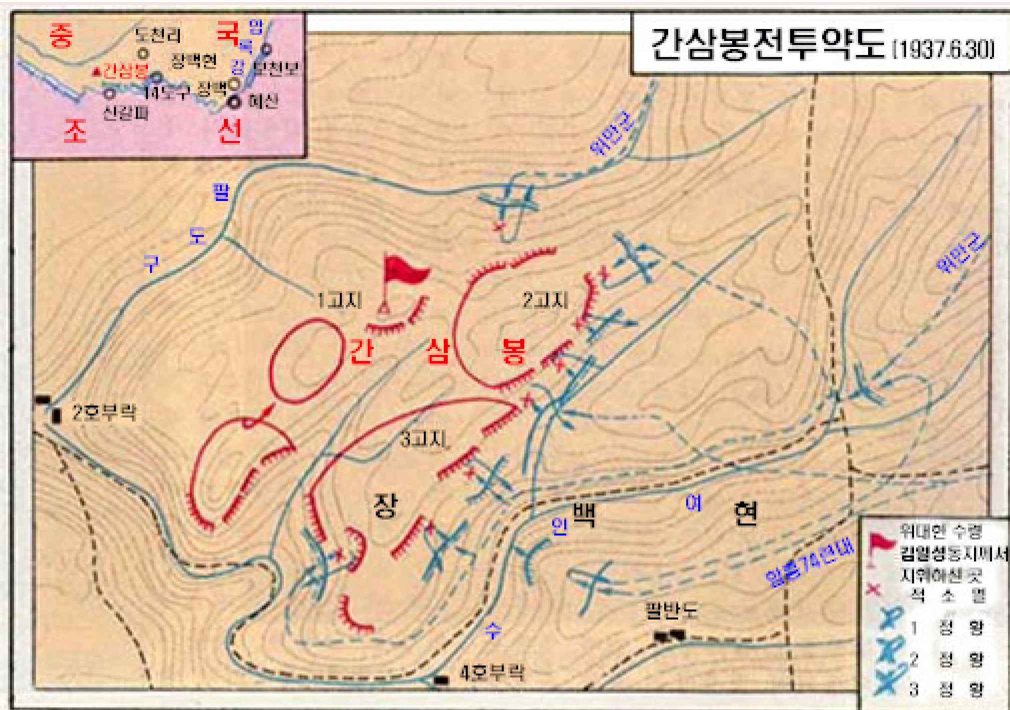
반세기 이전에는 이 모든 것이 별처럼 먼 공상이었다. 항일투사들의 태반은 이런 생활을 보지 못한 채 희생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목숨을 바쳐 피로써 열어놓은 역사의 길이 없었더라면 우리 세대의 오늘과 내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사진

5. 간삼봉전투



군민연환대회가 끝난 후 우리는 최현부대와 함께 팔반도에 있는 집단부락을 치고 서로 헤여지기로 하였다. 팔반도란 간삼봉부근에 있는 집단부락이다. 거기에는 300여명의 위만군≪토벌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국내진공작전도 계획대로 수행하고 세 개의 대부대가 한데 모여 군민연환대회도 성대하게 거행한 때여서 대원들과 지휘관들의 사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 그들 중에는 대부대들이 한데 모인 기회에 국내진공을 더하든가, 장백시가같은 곳을 답새겨서 인민혁명군의 본때를 다시 한번 보여주자고 정식으로 제기해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군사행동의 견지에서 볼 때 보천보를 방금 치고난 후여서 국내진공작전을 되풀이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었다. 혜산방면의 공기가 심상치 않은 조건에서 장백시가를 친다는 것도 역시 심사숙고해보아야 할 문제였다. 혈기가 욕망만을 가지고서는 승산이 있는 싸움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공격대상지를 팔반도를 선택하였다.

우리에게 팔반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 것은 2사동무들이었다. 그들이 우리 밀영에 와있을 때 그 고장의 실정에 대해 상세하게 말해주었다. 그 후 우리는 팔반도에 우리의 지하조직을 박아놓았다. 그 지하조직성원들 가운데는 유씨성을 가진 위만군병사도 있었다. 그는 자존심이 지나치게 강해서 지휘관들의 눈밖에 난 사람

이였는데 상관들한테서 부당한 압력을 받은 것을 계기로 우리 부대에 의거해와서 분대장을 하였다. 이 사람이 또한 위만군대대의 내부실정을 구체적으로 말해주었다.

일반적으로 유격부대가 적이 집중되어있는 군사적 요충지를 친 후에는 쭉 빠지는 전술을 써서 멀리 빠져나가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보천보를 친 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적들도 유격대전법에 도통하고 있는 것만큼 그 점을 미리 타산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였다. 실제로 관동군은 우리가 무송방면으로 빠져나오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그 일대의 길목들에 대부대들이 촘촘히 배치하고 있었다. 이점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쭉 빠지는 전술이 아니라 적의 턱밑에 그대로 돌아앉는 수법을 썼다.

우리가 국경근방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았던 다른 하나의 이유는 그 일대의 조국광복회조직들을 도와주면서 국내의 실정을 더 구체적으로 요해하고 장악하며 상승단계에 있는 국내혁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키자는데 있었다. 우리는 팔반도쪽으로 서서히 움직이면서 이르는 곳마다에서 공작원들을 불러 지하사업정형도 요해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과업도 주었으며 지방조직의 책임자들을 만나 사업방법도 배워주었다.

이런 때 정보공작업무를 받고 혜산에 건너가있던 이훈이 우리에게 통신을 보내왔다.

도천리의 한병을노인이 가지고온 이훈의 그 통신에는 함흥 제74연대가 수십대의 자동차를 타고 급작스레 혜산에 밀려들었다는 정보내용이 적혀있었다. 적들은 벌써 신파쪽에 나가 압록강을 건느기 시작했으며 ≪토벌≫을 책임진자는 김석원이라는 악질적인 조선인장교라고 하였다.

어떤 자료를 보면 그때 함흥 제74연대를 인솔해가지고 ≪토벌≫에 동원된 일본군측 지휘관이 김인욱이라는 조선인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그 당시 국내와 장백의 지하조직들에서 우리에게 보내온 통보자료들은 한결같이 ≪토벌대≫를 이끌고 함흥을 떠난 적장의 이름을 김석원이라고 밝히고 있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김석원은 일제가 소문을 크게 내려고 함흥역에서 조직한 요란한 장행식에서 혈서로 ≪무운장구≫라고 갈겨쓴 기발을 들고 일본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였으며 **김일성**부대를 몰살시키겠다고 매우 격해서 떠들어댔다고 한다. 그는 자기가 상급의 신임으로 토벌을 떠나는 것은 공산군의 전술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멀지않아 74연대의 솜씨가 어떤가를 보게 될 것이며 황군의 위력앞에서 공산군은 추풍낙엽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허장성세하였다는 것이다.

김석원의 함흥 74연대는 혜산과 신파를 떠나면서도 환송의식을 치르었다. 일제의 앞잡이들이 집집을 찾아다니며 군중을 강제로 동원시키였다. 경찰과 일본인 유지들, 관리들, 재향군인들이 거리에 나와 노래를 부르고 일장기를 흔들면서 부산을 피웠다. ≪토벌대≫의 무력이 어찌나 많았던지 30-40명이 탈수 있는 목선으로 하루종일 신파나루를 건네였다고 한다.

이런 상세한 자료를 정탐일군도 아닌 이훈이 알아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우리한테서 혜산시내의 적정을 탐지할 데 대한 과업을 받은 이훈은 목재상의 간판을 가지고 공작지에 침투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19도구 관내에 있는 조국광복회 분회장들에게 과업을 주어 며칠사이에 수백 대의 나무를 베게하고 그것으로 떼목을 무었다. 목재상의 신분을 보여주는 증명서도 만들었다.

이훈은 원래 8년동안이나 산관에서 유벌노동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다른 한 사람의 조직원과 함께 떼를 들고 혜산으로 나갔는데 일이 잘되느라고 그랬던지 강기슭에서 최경부의 친척되는 영감을 만났다. 최경부는 ≪혜산사건≫때 많

은 애국자들을 잡아가둔 악질적인 경관이였다. 박달을 체포한 것도 이 최가였다.

최경부의 삼촌은 이훈이 수백 대의 통나무를 끌고온 것을 보자 나무를 몇 대만 팔아달라고 하였다. 이훈은 최경부나리의 숙부되는 어른이라는데 어찌 돈을 받고 나무를 팔 수 있겠습니까하면서 통나무 두 대를 거저 주었다. 영감은 흐뭇한 김에 이훈에게 시내에 있는 목재상을 소개해주었다. 영감의 말이 그 목재상의 사위도 자기 조카처럼 혜산경찰서에 있다는 것이였다.

이훈은 목재상과 통성을 하고나서 장백이란데는 ≪비적≫이 많아서 살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다, 나무나 내다 팔아서 돈냥이나 모아가지고 혜산에 나가 살 생각인데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는 목재상에게 절반값으로 나무를 팔아버린 다음 그 집에 며칠동안 머무르면서 그의 사위라고 하는 김순사는 아무날 몇 시에 김석원부대가 혜산에 온다는 비밀을 흘려놓았다.

그는 보천보사건으로 제국의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군부의 위신을 추켜세우느라고 김석원을 파견한 모양인데 아무튼 싸움깨나 하는 사람이라더라, 이 사람이 **김일성**부대를 치고 서간도를 평정하겠다고 장담했다는데 결과는 두고봐야 알테지만 어쨌든 공산군측에서도 김석원부대와 접전하게 되면 고전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함흥 74연대가 혜산시내에 들어오는 날 이훈은 고급양복에 봄가을외투를 입은 말쑥한 신사차림으로 거리에 나가 환송대열에 슬그머니 끼여 ≪토벌≫에 동원된 무력이 얼마이고 포는 몇 문이며 기관총은 몇 정인가 하는 것을 죄다 살펴두었다. 그리고 환송의식이 끝나기 바쁘게 압록강을 건너와 우리에게 연락을 보냈다. 연락이 사령부에 당도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장해우와 **김정숙**이 보낸 연락원이 또한 우리를 찾아와 보다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연락원은 압록강을 건너온 적의 부대가 13도구에 와서 행적을 감추는데 지금 조직원들이 동원되어 그 행방을 찾는다고 하였다. 이훈의 정보와 도천리, 신파 조직이 보내온 정보는 신통히도 일치하였다. 지방조직들에서 보내온 자료를 종합해보면 ≪토벌≫에 동원된 무력은 약 2,000명 정도로 추정되었다.

적들이 조선주둔군에서 정예라고 하는 함흥 74연대까지 ≪토벌≫에 내몬 것을 보면 조선총독의 분격과 신경질도 이만저만이 아니였던 것 같다. 보천보전투와 그



간삼봉전투장소

전투를 전후하여 국경일대에서 거듭 얻어맞은 적들은 엄청난 심리적 혼란을 겪게 된 것이다. 중국관내에 대한 침략전쟁이 목전에 박두한 때여서 일제는 후방의 안전에 여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 이런 때에 ≪동장철벽≫이라고 자랑하던 조만국경일대가 난리판이 되고보니 총독이 노발대발하는 것도 별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였다.

2,000명이면 적의 역량이 우리보다 훨씬 우세하였다. 이런 형편에서는 접전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조선에서 건너온 일본군대부대와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하였다. 적이 대부대로 공격해오면 재빨리 분산해서 기동전을 벌이는 것이 유격전의 일반적인 전술이지만 이번에는 관례를 깨뜨려 대부대를 대부대로 치자는 것이 나의 결심이었다.

우리는 팔반도쪽으로 움직이다가 일단 행군을 멈추고 싸움터를 고르기로 하였다. 로마가의 서쪽산에 올라가서 직접 지형을 정찰하였는데 거기가 바로 사방이 탁 트인 간삼봉이었다. 간삼봉은 13도구로부터 8도구에 이르는 100여리의 광활한 대지에 가로놓여있는 서강고원의 북쪽 세 개의 봉우리를 말한다. 간삼봉에서 북쪽을 바라보니 원시림의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고 그 우에 사등방산줄기의 연봉사들이 떠있었다. 모두더기라고 불리우는 고장이었다.


최현

남쪽도 역시 동서로 100리가 넘어보이는 수풀의 바다인데 서강고원이라고 불리우는 그 덕지대에 노국소와 같은 부락들이 띠염띠염 보였다. 간삼봉은 태고연한 원시림의 바다우에 섬처럼 솟아있는 봉우리었다. 적들이 여기로 오려면 13도구에서 서강성에로 올라오는 산굽이와 영마루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싸움터로는 간삼봉이 제일 적당하였다.

저녁에 지휘관들이 모여 전투방안을 토의하였는데 거기서 내가 강조한 것은 적의 정규전법에 말려들지 말고 유격전법을 주동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면 우리가 먼저 산능선을 배치에서 도식을 범하지 말아야 하였다. 적들이 우리가 주의를 덜 돌릴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곳에는 역량을 많이 배치하고 전투과정에 부대들이 수림을 이용하여 좌우로 빨리 기동하면서 임기응변하도록 하였다.

나는 4사, 2사의 지휘관들과 함께 전투방안을 짜놓은 다음 새벽녘에 권영벽, 김재수, 정동철을 비롯하여 우리의 부름을 받고 간삼봉으로 찾아온 국내와 장백지방의 정치공작원들과 함께 혁명조직들의 사업방향과 임무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적들이 간삼봉으로 공격해온 것이 바로 이 날 아침이었다. 새벽부터 가랑비가 내리고 안개가 뿌옇게 끼였는데 최현부대가 차지한 산봉우리에 있는 초소에서 먼저 신호총소리가 울렸다. 나는 곧 산능선의 지휘처로 올라갔다. 최현은 보초대가 적의 포위에 들 것 같아 한 개 중대를 거느리고 전방으로 맞받아나갔다. 적들은 순식간에 최현이 인솔한 중대를 포위해버렸다.

전투에서는 시작을 어떻게 떼는가 하는데 따라 전투사기가 좌우되므로 어떻게 하든지 사태를 수습하여야 하였다. 이동학에게 경위중대를 데리고 가서 최현네중대를 빨리 구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일본군은 위만군을 총알받이로 앞세우고 맹렬하게 달려들었지만 최현네중대와 이동학중대가 안팎에서 협공으로 벼락같이 조겨대는 바람에 적의 포위진이 무너져버렸다. 치열한 육박전 끝에 중대는 구출되었다.

사태를 역전시킨 우리는 적들을 여러 번 협곡에 몰아넣고 하루종일 답새겨대였다.


이동학

하지만 일본군은 맹수처럼 기세가 등등하였다. 일본군대의 돌격이란 참으로

집요한 것이었다. 그들은 자기 동료들의 시체를 타고 넘으면서도 목이 터지게 함성을 지르면서 파도식으로 계속 연달아 달려들었다. 소와청방어전투때에 조선에서 건너온 일본군 간도파견대의 돌격을 겪어보고 대단히 악착하다고 하였는데 이 함흥 74연대의 돌격은 그보다 더 맹렬하였다. 우리가 기관총을 10여정이나 배치하고 전방을 탄막으로 뒤덮는데도 적들은 그냥 새까맣게 달려들었다.

이런 공격을 종일토록 계속하였다. 그 통에 우리도 어지간히 힘든 싸움을 하였다. 어떤 곳에서는 적이 아군진지에 들이닥치는 바람에 육박전까지 벌려야 하였다. 거기에 비까지 계속 내려서 전장은 더 처참하였다. 그때 우리가 생각한 것은 어떻게 되어 군국주의가 사람들을 저렇게도 검질기고 분별없는 야수적 존재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야마도정신≫은 부정의를 정의로 알고 악을 선으로 착각하는 천치들, 총구앞에 부나비처럼 뛰어들어 보람없는 개죽음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무사도라고 자부하는 청맹과니들, 타민족의 시체더미우에 축배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는 야수들, 자기가 죽으면 천조대신의 혼이 자기를 굽어살피고 천황이 자기 명복을 빌며 일본국민이 자기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망상하는 정신불구자들을 수많이 생산해냈다. 일본의 군벌들과 대신들은 그렇게 죽은 장병들을 잠깐 피였다가 사라져버리는 ≪사꾸라꽃≫에 비기면서 황군의 정신이니 뭐니 하고 추어주었다.

일본군병사들은 자기들의 죽음이 일본제국의 번영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것은 어처구니없는 망상이였다. ≪황도정신≫은 일본을 부흥에로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멸망에로 몰아갔다.

유격대의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이런 관점에서 일본군대를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사납게 달려들어도 혁명가의 자부심, 승리자의 자부심으로 적을 굽어보았다.

우리는 정황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날이 저물도록 적들을 답새기였다. 여대원들이 싸움을 하면서 부른 ≪아리랑≫이 전 대오에 퍼지였다. 격전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강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간삼봉전토장에 울린 ≪아리랑≫은 혁명군의 정신적 종심을 비쳐보이고 낙천주의를 시위하였다. 적들이 ≪아리랑≫을 듣고 어떤 기분에 잠겼겠는가 하는 것은 그닥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후에 포로들이 고백하기를 그 노래를 듣고 처음에는 어리둥절해졌고 다음 순간에는 공포에 잠기였으며 나중에는 인생허무를 느꼈다고 하였다. 부상자들 중에는 신세를 한탄하며 우는 자들도 있었으며 한쪽에서는 도망병까지 났다는 것이였다.

적들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도 저녁때가 되도록 폭우속에서 공격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런 때 우리는 팔반도쪽에 정찰임무를 받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박성철소부대와 식량공작조에 연락하여 적의 뒤통수를 때리게 하였다. 김석원은 앞뒤에서 얻어맞을 위험이 생기고 날까지 어두워지자 200명가량밖에 안되는 패잔병들을 모아가지고 싸움터에서 도망치고 말았다.

간삼봉전투는 흥미있는 일화들을 많이 남기였다. 최현의 나팔수인 김자린은 덤벼치던 나머지 허벅다리에 척탄통을 세우고 쏘다가 반충력에 대퇴골이 골반에서 삐여져나가는 사달을 일으키였다.

최현은 김자린에게 걸쭉한 욕설을 퍼붓고나서 척탄통을 두어방 쏘아 포진지에서 한데 몰켜돌아가는 것들을 소멸한 다음 탈골된 김자린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단번에 제자리에 맞추어주었다. 그날 아군이 쏜 척탄통에 김석원이 부상당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사실여부는 잘 알 수 없다.

함흥 74연대의 ≪토벌≫행각은 완전한 참패로 끝나고 말았다. 간삼봉전투에서

살아남은 패잔병들 중에는 함흥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도시로 꽁무니를 뺀 병사들도 있었다. 자료에 의하면 사까이라는 병졸도 김석원을 따라가지 않고 청진에 도주하여 일제의 패망당시까지 술집을 경영하였다고 한다. 그는 간삼봉격전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너무나 다행스러워 짬만 있으면 손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다.

사까이의 말이 자기는 일본사람이지만 조선말을 알고 있은 덕분에 목숨을 건지였다고 하였다.

그때 장교들은 귀신이 되어서라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한다면서 병사들을 공격에로 몰아대였다. 사까이는 와들와들 떨면서 산중턱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일본군이 산마루에 거의 당도하였을 때 혁명군은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였다. 황군의 서열에서는 단꺼번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다.


김자린

사까이는 산아래쪽으로 정신없이 내리달리었다. 그런데 이때 산꼭대기쪽에서 ≪조선사람은 엎디라!≫하고 고함소리가 들려 왔다. 조선말을 아는 사까이는 그 고함소리를 듣자 얼결에 무기를 던지고 동료들의 시체 옆에 엎드리었다.

저녁때에 유격대원들이 총과 탄피를 걷어가느라고 전장을 수색하였다. 그들은 사까이가 죽은 줄로만 알고 그냥 지나가 버리였다.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와 함께 심한 염전의식에 사로잡힌 사까이는 어둠을 타서 산을 기여내렸고 네발걸음으로 집단부락에 가닿았다.

≪이 사까이가 조선말밑천이 좀 있은 것이 행운이었소. 조선말이 결국은 내 생명을 살려주었고. 그래서 지금도 조선말을 열심히 배우고 있소.≫

이것은 사까이가 술을 마시며 사람들에게 자주 했다는 말이다.

사까이의 선전으로 청진시내와 그 주변일대에서는 간삼봉전투에 대한 일화들과 함께 우리에 대한 소문이 널리 전파되였다. 구직을 버리고 소시민으로 전락된 한 침략군병사의 고백이 결국은 우리 인민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결과를 빚어냈다.

간삼봉전투가 있은 얼마 후 우리 동무들은 전장근처의 마을에 갔다가 적들의 패전상을 상세히 알아가지고 왔다.

전투가 있은 다음날부터 적들은 혜산, 신파와 간삼봉부근에 있는 마을들에서 담가와 우마차, 자동차들을 징발하여 시체운반을 하였다. 그 고장 농민들의 말에 의하면 전투직후 간삼봉과 그 일대의 부락들에는 일본군의 시체가 한벌 깔려있었다고 한다. 적들은 시체마다에 흰광목천을 덮어놓고 사민들이 얼씬 못하게 단속하였다. 적들이 제일 두려워한 것은 저들이 패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었다. 그들은 신문에 간삼봉전투실황을 소개할 때에도 사상자수가 얼마 안되는 것처럼 허위보도를 하였다.

김석원이 우리를 치겠다고 신파에서 압록강을 건너올 때에는 하루종일 걸렸는데 다시 건너갈 때는 반시간 남짓하게 걸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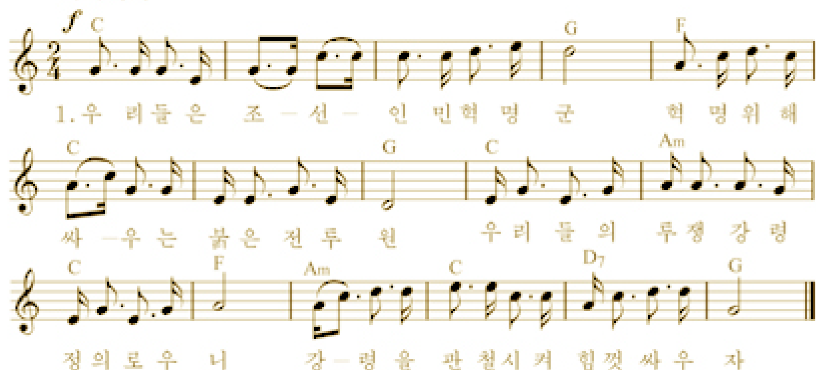

부상자를 후송하는 일본군

사상자수가 어찌나 많았던지 시체에서 머리만 잘라서 마대나 나무상자에 넣어 우마차에 실어 자동차가 있는데까지 날랐다. 그러면 시꺼먼 풍을 친 자동차들이 그 마대와 나무상자들을 싣고 압록강을 건너갔다. 시체들을 화장하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인민혁명군

씩씩하게



2.조선을 강점한 강도 일제는
식민지통치를 유지하려고
수다한 륙해공군 파견하고서
무수한 군사시설 만들고 있다

3.놈들의 군사시설 군사력량은
무산자대중을 학살들한다
놈들의 륙해공군 몰아둘 내고
무수한 군사시설 때려 부시자

4.파쑈적인 일제의 통치배들은
무수한 감옥을 만들어 놓고
별의별 개떼군대 조직하고서
무산대중진압의 도구로 쓴다

5.사회의 불평등과 민중압박을
위만군병사에게 폭로를 하여
망국노에 병사질을 집어 치우고
병변을 일으키여 나오게 하자

6.악독하고 교활한 일제놈들은
무수한 법령을 만들어 놓고
각종의 세납을 거둬 들이여
무산대중학살의 군비로 쓴다

7.무산자대중을 소멸하려고
간 곳마다 노예교육 강요하면서
인민의 사상을 마취시키려
강제로 일어를 배우게 한다

8.야수같이 악착하게 압박을 하니
우리들은 군중에게 호소를 하여
일제놈의 파쑈적인 통치제도를
한결같이 일어 나서 때려 부시자

는 연기와 냄새 때문에 간삼봉지구 농민들은 며칠동안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고 한다.

시체운반에 동원된 일본병사에게 어떤 농민이 시침을 떼고 ≪나리, 달구지에 싣고가는게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일본병사는 능청스럽게 ≪가보짜≫라고 대답하였다. 호박이라는 뜻이다.

그러자 농민도 싱글벙글하면서 ≪가보짜 농사가 대풍이군요. 좋은 국거리니 많이 들자시우≫하고 야유하였다. 그때부터 항간에는 호박대가리라는 말이 생겨났다. 인민들은 일본군시체만 보면 호박대가리라고 풍자하였다.

김석원과 그의 패잔병들은 번화한 해산을 거치지 않고 조심스레 신파와 풍산으로 빠져 함흥으로 돌아갔다. 출동할 때는 장행식까지 하면서 떠들썩했던 함흥역이 돌아올 때는 초상난 집같은 광경이었다. 역두에 나온 것은 병영에 남아있던 병졸들뿐이었다. 그 병사들이 부상자투성인 출정군인들을 복판에 세우고 거리를 가까스

로 지나갔다. 시민들의 눈을 속이고 패망상을 감추자니 그런 궁상스러운 짓도 하였을 것이다.

함흥의 무덕장이라면 일본군인들이 격검을 하던 연무장으로 알려져있었다. 그러나 간삼봉전투가 있은 후 얼마동안 적들은 여기서 격검을 하지 못하였다. 신파거리에서는 간삼봉전투가 있은 후 야경소리까지 없어졌다고 한다.

간삼봉에서의 패전은 일본 사무라이들에게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되었고 김석원이라는 이름은 그 치욕의 대명사로 되었다.

결국 보천보전투와 그에 잇달아 진행된 간삼봉전투로 조선총독 미나미와 관동군사령관 우에다가 ≪도문회담≫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완전히 소멸하겠다고 작정한 이른바 ≪획기적인 전략≫은 완전히 파탄되고 말았다.

이로써 1937년 초 우리가 계획한 대부대에 의한 국내진공작전은 성과적으로 결속되었다.

간삼봉전투는 우리의 항일부장투쟁사에서 하나의 큰 봉우리를 이루는 의의있는 전투였다. 이 전투는 구시산전투와 더불어 보천보전투의 성과를 공고히 해 주었다. 구시산전투와 간삼봉전투에서의 격전으로 하여 보천보전투승리는 더욱더 큰 빛을 낼 수 있게 되었다. 비유해 말하면 간산봉전투와 구시산전투는 보천보전투의 메아리라고 볼 수 있었다.


越境準備의 合流匪 五百名과 激戰
新乫坡鎭對岸에서

咸南新乫坡對岸에 五百餘名이 來襲
咸南軍隊出動擊退

간삼봉전투에 대한 신문보도 (동아일보, 조선일보. 1937.7.2)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하여 ≪무적황군≫의 신화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만천하에 다시한번 과시하였다. 간삼봉전투는 조선인민혁명군이 백두산지구에 진출한 후 항일혁명의 전성기를 마련하는데서 하나의 뚜렷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싸움이었다.

우연의 조화라고 할가. 우리의 숙적이었던 김석원은 해방 후 또다시 38선을 사이에 두고 최현과 대결하였다. 최현은 거기서 경비여단을 지휘하였다. 이승만이 김석원을 38선 가까이에 밀어보낸 것을 보면 간삼봉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할 기회를 마련해주느라고 그랬는지도 모른다.

북으로 의거해온 ≪국군≫사병들의 말에 의하면 김석원은 38선을 지킬 때 공산주의자들을 두고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최현도 그와 맞다들면 혼을 내주려고 별렀다.

전쟁전야에 김석원이 불의에 38선을 넘어 대규모의 기습을 감행한 일이 있었다. 그 바람에 송악산에서 싸움이 붙었다. 아마 그는 최현을 혼내우거나 없애치울 작정이었던 것 같다. 격노한 최현은 38선을 넘어온 ≪국군≫을 모조리 소멸하고 얼마 안되는 패잔병들을 추격하여 개성까지 따라갔다. 그는 내친걸음에 서울까지 쫓아가서 김석원을 잡겠다고 하였다.

나는 최현에게 당장 철수하라고 엄하게 명령하였다. 그 사람이 옛날에는 일제놈들의 충견이 되어 싸우러 왔었지만 지금은 미국상전에게 매여있다. 자칫하면 동족끼리 죽일내기를 하게 되고 전면전쟁으로 번져질 수도 있다. 김석원도 조선사람이니 언제인가는 자기를 뉘우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지금은 최현도 김석원도 이 세상에 없다. 그들을 대신하여 오늘은 망국의 설움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북과 남에서 총뿌리를 마주대고 군사분계선을 지키고 있다. 나는 북과 남의 모든 새 세대들이 민족의 피줄을 두 토막으로 동강낸 인위적인 장벽을 하루속히 제거해버리고 자주적인 통일조국에서 화목하게 살기를 바란다. 김석원도 말년에는 이런 염원을 품고 있었을 것이다.

6. 총을 쥔 소년들


총을 멘 소년중대원

인민혁명군의 백두산지구 진출이 일으킨 여파 가운데서 특기할만한 또 하나의 사변은 청소년들 속에서 일어난 참군열풍이었다. 압록상연안의 수림과 골짜기들속에서 총소리가 한번씩 울릴 때마다 우리 밀영으로는 입대를 탄원하는 청년들이 끝없이 밀려들었다.

입대지망자들이 늘어나는 과정에 재미나는 일도 많이 생기였다.

한번은 얼굴이 가무잡잡한 더벅머리소년이 물에 푹젖은 바지를 입고 우리한테 찾아와 형의 원쑤를 갚겠다고 하면서 부대에 받아달라고 떼를 썼다. 상풍덕마을에서 온 소년이었다.

소년은 자기 맏형이 거기서 청소년야학을 지도하다가 유격대에 밥을 해준 것이 탄로되어 경찰놈들에게 학살되었고 둘째형은 보천보전투직전에 장군님부대에 입대하여 싸운다고 하였다. 그래서 자기도 혁명군을 찾아왔다는 것이다. 입대를 탄원한 그 더벅머리소년의 이름은 전문섭이라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농으로 마른 옷을 입고오는 청년들도 미처 다 입대시키지 못하는데 너처럼 젖은 옷을 입고온 장난꾸러기들이야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고 하였다. 그러자 전문섭은 자기가 젖은 바지를 입고온건 어머니탓이라고 하면서 그 사연을 설명하였다.

전문섭이 상풍덕마을에 온 유격대를 따라가겠다고 하자 그의 어머니는 너는 아직 어려서 못간다고 잡아떼였다. 그리고는 아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바지를 물함지에 집어넣었다. 단벌바지가 물에 젖어 입을 것이 없게 되면 아들이 유격대를 따라가지 못하리라고 타산했던 것이다.

전문섭은 조바심이 났다. 그가 혁명군에 입대하는 문제는 소년회조직에서 이미 결정한 것이었다.

혁명군에 입대할 수만 있다면 벌거숭이가 되어서라도 백두산까지 한달음에 뛰어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던 전문섭은 어뜩새벽에 물함지에서 바지를 건져내어 대충 물기를 짠 다음 그것을 걸치고 집을 떠나려 했다. 그제서야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유격대입대를 허락했다고 한다.

이것은 압록강연안을 중심으로 조선의 북부국경일대와 서간도의 넓은 지역을 휩쓸고 있던 참군운동이 어느정도의 열도를 가지고 진행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였다. 전문섭의 실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운동에는 20대, 30대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10대 소년들도 참가하였다.

처음에 대열보충사업을 맡아보던 지휘관들은 그런 소년들이 찾아오면 의논도 하지 않고 덮어놓고 집으로 돌려보내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우리 부대의 병사, 지휘관들은 열네댓 살밖에 안되는 소년들이 손에 총을 잡고 부장대오에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들을 사랑하는 김평조차도 그런 소년들이 오면 머리를 내흔들었다.

부대가 지양개등판에 머물러있던 1937년 여름 어느 날 그는 총기장보다 더 작은 애숭이들이 한 20명 또 달려들어 입대를 시켜달라고 성화를 먹이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나의 결론을 요구했다.

≪좀더 큰 다음에 다시 오라고 암만 타일러도 말이 통해야지요. 나중엔 장군님까지 만나게 해달라고… 장군님을 만나보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떼를 씁니다.≫


전문섭

나는 소년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곳에 찾아가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을 진대나무에 앉히고 이름은 무엇이냐. 나이는 몇 살이냐, 아버지는 무엇을 하느냐, 어느 동네에서 사느냐 하고 차례로 물어보았다. 내가 질문을 한 가지씩 할 때마다 아이들은 고무공처럼 튕겨일어나서 묻는 말에 대답하군 하였는데 그들의 행동거지에서 공통적인 것은 어른티를 내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이였다. 그들은 모두다 원쑤들의 ≪토벌≫에 부모형제를 잃었거나 가까운 일가친척들이 참살당하는 치떨리는 참변을 목하고 그 복수를 위해 손에 총을 잡으려고 결심한 소년들이었다. 흉금을 터놓고 말을 나누어보니 속에 대감이 한둘씩 들어앉아 있었다.

세상이 험하면 아이들도 조숙한다는 말이 옳았다. 보이는 것은 불행뿐이고 겪는 것이 고생살이뿐이니 조선의 아이들은 나이가 어려도 벌써 이 세상 내막을 환히 꿰뚫고 있었다. 혁명은 비상한 힘과 속도로 사람을 격동시키고 각성시킨다. 혁명을 가리켜 새것을 낳는 학교라고 한 어느 명인의 말에는 사실 심오한 진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때 참군의 꿈을 안고 우리 숙영지로 찾아온 20여명의 소년들은 누구라 할 것없이 파란많은 우리 민족사의 한 페이지를 체현하고 있던 가장 참혹한 수난자들이었다. 그 어린것들이 사회개조의 중임을 스스로 걸머지고 탄원해 나설 때 나는 감동을 금할 수 없었다.

그날 내가 만난 소년들속에는 이을설과 김익현도 있었고 김철만과 조명선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지금은 그들이 다 조선인민군 차수로도 되고 대장이나 상장과 같은 장령들로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그들은 총대를 쥘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늠하는 검열대우에 서있던 애숭이들이었다.

이 소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불을 모르는 어린 매들을 무슨 말로 어떻게 달래서 집으로 돌려보내야 할지 나로서는 대단히 난감하였다. 억대우같은 장정들도 힘에 부쳐서 부단한 훈련과 수양을 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혁명군생활이다.

나는 이런 말로 소년들을 달래였다.

≪나는 너희들이 부모형제들의 피값을 받아내기 위해 손에 총을 잡으려고 결심한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애국심의 표현이다. 그런데 아직 나이들이 어려서 혁명군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유격대의 형님, 누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아마 너희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혁명군은 한겨울에

도 산속에서 눈을 깔고 잠을 자야 한다. 며칠씩 비를 맞으며 행군할 때도 있다. 식량이 떨어지면 풀뿌리나 나무껍질을 우려먹든가 맹물로 끼니를 에우는 것이 혁명군 생활이다. 내 보기엔 너희들이 이런 고생을 견뎌내지 못할 것 같은데 집에들 가있다가 좀더 큰 다음에 총을 메는게 어떠냐?≫

그래도 소년들은 마이동풍이였다. 그들은 어떤 고생도 감당해낼 자신이 있다, 어른들이 눈우에서 자면 자기들도 눈우에서 잘 수 있고, 어른들이 전투를 할 때에는 자기들도 전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유격대에 받아달라고 그냥 졸라댔다.

나는 이때처럼 우리에게 군사학교가 있었으면 하는 소원을 통절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랑스런 소년들을 모두 군사학교에 넣어 훈련도 시키고 몸도 단련시킨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독립군들도 한때 한 주의 여러 곳에 군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관학교들을 설립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것은 만주가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강점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였다. 일제의 대군으로 뒤덮인 1930년대 후반기의 만주는 우리에게 독립군들처럼 군사학교를 세울만한 여유를 주지 않았다. 밀영에다가 양성소 같은 것을 꾸려놓고 군사훈련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으나 그것도 실정에 부합되지 않았다. 왜놈들이 새로운 발화점을 찾아내여 중국땅에서 또 하나의 9.18사변을 도발하리라는 것은 세계의 모든 ≪청우계≫들이 다 시사하고 있은 문제였다. 우리는 여기에 대처하여 대기동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때에 10대 소년들을 무장대오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려운 행군을 앞에 두고 배낭을 하나 더 지는 것과 흡사한 일이였다.

그렇다고 하여 불리한 점만 앞세우면서 그들을 덮어놓고 집으로 돌아가라고만 할 수는 없었다. 솔직한 심정을 말한다면 그 소년들은 하나같이 내 마음에 들었다. 계급적 각오만 보더라도 어른들보다 못하지 않았다. 어른들이 굶을 때 자기들도 굶을 수 있다고 한 소년들의 말에서 그날 나는 특별히 강한 인상을 받았다.

말로만 애국하는 우국지사들이나 초로인생을 운운하면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혁명의 배신자들과 타락분자들에 비해볼 때 참군소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소년들이야말로 얼마나 고결하고 열렬한 넋을 지닌 애국지사들인가. 소년들이 어린 나이에 입대를 탄원해 나선 것은 사실 그 가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꽃다발을 안겨주어야 할 일이였다.

나는 이 투지만만한 소년들을 투사로 키우고 싶었다. 당장 전투대오에는 세울 수 없겠지만 방도만 잘 찾아내면 1-2년 사이에 끌끌한 후비군으로 키워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해나 두 해사이에 이 소년들이 모두 구대원들에게 짝지지 않는 전투원으로 자라난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수확인가.

그 대원들이 잠을 덜자고 밥을 덜 먹는 한이 있더라도 강심을 먹고 애를 쓴다면 소년들을 짧은 기간에 날파람있는 싸움군들로 키워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소년들만으로 따로 중대를 조직하여 조건이 허락할 때에는 밀영에서 훈련을 주고 부대가 기동할 때에는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실전을 통하여 교육하고 단련시키자는 생각을 하였다. 이를테면 군사학교나 군정간부양성소의 사명을 동시에 감당하면서도 거기에 실천교육을 결합시키는 특수중대를 조직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소년들을 부대에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그들에게 맹세문을 쓸 과업을 주었다. 너희들이 정말로 유격대에 입대하고 싶다면 오늘밤중으로 맹세문을 다 써내라, 왜 혁명군에 들어와 총을 메려고 하는가, 입대한 다음에는 어떻게 살며 싸우겠는가 하는걸 글로 써내라, 그러면 그 글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김평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내 말을 듣고 몹시 불안해하였다. 마안산에

서 데리고온 아이들도 적지 않아 부담이 큰데 저 소년들까지 더 받으면 난사라고 하였다.

다음날 소년들이 써온 맹세문을 보니 결의들이 다 좋았다. 글을 몰라서 딴 아이들에게 대필을 시킨 맹세문도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다. 학교를 다니지 못해 글을 모르는 것은 허물이 아니다. 모두가 맹세문을 다 잘 썼다고 했더니 소년들은 발을 구르며 환성을 터치였다.

나는 중대정치지도원 이상의 지휘관들을 사령부에 모이게 한 다음 마안산출신의 아동단원들과 서간도에서 새로 우리를 찾아온 아이들로 소년중대를 따로 조직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선포하였다. 소년중대중대장으로는 오일남을, 사무장으로는 여대원인 전희를 임명하였다.


오일남

오일남은 사령부직속기관총소대장으로 있던 사람이었다. 사격솜씨도 좋고 대오관리에서도 빈틈이 없었다. 그는 비상한 인내력과 투지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가 얼마나 인내력이 강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구시산전투때의 일화가 잘 말해주고 있다. 오일남은 그 전투에서 총상을 당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걸 전혀 내색하지 않아서 누구도 놀랐다. 지양개에 도착해서야 그의 군복에 배여있는 피를 보고 모두가 중상이라고 떠들었다. 웃옷을 벗겨보니 살에 탄알이 박혀있었는데 그 끄트머리가 보일락말락하였다. 그런데도 그는 웃고만 있었다.

군의가 없어 힘꼴이나 쓰는 강위룡에게 그의 몸을 붙잡게 하고 내가 핀셋으로 탄알을 뽑아내였는데 뜻대로 잘되지 않아 어지간히 땀을 뽑았다. 마취제도 없이 강짜로 하는 수술이었지만 오일남은 신음소리 한마디 내지 않았다. 살에 박힌 탄알을 뽑아내고 상처에 총기름으로 쓰는 와셀린을 발라준 다음 후송명령을 내리니 오일남은 ≪그쯤한 부상을 가지고 왜들 이러십니까. 적들이 당장 우리를 추격해오겠는데 기관총소대장이 자리를 뜨다니요.≫하면서 종시 가지 않았다. 나는 오일남의 이런 투지가 소년병사들에게 분명 좋은 영향을 주게 되리라고 믿었다.

사무장 전희도 투지로 보면 간단치 않았다. 나이는 소년중대원들과 엇비슷하였지만 속대를 가을콩알처럼 땅땅 영글은 처녀였다. 전희의 가정내막을 잘 아는 김철호는 그가 10살적에 할아버지의 침통을 깨뜨린 난돌이라고 하였다.

전희는 10살 때 어머니를 잃었다. 전희의 할아버지는 침깨나 놓을줄 알아서 마을사람들의 병구완을 잘해주었다. 그런데 며느리의 병만은 고치지 못하였다. 어린 전희는 어머니를 살려내지 못한 책임이 할아버지의 침통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돌로 그 침통을 박살냈다. 할아버지가 이년, 이년 하면서 야단을 하자 그는 ≪어머니 병도 고치지 못하는 침통은 두어서 뭘하나요.≫하면서 엉엉 소리를 내여 울었다. 그 바람에 할아버지도 전희를 붙안고 함께 서글피 울었다.

다음해에 전희는 오빠마저 잃었다. 그의 오빠는 유격대원이었는데 적구공작을 하다가 두 동료와 함께 체포되었다. 적들은 그들을 구자가 뒤산에 끌어내다가 처형하였다. 세 투사는 피가 터지고 뼈가 부서지는 참혹한 악형을 당하면서도 적들의 죄상을 고발하고 ≪혁명만세!≫를 부르며 용감하게 최후를 마치었다.

어린 전희도 마을사람들과 함께 그 광경을 목격하였다. 오빠의 영웅적인 최후는 그를 감동시키였다. 적들은 군중들을 향해 ≪자, 보라, 일본을 반대하는 놈들은 다 저 꼴이 된다. 그래도 혁명을 하겠는가?≫하고 지껄여댔다. 군중은 잠잠하였다. 하지만 어린 전희의 입에서는 ≪혁명만세≫라는 쟁쟁한 웨침소리가 터져나왔다. 깜짝놀란 적들은 그에게 달려들어 뭇매질을 하였다. 그 후 전희가 유격구에 들어왔을 때 어른들은 ≪너 어쩌자고 그때 만세를 불렀니?≫하고 물었다. 전희는 ≪나도 오

빠처럼 죽고싶었어요. 죽을 바엔 ≪혁명만세≫를 부르고 죽고싶었어요.≫라고 대답했다.

이 단순한 고백에서 벌써 자기의 목숨보다 혁명을 우위에 놓을줄 아는 담력이 자리잡고 있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희의 담차고 용맹스러운 성미는 소년중대원들에게 훌륭한 시범으로 될 수 있었다.

나는 전희도 오일남과 마찬가지로 소년중대원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적임자라고 확신하였다. 사무장이란 오늘의 인민군대에서 사관장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다.


전희

내가 그 조직을 선포한 후에는 적지 않은 지휘관들은 소년중대를 내온 사령부의 조치를 두고 아연해하였다. 저 어린애들이 우리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는 않겠는가, 저 애들 때문에 우리가 발목을 묶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 꼬마들이 과연 어른들도 감당해내기 힘들어하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내가 사령관의 권한을 가지고 소년중대를 조직한 것은 소년들의 청원을 가급적으로 빨리 해결하려는데 있었다.

소년들이 품고 있은 혁명에 대한 열렬한 동경심과 부모형제들의 원쑤를 갚으려는 불타는 적개심이 우선 나를 감동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 소년들을 만나는 과정에 유격대의 후비군육성문제에 신경을 써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였고 소년들로 특수한 군사조직을 뭇게 되면 그것이 곧 후비군육성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타산을 하게 되였다.

나는 소년중대에 망라된 아이들과 비슷한 나이에 유격대에 입대한 조왈남, 이성림, 최금산, 김택만, 백학림을 비롯한 역대전령병들이 걸어온 행적으로 보아 14-17살이면 능히 어른구실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는 소년중대의 대열을 편성하자 곧 그들에게 군복을 해 입히고 무기를 수여하였다. 무기와 대부분은 아이들의 키에 어울리는 38식기병총이였다. 새 군복에 무기까지 받아안고 기뻐서 어쩔줄 모르던 소년중대원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지금도 내 마음이 후련해진다.

우리는 오일남과 전희에게 소년들을 지양개등판에서 당분간 훈련시키다가 7도구의 부후물밀영으로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훈련시킬 데 대한 임무를 주었다. 유격대생활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기초동작을 한두 달사이에 주기 위한 속성훈련강령은 내가 직접 만들어서 오일남에게 주었다. 오일남은 그 강령을 보고나서 강도가 너무 높아 아이들이 다 소화해내겠는지 모르겠지만 해보겠다고 하였다.

소년중대는 그 이튿날부터 지양개등판에서 곧 훈련에 착수하였다. 그 당시 나는 중일전쟁에 대처한 방침을 구상하느라고 긴장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시간을 내여 소년중대의 훈련을 자주 지도하였다. 훈련장에 나가면 시범동작도 해보이고 군대물이 빨리 들려면 정보훈련을 잘해야 한다느니, 조준연습을 할 때는 과녁을 원쑤의 가슴팍으로 여겨야 한다느니 하고 훈계도 많이 하였다.

소년중대가 지양개에서 두 주일쯤 훈련하였을 때 우리는 회의를 소집하려고 소백수밀영으로 떠났다. 나는 출발에 앞서 오일남에게 소년중대원들을 데리고 부후물밀영에 들어가서 훈련을 계속하라는 지령을 주었다.

애숭이들을 막상 행군서열에 세우고보니 불안한 점도 없지 않았다. 사실 그때의 행군이 간단치 않았다. 고생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라고는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부후물밀영은 비교적 안전한 후방밀영이었다. 훈련기지로서는 이상적인 곳이었다. 이 일영에는 소년중대원들이 2-3개월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충분히 저장되어있었다. 우리는 사전에 김평에게 과업을 주어 부후물에 밀영을 꾸리고 식량을 마련하게 하였다. 소년중대가 그 덕을 단단히 보았다.

우리가 부후물근처에 6도구밀영에서 적배후타격전을 지휘하고 있을 때 소년중대원들은 부후밀영에서 맹훈련을 진행하였다. 초수탕과 소배수에서 회의를 끝낸 다음 밀영에 찾아가 그들의 훈련과정을 직접 모았는데 지양개에 있을 때보다는 몰라보게 발전했다는 것을 인차 실감할 수 있었다. 소년중대를 조직한 것이 정당한 조치였다는 것을 그 훈련모습만을 보고서도 잘 알 수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들의 놀라운 발전속도는 나를 흐뭇하게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전희가 사령부에 나타나 나에게 귀속말로 ≪장군님 야단났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하고 밑도끝도 없이 하소연을 하였다. 소년중대에서 그 중 키가 작은 한 꼬마가 밤마다 집생각을 하면서 운다는 것이었다.

나는 운다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유격대원들도 다 가정을 가진 인간들인 것만큼 소년중대원들이 집생각을 하는 것은 예사롭게 볼 일이었지만 울면서 집생각을 한다면 문제가 달랐다.

전희의 말에 의하면 꼬마는 중대가 팔도구하를 지나면서부터 시무룩해지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왜 우는가고 물으면 집이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서운해서 그런다는 것이었다. 입대할 때에는 부대가 자기 집 근처에만 활동할줄 알았는데 행군길이 자꾸만 멀어지게 되자 마음이 약해진 모양이였다.

나는 전희에게 귀한 자식 매로 키운다는 말이 있지 않는가. 좀 세게 다불리라고 권고하였다. 전희는 꼬마를 세워놓고 짭짤하게 책망하였다. 그런데 이 책망이 그만 부작용을 일으켰다 꼬마는 더 엇서면서 이번에는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나는 그 꼬마를 사령부에 불러다놓고 정말로 집에 가고 싶은가고 물었다. 꼬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기만 하였다.

나는 꼬마에게 말했다.

≪정 그렇다면 집에 가거라. 그런데 여기서 19도구까지는 아마 몇백 리가 되겠는데 꽤 가내겠느냐?≫

≪오던 길로 졸졸 가면 갈 수 있어요.?≫

대답하는 기세로 보아서는 단순한 투정질 같지 않고 제나름으로 타산까지 다해본 모양이었다.

나는 전회를 시켜 소년중대의 비상미가 몇 되박 들어있는 배낭을 가져오게 한 다음 그것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럼 소원대로 집에 가거라. 집까지 가자면 먹을 것이 있어야겠으니 이걸 가지고 가거라.≫

그것이 중대의 비상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꼬마는 두 눈이 휘둥그래져서 말하였다.

≪싫어요. 그걸 가지고 가면 중대는 뭘 먹고사나요? 난 혼자니까 아무렇게나 먹을 수 있어요. 강냥밭에 들어가 한두 이삭 따먹으면 되거든요.≫

≪그거야 도적질이나 같지. 그런 짓을 할까봐 이 쌀을 가져가라는 거다. 유격대의 밥을 며칠 먹어봤으면 그런 것쯤이야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니? 어서 이 배낭을 가지고 가거라.≫

≪동무들을 다 굶기면서 나만 먹을 순 없어요.≫

꼬마는 기를 쓰고 내가 메워주는 배낭을 벗어놓았다.

≪그런 도리를 다 아는 네가 어쩌면 피흘리며 싸우는 동무들을 산중에 두고 혼자

서 집으로 가는 것이 수치라는 걸 모른단 말이냐. 나는 너희들이 똑똑한 소년들이라고 믿었는데 알고보니 그렇지 못하구나.≫

일이 이 지경으로까지 번지자 꼬마는 울음을 터뜨리었다.

사실 이 애들은 아직 부모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들이었다. 나는 여기서도 일제가 강요하는 있는 민족수난의 일단을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가 집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소년중대원들속에서는 동요가 일어날 것이다.

나는 꼬마가 입대할 때 쓴 맹세문의 내용을 상기시키고나서 그를 타일렀다.


이을설

대장부의 말 한마디는 천근 같이 무겁다는 속담이 있다. 그런데 넌 자기가 다진 맹세를 길가의 막돌처럼 집어던지려고 했다. 사람이 그렇게 약속을 허술히 여기면 되겠느냐. 한번 총을 잡았으면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집에 가야지. 그래야 부모들도 더 반가와 할게 아니냐

꼬마는 집으로 돌아가 생각을 더는 하지 않겠다고 결의하였다.

이런 곡절이 있었던 까닭이라고 할까. 나는 그 후 그를 각별히 돌보아주고 사랑해주었다. 내가 그의 품성가운데서 좋은 점이라고 본 것은 동지애였다. 자기는 굶더라도 중대의 비상미만은 축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우애심이야말로 숫눈이나 나리꽃처럼 정결하고 아름다운 동지애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는 동지애를 혁명가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금석이라고 보았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간으로 되게 하는 인격의 핵이고 도덕적 기초이며 공산주의자들을 다른 인간들과 구별하게 하는 하나의 뚜렷한 징표이다. 만일 인간에게 동지애라는 것이 없다면 그 인생은 기초가 없는 구조물처럼 허물어지고 만다. 동지애가 강한 인간은 설사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쉽게 고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내가 19도구 출신의 그 꼬마에게서 발견한 것은 바로 이 점이였다.

온 부대가 소년중대원들을 친동생처럼 살뜰히 도와주고 보살펴주었다. 구대원들은 그들을 한 명씩 맡아서 진지하게 교양하였다. 매개 소년중대원들에게는 믿음직한 후원자가 한 명씩 생기였다.

가장 성실하고 적극적인 후원자는 역시 중대를 책임진 오일남이었다. 그는 소년들속에서 낙오자가 생길가봐 항상 마음을 썼다. 언제인가 그는 상풍덕에서 입대한 ≪꼬마신랑≫ 김홍수의 발싸개를 싸주는 모습을 보고 나는 크게 감동되었다. 그 때 오일남은 김홍수더러 홍수, 네가 장가를 가는데서는 나의 선배이지만 발싸개를 감는데서는 후배야, 그러니 창피스럽게 생각지 말구 허심하게 배워야 해, 그러나 내가 장가를 갈 땐 문제가 달라, 그땐 네가 선생노릇을 해야지 하고 말하였다. ≪꼬마신랑≫인 김홍수는 오일남에게 발을 완전히 내맡기고 중대장의 손동작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오일남이 김홍수의 생활을 남보다 특별히 잘 돌보아 준 것은 그가 장가를 간 사람으로서 남의 말밥에 오르지 않게 하려는데 있었던 것 같다.

소년중대원들을 위해서는 여대원들도 각별한 사랑과 노력을 기울이었다. 그들도 소년중대원들을 두세 명씩 다 맡아보았다. 여대원들은 소년들을 위해 배낭 속의 물건들을 정돈하는 방법으로부터 시작하여 밥짓는 방법, 우등불을 피우는 방법, 바느질하는 방법, 발바닥의 물집을 없애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따뜻이 보살펴주었다.

소년들을 돕는데서 중대장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열성분자는 김운신이었다. 그

는 당조직에서 이을설을 담당하라는 과업을 받았던 것 같다. 짬이 생길 때마다 이을설을 옆구리에 달고 다니면서 조준연습을 시키는 김운신의 모습은 다른 구대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 그 덕으로 이을설은 명사수가 될 수 있었다. 훗날 이을설이 공산당에 입당할 때 김운신은 보증인으로 나섰다.

구대원들은 행군을 하면서도 소년중대원들을 이끌어주었다. 야간행군을 할 때에는 앞사람을 바투 따라가야 하며 주위에서 나타나는 정황을 잘 살피고 이상이 있으면 제 때에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휴식을 하다가 떠날 때에는 종이쪼박 하나라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상식들은 모두 구대원들의 행군을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김운신

나도 소년중대를 위해서는 있는 성의를 다했다.

나는 물살이 센 강을 건늘 때마다 소년중대의 꼬마들을 업어서 건네주곤 하였다. ≪꼬마신랑≫ 김홍수도 내 등에 업혀 강을 건넌 적이 있다. 장가를 간 새서방이 어린애들처럼 그게 무슨 꼴인가고 놀려주어도 이 천진난만한 신랑은 꿈만해하였다. 나는 소년중대원들과 함께 행군할 때마다 ≪앞에 나무가 있으니 주의하여라.≫, ≪웅뎅이가 있으니 건너뛰어라.≫, ≪조심해서 강을 건너라.≫는 식으로 일일이 잔소리를 많이 하였다.

소년중대원들은 늘 시장기를 느끼면서 살았다. 유격대식사가 집에서 하는 식사보다 나을 리가 만무한 것이다. 어느 때인가 장백에서 임강으로 그들과 함께 행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식량이 부족하여 죽을 많이 쑤어먹었다. 죽을 먹는 날이면 그들은 배가 고파서 헐헐하였다. 작식대원들이 매번 나에게 식사를 따로 차려왔지만 나는 끼니때마다 죽그릇을 들고 소년중대원들의 식탁에 찾아가 그들에게 죽을 덜어주군하였다.

성미가 깔끔한 사무장 전희는 어느 날 울상이 되어 나를 찾아와 제발 그러지 말라면서 죽을 자꾸 덜어주면 사령관동지의 건강이 어떻게 되겠는가, 정 그러면 자기들도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푸념하였다.

나는 이런 말로 그를 달래였다.

≪전희동무, 너무 걱정하지마오. 좀 굶는다고 해서 큰 변이 나겠소. 그러나 소년중대원들은 다르오. 아직 단련이 부족해서 무척 힘들어한단 말이요. 돌을 삼켜도 삭이 나이들인데 죽만 먹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소. 이런 때에 우리가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돌봐주겠소.≫

내가 소년중대원들의 발전을 위해서 제일 관심을 돌린 것은 사상교양이였다. 나는 짬만 있으면 그들의 강사가 되어주었다. 처음에는 글을 모르는 소년들에게 글부터 가르쳤다. 소년들은 명인들의 전기에 대하여 매우 흥미를 가지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명인전을 많이 소개하였다. 그 다음은 우리 나라 망국사를 강의하였다. 소년중대원들 중에는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과 같이 권총이나 수류탄을 차고 다니면서 일본천황이나 조선총독을 제껴버릴 꿈을 꾸는 공상가들도 있었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테러로써는 나라를 독립하지 못한다, 무장투쟁을 축으로 하여 전민항쟁을 벌려야 조국을 광복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이런 소년들에게 우리의 혁명노선을 인식시키자면 인내성있는 노력이 필요하였다.

장백에서 임강을 행군할 때 우리는 수십 차례의 전투를 하였다. 그러나 나는 소년중대원들을 한 번도 전투에 참가시키지 않았다. 그저 먼발치에서 구대원들이 적과 싸우는 광경을 보게 하였다. 언제인가 한 소년중대원이 전장에 있다가 눈먼 총알에 맞아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다. 상처자리가 쑤셔날 때마다 그 소년은 아버지를 찾았다. 나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애의 부모들이 총알을 맞은 자식의 상처를 본다

면 얼마나 가슴아파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오일남을 보고 혁명위업을 계승할 보배들인데 대원들을 아끼고 잘 보살펴주라고 하였다. 우리는 금이야 옥이야 하고 소년중대원들을 보살펴주었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을 귀공자처럼 어루만지기만 한 것은 아니였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엄하게 비판도 하고 구대원들과 생활을 같이하게 하여 단련도 시켰다.

어느 날 밤 나는 숙영지를 돌아보다가 소년중대원들이 신을 벗고 자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규율위반이였다. 우리는 숙영규정을 만들 때 전투원들이 신발을 벗고 자는 것을 금한다는 조항을 하나 만들었다. 적들의 불의습격을 무시로 받게 되는 유격대생활에서 일시적인 불편을 참지 못해 신발이나 옷을 벗고 잔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병들은 숙영지에서 언제나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은 채 총을 가슴에 안고 자군 하였다. 유사시 행동의 민첩성을 보장하기 위해 배낭은 머리에 베고 잤다.


조명선

그날밤 나는 전희를 호되게 비판하였다.

그런 얕은 인정으로는 소년들을 투사로 키워내지 못한다. 만일 이 순간에라도 적들이 달려든다면 신발을 벗고 자는 저 소년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은 발을 상할 수도 있고 얼굴수도 있다. 저 소년들의 부모들은 자식들을 우리에게 맡긴 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부모나 친형, 친누이의 아프고 인정에 그늘이 지더라도 장래를 위해서 소년들을 원칙적으로 키워야 한다.

전희는 그날밤 내가 준 비판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던지 수십 년세월이 지나 우리 군대의 부총참모장의 중책을 지닌 조명선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한다.

≪그때 동무의 발 때문에 내가 비판을 받던 일이 생각나요?≫

조명선은 옛 사무장의 말뜻을 인차 깨닫고 감격에 겨워 말하였다.

≪기억나구만요. 제가 숙영지에서 신발을 벗고 자는 바람에 전희동지가 그만 혁명의 첫걸음을 떼던 소년중대시절이였지요. 고생은 많았지만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에 겪은 고생과 그 시절에 받은 사랑은 한생토록 잊지 못한다. 그 추억은 꺼지지 않은 불빛처럼 따뜻이 인생을 비쳐준다. 반세기도 더되는 오랜 세월이 흘러 그때 14살, 15살이던 소년들이 이제는 어언 70고개를 넘어섰지만 그들은 자기들을 친동생처럼 아끼고 사랑해주던 동지들을 잊지 못한다.

구대원들의 따뜻한 방조와 보살핌속에서 우리의 소년중대원들은 빨리 성장하였다. 그들은 자기들도 구대원들과 같이 전투에 참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하였다. 소년중대원들이 처음으로 참가한 전투가 신방자전투이다. 그때부터 그들은 구대원들과 꼭같이 무수한 격전을 치르었다. 그 과정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

우리가 사전에 아무리 타이르고 열백 가지로 주의를 주어도 싸움만 시작되면 소년중대원들은 어른들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엉뚱한 행동을 하여 손에 땀을 쥐게 하거나 웃음을 터뜨리게 하였다. 평소에는 아주 침착해보이는 소년들도 전투에 돌입하면 어느새 열에 떠서 마구 헤덤비였다. 어떤 소년은 은폐물에 의지하는 것이 성차지 않아 웃도리를 다 드러내고 총을 쏘다가 구대원들에게 덜미를 잡혀 엉덩방아를 찧기도 하였다.

우등불에 새 군모를 태우고 얼마동안 맨머리바람으로 다니던 한 소년중대원은 어찌나 모자생각에 옴했던지 적과 맞다들자 그놈을 쏴눕히기 전에 모자부터 벗기

려고 하다가 하마트면 죽을 번하였다. 보조임무수행중에 노루가 나타나자 참지 못하고 총을 쏜바람에 온 부대가 비상소집을 하게 만든 소년중대원도 있었다.

어려운 싸움의 나날들에 소년중대원들은 전공도 많이 세웠다. 유격대생활의 비상한 정황은 그들로 하여금 보통생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비범한 지혜와 용감성을 발휘하게 하였다.

한번은 전문섭, 이두익, 김익현이 연락을 가다가 위만군 소부대와 맞다들린 적이 있다. 적아가 동시에 상대를 발견한 것만큼 미리 선손을 쓰지 않으면 적에게 포위될 수도 있고 전부 사로잡힐 수도 있는 그런 정황이였다. 이 위기일발의 순간에 소년중대원들은 덤불속에 엎드려 일부러 어른의 굵은 목소리로 ≪제 1중대는 좌측으로, 제 2중대는 우측으로!≫하고 구령을 내리면서 조준사격으로 적을 타격하였다. 소년중대원들은 연락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부대로 돌아왔다.


이두익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런 공을 세우고 돌아와서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였다는데 있었다. 그런 이유로 하여 그 군공은 부대에 인차 알려지지 않았다. 나도 오일남 중대장의 말을 듣고서야 세 소년들이 얼마나 장한 일을 했는가를 알게 되었다.

소년중대원들은 사상의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몰라보게 성장하였다. 그들은 만사를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였으며 구대원들에게 될수록 부담을 끼치지 않으려고 여러 모로 애를 썼다.

소년중대가 조직된 그 해 가을 김익현은 우등불곁에서 자다가 종다리에 화상을 당한 일이 있다. 게다가 눈병까지 만나 고생을 많이 하였다. 그가 앞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대원들은 행군할 때마다 그를 부축해가지고 다니었다. 김익현은 종다리가 몹시 쑤셔났으나 나나 구대원들에게 시름을 끼치지 않으려고 아프다는 내색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다리의 화상 때문에 고생한다는 것을 인차 간파하고 그에게 약을 보내주었다. 김익현의 화상자리를 보고 나는 그의 의지와 참을성에 감탄하였다.

항일전쟁의 전기간 우리의 소년중대원들은 나이나 체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구대원들 못지 않게 잘 싸워 무장투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일본 군경들은 소년중대를 거친 유격대원들과는 말도 말라고 하였다. 소년중대 출신과는 맞서지 말라는 것이였다.

김일의 도움으로 어린 나이에 입대한 김성국의 실례를 들어보자.

김일은 오래동안 간삼봉아래부락에 들어가 지하공작을 하였는데 그곳 조국광복회원인 김상현의 방조를 받으면서 많은 일을 하였다. 김상현은 김일을 자기의 농막에 3개월동안이나 숨겨주면서 그의 일을 성실하게 도와주었다. 그런데 그 농민은 홀아비였다. 안해가 죽은 다음 셋이나 되는 자식건사를 할 수 없어서 그들을 남의 집 머슴으로 주었다. 그 세 아들 중의 맏이가 바로 김성국이었다.


김익현

김일은 이 불쌍한 일가를 도와줄 방도가 서지 않아 고심하던 끝에 김성국을 유격대에 추천해보내기로 결심하였다. 어느 날 그는 김성국이 김을 매고 있는 밭에 찾아가 나에게 보내는 소개신을 주면서 나를 찾아가라고 하였다. 그렇게 되어 소년 김성국은 호미를 던지고 토스레옷차림으로 나를 찾아와 유격대에 입대하게 되었다.

어려서 남달리 고생을 많이 해온 김성국은 눈썰미가 빠른데다가 담차고 이악해서 사격술도 빨리 익히고 유격대의 행동규범도 빨리 터득했다. 몇 달 후에는 기관총

사수인 오백룡의 부사수로 뽑히었다. 김일은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를 늘 보살펴주었다.

송화강변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던 때의 일이었다. 그 때 김성국은 한동안 방차대에 나가있었다. 한번은 그가 우등불에 발을 쪼이다가 발바닥이 따가와서 신을 벗은 적이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순간에 적들이 달려들었다. 김성국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급히 송화강얼음판에 나가 기관총을 걸어놓고 적들에게 몰사격을 퍼부었다. 그는 자기가 신도 신지 않고 맨발바람으로 달려나와 싸움판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연대정치위원
김일

그가 총을 쏘는데만 몰두해있을 때 등뒤에서 누구인가 그의 발을 잡아당기였다.

김성국은 벅컥 화를 내며 뒤를 돌아보았다. 뜻밖에도 김일이 내의를 찢어 자기의 발을 싸매주고 있지 않는가, 그때에야 김성국은 자기가 맨발로 싸움판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적들이 퇴각해간 다음 김일은 이게 무슨꼴이냐, 발을 잘리고 싶어 그러느냐고 하면서 그를 책망하였다.

김일이 전투를 끝내고 돌아와서 나에게 하는 말이 김성국이 기관총을 메고 송화강얼음판을 내달리는데 뒤에서 보니까 발이 얼음에 붙었다가 떨어질 때마다 짜작짜작 하는 소리가 나더라는 것이었다. 추운 겨울날 맨발바람으로 얼음판에서 기관총을 냅다갈기는 김성국도 보통내기가 아니었지만 탄우를 무릅쓰고 전장에까지 뒤쫓아가서 내의를 찢어 어린 사수의 발을 싸매준 김일 역시 보통사람이 아니었다. 그때 김일이 그렇게 해주지 않았더라면 김성국은 틀림없이 발에 큰 동상을 입고 날개없는 새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는 후에 나와 김일의 보증으로 공산당에 입당하였다.

그가 얼마나 혁명에 충실한 투사였는가 하는 것은 소부대활동시기의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잘 말해주고 있다. 1940년대 전반기는 매개 유격대원들의 추호의 동요도 없이 잘 싸웠다. 지하공작임무를 받고 국내에 드나들던 김성국이 한번은 혼자서 나진시내에 들어갔다가 별치않은 실수로 경찰들에게 단속된 일이 있었다. 거리에서 비를 만난 그는 상점에 들어가 우산을 샀는데 그것이 그만 여자용양산이었다. 가재수라는 산골에서 어려서부터 고역에 시달려온 김성국은 우산과 양산이 다르다는 것을 몰랐다. 그가 상점에서 쓰고나온 여자용양산은 대뜸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얼마나 수상스럽게 보였는지 지나가던 경관이 그 양산을 가리키며 어디서 훔쳤는가고 물었다. 김성국은 사실대로 상점에서 산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왜 여자용을 샀는가라는 경관의 물음에 그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부탁해서 사가는 길이라고 슬쩍 둘러대었다.

그러나 경관은 김성국을 경찰관주재소까지 끌고가서 짖궂게 심문하였다. 김성국은 의자를 들어 경관을 때려눕히고 뛸 궁리도 해보았으나 단념하였다. 그렇게 하면 시내에서 지하공작을 더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자기를 대신하여 다른 공작원이 또 사선을 넘어 나진에 침투해야 하였다.

김성국을 붙잡아온 경관이 시내순찰을 하려고 밖으로 나가자 이번에는 딴 경관이 그를 심문하였다. 순사는 심문중에 책상서랍을 열어보다가 동료순사가 김성국한테서 압수한 수백 원의 공작비를 발견하고는 돈이 탐나서 얼른 그를 놓아주었다.

다음해 여름에도 김성국은 소부대공작을 나갔다가 아슬아슬한 고비를 겪었다. 공작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돌아가던 그는 적들과 맞다들어 총격전을 벌이던 끝에 여러 군데나 부상을 당하였다. 김성국이 골짜기로 내려와 풀숲에 숨어있었기 때문

에 적들은 그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나는 임철을 책임자로 하는 소조를 파견하여 김성국을 찾게 하였다. 상처를 여러 군데나 입은 김성국이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은 것은 기적이였다. 그는 의식을 잃는 순간까지 풀을 뜯어먹었다고 하였다.

김성국이 훈련기지로 돌아온 다음 우리는 해당기관과의 연계밑에 그를 쏘련의 한 야전병원에 후송하였다. 김성국은 그 병원에서 1년동안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였다. 병원의 의료일군들과 환자들은 모두 그를 극진히 돌봐주었다. 특히 담당간호원처녀는 김성국을 조선빨치산의 불사조라고 하면서 수혈도 해주고 낮에 밤을 이어 헌신적으로 간호해주었다.


김성국

그 간호원은 독일처녀였다. 반파쑈투사인 아버지가 히틀러도당에게 총살당한 후 어머니와 함께 쏘련에 온 망명자였다. 처녀는 김성국을 동방약소민족의 투사로 존대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었다. 그의 치료를 위한 일이라면 마른일 궂은일 가리지 않고 도와나섰다. 위생실출입을 거들어주고 세수를 시켜주었으며 식사시간에는 밥을 먹여주었다. 환자가 회복기에 들어서자 처녀는 그의 식욕을 돋구어주려고 집에서 닭을 잡아 구미에 맞는 음식을 지어왔다.

퇴원하는 날 처녀의 어머니가 병원에 찾아와서 그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였다. 환자가 병원생활을 끝내면 요양을 하는 것이 상례인데 자기 집에서 며칠동안 영양보충을 하다가 가라고 하였다. 김성국은 초청을 쾌히 받아들이었다.

처녀의 어머니는 그 거리의 미술학교 교원이었다. 그 여자는 시베리아의 사나운 기후조건에서도 닭을 수십 마리나 기르고 있었으며 다년생 고추나무도 재배하였다. 모녀는 하루에 한 마리씩 닭을 잡아 여러 가지 요리를 하여 김성국의 밥상에 놓아주었다. 그들은 짬만 있으면 김성국에게 조선빨치산의 투쟁이야기를 들려달라고 간청하였다. 처녀와 그의 어머니를 제일 감동시킨 것은 10대의 어린 나이로 혁명의 폭풍우속에 몸을 내던진 소년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들은 나이 어린 소년들이 유격투쟁을 하는데 대하여 매우 신비롭게 생각하였다. 처녀의 어머니는 조선의 투사영웅을 그려 구라파에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화판에 김성국의 얼굴모습을 자주 옮기었다.

김성국이 요양생활을 하는 기간 처녀는 그를 통하여 조선을 이해하였고 조선의 역사를 이해하였으며 조선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을 이해하였다. 김성국을 알게 된 때로부터 처녀는 조선을 사랑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소년대원들에 대한 말만 듣고도 당신네 나라가 일본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리는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였습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일본을 타승하고야 말 것입니다.≫

처녀는 이 말을 몇 번이고 곱씹었다.

김성국이 부대로 돌아올 때 모녀는 쏘련의사들과 함께 멀리까지 따라나와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모녀는 김성국에게 작별기념으로 많은 저금액이 기입되어있는 저금통장을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김성국은 그 호의를 굳이 사양하였다.

처녀의 어머니는 이별의 마당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

당신은 아직 더 쉬어야 할 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상 붙잡아두지 않겠다. 우리가 아무리 만류한들 당신이 우리 집에 남아있겠는가. 당신 같은 투사들을 가지고 있는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나는 김성국의 귀환담을 듣고 그에게 기울인 독일처녀와 그 어머니의 국제주의

적 소행에 크게 감동되였다. 그래서 김성국에게 돈과 돼지고지를 주어보내여 조선인민혁명군의 이름으로 감사를 표시하게 하였다.

소년중대가 얼마나 훌륭한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쓸모있는 군사정치학교였는가 하는 것이 김철만의 실례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김철만은 지양개일대에 소부대공작을 나갔던 ≪대통영감≫을 따라 우리를 찾아와 소년중대에 입대한 사람이였다. 그가 처음으로 내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대통영감≫을 나무랐다. ≪장총키보다 더 작은 애숭이를 부대에 데리고 오면 처리는 어떻게 하랍니까?≫하고 답답한 소리를 했더니 이동백은 펄쩍 뛰면서 애숭이라니요, 그 애 나이가 지그만치 17살이나 됩니다, 키는 작아도 속은 영감이 다 된걸요 하면서 김철만을 두둔해주었다.


김철만

나는 처음에 김철만이 ≪대통영감≫앞에서 자기의 나이를 속였다고 생각하였다. 내 눈에는 그가 12살 아니면 13살쯤 되는 아이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를 보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설복하였다.

그러나 김철만은 씨물씨물 웃으면서 ≪장군님, 키가 작다고 얕보지 마십시오, 이래뵈두 못해본 농사가 없습니다.≫하면서 팔뚝을 흔들어보이였다. 그의 팔뚝은 과연 다른 아이들보다 힘살이 더 있어 보였다. 김철만은 소년중대에 입대한후 무슨 일에서나 앞자리를 차지하였다. 소년중대가 해산된 후에는 7연대에 가서 오중흡연대장의 전령병으로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였다. 오중흡이 전사하였을 때 제일 눈물을 많이 흘린 대원이 바로 이 김철만이었다. 그는 오중흡의 후임으로 연대장이 된 오백룡의 신변호위를 위해 각별히 마음을 썼다.

김철만을 소부대활동기간에도 줄곧 오백룡이 인솔하는 소조에 망라되어 쏘만국경과 두만강을 뻔질나게 넘나들며 반일항쟁역량을 묶어세우기 위한 정치공작과 적의 군사요충지들에 대한 정찰활동을 과감히 벌이었다.

항일의 불바다속에서 단련된 군사지휘관으로서의 김철만의 담력과 재능은 반미전쟁시기에 남김없이 발휘되었다. 그는 1차 남진의 길에서도 잘 싸웠지만 적후투쟁도 잘하였다. 그가 지휘하는 연대는 양구, 춘천, 가평, 통천, 포항, 청송, 군위를 비롯한 강원도일대와 경상북도일대의 천여 리에 달하는 광활한 지역을 종횡무진으로 누비며 적들을 배후에서 연속적으로 타격하였다.

적아간에 밀고 밀리는 싸움이 얼마나 격렬하게 벌어졌던지 그 당시 양구지방 인민들은 가을걷이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김철만은 양구를 해방하자 군내 간부들을 다 불러다놓고 배포유하게 가을걷이조직부터 하였다. 양구군의 인민들은 그의 연대와 함께 며칠사이에 밭에 서있는 곡식을 다 베어들이었다.

김철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당의 신임과 사랑을 받는 군사정치일군으로 자라날 수 있은 것은 수령님의 덕이다, 수령님께서 나를 소년중대에 받아들여 친부모의 사랑으로 키워주고 돌보아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름도 없는 초부나 농사군으로 남아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고 한다.

나는 그 말을 그의 진심의 고백이라고 생각한다.

소년중대에는 망라되지 않았으나 그들과 비슷한 나이에 무장을 잡고 유격대에서 싸운 꼬마대원들도 항일전쟁의 승리에 당당하게 기여하였다.

김병식은 15살 때 차굴공사장에서 노동을 하다가 단신으로 유격대에 찾아와 입대한 당돌한 소년이었다. 참군후 한동안 문붕상과 최춘국의 전령병으로 활동하였는데 지휘관들이 그를 날파람있는 싸움군이라고 하면서 몹시 총애하였다.

김병식은 적후공작에 자주 파견되어 많은 공을 세웠다. 그는 경계가 삼엄한 두만

강을 휘파람을 불며 마음대로 넘나들었고 웅기(선봉), 나진, 회령을 비롯한 조선의 북부국경도시들을 이웃마을 다니듯 하였다. 그가 목숨을 내대고 국내에 들어가서 수집해가지고 온 적정자료들은 우리의 조국해방작전준비에 큰 도움을 주었다. 해방 전야에 김병식은 불행하게도 적들에게 체포되였다. 일본의 교형리들은 그가 한 모든 일이 자기네 제국의 밑뿌리에 시한탄을 파묻는 것과 같은 엄청난 것임을 알고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였다. 사형은 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였다. 적들도 아마 그가 미성년이라는 것을 고려한 것 같다.

김병식은 서대문형무소에서 제일 나어린 ≪죄수≫로 되였다. 그는 잡역노동에 끌려나갈 때마다 그 감옥에서 복역중이던 권영벽, 이제순, 이동걸, 지태환, 박달, 서응진 등의 감방을 오가면서 연락원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다. 적들은 그를 귀순시켜보려고 고문도 하고 위협도 하고 구슬려도 보았지만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였다. 그는 절개가 강한 투사였다.


김병식

항일혁명투사들 가운데서 제일 어린 나이에 입대한 사람은 이종산과 이오송이었다. 이종산은 11살 때 항일연군 3군에 입대하여 유격대원이 되였다.

이종산이 혁명군에 찾아갔을 때 그의 입대심의를 한 사람은 3군 정치주임이였던 풍중운이였다. 풍중운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하였다. 11살 나이에 군인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였다. 게다가 이종산은 키도 작았다. 나이는 한두 살 속인다 해도 키를 속이는 방법은 없었다. 그러나 이종산은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끝끝내 풍중운의 허락을 받아내고야 말았다.

그는 입대 후 만사람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군인생활을 잘하였다. 부대의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눈썰미가 빠르고 동작이 민첩하고 일욕심이 많은 그를 친동생처럼 한결같이 아끼고 사랑하였다. 이종산은 3군에서 주로 전령병생활을 하였다. 한때는 김책과 박길송의 수하에서 전령병으로 복무하였다.

김책이 좋은 부관감이라고 하면서 이종산을 나에게 처음으로 소개한 것이 1943년경이라고 기억된다. 그때로부터 이종산은 나의 측근에서 많은 세월을 보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것은 김책이 그의 출생과 관련하여 나에게 여담삼아 들려준 이야기이다. 이종산네 가정은 원래 평양 팔동교에서 살았는데 내가 창덕학교를 다니던 무렵에 만주로 들어갔다고 한다. 만삭이 된 어머니가 심양행 열차에서 낳은 새 생명이 바로 이종산이였던 것이다. 산모에게는 포단도 없고 기저귀도 없었다. 그래서 승객들이 한잎두잎 돈을 모아서 그에게 주었다. 이종산의 어머니는 그 돈으로 갓난애의 옷을 가까스로 마련하였다.


이종산

해방 후 이종산은 손종준 등과 함께 나의 부관으로 여러 해 동안 사업하였다. 그는 부관으로 임명되자마자 담배부터 끊었다. 나의 건강을 생각해서였다. 10년 이상이나 붙여온 습관을 일조일석에 떼버린다는 것이 말처럼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은 아니다.

우리가 청구자에서 군정간부들을 3군에 파견할 때 그 성원들 중에는 왕청유격대에서 분대장으로 복무하던 오중흡의 동생 오중선(오세영)도 포함되어있었다. 오중선은 3군에 가서 대대정치위원을 하다가 어느 전투에서 적탄에 오른쪽 지시손가락을 잃어버리였다. 그가 마라초를 피울 때면 이종산이 대신해서 담배를 말아주고 다른 대원들한테 뛰어가서 불도 붙여주곤하였다. 불을 붙이자면 상대방의 담배대에

담배대를 대고 한두모금씩 연기를 빨아들여야 하는데 그러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애연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내가 이따금씩 담배를 권해도 이종산은 받지 않았다. 나는 그가 금연의 도리를 지키는 것을 보고 감탄하였다.

우리와 함께 항일혁명의 험난한 고개들을 수없이 넘어온 나어린 유격대원가운데는 1936년 봄에 여성소대를 인솔하고 미혼진에 나타났던 태병열도 포함되어있다. 그가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처음으로 총을 멘 것이 15살인가 16살 때였다고 한다.


태병렬

그에게는 ≪고추알≫이라는 별명이 늘 붙어다니였다. 키도 작고 몸집도 작지만 속은 다 영글었다는 뜻이다. 태병열은 싸움도 맵짜게 하였고 생활도 모가나게 하였다. 그는 항일유격대에 입해한 후 묘영전투, 금창전투, 간삼봉전투, 무치허전투, 대포시하전투, 대사하, 대장강전투, 액목현성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에 참가하여 노병들에게 짝지지 않는 자랑할만한 무공을 세웠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백발백중의 사격술은 이런 무공을 세우는 과정에 실전을 통하여 연마한 것이었다. 태병열이 이용운연대장과 함께 돈화현의 어느 집단부락에 들어가 30여명의 위만군을 눈깜짝할 사이에 녹여낸 무훈담은 지금도 항일투사들속에서 흥미있는 이야기거리로 전해지고 있다. 그가 솜씨있는 싸움군이었기 때문에 하다하는 노병들도 그를 나이가 어리다고 감히 얕보지 못하였다.

항일전쟁의 나날에 태병열은 주로 안길, 전동규, 이용운을 비롯한 군정간부들의 전령병으로 활약하였다. 많은 군정간부들이 눈썰미가 빠르고 책임성이 높고 일욕심이 많은 그를 제가끔 자기의 수하에 두고싶어하었다.

태병열은 전령병으로 있을 때 지휘관들의 신변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돌렸다.

지휘관들이 위험한 모퉁이에 뛰어들려고 할 때마다 태병열은 그러지 못하게 두팔을 벌이고 막아나섰다. 모험을 하지 말라는건 장군님의 요구인데 그 요구를 어기면 되겠는가로 총알같이 내쏘군하였다. 대사하, 대장강전투 때 전동규연대장이 전사한 것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탄막속에 몸을 내대는 모험을 했기 때문이다.

안길은 태병열이 자기 옷섶에 매달리면서 모험을 하지 말아달라고 애걸할 때 그의 말을 들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자기도 전동규처럼 죽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소할바령회의 후 소부대활동에 참가하였던 태병열은 왕청현의 어느 깊은 수림속에서 적 대부대와 불의에 맞다들어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가 허벅다리에 중상을 당하였다. 뼈짬에 총알이 들어가 박혔는데 그것을 끄집어낼 도리가 없었다. 출혈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는 이따금씩 실신상태에 빠지기도 하였다. 총상자리에서는 구데기까지 우글우글해서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다. 제때에 처치를 하지 않는다면 뱃이나 방광까지 곪아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 그런데 간호병의 의무를 받고 밀림에 떨어진 왕가대원은 수술은 커녕 아무런 의학상식도 없는 사람이었다.

태병열은 막돌에 손칼을 선뜩선뜩하게 갈아가지고 그 칼로 총상자리를 수술하였다. 상처속에 칼을 집어넣고 힘있게 잡아 돌리자 싯누런 농즙과 함께 썩어문드러진 살과 뼈짬에 박혔던 총알이 섞여나왔다. 이런 모험의 덕으로 그는 자기자신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었다.

이듬해에 왕청의 공작지에서 나를 만난 태병열의 전우들은 그가 스스로 자기 다리를 수술하던 전말을 이야기하면서 ≪저 친구는 독종입니다.≫하고 말하였다. 독종이라는 것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는 뜻일 것이다. 나는 태병열에 대한 전우들의

평가가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 상처를 치료한다는 것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뛰어난 담과 용기를 필요로 하는 모험이다.

나는 오랜 기간의 공동생활을 통하여 그가 실지로 독하고 담이 큰 사람이며 혁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맹호가 되어 투쟁하는 충직하고 결패가 있고 원칙적인 인간이라는 견해를 가지게 되였다. 그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항상 원칙을 견지하였고 부정과 타협하지 않았다. 그가 제일 증오한 것은 종파분자들과 군벌주의자들이였다. 태병열이 대가 세고 당성이 강한 사람이였기 때문에 김창봉과 같은 군벌주의자도 그에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하지 못하였다.

태병열은 항일전쟁 때에도 잘 싸웠지만 조국해방전쟁 때에도 많은 공로를 세웠다. 전후에는 부관이 되어 측근에서 나의 사업을 성실하게 뒤받침해 주었다.

초년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산다는 속담도 있지만 태병열이 이처럼 온갖 풍상고초를 다 이겨낸 혁명가로 성장할 수 있은 것은 어린시절에 잡은 총대의 덕분이였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무장투쟁을 하게 되면 쇠소리가 나는 혁명가가 된다. 그리고 물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철같은 인간이 된다.

반년사이에 소년대원들은 구대원들 못지 않은 전투원들로 성장하였다. 그들의 발전은 실로 놀랄만한 것이였다.


강건

우리는 그들이 군인다운 틀걸이를 갖추게 되자 1937년 말경에 소년중대를 해산하고 그 성원들을 다른 중대들에 배속시키였다. 그 조치로 하여 소년중대원들은 예비군으로부터 기본부대전투원으로 될 수 있었다.

소년중대원출신의 유격대원들가운데는 배신자나 낙오자가 한 명도 생기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얼마나 충실하였는가를 실증해준다. 지구의 동쪽과 서쪽에서 파쑈가 최후의 광태를 부리던 해방 전야의 그 엄혹한 세월에도 그들은 나와 함께 소부대활동을 충실하게 하였다. 새 조선 건설의 나날에는 그들이 사단장도 되고 연대장도 되어 혁명선배들과 함께 이 나라의 무력을 건설하였으며 미국의 장군들과 탱크들을 함정골에 몰아넣고 족쳐버리였다.

인민군대의 초대총참모장이였던 강건도 16살에 혁명군에 참가한 사람이였다. 그는 30살에 총참모장이 되였다. 강건은 1948년말에 쏘련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를 영접하기 위해 비행장에 나온 상대국의 대장, 원수급의 고위간부들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놀라움을 숨기지 않았다.

강건이 조국에 돌아와 그 이야기를 하였을 때 나는 웃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동무가 아이적에 벌써 소문난 군인이였다는 걸 이야기해주었을거요.≫

나는 소년중대를 조직한 후부터 사람의 생리적 연령과 정신적 연령을 완전히 갈라보기 시작했다. 그 두 연령가운데서 내가 기본으로 본 것은 정신적 연령이였다. 청소년기의 정신적 연령은 한 해에 두 살, 세 살, 지어는 다섯 살씩 늘어날 수도 있다.

청소년교양은 나라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또 하나의 천하지대본이다. 소년중대의 경험이 보여주고 있는바와 같이 혁명의 계승자, 후비군의 준비는 이를수록 좋고 잘할수록 좋다.

7. 혁명적 의리에 대한 생각


임춘추

서간도와 백두산지구에서 이루어진 항일혁명의 고귀한 열매는 그 하나하나가 다 피어린 투쟁속에서 마련된 것이였다. 혁명이 심화발전될수록 그것을 파괴하기 위한 적들의 공세도 비할바없이 극렬해졌다. 중일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그 중하에 짓눌려 허우적거리면서도 현대군사과학이 쌓아올린 모든 최신성과들과 수십년에 걸치는 폭압정치와 영토팽창을 통하여 련마한 파시스트적인 억압수단을 모조리 동원하여 우리 혁명을 압살하기 위하여 발악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계략이나 권모술수도 우리의 전진운동을 멈춰세우지는 못하였다.

원쑤들이 힘으로 혁명을 압살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영활한 전법과 묘술의 힘, 동지적 단결과 혁명적 의리의 힘으로 적들을 타승하였다. 그리고 적들이 폭압에 미쳐날뛸수록 인민들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였고 우리 내부를 사상적으로 와해하려고 할수록 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도덕의리적 단합을 더욱 굳건히 하였다.

의리는 인간본연의 도덕적 관념이다. 낡은 사회에서도 참된 사람들은 의리를 중시하였고 그것을 인간의 기초적인 표정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종래의 낡은 사회의 도덕규범에는 어느 일방이 타방을 구속하고 타방은 그 일방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불평등이 설교되고 있으며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억제하는 제동기가 장치되어 있었다. 낡은 사회의 도덕규범은 애민이라든가 위민과 같은 진보적인 요구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혁명투쟁을 하는 과정에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이러저러한 봉건적인 인간관계와 도덕규범을 타파하고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관계와 도덕규범을 창조하였으며 그것을 후대들에게 하나의 재부로 물려주었다.

항일유격대에서 상하관계, 동지관계, 군민관계를 지배한 것은 사랑과 믿음에 기초한 공산주의적 의리였다.

이 세상에는 수천, 수만 가지의 법이 있다.

하지만 천갈래만갈래로 엮어지는 인간의 무한대한 실천활동을 법 하나만으로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법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만능의 무기가 아니다. 사람의 사고나 행동가운데는 법으로 다스릴 수 없는 그런 분야도 있다. 사랑이나 우정을 법으로 다스릴 수 있겠는가. 만일 법기관이 법령을 발포하여 오늘부터 너는 누구를 사랑하고 너는 누구를 친구로 삼으며 너는 누구를 안해로 맞아들이라고 강요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법의 힘만으로는 세상만사를 다 총찰할 수 없다. 법이 못하는 일을 법을 대신해서

해내는 것이 바로 의리와 도덕이다.

우리는 동지를 얻는 것으로부터 혁명을 시작하였고 동지적 의리와 단합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혁명을 부단히 심화시키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난날에도 동지애는 우리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생명선이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걸어온 수십성상의 영광스러운 투쟁노정은 동지애와 동지적 의리의 발전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다.

우리의 대오는 치부나 투기를 위해 모인 오합지졸이 아니라 조국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하나의 지향과 목적을 가지고 뭉쳐진 혁명가들의 집단이었다. 사상과 이념의 공통성은 우리로 하여금 처음부터 생사를 같이하게 하였다. 그런 것만큼 우리의 대오에는 동상이몽하거나 양봉음위하는 사람들이 있을 자리가 없었다.

동지애와 동지적 의리를 중시하는 것은 집단주의를 생명으로 하는 우리 대오의 존재방식인 동시에 본질적 요구이기도 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한 자루의 총, 한 포대의 쌀, 한 켤레의 신발을 구하기 위해서도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았다. 그 과정에 그들은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혁명적 신념과 함께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가장 고상한 공산주의적 윤리를 창조하였으며 단결이 곧 승리라는 하나의 진리를 도출하게 되었다.

항일혁명은 인류가 아직 한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혁명이었다. 그것은 간고성과 치열성에서 그 어느 시대의 혁명과도 대적할 수 없는 풍파사나운 혁명이었다. 우리가 걸어온 그 장구하고도 곡절많은 노정에는 여러 대를 두고 내려가면서 살아도 다 겪을 수 없는 온갖 곤란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난관이 겹쌓이고 시련이 중첩될수록 동지적 단결의 구호를 높이 들었다. 그리고 동지애의 힘으로 그 모든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갔다. 우리는 우리를 고립압살하려는 적들의 전략에 혁명적 의리와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나갔다.

항일혁명시절의 의리가운데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영도자와 대중사이의 의리이다. 우리는 조선혁명에서 통일단결의 중심이 형성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영도자와 대중과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리었으며 영도자와 대중의 혼연일체와 도덕의리적 결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우리가 강조하는 영도자와 대중의 관계는 옛사람들이 쓰던 군신유의류의 의리와는 다르다. 군신유의란 임금과 신하사이에 의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영도자와 대중의 호상관계는 한 마디로 일심일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영도자는 대중을 위해 복무하고 대중은 영도자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영도자와 대중사이에 흐르는 우리 식의 공산주의적 의리이다.

새 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우리를 통일단결의 중심에 내세우고 영도자와 전사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민족의 운명개척을 위해 투신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였다.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 혁명투사들이 지니고 있던 공산주의적 의리가운데서 핵을 이룬 것이 바로 자기 지도자, 자기 사령관에 대한 충실성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은 파쟁이라는 것도 몰랐고 권력다툼이라는 것도 몰랐다. 일단 영도의 중심을 내세운 다음에는 곁눈을 팔지 않았다. 그리고 영도자에게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였다. 여기에 바로 그들이 지니고 있던 공산주의적 의리의 순결성이 있다.

김혁, 차광수 등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하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간고한 항일혁명전쟁시기 우리와 함께 전장에서 싸운 수많은 항일유격대원들은 하나같이 순결한 의리의 소유자, 고상하고 아름다운 도덕의 창조자들이었다.

항일혁명투사들의 의리를 두고 론할 때면 김일의 얼굴을 먼저 돌이켜보게 된다.

김일은 50년 가까운 세월을 폭풍우속에서 보낸 사람이다. 그는 나와 함께 항일전쟁도 하였고 새 조국건설도 하였다. 반미전쟁도 하였고 사회주의건설도 하였다.

항일혁명시절의 김일은 사업경험이 풍부한 로숙한 정치일군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져있었다. 그는 안도와 화룡 지방을 중심으로 간도일대에서 지하당사업과 반일부대공작을 많이 하였다. 그 과정에 수많은 혁명가들을 육성하였다.

김일은 백두산시절에 두의순, 손장상, 전영림 등의 두령들이 지휘하는 반일부대들을 차례로 돌아다니며 공작하였는데 성과가 매우 좋았다. 그가 얼마나 공작을 잘하였던지 안도의 전영림은 부대를 데리고 인민혁명군에 편입하여 우리와 함께 싸울 결심을 하였다.


김일

김일은 처음에 전영림부대를 무송으로 안내하였다. 우리 부대가 그 쪽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부대를 이끌고 무송지구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만강을 떠나 장백지방에 가있었다. 이렇게 되자 반일부대대원들은 김일이 자기네를 속였다고 하면서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다가 식량난까지 겹쳐 김일은 참으로 딱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대장이하 전대오가 사흘동안이나 변변히 먹지 못하고 행군을 계속하고 있을 때 몇몇 대원들이 어떤 산중에서 인삼밭을 발견하였다. 아사지경에 이른 대원들은 대장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무질서하게 달려들어 인삼을 캐먹기 시작하였다. 인민혁명군의 지휘성원인 김일로서는 실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였다. 그는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인삼을 캐먹는 것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떳떳치 못한 행위라고 하면서 두팔을 벌이고 대원들을 막아나섰다.

이성을 잃은 반일부대대원들은 전영림을 찾아가 박덕산(김일의 본명)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다. 그는 처음에 **김일성**부대가 무송에 있다고 했다. 그런데 무송에는 **김일성**부대가 없다. 이런 엄청난 거짓말에 속아넘어가면서 우리가 박덕산을 계속 따라갈 필요가 있는가. 그가 지금은 김장군부대가 장백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그것도 믿을 수 없다. 박덕산은 우리가 인삼을 캐먹는 것까지도 방해하고 있다. 이것이야 우리를 굶겨죽이려는 수작이 아니고 무엇인가. 저 박가를 그대로 따라다니다가는 우리가 무슨 봉변을 할지 모른다. 그러니 저놈을 제끼고 안도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였다.

김일은 반일부대사병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좋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겠거든 죽이라, 그 대신 청이나 하나 있다, 내가 인삼밭주인을 찾아가서 사죄하고 돌아올 터이니 그 때까지 기다려달라, 그 대신 인삼은 더 축내지 말아달라, 인삼을 더 축내면 그것을 보상할 돈이 없다고 하면서 태연하게 그들을 설복하였다.

김일의 언행에 감동된 전영림부대장은 서슴없이 그를 보증해나섰다. 그는 인삼밭에 두 번 다시 손을 대는 놈이 있으면 총살하겠다고 하면서 김일을 포전주인한테로 보냈다.


홍두산

양삼포전주인을 데리고 부대로 돌아온 김일은 배낭을 풀어헤치고 초전주인이 쪄준 만두를 대원들에게 나누어준 다음 그에게 아편덩어리를 내놓으면서 자기에게는 이 아편밖에 없으니 만두값과 대원들이 캐먹은

인삼값으로 받아달라고 하였다. 그 아편덩어리는 왕덕태가 비상용으로 쓰라고 김일에게 준 것이었다. 포전주인이 몇 번이고 사양했으나 그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동된 인삼밭주인은 산에 저장해둔 겨울나이용식량을 다 내놓았고 전영림부대를 만강까지 안내해주었다. 만강에 도착한 반일부대대원들은 김일한테 찾아와 잘못을 사죄하고 용서를 빌었다.

나는 반일부대를 데리고 백두산지구에 온 김일을 홍두산밀영에서 만나주고 전영림부대를 우리 주력부대에 편입시키였다.

김일은 답답하다고 할 정도로 과묵한 사람이었다. 첫달 밀영에서 담화를 할 때 혁명에는 언제 참가했고 어떤 투쟁을 했는가고 물어보니 혁명에는 1930년초부터 참가했는데 별로 해놓은 일이 없다는 외마디대답만 하였다. 아무리 물어보아야 해양같은 대답이였다. 첫 대면이지만 지나치게 과묵하고 사교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그의 장점이기도 하고 흠이기도 하였다.

김일의 성격에서 좋은 점은 가식이 없고 고지식한 것이였으며 어떤 풍파가 있어도 드놀지 않고 한본새로 충실하게 일하는 것이었다. 그는 한평생 조건타발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저 시종일관 입을 꾹 다물고 수걱수걱 일만 하였다.

김일은 우리의 명령, 지시에 대한 집행을 상급앞에 지닌 하급의 의무로만 간주한 것이 아니라 영도자에 대한 전사의 의리로 여기는 진짜배기혁명가였다. 그는 무슨 일이건 의리감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임무수행에서 큰 파동은 없었다.

마당거우밀영에서 김일을 8연대 1중대 정치지도원으로 임명하던 때의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8연대 1중대 정치지도원의 임무가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연대장 전영림은 전해에 휘남현성전투에서 희생되고 연대정치위원마저 적임자가 없어 배치하지 못한 형편에서 1중대 정치지도원은 임시로 연대정치위원의 임무까지 겸임해야 하였다. 중대장도 사업에는 충실한 사람이었는데 수준이 어리였다.

나는 이런 실정을 그대로 다 이야기 하고나서 동무가 어떤 위치에서 일하게 되는가를 알만한가고 물었다. 김일은 심중히 생각하던 끝에 ≪알았습니다≫하는 외마디대답을 하고는 임을 꾹 다물어버렸다. 그가 과업을 받을 때의 태도를 보면 언제나 한본새였다. 무거운 일이건 가벼운 일이건 매양 ≪알았습니다≫하는 한마디의 말로 받아들이었다. 그리고는 구구한 말을 하지 않았다.

김일의 사업을 도와주려고 다음날 1중대로 찾아갔더니 그는 없고 중대장만 있었다. 중대장의 말이 김일은 새 직무에 배치되기 바쁘게 1소대가 주둔하고 있은 무송현 북강군으로 떠났다고 하였다. 내가 그전날 김일을 중대정치지도원으로 임명할 때 무송에 나가있는 1소대의 소식이 없다는 것을 지나가는 말처럼 얼핏 비치였는데 그 말을 깊이 새겨두었다가 북강룬에 가서 1소대의 실태를 알아볼 결심을 한 것 같았다.

김일은 다음날새벽 숱한 식량과 무기를 가지고 중대로 돌아왔다. 그가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나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당거우에서 북강군까지는 100리길이 잘된다. 김일이 중대로 돌아온 것이 분명하다면 그는 하루낮하루밤사이에 왕복 200리길도 훨씬 넘는 강행군을 한 것으로 된다.

김일은 배낭을 벗지도 못한채 나를 찾아와 1소대동무들이 모두 무사하며 일도 잘한다는 것, 1소대와의 연계가 두절된 것은 연락임무를 받고 떠난 1소대 대원이 중도에서 길을 헛갈린탓이라는 것, 북강군에 갔다가 지고온 식량과 무기는 1소대 동무들이 적을 치고 노획한 것과 인민들이 지원한 것을 합친 것이라는 것, 그 지방 청년들이 참군을 하도 간청하므로 사령부의 승인도 없이 데리고 왔다는 것을 간단히 보고하였다.

나는 김일을 숙소로 돌려보낸다음 그가 데리고 온 참군요청자들과 담화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 김일이 직접 1소대를 데리고 금룡군의 적경찰서와 악질 지주네 집을 습격하여 많은 무기와 식량을 노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김일은 두 가지 타산밑에 적의 소굴을 습격하였다. 첫째로는 지주와 경찰들을 숙청하여 인민들의 원한을 풀어주자는 것이였고 둘째로는 내가 제일 걱정하는 식량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였다. 그 당시 우리는 식량부족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었다. 수백 명이 한 밀영에 모여 몇 달 동안 군정학습을 하였는데 후방부성원들이 마련한 식량만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싸움을 하지 않고서는 한 포대의 쌀도 구할 수 없는 때였다. 그런데 김일이 뜻밖에도 많은 량의 쌀을 해결해오는 바람에 전부대가 그 덕을 입게 되었다. 나로서는 얼마나 고마운 생각이 드는지 몰랐다.

그 후 금룡군인민들은 혁명군의 신세를 갚는다고 하면서 마당거우밀영에 4-5차례나 지원물자를 지고왔다.

부대에 식량이 떨어지면서 노상 김일이 맨 선참으로 자진해서 대원들을 데리고 식량공작을 하고 돌아올 때마다 자루에 쌀을 넣어가지고 오군하였다. 자기는 굶거나 통강냉이를 먹으면서도 우리에게만은 늘 쌀밥을 지어주려고 여간만 애를 쓰지 않았다. 김일의 배낭이 다른 사람들의 배낭보다 곱절로 더 크고 무거웠던 것은 그가 그 배낭속에 예비식량주머니를 늘 넣어가지고 다녔기 때문이였다.

김일은 어떤 경우에나 자기자신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동지들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당과 혁명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였다. 그는 오랜 기간 당과 국가의 높은 직급에서 활동하였지만 자기에게 특전, 특혜, 특대가 차례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아래사람들이 자기를 특대하려고 하면 그것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았다.

김일은 해방 후에도 항일혁명시절처럼 우리를 잘 도와주고 받들어주었다. 그는 내가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면 진일마른일을 가리지 않았다. 당사업이면 당사업, 군건설이면 군건설, 경제지도면 경제지도 초소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복잡한 국사에 묵묵히 몸을 적시였다.

어느 해였던지 김일은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자기를 청천강화력발전소 건설장에 전권대표로 파견해줄 것을 요구한 일이 있다. 청천강화력발전소는 그 당시 국가적 투자와 이목이 집중되던 중요한 건설대상이였다. 그런 것만큼 나도 마음속으로 공사지휘를 담당할만한 인물을 은근히 물색하고 있던 중이였다.

하지만 나는 그의 제기를 받고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건강상태가 대단히 나빴기 때문이였다. 그가 이전처럼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하는 날엔 무슨 화단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김일이 어찌나 집요하게 자기 요구를 되풀이하였던지 나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대신 공사장에 가면 고문격으로 훈수나 하는 정도로 일하되 절대로 무리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내놓았다.

김일은 공사장에 가자마자 가설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7-8층짜리 아빠트높이만한 계단을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오르내리면서 건설을 불이 번쩍나게 추진시키였다. 그는 섣달그믐날까지 공사장에 있으면서 불철주야로 일하다가 1호보이라에 물을 지피는 것까지 보고서야 평양으로 돌아와 나에게 그 동안의 사업정형을 보고하였다.

김일은 바로 이런 사람이였다. 그가 임종 사흘전까지 집무실에서 일을 했고 소속세포에서 당생활총화를 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의 책임일군을 찾아 **김정일**동무를 잘 모셔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것은 온 나라가 다 아는 유명한 이야기이다.

김일이 한평생 우리를 충심으로 따르고 받들어온 것처럼 나도 한평생 그를 친혈육처럼 아끼고 사랑해주었다.

산에서 유격전쟁을 할 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김일은 그 장대한 체통에도 불구하고 병마에 종종 시달리었다. 한때 의사들은 그에게 위암이라는 어마어마한 진단까지 내리었다. 그 보고를 받고 나는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평안남도 온천지방으로 계획에도 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떠났다. 평양에 그대로 있자니 일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데다가 밥도 먹고싶지 않고 마음마저 진정할 길이 없었다. 김일마저 세상을 떠나간다면 내 옆에는 나의 말동무가 될만한 사람도 얼마 남지 않게 되는 것이였다.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의사들이 모두 김일을 죽을병에 걸렸다고 한다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였다. 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의사는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다수가결에 버릇된 나였지만 그날만은 웬일인지 그 의사의 진단에 굳이 매달리고싶은 심정이였다.

나는 달리던 차를 멈춰세우고 외무상에게 전화를 걸어 암분야에 조예가 깊다는 쏘련의 이름난 의사들을 급히 초청할 데 대한 지시를 주었다. 외무상이 친 전보를 받고 쏘련당국에서는 우리가 요구한 의사들을 지체없이 보내주었다.

쏘련의사들은 김일을 진찰하고나서 암이 아닌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었다. 그들이 김일을 데리고 쏘련에 들어가서 다른 명의에게도 보였지만 그 의사 역시 암이 아니라는 진단을 내리었다. 그때 만일 암이라는 최초의 진단결과만을 믿고 김일의 위를 잘라 버리기라도 했다면 그는 오래 살지 못하고 인차 잘못되었을 것이다.

김일이 병에 걸렸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를 만나 동무는 우리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다. 이제는 나와 함께 항일혁명을 하던 노투사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동무가 없으면 내가 허전해서 어떻게 견디겠는가,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을 돌보면서 일하라고 당부하군 하였다.

그러나 김일은 중병에 걸려 지팽이를 짚고 다니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도 집무실이나 생산현장을 떠나지 않고 당과 혁명을 위해 한 가지 일이라도 더 많이 해 놓으려고 온갖 정열을 다 바치었다. 그러다가 불치의 병에 걸리었다.

한 번은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그가 나보고 병이 나으면 내년 4.15에 만경대에 가서 관성열차를 타보겠다는 말을 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자 어쩐지 섬찍한 생각이 들었다. 말수더구가 적은 사람이 그런 속생각까지 터쳐놓은 것으로 보아 그가 혹시 자기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한 것이나 아닌가 하는 이상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아닌게 아니라 김일은 그 해 섣달그믐날 아이들의 설맞이공연관람에도 참가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날밤 나는 그의 집을 방문하였다.

≪해마다 설맞이공연을 동무와 같이 보았는데 오늘 저녁에 동무가 곁에 없으니까 자꾸 눈물이 나와서 볼 수 없더군, 그래서 내 이렇게 왔소.≫

침상에 누워있는 김일에게 이런 말을 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그는 오히려 현관문밖까지 따라나오면서 제 부탁인데 과로하시면 안됩니다, 절대로 과로하지 마십시오 하고 거듭 당부하였다.

나는 그날 저녁 김일의 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서 그와 새해를 경축하는 축배잔도 찧지 못하였다. 그것이 지금도 속에 걸려 내려가지 않는다. 내가 집을 떠난 다음 김일도 나에게 축배잔을 권하지 못한데 대해 후회했다고 한다. 축배잔이나 마주찧는다고 해서 병이 나을리도 없고 또 나의 기분이 밝아질 수도 없는 일이다. 하건만 김일을 회고할 때면 매번 축배잔이 내 마음속의 아픈곳을 건드리군 한다.

김일은 나를 대하듯이 **김정일**동무를 대하였고 나에 대한 의리를 지키듯이 **김정일**동무에 대한 의리도 지키었다. 나는 **김정일**동무에 대한 김일의 남다른 경모심에 한두 번만 탄복하지 않았다. **김정일**동무가 중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김일은

지팡이를 짚고 역에까지 나가 그를 맞이하였는데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지도자에 대한 그의 진실한 자세를 두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김정일동무도 김일을 혁명선배로서 각별히 존경하고 사랑하였다. **김정일**동무는 늘 김일부주석동지는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승리를 위해 그 누구보다도 견결히 투쟁한 공산주의혁명투사의 모범이라고 하면서 그를 내세워주고 따뜻이 돌보아주었다.

내가 김일을 나의 오른팔이라고 한 것처럼 **김정일**동무도 그를 나의 오른팔로 보았다.


황순희

그래서 김일이 서거하였을 때 제일 애석해한 사람이 아마 **김정일**동무였을 것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자기 지도자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데서 뿐 아니라 혁명동지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데서도 최상의 경지를 개척하였다. 사랑에는 사랑으로 보답하고 믿음에는 믿음으로 대답하며 은혜에는 은혜로 갚는 것이 항일유격대원들의 의리였다.

황순희와 김철호의 우정은 항일유격대원들속에서 발양되고 있던 동지애와 공산주의적 의리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황순희를 만날때만다. 저렇게도 체소하고 섬약한 여자가 백두산의 설한풍속에서 어떻게 10년동안이나 무장투쟁을 해왔을가 하는 생각을 하군 한다.

해방 후 평양에 돌아와 국내인사들에게 황순희가 10년동안 유격투쟁에 참가한 여자라고 소개했더니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에는 황순희만큼 체소한 여대원이 많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혁명을 해도 차돌처럼 옹골차고 담차게 하였다.

체통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혁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의리를 잘 지키는 것도 아니다. 임수산은 황순희보다 몸집이 두 곱이나 더 큰 거구의 사나이였지만 곤란을 이겨내지 못하고 변절하였으며 동지들에 대한 의리도 저버리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황순희는 조국이 해방되는 날까지 한시도 혁명을 중단하지 않았다. 의리와 신념이 강하면 여염집아낙네들도 혁명을 하며 김금순과 같은 꼬마들도 절개를 지켜 단두대에 오른다. 황순희가 그처럼 체소한 몸으로 끝가지 혁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신념이 강하고 의리가 강했기 때문이였다.

내가 군복을 입은 황순희의 모습을 처음으로 본 것은 미혼진밀영에서였다. 여대원들의 병실은 이전날 산림부대사병들이 사용하던 병실자리였다.

그 중국식병실의 캉이 대단히 높았다. 캉에 앉아서 내려다보니 낯설은 작달말한 처녀가 복도에 서서 나를 빤히 쳐다보여 무슨 말을 할듯말듯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가 바로 한주일동안이나 강떼를 써서 입대승인을 받아내고 부대의 뒤꽁무니에 붙어 미혼진까지 따라온 황순희였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그때 그를 아동단원으로 보았다.

그런데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가 자기를 유격대원이라고 소개한 것이였다.

≪키도 작은데 어째서 벌써 유격대에 들어왔나?≫

내가 이런 질문을 하자 황순희는 일제에게 학살당한 아버지와 전장에서 희생된 언니의 원쑤를 갚으려고 유격대에 입대했다고 대답하였다. 그의 오빠 황례운도 최현부대의 중대장을 하다가 한총구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입대조기의 황순희는 부대의 짐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미구에 뭇사람들의 총애를 받는 혁명군의 꽃으로 되었다. 그가 매사에 이악하고 경우가 밝고 원칙성이 강하면서도 인정미가 있고 의리가 강했기 때문이였다.

김철호는 생전에 황순희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사경에서 구원되었던 1940년 봄의 일화를 자주 회상하였다.

어느 날 황순희는 최현연대장한테서 후방밀영에 들어가 부상병들과 로약자들을 얼마동안 보살펴줄 임무를 받고 일행과 함께 푸르허방향으로 떠났다. 일행의 태반은 부상병들이었다. 제일 큰 난사는 임신중에 있던 김철호가 노상에서 해산을 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에게는 새 생명을 받을 만한 아무런 준비도 없었다. 기저귀는커녕 어린애를 감싸줄 한쪼박의 천도 없었다.

황순희는 자기의 솜옷을 벗어 갓난아이를 감싸주었다.

해산후 ≪토벌대≫가 총질을 하며 그들한테로 조여들었다.

산모는 어쩔바를 몰라서 전우들만 쳐다보다가 황순희에게 아무래도 살리지 못할 아이인데 버리고 가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아이를 안은채 일어서지 못하였다.

그 때 황순희가 그것도 말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게 무엇때문인가. 다 후대들 때문이 아닌가, 아이를 버리고 제 한 몸의 보신이나 할 바에야 살아서는 뭘 하겠는가고 하면서 산모의 품에 있던 아이를 와락 빼앗아 안았다. 그리고는 산등성이로 뛰어올라가 사람들의 눈길이 잘 미치지 않는 다박솔밑에 갓난애를 눕혀놓았다. 그러자 산모도 총을 들고 그를 따라갔다.


후방밀영

잠시후 황순희는 짐을 찾으려고 다시 산아래로 내려갔다.

그가 짐을 들고 산등성이로 돌아왔을 때 김철호는 눈물이 글썽해서 허공을 쳐다보고 있었다. 어떻게 된 셈판인지 갓 태어난 새 생명은 보이지 않았다.

황순희가 갓난애의 행처를 물으려고 김철호의 곁으로 다가가는 순간 지척에서 총소리가 또다시 울리었다. 두 여대원은 일행과 함께 맞불질을 하면서 저 골짜기로 이틀동안이나 달리었다.

적≪토벌대≫를 완전히 따돌리였을 때 산모는 의식을 잃고 땅에 곤두박히었다. 황순희는 양재기에 물을 끓여 김철호의 입에 떠넣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입이 좀처럼 벌려지지 않았다. 그는 숟가락으로 이발을 벌이고 억지로 더운물을 떠넣었다. 그 더운물이 결국은 산모를 살리었다.

그 때에야 황순희는 아이생각이 나서 김철호에게 아이를 어떻게 했는가고 물으니 어느 덤불밑에 놓고왔다고 하였다. 황순희는 그 먼길을 되걸어 ≪토벌대≫와 총격전을 벌이던 그 산에 다시 가보았다. 불쌍하게도 아이는 이미 숨이진 몸이었다.

아이의 생사를 알아보려고 홑적삼바람으로 먼길을 다녀온 황순희를 보자 김철호는 한두시간밖에 살지 못할 애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애의 몸에서 차마 솜옷만은 벗겨오지 못하겠더라구나 하고 사죄하였다.

≪언니, 우리 어른들이야 솜옷이 없은들 뭐라나요. 이름도 없이 죽은 그 애가 춥지 말아야지요.≫

황순희는 시장기와 추위로 하여 우들우들 떨면서도 이런 말로 김철호를 위로하였다.

김철호는 그때 황순희가 발휘한 우정을 한평생 잊지 않았다.

임종을 얼마 앞둔 날 그는 병상을 찾아온 황순희에게 느닷없이 말했다.

≪순희, 내 생명도 이제는 마지막이다. 내가 네 덕으로 푸르허에서 죽지 않고 일생동안 수령님슬하에서 사랑만 받으며 살아왔는데 빨치산시절처럼 너와 한 이불밑에서 자고싶구나!≫

두 전우는 그날 미혼진에서처럼 한이불을 덮고 밤이 지새도록 빨치산시절을 회고하였다.

고난의 행군때 장백에서 갓 입대한 신입대원이 밤이 우등불곁에서 자다가 군복을 태운 일이 있었다. 어떻게나 심하게 탔던지 살을 절반도 가리지 못하였다. 그런 옷을 입고 그는 행군 첫날부터 우들우들 떨면서 대오를 따라갔다. 그가 추워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동정도 하고 걱정도 하였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었다. 그들도 한 사람같이 단벌옷을 걸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을설

동지애가 강하였던 이을설은 신입대원이 당하는 고통을 보다못해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군복저고리를 벗어들고 그 대원을 찾아갔다.

신대원은 아연해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럼 동무는 무얼 입고?…≫

≪나야 유격대생활에 익숙되였으니 웬만한 추위야 건드리지 못하지.≫

≪아니요. 제 잘못으로 옷을 태웠는데 내 무슨 면목으로 동무의 옷을 입겠소.≫

신입대원은 좀처럼 동료의 호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말로써는 그 대원의 고집을 좀처럼 휘여놓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이을설은 그의 몸에서 불에 탄 옷을 강짜로 벗기고 그 대신 그에게 자기의 군복을 입히었다. 그가 이런 선행을 베풀 수 있은 것은 구대원이 신입대원을 돕는 것을 응당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였다.

전우들은 모두 이을설이 그 겨울을 견뎌내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가 경위중대에서 나이도 어리고 체질도 약한 사람이였기 때문이다.

만주지방에서 한두 해만이라도 살아본 사람들은 그 고장 추위가 얼마나 지독한가를 잘 알 것이다. 추운 날에는 머리카락에 성에가 끼기 일쑤이다. 성에가 낀 머리카락들은 손가락으로 슬쩍 건드려만 놓아도 고드름처럼 쉽게 부서져나간다. 이런 강추위속에서 불에 타서 구멍이 숭숭 나 여름옷을 대충 기워입고 여러 날 행군을 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을설은 춥다는 말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 그는 행군을 할 때마다 앞장에서 생눈을 헤치었다. 숙영지에서는 언제나 그가 선참으로 나무를 해오고 천막을 쳤다. 그는 기관총반의 일을 다하고 전우들이 우등불가에 둘러앉은 다음에야 불에 자기의 신발을 말리우곤하였다.

이을설의 강인성과 동지적 의리는 타고난 것이 아니였다. 그는 생활속에서 민족이 당하는 수난과 고통을 체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착취받고 압박받는 인간들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게 되였고 인민을 사랑하고 동지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였다.

이을설은 남패자회의 후부터는 경위중대 기관총반에 배속되어 기관총 부사수로 있었다. 그날부터 그는 사령부를 보위하는 사업에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한평생 손에 총을 잡고 궂은날이나 마른날이나 변함없는 자세로 나를 호위해온 경위대원이였다.

나는 북대정자회의에서 고난의 행군을 총화할 때 이을설을 동지애의 모범으로 내세우고 그의 품성과 동지적 의리를 평가하였다. ≪철혈≫편집집단도 창간호를

내면서 그의 모범을 찬양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왜 강했는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의리로 뭉쳐진 집단이었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하군 한다. 우리 공통성만으로 이루어진 것이였다면 우리는 그처럼 강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정규군의 지원도 없고 국가적 후방도 없는 최악의 상태에서 일본제국주의와 같은 강적을 상대로 하는 장기간의 혁명전쟁에서 우리가 승리자로 될 수 있은 것은 결코 병력이 많거나 무장이 우월해서가 아니였다. 수백만의 정규군을 가지고 있은 적에 비겨볼 때 우리의 병력은 수적으로 매우 간소한 것이였다. 적아의 무장은 대비할 바도 못되였다. 오로지 충성과 의리로 결합된 사상의지적 단합이 있어 우리는 강적을 타승할 수 있었다.



임춘추

나는 우리의 간부들과 당원들이 임춘추의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의리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임춘추는 당과 수령에 대한 의리를 높은 경지에서 구현한 투사였다.

내가 1930년 가을에 조양천에서 봉춘한 약방주인의 간판을 가지고 간도지구 당 및 공청비서처의 연락원으로 공작하던 임춘추와 첫 통성을 하였다는 것은 이미앞에서 간단히 소개한바가 있다. 그때로부터 그는 장장 60년 가까운 세월을 고스란히 혁명에 바치였다.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라는 명구는 **김정일**동무가 인텔리들에게 붙여준 칭호인데 임춘추와 같은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말이다.

임춘추는 지식을 가지고 조선혁명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었다. 그가 18살 때부터 면허증을 가진 의사로 ≪영업≫을 벌이었다고 하면 아마 어떤 사람들을 잘 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였다. 그는 의사라는 간판을 가지고 군중계몽도 하고 연락공작도 하고 혁명가육성사업도 하였다. 그가 팔도구근방의 용수평마을에 가있을 때만 해도 숱한 사람들을 유격대에 추천하여 보냈다고 하니 그의 의술이 어떤 성격의 것이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임춘추가 유격구로 들어오자 혁명조직에서도 그를 군의로 임명하였다. 그는 군의로 활동하는 기간 수많은 전상자들과 인민들의 병을 보아주었다. 14-15살 때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자습으로 연마한 의술이라는데 임상성과가 대단히 좋았다. 그 의술의 덕을 한두 번 본 사람들은 다들 그를 명의라고 하였다.

임춘추를 명의라고 제일 요란하게 내세운 사람은 최춘국이였다. 최춘국이 중상을 당했을 때 그를 수술한 사람이 바로 임춘추였다. 위만군과의 불의적인 조우전에서 불행하게도 대퇴골이 직탄에 맞아 부스러졌는데 그 상처를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부상자를 살려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임춘추만은 생각을 달리하였다. 다리를 절단하게 되면 유격대지휘관으로서의 역할고 끝장이려니와 인간으로서도 매우 불편한 몸이 된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임춘추는 최춘국이 만 명의 적과도 바꿀 수 없는 유능한 군사지휘관이며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혁명군의 맹장이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시하였다.

그는 부상자의 허벅다리를 조금 째고 총알에 부스러진 대퇴골의 뼈조각들을 집게로 끄집어내는 식으로 수술을 하였다.

최춘국은 1년 후부터 대지를 활보하였다. 상한 다리가 짧아져서 조금씩 절기는 하였으나 그런대로 행군도 하고 전투지휘도 하였다. 임춘추의 대담무쌍한 수술이 크게 은을 낸 것이였다.

나도 1차 북만원정을 끝내고 삼도만 능지영에 있는 동만당 비서처를 찾았을 때

임춘추의 덕을 많이 보았다. 그는 효능이 좋은 초약과 보양제음식을 매일같이 가지고와서 있는 성의를 다하여 나를 따뜻이 돌보아주었다. 최현, 오진우, 조아범, 조도언도 그의 치료를 받고 상처를 완치시키였다.

1937년 가을부터 1938년 가을까지의 옹근 한해 동안 임춘추는 금천현과 임강현, 몽강현 룡천진의 대수림지대에 널려있는 인민혁명군의 밀영들을 차례로 돌아다니며 전상자들을 치료하였다. 그러다나니 왕진도 많이 하였다. 그때의 왕진반경은 보통 수십리씩이나 되었다. 지금은 의사들이 구급차나 승용차와 같은 현대적인 운수수단들을 이용하면서 왕진도 하고 위생선전도 하지만 항일전쟁시절의 군인들은 그런 호사를 할 수 없었다. 왕진을 다니다가 ≪토벌≫을 당하지 않으며 다행이었다.

임춘추는 언제인가 적들의 ≪토벌≫을 받았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난적이 이었다. 그는 황구영전투 후 최현이 준 전리품 솜바지저고리를 배낭뒤에 처매고 산고개를 오르다가 기관총련발사격을 받았다. ≪토벌대≫가 물러간 다음 배낭안을 헤쳐보았는데 놀랍게도 그속에는 기관총알이 일곱 발이나 있었다고 한다. 배낭뒤에 처맨 솜바지저고리가 아니였더라면 그는 영낙없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항일전쟁시절의 접촉을 통하여 임춘추는 당일군으로서 사람들과의 사업도 많이 하였으며 조직활동과 저술활동도 많이 하여 군민교양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나는 여러 차례의 접촉을 통하여 임춘추가 정치일군의 기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였다. 실지로 그는 입대전에 연길지방에서 대중단체 일군으로서 군중을 교양하고 통솔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군의사업과 함께 당사업을 맡기였다. 그는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 위원도 하고 경위연대 당서기로도 활동하였으며 동만당공작위원회사업도 맡아 수행하였다.

동만당공작위원회는 발족 후 우리의 기대에 맞게 일을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남패자회의가 끝난 후 임춘추를 동만당공작위원회의 책임적 지위에 임명하였다. 이 공작위원회의 사명은 간도지방에서 당조직을 확대하고 대중단체들을 늘이는 방법으로 인민들을 조직적으로 결속하여 무장투쟁의 지반을 강화하는 한편 당창건의 기초를 튼튼히 마련하는 것이었다. 동만당공작위원회는 장백현당위원회나 국내당공작위원회와 유사한 사명을 수행하였다.

동만당공작위원회의 주요활동무대는 간도와 함경북도 일대였다. 유격근거지가 해산된후 간도지방의 당조직들은 모두 동만당공작위원회산하에 들어왔다.

임춘추는 나와의 연계밑에 무산, 연사 일대와 동만지방에 수많은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여 당조직과 대중단체들을 확대해나갔다.

소할바령회의후 왕청, 연길, 돈화, 훈춘, 안도, 화룡 일대에서 소부대활동을 할 때 우리는 동만당공작위원회가 꾸려놓은 혁명조직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 조직들이 기본이 되어 우리의 활동을 이모저모로 잘 도와주었다.

임춘추는 항일혁명시절의 당사업경험을 밑천으로 하여 해방 후 당건설활동에서도 큰 흔적을 남겨놓았다. 초기에는 평안남도당 제2비서로 일을 하였고 후에는 강원도당 위원장으로 사업하였다. 그가 강원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분계연선사업이 아주 잘 되었다.

해방 직후 우리는 항일혁명투사들에게 될수록 높은 지위를 주지 않았다. 대부분의 고위직은 국내인사들이나 해외에서 혁명운동을 하다가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었다. 우리와 함께 무장투쟁의 시련을 겪은 사람들가운데 능력있는 인재들이 적어서가 아니었다.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다 망라하는 통일전선정치를 하자니 그런 조치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북반부에 5개 도당밖에 존재하지 않던 그때 임춘추에게만은 강원도당위원장의 임무를 맡기였다. 그것은 우리가 그의 당사업경험을 중시했기

때문이였다.

임춘추의 활동가운데서 내가 특별한 감회를 가지고 돌이켜 보게 되는 것은 그의 저술활동이다. 그는 많은 글을 써서 후대들에게 남기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를 회상하여≫를 비롯하여 그가 쓴 글들 가운데는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것들이 적지 않다.

임춘추가 본격적인 문필활동을 시작한 것은 그가 ≪3·1월간≫의 명예기자로 일한 다음부터였다. 그가 쓴 글들이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내기관지들에 여러 편 나갔다. ≪3·1월간≫에 실린 ≪만신창이 된 일본경제≫라는 그의 글은 성과작으로 평가되였다.

임춘추는 전투와 행군, 치료 사업으로 바삐 보내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시간을 아껴가며 매일같이 우리의 활동내용을 짬짬히 기록하였다. 종이가 바닥이 나면 봇나무껍질을 얻어서라도 거기에 조선인민혁명군의 투쟁일지를 정이해놓군 하였다. 그 일지가 ≪항일무장투쟁시기를 회상하여≫의 기초자료로 되였다는 것은 임춘추 자신도 여러 번 말하였다.

위증민은 생전에 임춘추를 보고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역사를 쓰라고 여러 번 권고하였다고 한다. 당사업도 좋고 군의사업도 좋고 명예기자사업도 물론 좋다. 그러나 그보다 못지 않게 중요한 임춘추의 사명은 조선빨치산의 활동역사를 쓰는 것이다. 동무는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설사 다른 사람들이 결사전을 벌이다가 다 죽는 경우에도 동무는 살아서 이 사명을 완수하여 자기 사령관의 업적과 자기 군대의 투쟁역사를 후세에 꼭 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임춘추는 경위연대 당서기로 활동할 때 위증민의 곁에 오래동안 가있으면서 그의 사업도 도와주고 병치료도 해주었다. 그래서 위증민은 그와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늘 곁에 있어줄 것을 요구하군 하였다. 나와 위증민과의 연계를 보장하며 조선사람들과 중국사람들의 친선을 공고히 하고 두 나라 무장력의 공동전선을 강화하는데서 그가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임춘추의 ≪항일무장투쟁시기를 회상하여≫를 내가 처음으로 받아본 것은 1950년대말이였다. 그때만 해도 우리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사대주의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었다. 게다가 혁명전통고양이 잘되지 않아 인민들과 청소년들속에 우리의 무장투쟁역사가 거의 소개되지 않고 있었다. 적지 않은 간부들은 ≪쏘련공산당약사≫에 대해서는 ≪이스크라≫가 어떻고 부하린이 어떻다고 줄줄 외우면서도 남호두에서 무슨 회의가 있었는가고 물으면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이런 때에 ≪항일무장투쟁시기를 회상하여≫가 출판되여 인민들에게 항일혁명에 대한 윤곽을 처음으로 그려주었다. 그때로부터 이 책은 항일혁명역사를 연구하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원전으로 되였다.

임춘추는 이 책을 내놓는 것으로 항일혁명에 참가한 모든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 인민들앞에 지닌 의리와 의무를 지키려고 하였다. 그는 자기자신을 소개하거나 그 무슨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만년대계의 재부로 되는 혁명전통을 후대들이 더 잘 계승하고 완성해나가도록 하려는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책을 썼다.

임춘추는 **김정숙**, 김철주의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한 회상실기들을 비롯하여 우리 당의 혁명전통과 관련된 많은 책들과 교양자료들을 써냈다. 그리고 많은 자료들을 고증하고 체계화하여 우리 당 역사에 빛나는 위훈을 세웠다. 그는 청년공산주의자들을 원형으로 하는 ≪청년전위≫라는 다부작 장편소설까지 창작하였다.

우리 당은 지금 임춘추를 우리가 개척하고 승리에로 이끌어온 항일전의 빛나는 혁명역사에 대한 권위있는 증견자, 힘있는 보증자로 평가하고 있다. 나는 그 평가가

정확하고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털어놓고 말해서 임춘추는 어려운 항일혁명을 하지 않고 의술만으로도 제 밥벌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였다. 하지만 그는 사선의 고비를 수십수백번이나 넘으면서도 혁명의 길에서 한번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자기 수령과 동지들앞에 지닌 의리를 한번도 저버리지 않았다.

임춘추는 용정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가 죽어도 혁명은 승리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자기 개인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혁명조직과 동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야수적인 고문을 이겨냈다. 그런데 혁명을 배반한 인간들은 자기가 죽으면 혁명도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조직과 동지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자기가 살아야겠다는 심보를 가지고 고문에 굴복하였다.

이것이 바로 진짜혁명가와 가짜혁명가들이 차이점이다.

나는 임춘추가 의리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해방 후 여러 가지 사실들을 통하여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 그가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성립준비를 위해 중국동북지방에 전권대표로 파견되어갈 때 나는 그에게 동만에 가면 항일혁명열사의 자녀들을 많이 찾아 조국으로 내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임춘추는 중국인민이 어려운 국내전쟁을 치르고 있는 때에 전선을 원호하고 정권기관들을 조직하며 교육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각계각층 인사들과의 사업을 하는 등 분주한 나날을 보내면서도 항일혁명열사의 자녀들을 빠짐없이 조사장악하여 조국에 내보내주었다. 그는 지어 부암동시절의 친지이며 혁명전우인 **김정숙**의 형제들을 찾으려고 신문에 광고까지 냈다.

그는 간부들의 협의회를 소집할 때마다 조국에서 혁명가유자녀학원을 세운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으며 한 명의 유자녀라도 더 찾으려고 직접 신들메를 매고 간도의 산재부락들을 발이 닳게 돌아다니였다.

누데기를 걸친 람루한 행색의 아이들이 광고를 보고 찾아올 때마다 임춘추는 그들의 품에 와락 끌어안고 너는 누구의 아들이구나, 너는 누구의 딸이지, **김일성**장군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찾고계시는지 아느냐고 하면서 아이들의 볼을 막 비비였다고 한다. 그렇게 한 명한 명 찾아낸 유자녀가 수십 명이 되었을 때 그는 기쁨을 참지 못하고 장군님, 1차로 찾아낸 유자녀들을 데리고 곧 조국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전보를 쳤다. 나는 그 짤막한 문구들에서 혁명전우들에 대한 의리를 지킨데서 오는 임춘추의 격정과 희열을 느끼였다.

임춘추는 수많은 유자녀들과 혁명열사의 가족들을 찾아서 조국의 품으로 보내주었다. 그때 학원에 입학했던 아이들이 지금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으로도 되고 도당책임비서로도 되고 인민군장령으로도 되어 일을 잘하고 있다.

임춘추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얼마동안 지방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보건성에서 소집하는 회의에 참가하려고 평양으로 출장을 올 때마다 모란봉에 올라가 투사들의 묘소옆 잔디밭에 백포를 펴고 잠을 자군 하였다고 한다. 시내의 여관에서는 아예 유숙할 잡도리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의 모란봉에는 김책, 안길, 최춘국, **김정숙** 등의 묘소가 있었다. 한지에서 그것도 전후좌우에 전우들의 무덤이 있는 산등성이에서 한 장의 백포에 몸을 맡기는 그런 노숙이라 잠이 잘 올 리가 만무하였다. 하건만 임춘추는 평양에만 오면 무작정 모란봉에 올라가 전우들의 무덤곁에 잠자리를 정하군 하였다. 그리고는 그 자신이 훗날 말한 바와 같이 ≪이 사람들아, 조국이 당신들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은 때에 당신들은 어찌하여 이곳에서 잠들고 있는가. 장군님께서 지금 조선의 운명을 두 어깨에 걸머지고 얼마나 고군분투하시는지 아는가?≫고 하면서 무덤속의 전우들과 끝없는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이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때여서 시민들 중에는 모란봉의 무성한 초목속에서 투사들의 혼백이 고이 잠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사람들이 그닥 많지



한홉의 미시가루마저 대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못하였다. 그리고 어떤 허우대 큰 사나이가 이따금씩 그 혼백을 안고 자다가는 첫아침에 조용히 모란봉에서 내려오군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그 사연을 듣고 임춘추야말로 의리가 있는 참사람이며 참투사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항일유격대식 의리이다. 세상에는 인간의 의리와 사랑에 대한 미담들이 수없이 많다. 그러나 항일혁명투사들이 창조한 것보다 더 숭고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의리를 나는 모른다.

임춘추는 항상 자기를 **김정일**동무의 늙은 제자라고 하면서 그의 지도를 받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였다.

김정일동무 역시 임춘추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였다. 그는 늘 임춘추동지가 앉아계시기만 해도 우리 당과 국가에는 귀중한 재부로 된다고 하면서 그를 극진히 아끼고 돌보아주었다. 임춘추에 대한 **김정일**동무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속에는 로혁명가들에 대한 지도자의 고결한 의리가 반영되어있다. 그것은 백두산에서 마련된 항일유격대식의리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혁명적 의리와 절개를 잘 지킨 것은 아니였다. 우리 대오에서도 부분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변절자나 낙오자가 생기였다.

입만 벌이면 혁명을 부르짖던 사람들이 절개를 버렸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대원들은 모두 상심하였다. 어제날까지 ≪인터내셔날≫의 노래를 부르고 혁명승리를 운운하던 사람들이 돌변하여 적의 앞잡이로 굴러떨어질 때 병사, 지휘관들이 느끼는 고통과 좌절감을 무슨 말이면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변절자들이 한두 명 생겼다고 하여 십 년 쌓은 성벽이 무너질 수 없었다. 우리는 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도덕의리적 단합을 강화하는 것으로 적의 백색테러에 대답하였다. 우리가 이기는 길은 그것뿐이었다.

제18장



중일전쟁의 불길속에서

새로운 정세를 맞받아
김주현
농민을 준비시키던 나날에
독립여단시절의 최춘국
9월 호소문
≪혜산사건≫을 겪으면서

■ 시기 : 1937. 6 ~ 1937. 11

1. 새로운 정세를 맞받아

우리가 노구교사건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것은 간삼봉전투가 있은 후인 1937년인 7월 중순경이였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9.18사변이 새로운 ≪9.18≫을 낳게 되고 일제의 만주강점이 침공에로 이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예견해왔었다. 그러나 막상 노구교사건을 도화선으로 하여 중일간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니 흥분을 금할 수 없었다. 인민혁명군의 대원들과 지휘관들은 정세발전을 두고 많은 논의를 하였다.

논의의 중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전쟁이 앞으로의 세계정세와 조선혁명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였고 조성된 정세를 우리 혁명에 어떻게 유리하게 이용하겠는가 하는 것이였다.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 중에는 세상에 노구교라는 다리가 있다는 사실자체를 아는 사람이 별반 없었다.

누구도 이 다리에서 한밤중에 울린 총소리가 근 3,000일 동안이나 중국 땅을 피바다에 잠그고 대전의 소용돌이속에 세계를 휘몰아 넣는 전주곡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1939년 9월 파쑈독일의 폴란드침공을 제2차 세계대전의 시발로 보는 것이 일반의 공인된 견해로 되고 있지만 그보다 2년 앞서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작한 노구교사건을 제2차 세계대전의 발화점으로 보는 견해도 없지 않다.

중일전쟁은 9.18사변과 마찬가지로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집요하게 내세우고 완성시켜온 대아세아정책의 산물이였다. 일제가 만주를 삼켜버린 그때 벌써 세계의 진정한 여론은 그들이 멀지않아 중국관내로 쳐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을 시사하였다. 실지로 일제는 동북3성을 강점한 후 중국본토에 대한 침략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다.

1933년 1월의 상해관공략과 화북지구의 침입, 열하작전에 의한 성소재지 승덕의 점령, 진황도상륙, 하북성 동부지구에로의 진격 등 이 모든 군사작전은 일본군대가 만주사변을 도발한 후 몇 해 사이에 있은 것이며 미구에 감행하게 될 중국본토침략을 위한 준비작업의 한 측면이였다.



노구교를 건느는 일본군

장개석국민당정부는 일제의 화북침공에 항전으로 맞설 대신 인민들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국배족적인 ≪당고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만리장성 이북의 광대한 땅덩어리를 사실상 일제의 점령지로 내맡겨버리고 화북을 일제의 감시와 통제밑에 놓이게 하였다. 이러한 유화정책은 결국 일제의 침략적 야망과 전쟁광증을 부추겨주는 것으로 되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사촉밑에서 화북의 친일세력은 ≪화북5성 자치운동≫이라는 것을 벌이었다. 이른바 ≪독립≫을 요구하는 이러한 매국운동의 결과로서 친일적인 ≪기동방공자치정부≫가 조작되었다.

이런 계단식 방법으로 만주전역과 화북의 명맥을 완전

히 틀어쥔 일제는 1936년초 배일운동의 엄격한 단속과 중국, 만주, 일본의 경제적 합작, 공동방공 등을 골자로 하는 ≪대 중국 외교방침≫이라는 것을 내걸고 중국관내에 대한 침략준비를 노골화하였다. 일독≪방공협정≫의 체결은 새 전쟁준비를 부추기고 조장시키는 외부적 요인으로 되였다. 장개석국민당정부의 굴욕적인 대일자세와 매국배족적인 정책은 일본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중국본토에 대한 침략을 마음 내키는대로 확대할 수 있게 하였다. 일제의 중국본토침략이 더욱더 가속화되어 나라와 민족의 생사존망이 저울대에 오른 그때에도 장개석은 대내적으로는 홍군을 포위공격하고 인민들의 항일구국운동을 탄압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외세에 굴복하는 ≪안내양외≫정책을 추구하면서 대일타협노선을 견지하였다. 장개석의 비굴한 대일협조정책은 결과적으로 볼 때 일본의 중국관내침략을 묵인해주는 것으로 되었으며 노구교사건과 같은 엄청난 사건의 조작에로 일본을 안내하고 유도하는 것으로 되었다.

일제가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침공을 단행하게 된 것은 중국을 둘러싼 제국주의열강 간의 모순의 응당한 산물이기도 하였다.

1937년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경제공황의 파도는 또 다시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다. 제국주의열강들은 새 시장들을 개척해보려고 혈안이 되었다. 시장쟁탈을 위한 싸움은 열강들 사이의 모순을 격화시키었다. 이러한 모순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바로 중국에서의 이권을 둘러싼 미, 영 제국주의자들과 구미열강과의 대결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방도를 중국과의 전면전쟁에서 찾았다. 그들은 이 전쟁만이 중국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지배를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이 지역에서 미, 영 세력을 구축하고 일본을 아세아의 맹주로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하였다.





일독방공협정체결

이에 대한 미, 영의 태도는 양면주의적이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일제의 무분별한 침략적 망동을 제한하려고 하면서도 다른 편으로는 중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일제의 침략을 조장시키었다. 그리고 일본을 사촉하여 반쏘의 길로 나가게 하였다. 미, 영은 이런 방법으로 저들이 중국에서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이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였다.

화북사변 후 일본제국주의는 군비확장과 전쟁준비정책을 계속 추구하면서 동아대륙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남양으로 진출하여야 한다는 기본국책을 확정하였다. 이것은 일제가 중국과 쏘련에 대한 전쟁정책은 전쟁정책대로 추진시키면서 동시에 시기를 기다려 동남아방향으로 남하하려는 전략적 방안이었다.

고노에내각은 미국,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제국주의열강들의 ≪불간섭≫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중국내부에 아직 항일민족통일전선이 확고히 성립되지 못하고 있던 유리한 기회를 타서 마침내 중국에 대한 전면전쟁을 도발하였다.

1937년 7월 7일 일본군대는 군사연습 중에 있던 병사 한 명이 실종되었다는 것을 구실로 완평현성에 대한 수색을 무리하게 요구해 나섰다. 이것을 발단으로 하여 충돌이 야기되었다. 일본군대는 송철원의 29군이 저항해 나서자 노구교를 점령하고 베이징을 포위하였다.

노구교사건은 하나의 자그마한 우발적인 충돌이었던 것만큼 현지교섭으로써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도발의 구실을 찾고 있던 군부의 압력밑에 고노에내각은 7월 11일 일본에 있는 불확대를 떠들면서도 실제로는 이 별치않은 사건을 중일전쟁을 확대하는 구실로 이용하였다. 8월 13일에 일본군은 벌써 상해를 공격하는데 이르렀다. 노구교에서 울린 총성은 드디어 중일간의 큰 전쟁으로 번져지게 되였다.

중일전쟁의 발발은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새로운 과제들을 수많이 제기하였다. 우리는 격변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전략전술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중일전쟁의 발발과 관련한 소식을 들은 후 나는 며칠동안 이 전쟁이 어떻게 번져지며 우리 혁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에 어떤 태도와 방법으로 대처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줄곧 사색을 거듭하였다.

중일전쟁은 일제가 화북이나 먹고 물러앉을 국지전이 아니였다. 또 만주사변처럼 몇 달 동안에 속전속결된 성격의 싸움도 아니었다. 이 전쟁은 그 자체가 장기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었으며 지역전쟁,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중일교전쌍방 외에 제3의 나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가장 확실한 것은 일, 쏘 충돌이 불가피하는 사실이었다. 역사적으로 고찰해볼 때 조선과 만주는 로, 일 각축전의 중요한 마당이었다. 그것이 금세기 초에 있었던 러일전쟁 발발의 주되는 원인으로 되었다. 쏘련이 성립된 후에도 일본의 대륙침략야망으로 하여 여전히 쏘일간의 관계는 날카롭게 대치되어 있었다. 중일전쟁전야에도 쏘련과 일본은 아무르강상에 있는 두 개 섬의 영유권문제를 놓고 아슬아슬한 대결상을 보이었다. 그것은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을 배태한 대결이었다. 모스크바에서의 직접적인 외교적 교섭으로 분쟁은 일단 해소되었으나 일본은 그 후에도 일만공동방위라는 명분밑에 매우 강경한 자세로 쏘련과 맞섰다.

세계의 대다수 여론이 쏘일간의 이 분쟁으로 큰 전쟁의 불집이 터지게 될 것이라고 시사한 것은 전혀 무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일제가 만주를 점령한 다음에 중국본토를 침략하고 나아가서 몽골과 쏘련의 원동부분을 차지할 야망을 품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었지만 일본은 쏘련과의 전면전쟁을 시기상조로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날을 따라 강해지고 있는 쏘련의 국력과 국방력을 은근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하는 조건에서 쏘련과도 전쟁을 한다면 그보다 더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었다. 일본은 두 개의 대국과 동시에 전쟁을 치를 수 있을 만한 국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의 적지 않은 대원들과 지휘관들은 전쟁이 확대될수록 우리 혁명에 불리한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천진역부근에서의 교전

나는 중일전쟁발발에 대처한 전략적 방침을 한시바삐 세우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투쟁해야 할 절박성을 느끼었다. 1937년 7월 중순 백두산밀영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 지휘성원들의 회의와 그 해 8월초 장백현 초수탄에서 소집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는 이 방략을 확정한 회의들이었다. 우리는 이 회의들에서 급변하는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항일무장투쟁을 강화하고 전반적 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어 올릴 데 대한 전략적 방침을 제시하였다. 백두산밀영에서 열린 회의에는 마동희, 이제순을 비롯하여 백두산지구와 국내에서 활

동하던 정치공작원들과 지하조직책임자들도 참가하였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문제들 가운데서 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중일전쟁에 대처하여 혁명의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꾸리고 적배후교란작전을 강화하며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치는 것이였다. 우리는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한 방도의 하나로서 백두산서남부일대와 국내에 더 많은 지하조직을 내올 데 대한 문제와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치공작소조들이 낭림산 줄기를 이용하여 혁명근거지를 꾸리며 국내도처에 생산유격대와 노동자돌격대를 조직할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진지하게 논의하였으며 이와 함께 신파, 장백현 하강구 일대에서의 당조직건설과 조국광복회하부조직건설 정형, 군중정치사업과 유격대원호사업 정형을 요해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대책도 동시에 토의하였다.


일본군에게 총탄을 안기는 중국병사들

그 당시까지만 하여도 일제는 자기 나라를 세계5대강국의 하나, 3대해군국의 하나라고 자처하고 있었다. 열강들도 그런 눈으로 일본을 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조만간에 무서운 함정에 빠지게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일제가 초기에도 비록 중국의 항전역량에 생긴 공백을 이용하여 일시적인 우세를 차지할 수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 부정의의 전쟁은 항상 내부모순을 동반하는 법이다. 자국내에서의 전쟁세력과 반전세력간의 모순과 동반하는 법이다. 자국내에서의 전쟁세력과 반전세력간의 모순과 이권쟁탈을 위한 제국주의열강들간의 모순은 일본의 전쟁수행에 제동을 거는 무시할 수 없는 요인들이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 그들은 구라파에 독일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동맹국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동맹국들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었다. 일제가 중일전쟁을 확대하고 ≪남방진출≫을 단행하게 되면 그것은 불피코 제국주의열강들간의 모순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었다.

끝없는 치부욕과 팽창욕에 환장이 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만주를 침략한 다음 그것을 채 소화하지도 않고 연방 중국본토까지 삼키겠다고 욕심사납게 덤벼들었지만 그것은 고양이가 소대가리를 맡은 격이였다. 일본이 소화불량증에 걸리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었다.

일제는 중일전쟁발발을 계기로 하여 조선에서 식민지통치기구들을 더욱 강화하고 완비하였다. 각종 파쑈악법들이 새롭게 조작되어 인민들의 사상과 육체를 무시무시하게 얽어매였다. 1931년부터 실시하여오던 ≪군기보호법≫도 전시환경에 맞게 개악되었다. 적들은 ≪전시병참기지로서의 조선의 특수한 사명≫이니 ≪대륙정책수행에서 조선이 걸머쥔 임무≫니 뭐니 하면서 모든 것을 전쟁수행에 복종시키였다.

조선에 대한 일제의 약탈은 경제적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적들은 인적 자원도 사정없이 약탈하였다. 청장년들을 징발하여 전쟁판에 내몰았고 막대한 노동력을 군수공장과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공사장들에 강제로 동원시키였다.

중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비할 바 없이 강해지고 악랄해


베이징 광안문으로 입성하는 일본군

진 일제의 파쑈적 폭압과 경제적 약탈은 우리 민족의 처지를 참을 수 없는 막바지에 밀어 넣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이런 불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중일전쟁으로 하여 조성된 복잡한 정세를 영활하게 이용하면 화를 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나는 초수탄에서 열린 군정간부회의에서도 정세를 이런 각도에서 평가하고 그에 대응할 것을 강조하였다. 백두산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조직건설의 측면에서 많이 논의하였지만 초수탄회의에서는 적배후교란작전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과업을 항일연군부대들과의 협동작전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군사적 측면에서 많이 협의하였다.


주재일

나는 이 회의에서도 역시 두만강, 압록강 연안일대를 비롯한 광활한 지역에서 적배후교란작전을 강화하여 국내에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을 더 많이 파견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계속 확대강화해 나갈 데 대하여 힘주어 말하였다.

우리는 적배후교란작전을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벌이기로 하였다. 하나는 낭림산줄기에 의거하여 밀영망을 꾸리고 국내도처에 생산유격대와 노동자돌격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전민항쟁의 군사적 기반을 마련하며 국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대중투쟁을 통하여 일제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격전의 방법으로 일본침략군의 중국관내에로의 기동을 가로막고 그들의 전략작전을 파탄시키는 것이었다.

초수탄회의에서는 새로 세운 전략적 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을 부분적으로 개편하고 부대들의 활동지역을 실정에 맞게 분담하였다. 국내에 파견할 무장소조와 정치공작소조 문제도 협의하였다.

적들은 중일전쟁을 일으킨 후 우리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일본의 군경우두머리들은 우리가 새로운 활동방침을 세우고 부대를 개편하고 활동지역을 분담하였으며 8월 29일의 국치일을 계기로 만주의 주요도시들을 공격하고 국내에로 일제히 쳐들어갈 것을 협의하였다고 하면서 그 대응책을 세우느라 복닥소동을 피웠다. 후에 알게 되였지만 이런 사실이 적들의 비밀문건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초수탄회의를 마치고 장백, 임강, 현경으로 다시금 나가기에 앞서 나는 동북항일연군부대들과의 연합작전과 적배후교란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위증민을 만났다. 그 당시 위증민은 만강의 상류인 화피하기슭의 동만강밀영에서 정양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날 우리 일행을 동만강밀영으로 안내한 사람은 중대정치지도원이었던 주재일이었다. 그가 동만강일대의 지형을 잘 알고 있었다. 주재일은 강원도태생이었지만 어렸을 때 화룡지방에 가서 살다가 어랑촌에서 유격대에 입대하였다. 유격구가 해산될 때 화룡에서 살던 여섯 세대가 초수탄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중 한 세대가 주재일이네 집이었다. 주재일은 반일부대에서 사업하다가 1937년 3월에 자기 처와 함께 우리 사령부를 찾아왔다. 그때 우리는 그를 반일부대출신의 중국인병사들이 많은 중대에서 정치지도원으로 일하게 하였다. 그가 중국말도 잘하고 중국풍습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후에 그는 경위중대 정치지도원으로 있다가 연대정치위원으로까지 승진하였다. 주재일은 목적지까지 우리를 무사히 안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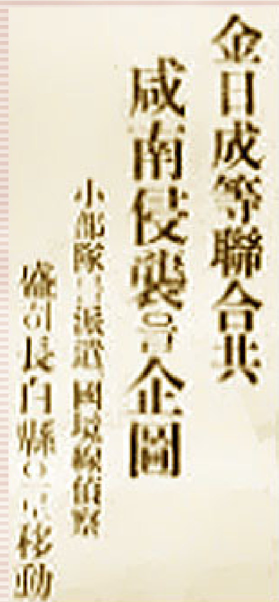
위증민은 중일전쟁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조중 두 나라 인민들과 공산주의자들이 협력을 잘 해나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조선동지들과 조선인민들의 협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당신들

은 지금까지 중국혁명을 아무런 사심도 없이 성심성의로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먼저 조선동지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전호속에서 고락을 같이한 나날들은 두 나라 역사 뿐 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역사에도 영원히 남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사령, 조선민족이 겪고 있는 시련을 오늘은 중화민족이 겪게 되었습니다. 이 시련의 시기에 우리는 조선인민이 우리의 편에 확고히 서있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위증민의 말은 매우 절절하였다.

2군 정치위원이며 남만성위 서기의 중책을 지닌 그는 진실을 담아 이야기할 줄 아는 솔직한 사람이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적배후교란 활동을 보도한 당시 신문

반민생단 투쟁의 극좌적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투쟁과적이 잘 보여주는 바와 같이 위증민은 그 누구보다도 조선공자주의자들의 고충과 아픔을 이해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하였다. 나는 그가 조선인민을 동정하고 조선공사주의자들의 투쟁을 여러 모로 도와준 데 대하여 응당한 경의를 표시하여왔다. 그도 시종일관 각별한 애정과 친근감을 가지고 나를 대해주었다.

위증민은 동북지방의 항일무장투쟁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혁명군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항상 높이 평가하군 하였다.

이날 위증민은 중일전쟁이 터진 후의 중국의 내외정세와 중국공산당의 대일전쟁방침에 대하여 상세하게 통보해주었다. 그 통보 가운데서 특별히 두드러진 것은 새로운 국공합작과 항일민족통일전선의 실현을 위한 중국공산주의자들과 진보적인 애국인사들의 움직임이었다.

7.7사변이라고도 불리우는 노구교사건이 있은 다음날 중국공산당을 중화민족이 다 떨쳐나서는 항일전쟁만이 나라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민족통일전선의 튼튼한 장성을 쌓아 왜놈의 침략에 저항하자.≫고 전국에 호소하였으며 7월 15일에는 ≪국공합작을 공포하는 중국공산당의 선언≫을 국민당 중앙에 보내였다.

중국공산당이 국민당측에 내전의 중지와 국공합작을 호소하는 제안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추진시킨 것은 물론 이때가 처음이 아니였다.

일제가 만주를 강점하고 관내에로 침략의 창끝을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개석 국민당은 공산당을 반대하고 노농홍군을 ≪토벌≫하는데만 열을 올리면서 적극적인 항전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장개석은 방대한 군사역량을 동원하여 서금에 있는 중앙쏘비에트를 없애버리려고 무려 5차례에 걸쳐 대규모적인 ≪토벌≫작전을 벌이었다. 국민당은 외적보다 공산당을 오히려 더 적대시하였다.

중국공산당도 당시까지는 항일에 주력을 돌릴 수 없었다. 공산당의 주공방향은 토지혁명과 국민당과의 싸움이였다. 외적이 침노하였을 때에는 내전을 일시 중지하고 국민이 힘을 모아 항전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제2차 국내혁명전쟁으로 알려져 있는 내전과 내분을 종식시키지 못하고 1930년대 중기에 들어섰다.

그 후 중국공산당은 대세에 맞게 항일제일주의의 새로운 전략으로 나아갔다. 중국공산주의자들은 ≪북상항일≫의 구호밑에 역사적인 2만 5천리장정을 단행하여 섬감녕변구에 새로운 근거지를 창설하였다. 그 후 그들은 ≪동정항일≫로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과의 직접적인 대결에 나섰다.

중국공산당은 그 후 ≪반장항일≫로부터 ≪연장항일≫로 구호를 바꾸고 국공합작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내성있게 노력하였다. 중국공산주의자들의 이 노력은 서

안사변을 계기로 심화되었으며 중일전쟁이 발발된 후 여산에서 진행된 장개석과 주은래의 담판으로써 마침내 그 열매를 다시 얻게 되었다.

나는 여산담판때 주은래가 장개석과 만주와 화북 그리고 조선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항일활동을 적극화할 데 대한 문제를 논의하였다는 위증민의 말을 좋은 감정으로 받아들이었다. 그것은 중국공산당 중앙이 항일전쟁수행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영도하는 무장투쟁에 큰 기대를 걸고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모택동

1937년초 모택동은 쏘련의 국제정치잡지 ≪태평양≫에 쓴 ≪전중국 구국회성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 항일주의가 가능하다는 산 실례로 동북에서의 항일유격대활동을 들었다. 그는 동북지방의 항일유격대가 몇 해 어간의 투쟁에서 10만 이상의 적유생역량을 소멸하고 수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줌으로써 중국본토에 대한 일제의 침공을 견제하고 지연시켰다고 썼다. 동북 항일유격대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업적도 포함되어 있었다.

위증민과 나는 일제가 시베리아보다 중국본토를 먼저 삼키려고 하는 조건에서 적배후교란의 대부분의 부담은 북만의 항일연군부대들보다 동만이나 남만의 항일유격부대들이 많이 져야한다는데 대해서 견해를 같이하였다.

그날 위증민은 의견을 교환하던 과정에 공헌영의 부하가 남경정부 밀사의 자격으로 수련경내를 거쳐 2군 지도자들을 찾아왔다고 하면서 만나보지 않겠는가고 하였다. 남경정부 밀사가 만주로 온 것은 국민당의 남경정부가 동북항일역량과의 합작을 각방으로 모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공헌영은 왕덕림의 구군군에서 부사령으로 있을 때부터 우리와도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었다. 그는 왕년에 우리와 함께 인민혁명군을 창건하는데서도 한 몫 하였다. 공헌영은 쏘련원동군사령부의 연락을 받고 일부 인원들과 함께 쏘련으로 넘어갔다가 관내로 들어갔다. 관내에서의 그의 활동이 주목할만하였다. 그는 이두, 왕덕림 등과 함께 남경정부와도 연계를 가지고 장학량의 구동북군과도 관계하면서 만주에서의 항일투쟁에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동북의용군 총사령으로 임명된 다음에는 남경국민당정부와의 연계밑에 동북지방에서의 항일운동에 대한 외부적 자원을 종종 조직하곤 하였다. 공헌영이 우리에게 남경정부의 명의로 밀사를 파견한 것은 그가 만주지방의 항일무장투쟁에 여전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은래

밀사도 공헌영과 마찬가지로 동만에서 반일투쟁에 참가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밀사는 관내에서의 투쟁과 동북에서의 투쟁을 하나로 연결시킬 필요를 강조하면서 관내에서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고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노농홍군이 국민혁명군 소속부대들로 개편되어 장개석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들어가게 되는 조건에서 작전적 구상속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를 설명하였다.

우리는 그에게 관내실정과 동북실정의 구체적 차이점과 동북지방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의 상대적 독자성을 들어가면서 그가 제기한 방안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였다.

남경정부 밀사는 우리 견해가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제기를 철회하

였다. 그러면서도 관내와 동북지방의 불가분리적인 연관에 대하여 잊지 말고 호상 밀접한 연계를 가지면서 지지하고 협조해줄 것을 그루를 박아서 강조하였다.

우리는 관내투쟁을 돕는 의미에서 동북3성과 조선에서 일제의 배후를 철저히 타격할 것을 공약하였다. 밀사는 자기가 쏘련을 경유할 때 중일전쟁과정에 생기는 부상병들의 치료문제를 가지고 그 나라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였으니 상병자들이 생기면 필요한 때 약속된 통로를 거쳐 들여보내라고 하였다. 우리는 이미 쏘련에 노약자들을 보낸 전례도 있고 또 자기의 통로를 따고 가지고 있었지만 밀사의 호의를 고맙게 받아들여 앞으로 그 통로도 함께 이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박장춘

위증민과의 담화를 통하여 나는 중일전쟁과 관련된 전략에서 우리와 중국공산당의 견해가 기본적으로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배후교란작전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는 신심을 가지게 되었다.

위증민과 헤어진 후 우리는 장백-임강현경의 어떤 밋밋한 산능선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및 병사대회를 가지었다.

회의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우물비슷한 수직굴이 있었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어느 장난군이 그 굴에 돌을 굴려 넣었는데 한참만에야 첨벙하는 소리가 났다. 높은 산능선 바위틈에 어떻게 그런 굴이 생겨났는지 신비스러웠다.

이 회의에서는 중일전쟁과 관련된 조선인민혁명군의 전략과제가 상정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지휘관, 병사들의 결의가 피력되었다. 오늘날의 결의모임 같은 회의라고 할가. 백두산밀영과 초수탄에서 열린 회의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결의대회였다고 표현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한다.

그 대회에 대하여서는 혁명역사 전문가들과 저술가들이 글을 많이 썼고 회의에 참가했던 투사들도 여러 기회에 회상하였기 때문에 더 언급하려 하지 않는다.

백두산회의와 초수탄회의, 지휘관 및 병사대회는 다 중일전쟁에 대처한 우리의 정치군사적 대안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우리는 중일전쟁 첫 시기부터 국내진공작전의 승리를 공고히 하면서 적배후교란작전을 과감히 벌이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노구교사건직후에 장백현 19도구 마순구부근전투를 비롯한 많은 전투를 벌이었다.

이 시기 민족혁명당의 기관지 ≪전도≫는 우리의 적배후교란작전을 두고 ≪이것은 확실히 조중 양국민족의 위대한 연합전선의 제일성≫이라고 썼다.

이 시기 적배후타격을 위하여 최현네 부대도 장백을 떠나 임강, 통화, 유하, 몽강으로 이동하면서 거듭 전과를 올리었다. 안길과 박장춘도 강건부대와 연합하여 적들을 통쾌하게 족치였다. 김책, 허형식 등이 진행한 해륜원정과 심양철도연선까지 진출한 남만부대들도 적의 배후를 크게 타격하였다. 우리의 무장소부대와 정치공작원소조들은 국내 종심 깊이에 침투하여 도처에서 적들의 손발을 묶어놓았다. 조선과 만주에서 조중공산주의자들이 벌인 정치군사활동과 치열한 배후교란작전은 중국의 항일진영을 크게 고무해 주었다.


蔣介石氏・突如監禁さる
張學良氏 兵變を指揮
對日宣戰、容共を通電す

새로운 국공합작의 길을 열어 놓은 서안사변

중국을 단숨에 먹어보겠다던 일제의 허망한 꿈

은 북중국과 상해계선에서 중국인민들이 벌인 투쟁과 조선인민혁명군과 중국동북지방 항일연군부대들의 적극적인 배후교란작전에 의하여 여지없이 파탄되었다.

《일격론》, 《단기종전론》을 떠들던 일본이 장기전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의 적배후교란작전도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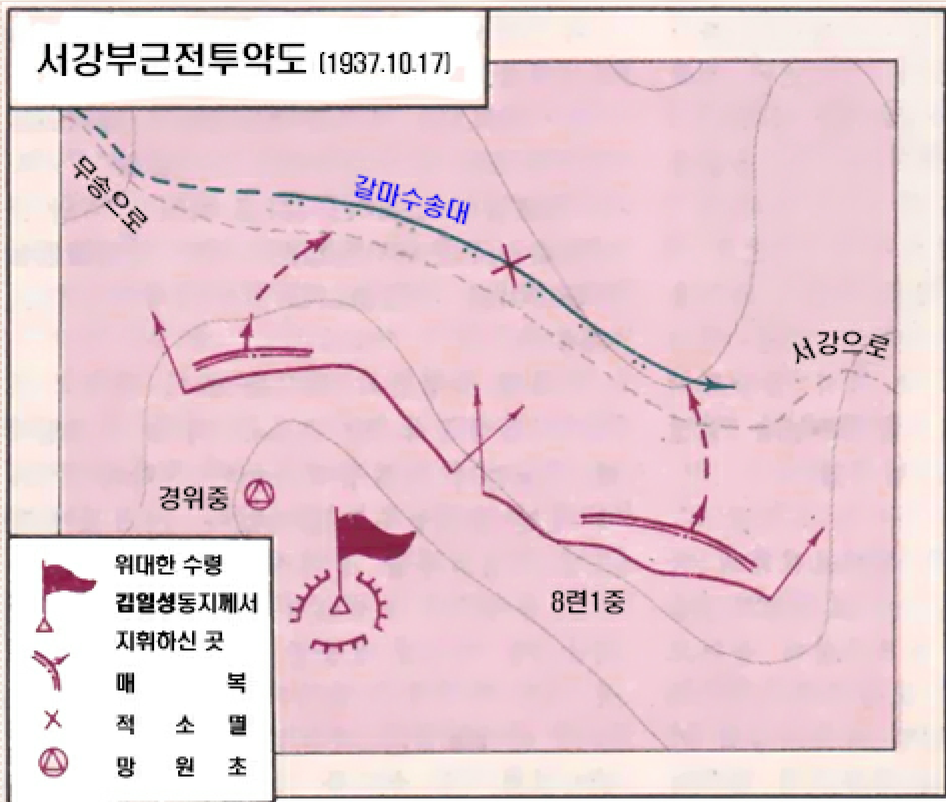
중일전쟁의 장기화와 관련하여 우리는 임강현 신태자밀영에서 당시까지의 배후교란작전정형을 총화하고 조선국내에서의 배후교란과 적의 군사수송체계, 특히 무기와 탄약 운반을 파탄시킬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이 시기에 진행된 대표적인 전투가 휘남현성전투이다.


김영환

휘남현성은 교통이 발달된 평지의 성시여서 습격하기가 매우 불리하였다. 멀지 않은 곳에는 길해선이 있었다. 휘남근처의 여러 곳의 적의 《토벌대》의 거점으로 꾸려져 있는 조선에서 성시공격에 성공한다 해도 제때에 철수하지 못하면 적증원부대의 추격을 받을 수 있었다. 휘남현성진공이 여러 모로 보아 불리한 줄 알면서도 우리가 이 전투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7연대를 파견하고 새로 편성된 이동학, 최춘국이네 경위연대와 4사의 일부를 참가시킨 것은 이 현성이 적배후교란작전의 타격대상으로 적합하였기 때문이었다. 휘남현성은 적의 주요 《토벌》거점들 중 하나였을 뿐 아니라 그 주변일대 여러 현들에 파견되어 있는 위만군부대들의 후방기지이기도 하였다. 성안에는 두 개의 큰 군수품창고가 있었다.

이 현성진공전투에는 항일연군부대들과 함께 반일부대들도 참가하였다.

아군은 불의에 성안에 쳐들어가 적의 군수품창고에서 많은 천과 솜, 식량을 빼앗



은 다음 주동적으로 철수하였다. 현성습격전투 후 아군부대들은 해룡, 반석, 몽강 등 방면에서 밀려오는 일본군과 위만군의 증원부대들을 다시 한번 호되게 타격하였다. 휘남현성전투에 앞서 우리 주력부대가 진행한 무송-서강매복전투도 배후교란작전에서 자못 의의가 컸다. 적배후 교란 작전의 나날 우리는 이달경, 김영환, 전철산 등 귀중한 전우들을 잃었다.

김영환은 왕청에서 공청사업을 하다가 유격대에 입대한 사람이다. 우리는 유격구시절에 그를 연길유격대 중대정치지도원으로 파견하였다.

1937년 12월 김영환은 연길땅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전철산은 훈춘유격대출신이었다. 우리는 노흑산전투 때 그를 처음으로 만났다. 그 후 그는 왕청 4중대 정치지도원으로 소환되었다. 그에 대해서도 오진우가 잘 안다. 전철산은 1937년 9월에 액목에서 전사하였다.


전철산

이 시기 우리는 남만에서 조국광복회 대표로 사업하던 이동광도 잃었다. 유능한 정치일군이었고 용감한 유격대지휘관이었던 그의 희생을 두고 양정우는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적의 남만 ≪토벌≫작전때 이동광은 통화중심현위가 파괴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적의 ≪토벌≫사령부가 있는 고산자를 거쳐 유하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는 약장사로 가장한 채 두 명의 호위성원만을 데리고 대낮에 적들이 욱실거리는 고산자거리에 들어섰다.

골목골목에는 이동광을 잡으라는 체포영장이 나붙어있었다. 그 체포령에는 이런 글이 씌여져 있었다.

≪남만특위 공산비적 두목 이동광 연령 30세 좌우, 키꺽다리, 반고수머리, 눈이 특별히 큼.

이자를 고발하거나 체포하는 사람에게는 후하게 상금을 주며 숨기는 자는 극형에 처함.≫

이동광은 자기에 대한 체포령이 나붙은 게시판에 마주서서 태연히 다 읽어보고서야 여유있게 거리를 떠났다고 한다. 이동광, 이달경, 김택환, 김영환, 전철산의 생애는 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적 복무의 빛나는 모범이었으며 적배후교란의 자욱을 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의지와 넋을 더운피로 역사에 아로새긴 고귀한 노정이었다.

내 일생의 총적 지향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혁명의 길에 나선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술로 한 생을 살아왔다. 전진도상에 난관이 가로막아 나설 때마다 나는 그 앞에서 주저앉거나 동요하지 않았다. 그것을 에돌거나 피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신심을 잃지 않았고 불굴의 의지와 완강한 노력으로 그것을 극복하였다.

혁명발전의 여러 단계에서 우리가 주로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술을 써온 것은 나 개인의 취미나 성격 때문이 아니라 복잡하고 시련에 찬 우리 혁명이 제기한 요구였다.

중일전쟁이 일어난 후 세계를 뒤흔드는 복잡한 정국의 소용돌이속에서 우리가 만일 방어나 후퇴, 우회하든 방법에만 매달렸다면 우리앞에 가로놓였던 난국을 타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우리가 그때 역경을 맞받아나가 그것을 순경으로 전환시킨 혁명적 전략이 천백 번 옳았다고 생각한다.

2. 김주현


조선인민혁명군의
연대장 김주현

김주현은 우리 인민들속에 항일유격대의 가장 대표적인 후방일군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하지만 그는 후방사업에만 능한 것이 아니였다. 그는 우수한 군사지휘관이기도 하였으며 유능한 정치공작원이기도 하였다. 원래 그는 유격대에 들어오기 전에 지하조직사업에 많이 관여하였다.

내가 김주현을 알게 된 것은 항일유격대 뭇기 전부터였다. 1931년에 우리가 흥륭촌에서 무장투쟁준비를 하고 있을 때 김주현은 대사하 고등창이라는 마을에서 농민협회와 반일동맹조직을 책임지고 지하활동을 하고 있었다. 나에게 그를 처음으로 소개해준 사람은 소사하구 당조직책임자였던 김정룡이였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아주 허심하고 솔직한 사람이였다. 어느 날 나는 김정룡에게서 김주현이 독립군출신들을 반일동맹조직에서 몽땅 몰아낼 잡도리를 하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그를 찾아갔다. 편협한 사람들로부터 독립군에 대하여 나쁜 소리만 들어온 김주현은 독립군출신들을 투쟁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나는 혁명에서 통일전선이 가지는 의의와 반일애국사상을 가지고 있는 독립군출신들에 대하여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들을 품놓고 이야기해주었다.

김주현은 다음날 자기가 축출하려던 독립군출신유지들을 찾아가 사죄하였다. 유지들은 김주현을 돼먹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였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김주현은 일하는 과정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나를 찾아와 의논하군 하였다. 나도 가끔 그의 집을 찾아가군 하였다. 8살이라는 나이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럼없는 친구로 되었다. 1931년이면 내가 항일유격대 대장을 하던 때도 아니였다. 그렇지만 김주현은 나의 의견을 항상 허심하게 받아들이였다.

나는 그의 겸허성에 매혹되었다. 그도 나를 무척 좋아하였다. 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덮어놓고 다 지지하였다.

그런데 그 집 식구들은 김주현을 누구도 휘여잡을 수 없는 옹고집쟁이라고 하였다. 그가 결혼하고 세간나던 과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과연 그런 말을 들을만도 하였다.

김주현이네 일가는 원래 함북도 명천땅에서 살다가 가난 때문에 화룡땅에 옮겨앉은 가정이였다. 퍼그나 애어린 시절에 떠나온 고국땅을 늘 그리워하던 김주현은 서당공부를 마치자 어대진에 나가 어업노동을 하면서 잔뼈를 굳히었다. 김주현의 형은 장가갈 나이가 지나도록 집에 돌아올 궁리는 조금도 하지 않고 그냥 타관에 머물러있는 동생을 억지로 대사하에 데려다가 이미 자기들이 점찍어둔 이웃동네의 처녀와 강제약혼을 시켰다.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채 부모들끼리 맺은 혼약이였던만큼 김주현은 약혼녀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였다.

그는 부모들끼리 약혼식을 하건말건 연해주에 다녀온 적이 있는 구산학교선생한

데만 뻔질나게 드나들며 러시아혁명바람을 쏘이다가 집에서 잔치준비를 서두르는 것을 보자 아버지에게 자기는 낯도 코도 모르는 여자와 짝을 무을 생각이 조금도 없느라고 실토하였다. 아버지는 아들이 그저 한번 해보는 소리라고만 여기고 웃어넘기고 말았는데 잔치날을 며칠 앞두고 신랑감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부모들은 큰 변고가 났다고 걱정하였다. 처녀의 집에서도 야단법석을 하였다. 김주현의 형은 동생의 행방을 찾으려고 온 겨울 집안 일을 전폐하고 돌아다니며 간도땅을 발칵 뒤지다가 구산학교선생한테서 동생이 러시아에 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갖은 신고를 다한 끝에 러시아에 가서 동생을 데려왔다. 김주현은 결혼을 모면할 수 없었다. 그가 돌아오기 바쁘게 집에서는 벼락잔치를 하였다.

그러나 김주현은 잔치를 한 다음에도 집에서 직심스럽게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늘 밖에 나가 살았다. 아버지는 생각다 못해 그에게 집을 한 채 지어주었다. 세간을 내여 딴 살림을 시키면 처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도 아들이 떠돌아다니지 않고 집에 눌러앉아 농사를 지으리라고 속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런 처사는 오히려 김주현의 혁명열에 부채질을 해주는 격으로 되었다. 그는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 집에서 조직을 꾸리고 군중을 계몽시키기 위해 하고 싶은 일을 다하였다. 나중에는 집안에 땅굴을 파놓고 갓 시집온 안해까지 혁명사업에 끌어들이었다. 김주현의 아버지는 손을 들고 나앉으면서 개탄하였다.

≪그놈의 고집은 할 수 없구나!≫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김주현이 아주 줏대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의 의사와 결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길을 완강하게 헤쳐나가는 김주현의 그 성미는 우리 마음에 퍽 들었다.

김주현은 바로 그런 완강성과 진취성을 가지고 우리가 안도에서 항일유격대를 창건한지 얼마 안되어 화룡땅에서 유격대를 조직하고 지휘성원으로 활약하였다.

몇 년동안 서로 헤어져 활동하던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한 부대의 식솔로 된 것은 마안산에서 새 사단을 편성하던 무렵이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새로 편성된다는 소식을 듣고 맨 먼저 우리를 찾아 마안산으로 달려온 것이 김주현이네 소부대였다. 간부감이 발라서 애를 먹고 있던 차에 그가 와주니 귀인을 만난 듯이 반가왔다.

당시는 부대의 세간을 맡아볼 사람도 없어서 연대정치위원 김산호가 그 일까지 겸하여 보고 있을 때였다. 부대를 편성하는 기회에 나는 김주현을 사령부후방부관으로 임명하였다. 김주현은 부대의 후방사업을 드세게 내밀었다. 별로 분주히 뛰어다니거나 후방부문의 대원들을 다몰아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어렵지 않게 구해들이고 부대살림을 윤택하게 만들었다.

유능한 후방일군으로서의 김주현의 뛰어난 솜씨는 부대가 백두산지구에 나와서 활동하던 시기에 남김없이 발휘되었다. 그가 한번만 출동하던 인차 지원물자를 진원군대열이 꼬리를 물고 밀영으로 밀려들곤 하였다. 일단 마음먹은 것이면 그는 무엇이든지 다 구해들었다.

항일무장투쟁의 전 기간에 걸쳐 1937년 설처럼 명절은 흔치 않았다. 그것도 김주현이 백두산에 와서 처음 맞는 설인데 허술히 쇨 수 없다면서 마음먹고 준비한 덕이였다.

보천보전투를 앞두고 마련한 600여벌의 군복, 군모, 행전, 탄띠, 배낭감들과 천막감 그리고 또 그만한 수량의 신발들과 막대한 식량들도 그가 책임지고 오중흡과 함께 구해들인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김주현을 두고 제 색시 하나도 먹여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였지만 그는 두 주먹밖에 가진 것이 없는 백두산에서 수백 명 식구들의 식의주 문제를 두 어깨에 걸머지고 많은 일을 하였다.

내가 김주현의 수고와 후방사업성과를 치하하면 그는 서간도 인민들이 좋은 인

민이기 때문에 일이 저절로 잘된다고 하였다.

부대의 살림살이 때문에 늘 입술이 부르터 가지고 눈에 충혈이 가셔질 새 없이 돌아다니는 김주현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동된 인민들은 스스로 지혜를 짜내어 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김주현은 인민들속에 들어가면 항상 그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알아주고 풀어주는 인민의 아들이 되었으며 대원들속에 돌아오면 다심하고 후덕한 어머니로 되었다. 서간도 사람들은 그를 가르켜 ≪우리 김부관≫이라고도 하였다.

김주현은 아무리 굳게 닫긴 마음의 문도 어렵지 않게 열어제끼는 독특한 수완과 특이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었다.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진정으로 대하며 양심적으로 행동하고 검박하고 겸허하게 처신하는 참사람으로서의 인간적 향취가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던 것이다.

김주현이 후방사업에서만이 아니라 정치공작에서도 매번 큰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의 하나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다.

내가 김주현의 후방사업에서 독특한 점이라고 본 것은 그가 매사를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간다는데 있었다. 가령 우리가 후방부에 군복제작과 관련한 과업을 주면 그는 아내일군들에게 사령부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되받아 넘긴 것이 아니라 그 과업의 절박성과 수행방도에 대하여 진지하게 해설해주었다.

그의 정치사업능력을 귀중히 여긴 나는 어렵고 복잡한 정치공작임무가 제기될 때마다 자주 그를 찾군 하였다. 나는 백두산근거지창설을 위하여 선발대를 파견할 때에도 김주현을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그 선발대를 파견한 목적이 단순히 백두산 밀영후보지들을 탐색하고 부대의 이동통로를 개척하며 국경지대의 적정과 인민들의 동향을 알아오는데만 있은 것이 아니라 반일지하혁명조직들을 내올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찾아내고 준비시키는데 있은 것만큼 반드시 정치공작을 병행해야 하였기 때문이었다.

김주현은 그때 자기가 받은 정치공작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였다. 그가 백두산지구에 선발대로 나가서 이룩해놓은 업적은 응당 글로 써서 크게 자랑할 만한 것이었다. 소백수골, 곰산, 사자봉, 선오산, 곰의골, 지양개골, 덕수골을 비롯한 백두산지구의 밀영후보지들은 모두 김주현이 인솔한 선발대가 찾아낸 것이었다. 그는 지양개, 소덕수, 신창동, 판도거리, 종리원촌, 평강덕, 상풍덕, 도천리, 삼수골과 같은 서간도의 여러 농촌들을 돌아다니면서 당조직건설과 통일전선운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들도 많이 발굴하였으며 혁명군의 후비원천도 적지 않게 마련해놓았다. 김주현일행은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창립선언에 담겨진 우리의 혁명노선을 국내와 서간도의 넓은 지역에 전파하는데서도 큰 역할을 하였다. 김주현선발대의 사업성과는 우리의 항일무장투쟁을 한 단계 비약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도약대로 되었다.

힘든 일거리가 생길 때마다 제일먼저 찾게 되는 사람, 김주현이 우리 부대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바로 이런 것이었다. 그는 모두가 아끼고 사랑하는 부대의 보배였다. 그의 혁명임무에 대한 강한 책임성과 높은 정치적 자질, 능숙한 조직적 수완, 노련한 사업방법은 모든 지휘관들이 귀감으로 삼을만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김주현은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었다.

김주현의 업적과 사업능력을 늘 좋게 평가하고 있던 나는 1937년 8월중순에 그를 국내로 파견되어가는 소부대의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1937년 8월이면 중일전쟁이 폭발한 직후이다.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우리는 이 전쟁의 발발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정치군사활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며 적의 배후를 크게 교란시키고 항일혁명을 정세의 요구에 맞게 한 계단 더 앙양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 계획을 실현하자면 무엇보다도 정치군사적으로 잘 준비된 유능한 인원들을 선발하여

소부대를 뭇고 그들을 국내의 필요한 지역에 선견대로 파견하여 현지에서 우리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국내의 혁명조직들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성진, 길주, 명천, 단천 등 함경북도 남부와 함경북도 북부 해안지대의 산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조선인민혁명군과의 연계를 가지려고 안타깝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통보해왔다.

소부대의 기본임무는 그런 애국청년들을 찾아내어 유격대를 조직하고 그들에 대한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였다. 무장투쟁에 참가할 수 없는 허약한 사람들은 그밖에도 소부대는 주민들속에서 지하조직과 무장대오를 확대하기 위한 대중정치사업과 인재탐색사업도 겸해서 하게 되어있었다. 우리는 소부대에 백두산줄기와 마천령산줄기, 부전령산줄기들에서 무장투쟁거점으로 삼을만한 밀영후보지들을 탐색할 데 대한 과업도 동시에 주었다.

그 사명의 중대성으로부터 우리는 쇠소리나는 쟁쟁한 사람들로 소부대를 꾸리였다. 거기에는 박수만, 정일권(옹조꼬맹이), 마동희, 김혁철과 같이 이미 정치공작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 망라되어있었다. 대장이 능란한 지휘관인데다가 대원들도 풍부한 투쟁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꾸려진 것만큼 소부대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기대는 컸고 그들의 기세와 결의 역시 대단히 좋았다. 나는 그들이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돌아오리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정일권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소!≫

나는 소부대를 떠나보낼 때 김주현에게 그 이상 더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의도를 속속들이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였다. 내가 한마디 말을 하면 열 가지를 풀이해내는 것이 김주현의 특징이였다. 그런 이유로 하여 나는 그에게 무슨 과업을 줄 때면 장황한 해석을 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건대 김주현에 대한 나의 믿음은 절대적인 것이였다.

짧아서 너덧 달, 길어서 대여섯 달 후에는 소부대가 좋은 결과를 가지고 부대로 돌아오리라는 것이 우리의 한결같은 기대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부대는 떠난 지 한 달이 좀 지나 문득 부대로 되돌아왔다. 이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심각한 사태였다. 나는 김주현의 얼굴빛을 보고 국내공작이 실패로 끝났음을 즉시에 간파하였다. 그의 보고는 나를 아연케 하였다. 소부대는 애국청년들이 모여있다는 성진지방에 가닿지도 못하고 갑산땅에서만 맴돌다가 되돌아왔던 것이다.

이제순의 신흥촌 통로를 거쳐 국내에 들어간 소부대는 박달의 조직선을 타고 혜산쪽으로 나가다가 그곳 지방조직으로부터 일본의 금광업자들이 본국으로 약탈해가는 금괴들이 증평광산에 보관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주현은 그 통보를 받자 광산을 쳐서 금덩어리들을 빼앗아 내기로 결심하였다. 후방일군으로서의 직업적인 본성이 자기도 모르게 발동되었던 것이다. 사실 금괴를 몇 개만 손에 넣으면 그것은 부대의 후방사업을 위해서 횡재로 될 수 있었다. 광산을 습격한 소부대는 얼마간의 금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대신 소부대성원들은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되였다. 증평광산에서 울린 총소리를 듣고 크게 놀란 적들이 수십 명씩 무리를 지어 소부대를 추적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광산에서 철수한 소부대는 덕산동뒤산에 올랐으나 사면포위의 위험에 빠져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다. 김주현은 한 장의 통고장을 써서 바람에 날려보냈다.

≪이 멍텅구리들아, 신출귀몰하는 혁명군을 아직 모르느냐, 우리는 압록강을 건너간다!≫

통고장을 읽어본 적들은 압록강쪽으로 밀려갔다. 그 틈을 타서 김주현은 소부대

를 이끌고 적들의 포위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다. 소부대는 요행 포위망에서 벗어났으나 국내깊이에로 더 들어갈 수 없었다. 함경남북도의 산악지방들과 유격대공작원들이 다닐 수 있다고 보는 길목들에 적들이 벌써 한 벌 쭉 깔려 있었기 때문이였다. 김주현은 차후에 다시 기회를 보아 국내에 들어가 공작임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일단 부대로 돌아오고 말았다. 보천보전투를 계기로 하여 절정으로 치닫아오른 우리 인민의 독립열망과 청년들이 참군열의에 편승하여 국내항일무력을 창설하고 무장투쟁의 불길을 동해안일대에까지 확대하려던 우리의 계획은 김주현소부대의 황당한 모험과 혹심한 자유주의로 하여 뒤로 멀리우게 되였다. 마천령산줄기에 만날 장소까지 정해놓고 소부대를 기다리던 국내의 애국청년들도 혁명군의 사절들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과 실망을 안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였다.


김주현

소부대가 공작현지에 침투하지 못하고 되돌아왔다는 소식은 유격대원들의 마음속에도 어두운 그늘을 던져주었다. 지하공작에 그처럼 능한 김주현이 공작현장까지 가닿지도 못하고 초입에서 되돌아섰다면 국내의 공기가 이만저만 살벌하지 않은 모양이라고 하면서 다들 침울한 표정을 지었다. 자칫하다가는 무장투쟁의 국내확대가 당분간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생길 수 있었다. 김주현의 실책은 이처럼 수습할 수 없는 것이였다.

나는 김주현이 실책을 범했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았다. 금덩어리 몇 개 때문에 소부대의 활동을 파탄시킨 그의 과오는 우리의 구상을 실현하는데서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왔다. 김주현의 자유주의로 해서 인민혁명군의 적배후교란작전과 국내진공작전에서는 하나의 커다란 공백이 생긴 셈이였다. 나는 지금도 그때 그가 동해안쪽으로 그냥 나가서 애국청년들을 만났더라면 우리의 생각에 종종 잠기군 한다. 그만큼 그 당시 나의 실망과 좌절감은 여간 크지 않았었다.

나의 분노도 보통정도를 넘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당시의 그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숙이고 처분을 기다리는 김주현에게 한마디의 추궁이나 책망도 할 수 없는 것이였다. 아마 노여움이나 실망이 극도에 달하면 꾸지람도 나가지 않는 모양이였다. 나는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를 지켜보기만 하였다.

사령부당위원회에서는 회의를 열고 김주현의 문제를 취급하였다. 동지들은 저마다 그가 범한 과오의 엄중성을 신랄하게 지적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격분한 나머지 주먹으로 방바닥을 내려치기도 하였다. 아마 그는 난생 처음으로 그런 비판을 받아보았을 것이다. 김주현은 모든 것을 체념해버린 사람처럼 맥없이 앉아있었다.

그날 사령부당위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정당하게 분석한 바와 같이 김주현이 극심한 자유주의를 범하게 된 근본원인은 소총명과 자고자대로부터 문제를 근시안적으로 본데 있었다. 그는 소부대의 임무를 전략적인 높이에서 새겨두지 못하였다. 그런대로부터 금덩어리란 말을 듣게 되자 그만 이성을 잃어버리였던 것이다. 김주현은 광산을 치면서도 그에 대한 후과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고백한 바와 같이 그 당시 그는 꿩도 먹고 알도 먹을 속심이였다. 말하자면 광산을 쳐서 금덩어리도 털어내고 청년들을 만나 무장부대도 조직하고 싶은 욕심이였다는 것이다.

물론 나는 그 고백을 진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고백속에는 한 마디의 허위도 없었다. 우리는 김주현이 얼마나 솔직하고 결백한 사람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의도는 어떻든지간에 소부대가 공작현지에 가보지도 못하고 돌아왔으니 전부대가 그들의 행위에 격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나는 김주현을 용서해주고 싶었지만 그런 말을 입밖에 내지 못하였다. 사령관이

친, 불친을 가리거나 원칙을 어길 수는 없었다. 인정에 못이겨 그의 과오를 눈감아 준다면 그것은 어느모로 보든지 백해무익한 일이었다. 내가 김주현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상의 방조는 그가 자기 과오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었다.

사령부당위원회는 김주현을 후방부관의 자리에서 철직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나도 물론 그 결정을 찬성하였다. 그러나 책벌을 받고 맥없이 사령부를 나서는 김주현의 뒤모습을 보면서 그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도와주지 못한 자기자신을 마음속으로 질책하였다.

소부대를 파견할 때 김주현에게 주변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돌아보지 말고 국내동지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까지 직행해야 한다는 말을 단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사태는 이렇게까지 번져지지 않았을 것이다. 솔직히 말하건대 나는 김주현이 후방부관으로서 금덩어리와 같은 그 어떤 물건에 현혹되어 활동노정을 바꾸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특수한 정황에 대해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다.

김주현은 후방부관의 자리에서 철직된 다음 사상단련을 아주 잘하였다. 지금은 그런 사상단련을 혁명화라고 한다.

사령부후방부관의 자리를 내놓고 작식대원으로 배치된 김주현은 새 초소에 온 첫날부터 가마를 지고 다니였다. 어제까지 자기가 지도하던 대원들앞에서 가마를 지고 다닌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였다. 그런 경우에 부닥치게 되면 사람들은 흔히 다른데로 보내달라고 제기한다. 그러나 김주현은 작식대원으로 일하는 것을 조금도 나무라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옆의 대원들이 미안해할 정도로 수걱수걱 맡은 일에 열중할 뿐이였다. 표정도 밝고 기분도 늘 명랑하였다.

어느 날 나는 김주현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8년대 식당으로 찾아갔다. 김주현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식사중에 있는 대원들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런데 한 대원이 자기앞에 차례진 국을 순식간에 다 먹어버리고 나서 숟가락으로 양재기를 두드리며 김주현을 소리쳐 부르는 것이었다.

≪여보 작식대, 국 한 그릇 더!≫

순하게 덧국을 청하는 예사로운 소리가 아니였다. 그것은 분명 남을 얕잡아보는 말투였다.

그러나 김주현은 아무런 내색도 없이 ≪예, 가져다 드립니다.≫하더니 국자로 국을 퍼 가지고 곱빼기로 청한 대원에게로 총총히 다가가는 것이었다.

그날저녁 나는 김주현을 하대하던 대원을 불러다가 과오를 범하고 철직을 당한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호령질을 하거나 얕잡아보면 안된다고 타일러주었다. 과오를 범한 사람일수록 외면하거나 경계하거나 천대하지 말고 더 따뜻이 대해주고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해주었더니 그 대원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었다.

직위라는 것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여서 높다가도 낮아지고 낮다가도 높아지는 것만큼 진정한 동지적 관계를 유지하려면 직위를 따를 것이 아니라 인간을 따라야 한다.

사람은 자기의 이웃이 곡절을 겪을 때일수록 그를 더 따뜻하게 충심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자기의 전우들이 과오를 범하고 본래의 직책에서 사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냉대하거나 따돌리지 않고 그들이 과오를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각방으로 도와주었다.

김주현이 작식대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한 주일쯤 지난 어느 날 나는 행군 중에 있는 그의 곁에 다가가 배낭을 벗으라고 하였다. 총과 배낭을 메고 거기다가 작식가마까지 지고 힘들게 걸어가는 그를 보니 측은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주현은 무겁지 않다고 하면서 사양하였다. 내가 배낭끈을 잡자 그는 배

낭을 벗기려는 나의 손을 고집스럽게 떼여놓았다. 그리고는 그냥 대열을 따라갔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 어쩐지 마음이 서운하였다. 이 사람이 혹시 철직처분을 내린 당회의의 결정을 고깝게 여기는게 아닐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무심결에 얼굴을 쳐다보니 김주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내 마음은 그 눈물앞에서 천근처럼 무거워졌다. 저 억센 사나이가 눈물은 왜 흘리는가?

김주현은 개인적으로 볼 때 커다란 슬픔과 불행을 안고 있는 사람이였다. 그의 안해는 지방공작을 나갔다가 적의 ≪토벌≫에 희생되였고 딸애는 병으로 죽었다. 일점혈육으로 남은 아들애는 김주현이 유격대에 입대할 때 남의 집에 주고 말았다. 그때부터 김주현은 오직 혁명만을 위해 살았다.

그날밤 나는 대원들이 다 잠든 다음 김주현을 만나려고 8연대의 숙영지로 향하였다. 그런데 작식대원에 이르러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였다. 잠자리에 누워서 번민할 줄 알았던 그가 놀랍게도 내가에 앉아 수세미로 가마를 닦고 있지 않는가.

나는 그에게 내일부터 병기창에 가서 일하라고 하였다. 병기창에 가면 주변환경도 조용하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들도 없어 마음만은 편안하지 않겠느냐고 하였더니 김주현은 눈물이 글썽해서 자기는 책벌을 받아도 사령관의 옆에서 받겠다고, 사령관 가까이에 있어야 마음도 편해진다고 하였다.

≪나는 낮에 동무가 남모르게 우는 것을 보았소. 그래서 그 눈물을 내나름대로 해석했지. 작식대원일이 고통스러워서 그러는줄로 알고 병기창으로 옮겨줄 생각까지 했구만.≫

내가 이런 말을 하자 김주현은 웃음을 지으며 내 손을 잡는 것이였다.

≪아닙니다. 저는 사령관동지가 저에게 책벌을 주고 가슴아파하는 것이 하도 고맙고 또 저자신이 배은망덕한 것이 너무도 죄스러워 울었습니다. 사령부당회의에서 제 문제를 취급할 때 제가 제일 두려워한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저를 대오에서 제명하여 멀리로 쫓아버리지나 않겠는가 하는 것이였습니다. 전 죽어도 여기서 죽고 싶었습니다. 제가 혁명대오에서 떠난다면 무슨 사는 보람이 있겠습니까. 저를 버리지 않고 작식대에서 일하게 해준 것만 해도 고마운 일입니다.≫

나는 김주현의 말을 들으면서 밤깊도록 내가에 앉아 수세미로 가마를 닦는 그의 심정이 이해되였다.

그는 일신의 문제야 어떻게 되든 우리 곁에 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였다. 우리의 곁에 있기만 하면 지휘관을 해도 좋고 작식대원을 해도 좋고 비판을 받아도 좋고 책벌을 받아도 좋고 그저 혁명대오에서 탈락당하지만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바로 김주현의 참모습이 있었다.

이런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동지들이 주는 비판이나 책벌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인다. 김주현은 자기가 처신을 잘하지 못한 것으로 하여 혁명에 얼마나 큰 손해를 주었는가 하는데 대하여 깊이 생각하였다.

(내가 혁명가가 다된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멀었구나. 사령관동지께서 나를 신임해주셨으니 그렇지 나처럼 설익은 혁명가가 어디 있겠는가. 동지들의 비판이 다 옳다. 이 기회에 내 사상단련을 잘해서 쇠소리가 나는 유격대원이 되어야겠다.)


6도구전투장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개조하기 위해 더욱 분발하였다.

김주현은 가마를 지고 다니던 나날에 공부도 많이 하였다. 김주현이 책벌을 받은 그 해 11월에 사령부비서처성원들은 내가 쓴 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소책자로 찍어냈는데 그는 그 소책자를 제일 먼저 구해다가 열독하였다. 그가 몸을 돌보지 않고 너무도 직심스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작식대원들은 자기들이 그처럼 따르고 존경하던 옛



후방부관이 쓰러지기라도 할가봐 모두 걱정하였다. 그들은 김주현의 배낭에서 소책자를 몰래 꺼내다가 풍막 뒤 돌짬에 감추었다.

김주현은 그 책자를 찾느라고 며칠동안 고심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오히려 살이 더 내리었다. 그 소책자를 읽은 것 때문에 그는 밥맛까지 잃어버릴 지경이였다. 바빠맞은 작식대원들은 김주현이 없는 틈을 타서 돌짬에 감추어두었던 소책자를 슬그머니 그의 배낭속에 다시 가져다 넣었다. 그리고는 ≪주현동지, 다시 잘 찾아보시라요. 배낭속에 있던 물건이 배낭에 있겠지 어디로 가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김주현은 잃었던 소책자가 배낭속에서 다시 나타나자 ≪이것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군≫하면서 어린애들처럼 기뻐하였다.

그는 사상단련을 참으로 잘하였다. 역시 노동계급출신의 오랜 혁명가가 달랐다. 그가 자신을 개조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감동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높은 경지를 이루고 있었다.

김주현이 후방부관자리에서 철직된 때로부터 6개월만에 우리는 그를 7연대장으로 임명하였다. 우리가 그를 본래의 자리에 복직시키지 않고 연대장으로 임명한 것은 그가 늘 총포성이 울리는 전장을 그리워하였기 때문이다.

김주현은 연대장으로 임명된 다음 싸움을 잘하였다. 그는 장백현의 가재수와 12도구 전투를 비롯하여 임강현 6도구전투, 쌍산자전투, 오가영전투, 가가영전투, 신태자전투 등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벌인 1938년의 춘기공세와 그 이후 진행된 여러 차례의 대소전투들에서 영활하고 대담한 군사지휘관으로서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그 해 여름에는 신태자에서 몽강, 유하, 금천 지방에까지 진출하여 적의 배후를 타격하는 전투들을 능숙하게 지휘하였다. 그가 이끄는 7련대는 인민들에 대한 정치선전도 대단히 잘하였다. 연대장자신이 주민부락들에 들어가면 솔선 앞장에 서서 사람들과의 사업에 몸을 잠그었다.

김주현은 1938년 10월 몽강현 남패자의 수림에서 김택환, 김영국과 함께 후방병원의 환자들을 위해 산꿀을 채취하다가 적 ≪토벌대≫의 불의습격을 받아 전사하였다. 그는 연대장이 된 다음에도 부대를 입히고 먹여살리느라고 사방으로 뛰어다니던 후방부관시절처럼 전우들의 식의주문제를 한시도 잊지 않고 있었다.

그가 전사한 후 전우들은 그의 유물로 남은 배낭을 헤쳐보았다. 그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전령병에게 물어보니 그 전날 신발을 꿰뜨린 대원에게 주었다고 하였다.

김주현이 남기고 간 빈 배낭을 부둥켜안으니 솟구치는 눈물을 걷잡을 수 없었다. 그가 후방부관을 하던 시절부터 우리 혁명군을 위해 공작해들인 쌀과 군복천, 신발을 전부 쌓으면 아마 산더미를 이룰 것이다. 그는 신발만 해도 수천 켤레나 구해 들었다. 그러나 김주현은 자기 배낭에 있던 예비신발 한 켤레마저 대원들에게 주었다.

그 빈 배낭은 혁명가의 재산과 인생관에 대하여 깊이 생각게 하였다. 행복을 지향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세상에는 황금만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김주현은 아무 재산도 없는 무산자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김주현이야말로 진짜거부였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그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억만금의 황금으로 살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고결한 사상과 넋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 농민을 준비시키던 나날에

중일전쟁발발 후에 새로운 정세는 전민항쟁준비를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우리는 힘을 미리 길렀다가 때가 오면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작전에 전민항쟁을 배합하는 방법으로 조국광복을 이룩할 구상을 점차 무르익혀 나갔다.

농민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우리 나라에서 그들의 참가없이는 전민항쟁이 성립될 수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농민은 노동자들과 달리 조직성과 의식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혁명의 주력군으로 삼기 곤란하다고 하였으니 우리는 견해를 달리 하고 있었다. 올바른 지도가 보장되고 조직적으로 결속만 된다면 농민대중도 거대한 혁명역량으로 될 수 있었다. 나는 이것을 1931년의 추수투쟁 때 이미 체험하였다. 우리는 실지 체험을 통하여 농민대중을 혁명적으로 잘 준비시키기만 한다면 거대한 항쟁역량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토지조사사업

우리 조상들은 후대들에게 초라하고 가난한 농업을 넘겨주었다. 남들이 기계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들일 때 우리 나라 농민들은 원시적인 손노동으로 농토를 다루고 오곡을 가꾸었다. 그들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봉건적인 질곡에 얽매여 지주계급과 봉건통치배들로부터 가혹한 착취를 당하였으며 갖은 천대와 멸시를 다 받아왔다.

농민들의 생활처지는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이후 더욱 악화되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실시한 ≪토지조사령≫과 ≪산미증식계획≫, ≪선농이만정책≫등의 강도적인 약탈정책으로 하여 조선의 농촌과 농업은 황폐화되었으며 농민들의 빈궁화과정은 더욱 촉진되었다.

일제는 조선강점초기에 ≪토지조사령≫의 명목으로 농민들의 수중에서 수십만 정보에 달하는 토지를 약탈하였는데 그 농토들은 총독부와 ≪동척≫, ≪불이흥업주식회사≫를 비롯한 식민지척식회사들과 일본본토에서 흘러들어오는 이주민들에게 분배되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그 후 일본이 ≪산미증식계획≫을 발표하고 그것을 악착스럽게 추진시켜 나간 것도 기본목적은 자기 나라에 조성된 식량위기를 타개하는 한편 조선농촌에 자본수출을 대대적으로 하여 막대한 이윤을 짜내자는데 있었다.

일제가 발표한 ≪조선민사령≫에는 ≪…소작인은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수익에서 손실을 받았을 경우라 할지라도 소작료의 면제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구절이 있다. 이것은 처지개선을 위한 조선농민들의 투쟁을 미연에 법률적으로 금지시키는 포고령과 같은 것이였다. 소작인들은 아사지경에 이르러도 입을 봉하고 얌전하게 처신하라는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이처럼 농민들에 대한 일본인농장주와 지주계급의 약탈을 처음부터 제도적으로 확고히 보장하여 주었다. 소작농이 전체 농민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던 조선농촌의 실상을 고려해볼 때 이 ≪민사령≫의 구속을 받고 있던 우리 나라 농민들의 처지가 어느 지경이였겠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마니의 쌀이라도 더 뽑아내려는 일제와 지주계급의 강도적인 착취상은 실로 짐승들도 낯을 붉힐만큼 포악하고 탐욕스러운 것이였다. ≪동척≫은 지방과 농장단위로 주재원 또는 관리원들을 두고 그 밑에 농감이라는 것들을 배치하여 소작인들을 엄격히 감시통제하게 하였다. 소작료를 체납하거나 영농에 ≪태만≫하거나 농장주를 반대하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당장에 조작계약을 취소하고 소작지를 회수하였다.

일본인농장주들은 사설구류소라는 것까지 만들어놓고 농장측에 맞서서 불평을 부리거나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는 소작농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을 가차없이 잡아넣었다. 나는 창덕학교시절에 나까하라농장의 일본인들이 전야작업을 쏴죽이겠다고 위협한다는 신문기사를 읽고 너무도 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다.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항구에 쌓아놓은 수탈한 쌀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농민들의 고혈로 생산된 쌀을 해마다 700만-1000만석씩 본토로 실어갔다. 조선사람들에게는 그 대신 만주좁쌀이나 대두박을 가져다 먹이었다. 기름이 철철 흐르는 흰쌀은 왜놈들에게 다 빼앗기고 썩은 좁쌀로 끼니를 마련할 때 조선사람들의 심정일 어떠했겠는가.

총독부의 비호를 받는 조선인지주들도 경쟁적으로 농민들의 등껍질을 벗기였다. 마름들과 고리대금업자들도 그에 합세하였다.

일제가 감행한 반동적인 농업정책은 조선농촌에서 계급분화를 촉진시키였다. 농촌에서 이농현상이 격증되고 화전민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계층이 형성된 것은 계급분화의 결과로 이루어진 식민지특유의 서글픈 풍경이였다. 고향에서 더 살래야 살 수 없게 된 농민들은 깊은 산중이나 무인지경에 들어가 화전농사를 지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입에 풀칠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화전농사도 안전한 것은 아니였다. 총독부가 ≪산림보호≫, ≪산불방지≫의 구실밑에 ≪화전민추방운동≫을 벌이었던 것이다. 나는 서간도에서 활동할 때 화전농사를 하다가 추방된 농민들을 여러 명 만나보았다. 조선농민들의 대대적인 해외유출은 필연적인 것이였다.



북부지방 화전민의 생활모습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사람들을 해외에로 몰아내는 대신 과잉인구의 격증과 식량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은 본토에서 이주민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였다. 그들은 ≪산미증식계획≫제1기로 규정한 15년간에만도 400만 명의 일본농민들을 조선에 끌어들이려고 꾀하였다. 원래 다나까 기이찌는 1925년 9월에 일본헌정연구회를 내세워 ≪일본인 1000만 명 조선이식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한 적이 있었다. 그는 내각총리대신이 된 다음 척무성을 신설하고 그 이식계획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1000만 명의 과잉인구가 조선에 그대로 흘러든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민족은 일본인의 사태속에 파묻혀 숨도 변변히 쉬지 못할 것이 아닌가.

일제의 반동적인 농업정책은 우리 나라 농촌에서 농민들의 생활을 영락시키고 민족적, 사회적, 계급적 모순을 격화시키었다.

농민대중은 생존권을 위해 궐기하였다.

3.1인민봉기이후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소작인조합, 조작상조회, 농우회, 작인동맹 등 농민단체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농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초기의 대표적인 단체는 소작인조합이었다.

일제통치하의 우리 나라 농민운동에서 주류를 이룬 것은 소작쟁의였다. 1920년대의 조작쟁의는 대체로 소작권의 확보와 소작료감하문제를 비롯한 경제적 구호를 들고 진행되군 하였다. 이 쟁의를 주관한 것이 다름 아닌 소작인 조합이었다. 농민조합은 해방 전 우리 나라 농민운동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주도적인 조직형태였다. 이 조직은 객관적 정세발전의 요구에 따라 농민운동앞에 생존을 위한 경제적 구호와 함께 정치적 요구를 반영한 구호도 동시에 제기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전국적 성격을 띠고 출현한 첫 대중조직은 조선노동공제회였다. 노동공제회에는 농민부 또는 소작인부를 설치하고 소작농민들을 다수 망라시킴으로써 농민운동발전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초기농민운동은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일제는 농민들의 소작쟁의가 점점 격렬해지자 경찰을 동원하여 총칼로 탄압하고 선봉에 선 농민운동의 선각자들을 마구 체포하였다. 한편으로는 ≪조선농회≫산하의 어용조합들을 통하여 농민들을 회유하고 농민세력을 분열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초기농민운동이 우여곡절을 겪게 된 것은 민족개량주의자들과 초기 공산주의운동자들이 끼친 부정적인 후과와도 많이 관련된다. 그 당시 농민운동을 조직하고 지휘한 태반의 지도자들은 순수한 농민이 아니었다. 그들속에는 소부르조아지식인들과 민족개량주의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것은 당시의 사회역사적 조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였다.

농민운동의 지도층에 들어간 민족개량주의자들은 순진한 농민들에게 ≪무저항운동론≫을 주입하였다. 그들은 소작인들과 지주들은 공연히 아웅다웅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며 의좋게 지내라고 설교하였다. 그렇게만 하면 소작인들과 지주와의 분쟁은 봄 눈 녹듯이 하루아침에 해결된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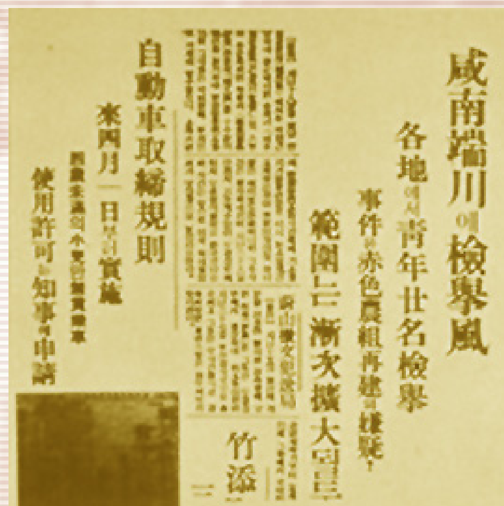
농민운동의 지도층에는 초기 공산주의운동자들도 적지 않게 들어가 있었다. 농민운동이 앙양의 기세를 보이기 시작하자 이 운동의 지도부에 들어가 앉은 그들은 농민단체들을 자파의 영향밑에 두기 위한 파벌싸움에 열을 올렸다. 농민의 이익보다 자파세력확장에만 눈이 어두워진 그들의 파벌싸움으로 하여 농민운동은 피해를 많이 입었다. 농민단체 호상 간에 혹은 한 단체 안에 심한 반목과 대립이 생겨 수많은 농민단체들이 구실을 제대로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진통속에서도 농민들은 투쟁을 계속하였다.

농민들은 적들의 반혁명적인 폭력에 혁명적인 폭력으로 대답하였다. 1920년대말에 있은 용천불이농장 농민들의 대중적인 진출과 단천, 영흥(금야)지방 농민들의 대규모적인 폭동은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용천불이농장에서 일어난 소작쟁의는 용천지구에 나가있던 ≪ㅌ·ㄷ≫ 계열의 새 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과의 연계밑에 진행된 대중적인 폭력투쟁이였다.

국제적색노동조합과 그 산하조직인 범태평양노동조합 비서부가 1920년대말과 1930년대초 몇 차례에 걸쳐 태평양연안의 여러 나라들에서 적색노조와 적색농조를 조직할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조선에서는 혁명적인 노동조합과 농민조합을 내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취하여졌다.

그리하여 1930년대초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적색농조가 새로 조직되게 되었으며 종래의 농조조직들도 적색농조로 개편되게 되었다. ≪적색≫또는 ≪좌익≫이라는 말은 개량주의와 구분하기 위하여 쓴 표현이였다. 그 당시 공산주의운동권에서는 어디서나 ≪적색≫이라는 표현이 범람하고 있었다.


再次大檢擧開始
山中隱身코 再建


咸南端川에 檢擧風
各地에서 靑年廿名檢擧
範圍는 漸次擴大
自動車取締規則
來兩月一日부터 實施
使用許可는 知事에 申請

명천, 단천의 적색농조를 보도한 당시 신문기사

적색농조의 압도적 다수는 북부조선일대에 집중되어있었다. 192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의 농민단체들의 파발수는 남부에 있었다. 소작쟁의도 북부보다 남부에 더 많았다. 그것은 호남벌을 끼고 있는 조선의 남부지방에 북부지방보다 농호수가 훨씬 많았던 사정과 관련된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정이 달라졌다. 농민운동의 주되는 전선은 남부로부터 북부로 옮겨졌다. 혁명적인 농민단체의 수자도 북부에 더 많았고 격렬성을 띤 농민들의 투쟁건수도 북부에 더 많았다. 농민운동의 중심이 남부조선으로부터 북부조선으로 옮겨지게 된 근본원인은 백두산이 조선혁명의 책원지로 되고 있었고 그 일대가 간도나 쏘련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놓여있었기 때문이였다고 볼 수 있다.

적색농조는 북부조선일대 뿐 아니라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조선일대에도 조직되었다. 중국 동북지방과 북부국경지대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적색농조가 번성할 수 있게 된 힘있는 요인으로 되었다. 사실 항일무장투쟁이 개시된 후 북부조선에서 나온 농민조직들은 다 국내인민들이 우리와 연계를 가지고 반일투쟁을 벌이는 과정에 나온 것이지 자연발생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당시 함흥지반 법원에서 작성한 명천농조사건 공판록에 올라있는 농조결의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그 투쟁의 결과 연길현의 사무실 소각, 일본영사관 분서가 소각, 일본군대와 교전, 일본군 퇴각, **김일성**총지휘하에 혁명투쟁에 진출함.≫

이것은 당시 북부조선일대의 농조들이 항일무장투쟁의 영향하에 활동한데 대한 단적인 실례로 된다. 그러나 적색농조가 주관하는 농민운동에는 좌경기회주의자들과 민족개량주의자들의 해독적 책동으로 인한 간과할 수 없는 부족점들이 존재하

고 있었다.

좌경기회주의자들은 농조조직들에 ≪적색≫이라는 모자를 씌운 다음에는 울타리를 높이 쌓고 관문주의를 실시하였다. 그들은 소작농들과 빈고농이외의 모든 농민들은 다 적대계급이나 동요하는 계층으로 규정해놓고 농조의 울타리 가까이에 얼씬도 못하게 하였다.

애국적인 중농이나 반일감정이 강한 지주들이 적색농조의 대문으로 들어서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로 되어있었다. 한 동네에서 적색농조가 먹는 우물이 다르고 비농조주민들이 먹는 우물이 다른 마을도 있었다고 하니 그 시절의 관문주의가 어느 정도였는가는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선전화 ≪노농대중은 단결하여 항일에 떨쳐나서자≫

적색농조의 관문주의는 비농조성원들의 애국열에 찬물을 끼얹고 그들로 하여금 농조가 하는 모든 일에 적의를 가지고 대하게 하였으며 자식들까지도 농조편과 비농조편으로 갈라지게 하였다. 적색농조활동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결함은 ≪타도식≫ 일본새였다. 적색농조성원들은 무슨 일을 한 가지 해도 처신을 과격하게 해야 혁명성이 있는 것으로 여기었다. 예를 들어 농조상층이 미신타파를 하라고 하면 그들은 예배당 가까이에 가서 돌멩이로 유리창을 박살내든가 지붕꼭대기에 있는 십자가를 자빠뜨리었다. 그리고 국사당을 파괴하고 거기에 놓인 음식들을 마구 짓밟아 버리었다. 지어는 예배당으로 들락날락하는 신자들의 성경책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만사람들 앞에서 찢어버리기도 하였다. 조혼을 반대하라고 하면 말을 타고 신부를 데리러 가는 신랑행차를 습격하여 말을 압수하든가 신랑을 억류하는 방법으로 결혼식을 파탄시킨 농조조직도 있었다. 이런 경우에 어린 신랑들은 혼비백산해서 집으로 도망가든가 공포에 질려 엉엉 울었다.

농조조직들이 민족해방이나 계급해방을 위해서는 실정에 부합되는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도 부분적인 활동에서 처신을 거칠게 하였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농조가 하는 일이면 덮어놓고 머리를 흔들었다.

적색농조조직들의 활동에서 우리가 최대의 약점이라고 본 것은 자기 조직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전술적 대책을 똑똑히 세우지 못한 것이었다. 이런 데로부터 적들의 탄압과 종파분자들, 민족개량주의자들의 해독작용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적지 않은 농조단체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직을 노출시키군 하였다. 농조우물이 다르고 비농조우물이 다르면 조직군중을 노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할텐데 농조지도자들은 그런 이치를 무시하였다. 적의 밀정들은 집안에 울방자를 틀고 가만히 앉아서도 창구멍을 통해 농조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는 집이 어떤 가정들인가를 잠깐 사이에 식별해낼 수 있었다.

어떤 농조조직들은 오늘날 집권당의 외곽단체들이 하는 것처럼 회원명부나 회비납부대장까지 그쯘하게 갖추어놓고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조직을 노출시킬 수 있는 근원으로 되었다. 아지트를 한 번씩 습격할 때마다 적들은 회원명부를 압수해가군 하였다. 그것도 한꺼번에 200-300명씩 무데기로 잡아갔다.

이 몇 가지 실례들은 농조단체들이 조직의 비밀이나 안전을 위해서 엄격히 경계해야 할 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노출증에 빠져 벌거벗은 상태에서 적들과의 대결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노출증은 적들에게 농조조직을 전면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농조조직들은 농민단체 호상간에 연대성과 통일적인 보조를 취하기 위한 활동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결함들은 농조조직에 대한 올바른 공산주의적지도가 보장되지 못한 우리 나라 농민운동의 영도상 약점과 미숙성으로부터 오는 것이었다. 농민운동을 지도한 상층은 이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적인 타산과 정확한 전략전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나 적색농조운동은 이러한 약점과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농민운동발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공헌을 하였다. 견실한 농조지도자들과 농조에 망라되었던 수많은 농민대중은 자기들의 검거선풍에도 굴하지 않고 반일, 반지주 투쟁을 줄기차게 벌이었다.

우리는 농조운동과정에 발휘된 농민대중의 이러한 용감성과 대중성, 견인불발성을 매우 중시하였다. 우리가 노동계급과 함께 농민대중을 전민항쟁역량의 기둥으로 본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었다.

중일전쟁의 개시는 우리에게 전민항쟁준비를 가속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이 준비작업에서 우리 나라 인구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대중을 어떻게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노동계급과 함께 국내의 농민대중을 혁명화하는 것은 항일혁명수행에서 우리가 선참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생명선이었다.

나는 농민을 전민항쟁역량으로 준비시키는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국내에 있는 기성농민조직들을 조국광복회하부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적지 않은 군정간부들은 국내의 기성조직들에 이것은 좌경이고 저것은 우경이라는 식의 감투를 씌우면서 덮어놓고 부정적으로 대하였다. 과거의 농조는 없었던 것으로 치고 새로운 농조들을 조직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견해였다.

과거의 농민단체나 농민운동은 다 보잘 것 없는 것이고 재생시키거나 재편성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은 허무주의였다. 그런 허무주의적 견해는 공산주의운동자체의 요구와 조국광복회창립선언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기성의 농민운동이 쌓아올린 토대와 성과를 스스로 줴버리는 것으로서 농민들을 묶어세우는데 있어서도 백해무익한 것이었다.

우리의 구상은 그것이 반일을 지향하고 반제반봉건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명칭이라든가 공로의 대소를 불문하고 모든 기성조직들을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아래 묶어세우자는 것이었다. 문제는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창립선언의 취지에 맞게 해체직전에 이른 지난날의 농조직들을 어떻게 재조직하고 재편성하는가 하는데 있었다.

우리는 전민항쟁준비와 관련한 지휘관모임에서 국내의 모든 노조단체들과 농조단체들을 조국광복회하부조직으로 개편하거나 그 영향하에 들데 대한 방침을 채택하였다. 국내의 기성운동단체들을 조국광복회하부조직으로 개편하거나 그 영향하에 둔다는 것은 국내혁명운동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국내에 파견할 정치공작원들을 선발하였다.

당시 우리 혁명대오안에는 김영국, 안덕훈과 같이 국내에서 농조활동을 해본 동무들이 적지 않았다. 우리가 가까이 끼고 있는 서간도에도 지난날 국내에서 독립운

동이나 농조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많았다. 국내농민운동에 대한 우리의 지도는 여러 갈래의 선을 통하여 실현되였다.

농조운동에 대한 우리의 영도를 보장하는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은 우리 주력부대에서 선발된 정치공작원들과 서간도 지방의 조국광복회조직들에서 육성된 지하조직원들이였다. 그들이 국내농민운동을 변혁하는데서 쌓은 업적을 이해하려면 함경북도 남부지방에 침투된 정치공작원들의 활동내용만 보아도 충분할 것이다.

조국광복회가 창립된 후 우리는 조정철, 유경수, 최경화, 조명식 등 파악있는 정치공작원들을 이 지구에 파견하였다. 이런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가 농조핵심들을 장악한 다음 그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선출하여 우리에게도 보내고 각 지방의 농조조직들에도 파견하였다.

성진농조지도자의 한 사람인 허성진도 이병선이라는 농조출신정치공작원의 소개로 우리의 인맥을 잡게 되었다. 그는 나의 부름을 받고 서간도에까지 찾아왔다. 중평광산습격사건의 후과로 비록 나를 만나지는 못하였으나 갑산에서 박달을 통해 국내혁명운동에 대한 우리의 노선을 전달받는데 성공하였다. 고향에 돌아간 허성진은 1937년 9월에 열린 함경북도 남부 3개군 망명자들의 모임에서 국내혁명운동에 대한 우리의 방침을 전달하였다. 이 모임을 계기로 하여 통일전선전략을 포함한 우리의 혁명노선은 함경북도일대에 널리 전파되었다.

정치공작원들은 국내혁명가들과 농조열성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전민항쟁과 반일민족통일전선에 대한 우리의 사상으로 그들을 무장시키고 농조조직을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으로 개편하거나 그 영향하에 두기 위한 조직건설사업을 위해 불면불휴의 노력을 바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들과 견실한 농조지도자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국내의 농민운동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국내농조조직들의 동향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항일유격대에 대한 열렬한 동경심이였다.

1936년 가을 명천에서 진행된 부녀친목대회의 국제국내정세에 관한 보고에서 ≪…19도구 노농쏘비에트의 수립, **김일성**은 선전대를 무어 가지고 조선에 건너와서 선동선전을 하고 있다. …동지들이여, 이후부터 조선에 **김일성**이 건너올 것은 확실하다.≫고 지적한 것이라든가 그와 비슷한 시기에 그 지방농조가 작성한 한 결의문에서 ≪장백현! 쏘비에트를 수립함에 있어서 19도구전투결과 목재 3000톤 소각, 영림사무소 소각, 일본영사관 소각, 주구 8명 납치, 일본군대와 교전, 일본군대 퇴각, **김일성**총지휘하에 이상과 같은 투쟁이 혁명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힌 것이라든가 길주농조의 신문 ≪붉은 추모≫가 10월 혁명기념특집에서 ≪**김일성**부대를 적극 지원하자!≫는 구호를 실은 것 등은 경제문제를 주되는 쟁점으로 끌고 나가던 지난 시기의 농민운동에 비해 적색농조시절의 농민운동이 얼마나 정치적 색채가 짙고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적색농조를 비롯한 국내의 혁명조직들이 인민혁명군의 활동을 경이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은 국내혁명운동에 대한 우리의 영도를 보장하는데서 유리한 조건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산항

우리의 영도가 미치기 시작한 때로부터 국내의 농민운동에서는 획기적인 노선상 변

화가 일어났다.

국내의 적색농조조직들은 우선 계급투쟁일면에 치우치던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되는 공격의 화살을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로 돌리였다. 농조의 일부 문건들에서 ≪농조 ××앞에 나서는 임무는 일본에 대한 군중의 불평불만을 혁명적 적극성에로 인도하여야 한다≫문구를 찾아보게 되는 것은 이런 실태의 반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내의 견실한 농민운동지도자들은 농조조직에 결속시킬 대상의 폭도 전에 없이 넓히고 있었다. 어떤 지방 선각자들의 간담회의 내용을 기록한 문건을 보면 그 당시의 농민운동지도자들이 농조의 기층조직에 빈농만이 아니라 중농과 부농을 포함하는 각계각층의 열성자들을 망라시킬 데 대한 요구를 제기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규율을 준수할 줄 알고 비밀을 고수할 줄 알며 투쟁욕이 있는 사람들을 계층에 관계없이 조직에 가입시키라는 것이 농조직건설의 일반적인 요구로 된 것은 조국광복회창립선언과 10대 강령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였다. 어떤 적색농조는 지어 자기산하에 소시민위원회와 학생위원회라는 것까지 내오고 거기에 잡화상, 점원, 음식점경영자, 중개상인, 상업자본가, 자유노동자와 보통학교 학생들까지 망라시키였다.

국내의 일부 농조조직들은 반일투쟁에 양심적인 지주들까지 인입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어떤 농조조직들은 도로부설공사를 반대하는 투쟁을 지도하면서 지주들을 선전대에도 망라시키었다. 그리고 자위단을 비롯한 일제의 말단통치기관들과 어용단체들에 조직원들을 침투시켜 그 조직들을 점차 ≪적화≫하는 방법으로 합법적 투쟁과 비합법적 투쟁을 능숙하게 결합시키었다. 그들이 발행한 한 소책자에서는 합법적 가능성을 거부하는 이론은 좌경기회주의적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모든 합법적 가능성을 충분히 그리고 능숙하게 연결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적지 않은 농조조직들은 활동에서 독자성을 보장하면서도 지방호상간에 일정한 연계를 가지고 실정의 통보로부터 시작하여 투쟁방법의 선택과 투쟁목표의 실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공동보조를 취하였다.

우리의 영향하에 적색농조운동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기성의 농민조직들을 혁명적으로 재편성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다.

우리의 정치공작원들은 국내동지들과 손을 잡고 농조조직들을 혁명적으로 개편하는 사업에 적극 달라붙었다. 이리하여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의 많은 지역들에 어제 날의 농조조직들을 바탕으로 하는 조국광복회조직들이 수많이 생겨났으며 신의주지회를 비롯하여 많은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이 압록강중류지대의 농민들속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해갔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그때 평양, 남포, 철원,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전주, 광주에 있는 조국광복회조직을 거점으로 중부와 남부 조선의 농민들속에서도 각이한 명칭을 가진 혁명조직을 내왔다.

우리 공작원들과 국내동지들은 농민대중을 조직적으로 결속하는 일과 함께 그들을 의식화하는 사업에 모를 박고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을 이룩해야 한다는 자주독립정신으로 농민들을 무장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농민조직출판물들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대한 해설문을


대구의 시장

대대적으로 실었다.

이러한 교양사업은 농민들로 하여금 자기의 역사적 사명감을 높이도록 자극하였다. 농민단체들은 농민들속에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반일사상을 계속 주입하고 국제국내정세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 조선혁명의 전도, 조선인민혁명군의 눈부신 투쟁소식 등을 널리 선전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필승의 신념을 지니도록 하였다.

구월산과 벽성지구에 나간 우리 공작원들은 국내에서 활동하던 민덕원을 벽성지구 농조를 혁명적으로 개편하였다. 민덕원은 이어 벽성지구의 핵심들과 같이 배를 타고 인천지구에 나가 그곳 노조와 농조 성원들을 의식화하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진행하였다.



황수원언제공사장 로동청년들과 함께 있는 이인모

김정숙도 풍산지구를 거쳐 1937년 7월중순에 단천, 이원지방으로 나갔다. 그때 그는 풍산군 파발리에서 이인모를 만나 적색도서회 관계자들을 핵심으로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할 데 대한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이인모는 조선혁명군 국내공작소조가 파발리 내중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하고 ≪오빠시≫라는 별명을 가진 악질순사부장을 처단하였을 때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증견자의 한 사람이다. 이 사건의 영향밑에 풍산지방의 선각자들은 적색독서회를 조직하고 반일투쟁을 시작하였다. 이인모도 그 독서회에 망라되어 활동하였다. 그는 1932년과 1933년 두 차례에 걸쳐 약 1년간의 감옥생활을 하였다.

최근에 이인모를 직접 만나 알아본데 의하면 그는 우리와 연계를 지어보려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중요한 작전구역인 이도강에 두 번이나 다녀갔다고 한다. 남만부대의 소부대가 동홍진을 습격하였을 때에는 거기에도 다녀올만큼 그의 참군시도는 열광적인 것이였다. 그런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직선을 찾지 못해 그가 우리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때 이인모가 우리를 만나는데 성공하였더라면 그의 인생행로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이인모는 감옥밥을 두 번 먹고나서도 투쟁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는 풍산지구혁명위원회 성원으로서 파발리분회와 황수원언제노동자돌격대, 안산후치령생산유격대 등의 조직들에서 정력적으로 활동하였다.

김정숙은 1938년 9월 하순경에 또다시 풍산에서 이인모와 풍산지구혁명위원회에 망라되어 있는 그의 동료들을 만나 조직을 확대강화하고 적구에서의 활동을 영활하게 벌릴 데 대한 대책들을 협의하였다.

이인모는 **김정숙**을 만난 후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늘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의 활동판도는 우리가 국내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영도를 실현하면서 필요한 대상의 하나로 점찍고 있던 서울콩그룹에까지 확대되었다. 이것은 이인모의 활동에서 가장 이채로운 점이였다. 그는 주병포와 함께 서울 콩그룹에 우리의 조국광복회노선을 전달하고 서울의 운동권에 우리의 영향을 침투시키였다.

김삼룡에게 우리의 노선을 직접 전달한 풍산적색독서회시절의 이인모의 상급인 주병포는 용정에서 동흥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반일학생운동에 참가한 사람이였다. 그는 1937년부터 서울의 어느 한 학교에 적을 두고 풍산에 자주 드나들면서 우리의 영향하에 있는 공산주의자들과 깊은 연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는 과정에 풍산지방에 나가 활동하던 **김정숙**과도 선이 닿아 국내혁명에 대한 우리의 노선과 전략전술

을 비교적 정확히 터득할 수 있게 되였다. **김정숙**은 주병포와 함께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조선일대에서 국내공산주의자들을 우리의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에 묶어세울 데 대한 문제를 상론하였다.

이인모의 회상에 의하면 그 당시 김삼룡은 우리의 통일전선노선을 전달받고 매우 기뻐하였다고 한다.


김삼룡

주병포와 이인모는 서울지구의 금속, 방직, 섬유, 인쇄, 염색, 피복 등 여러 부문의 노동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노동계급의 선진분자들로 노조조직을 꾸리고 전민항쟁준비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 혁명조직들에 대한 우리의 영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이인모는 국내혁명운동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였지만 일본땅에 조국광복회조직을 늘이는 사업을 위해서도 적지 않은 공적을 쌓았다. 1940년 여름에 그는 주병포의 지령에 따라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가지고 일본 도꾜에 건너가 풍산출신의 고학생들로 조직된 풍우동경고학생친목회를 혁명적으로 개편하였다.

보는 바와 같이 이인모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였다. 그를 세계적으로 이름난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만들어준 것은 조국광복회조직이였고 그 조직의 씨앗을 삼천리 방방곡곡에 뿌리기 위해 천신만고를 다한 백두산의 투사들이였다.

풍산에서 사업일정을 마친 **김정숙**은 동해안 단천지구로 향하였다. 단천지방의 선각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점을 찍어두고 있던 인물은 지난날 신간회에 관계하였던 단천농조의 지도성원의 한 사람인 이주연이였다. 그는 1930년의 단천농민폭동에도 관여한 사람이였다.

김정숙은 그 지방 조국광복회의 안내를 받아 먼저 이주연을 만났다. 단천농민폭동사건으로 7년간의 옥고를 치른 이주연은 그 당시 산에 있는 절간에서 병치료를 하고 있었다.

김정숙은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병까지 만난 이주연을 따뜻이 위로해준 다음 그에게 우리가 내놓은 반일민족통일전선노선과 전민항쟁역량준비를 다그칠 데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이주연은 자기가 지난날 무슨 운동을 한다면서 밤낮 뛰어 다녔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나침반이 깨진 낡은 배에 앉아 날바다를 향방없이 떠다닌 것 같아 허무하기 그지없었는데 이제는 새 배를 탄 심정이라고 하면서 혁명에 충실할 것을 맹약하였다.

이주연과의 사업을 마친 다음 **김정숙**은 이원의 차호앞바다 기슭에서 이용을 만났다. 이용이란 헤이그밀사사건의 주인공인 애국열사 이준의 아들이다. 그는 북청농조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놓


조국의 품에 안긴 이인모

여 나온 후 반일회를 조직지도하고 있었다.

이준이 헤이그에서 분사한 후 이용은 ≪너의 몸은 반드시 나라를 위해 바쳐야 한다.≫는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고 한동안 독립군운동에 투신하였다. 그러나 인차 그 운동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었다. 독립군운동이라는 것이 간판은 요란하지만 똑똑한 영도를 받지 못하는 이상 대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용은 한때 공산주의운동에도 적지 않게 관여하였다. 그렇지만 물우에 뜬 기름방울처럼 대중과 유리된 파벌들이 제 안속만 채우면서 싸움질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고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가 그 후에 깊숙이 관여했던 농조동네 역시 다툼질이 심하였다. 맑스의 본을 따서 장발을 한 행세식운동자들이 농조의 상좌에 틀고앉아 농민들에게 함부로 이래라저래라 하고 있었다.


이용

이용은 그런 꼴을 보다 못해 어느 날 상좌의 장발쟁이를 단죄하였다. 그러자 상대방은 당신이 왜 이리 오만한가. 이준의 아들이 돼서 그런가, 만리밖에 나가 피를 뿌리며 호소나 한다고 누가 독립을 가져다준다던가 하고 그에게 면박을 주었다.

이용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자기가 모욕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애국혼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쓰리고 원통하였다. 그 아픔은 여러 해가 지나도록 가셔지지 않았다.

이용이 독립군운동, 초기 공산주의운동, 농조운동에까지 참여해보고 얻은 결론은 아무리 힘있는 대중도 영도자를 못 만다면 용을 쓸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용은 동지들을 조직에 묶어세우는 한편 백두산으로 닿는 선을 찾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김정숙**은 후치령이남일대에서 농민대중을 묶어세워 전민항쟁역량을 준비할 데 대한 우리의 구상을 이용에게 전달하였다.

이용은 우리의 뜻을 받들고 조국광복성업에 한 몸 바칠 굳은 각오를 다지였다. 그는 **김정숙**과 작별할 때 우리가 있어 조선의 명맥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우리를 가르켜 조선국의 ≪정통령≫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언제인가 나는 북부조선일대의 혁명조직들에서 교양자료로 쓴 ≪금란지계전≫을 본적이 있었다. 출처를 알아보니 북청사람들이 만든 것이었다. 북청군 청흥리에는 소나무가 많은 송전이 있다. 그곳은 경치가 좋고 조용하여 예로부터 지방유지들이 놀이터로 삼고 이따금 보여 풍월짓기를 하였다.

반일의식이 높은 북청지방의 핵심들을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유지들을앞에 내세우고 ≪금란계≫를 무었다. 금란계라는 말은 합심을 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같고 향긋함이 란초와 같다는 의미로 친구간의 두터운 정의를 이르는 말이다. 가까운 친구들끼리 무은 계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청의 핵심들은 대체로 ≪금란계≫성원들이었다. ≪금란계≫성원들은 유지들을 앞세우고 자주 송전에 모여 글짓기놀이를 하는 체하면서 정신수양을 하였다. 그러던 중에 계성원들 가운데서 제일 견문이 넓고 박식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학자라고 존경받는 좌상회원이 ≪금란지계전≫을 쓰게 되었다. 그 글에 바로 ≪정통령≫이라는 말을 쓴 구절이 있다.

이용은 그 해 9월에 북청지구 당소조를 내오고 그 책임자가 되었다. 초기 당소조 성원들은 차호반일회 핵심들이었다. 그는 당소조를 움직여 차호반일회와 부근의 농조, 노조들을 조국광복회 두리에 묶어세우면서 후치령이남의 동해안일대를 중심으로 전민항쟁세력을 꾸려나갔다.

백두산과 선이 닿은 다음 이주연의 생활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새로운 투쟁과업을 받은 그는 집에 들어가기로 안해와 약속한 날에 집으로가 아니라 투쟁의 길을 떠났다. 7년 세월을 하루와 같이 남편의 옥바라지만 해온 착실한 안해를 두고 고향을 떠나는 그의 마음속에서는 또다시 애틋한 연민의 정이 끓어올랐다. 그러나 이주연은 사사로운 감정을 억누르고 절간에 찾아온 안해와 결연히 이별하였다.

그는 절간을 떠난 후 해방이 될 때까지 8년동안 오붓한 가정생활이라는 것을 모르고 홀몸으로 적들의 눈을 피해 부단히 자리를 옮겨가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동지들과 함께 노동자들과 농민들에게 반일투쟁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쳤다.


이주연

이주연과 이용은 백두산을 바라보며 싸우던 때처럼 해방 후에도 변심없이 일을 잘하였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기발을 들고 통일전선운동과 전민항쟁준비를 위해 분투하던 국내농조조직의 조직자들 가운데는 이원섭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그는 농조를 조국광복회하부조직으로 개편한 길주지구반일지하조직의 책임자였다. 1932년에 왕청에서 동지들과 같이 갓 창건된 항일유격대의 무장을 해결하기 위해 대감자공안국습격전투에 참가한 것이 있는 이원섭은 그 후 조직의 위임으로 국내에 나와 지하공작을 줄곧 하였다. 그가 지도하는 조직성원들은 혁명군을 지원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그는 길주펄프공장에서 흰종이를 뽑아 백두산으로 계속 보내주었다. 당시 동해안일대의 농조조직들에서는 혁명군에 보내는 각종 필수품들을 신파, 혜산까지 자동차로 뻐젓이 실어다 놓군 하였다.

농조활동가들은 농민대중속에서 우리의 무장투쟁에 호응하여 전민항쟁에 떨쳐나설 것을 호소하는 선전선동활동도 활발히 벌이었다.

장평농조성원들은 감옥에 잡혀가서도 우리의 투쟁에 대한 선전활동을 많이 하였으며 명천일대의 농조활동가들도 그들에 못지 않게 우리를 선전하고 반일투쟁을 호소하였다.


후치령비밀근거지

전민항쟁을 준비하던 나날에 국내에서 우리의 노선을 받들고 희생적으로 싸운 애국열사들은 천이나 만으로도 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 수많은 유명무명의 혁명가들은 우리 공작원들과 함께 전국도처에서 조국광복회산하에 수십수백 만의 농민대중을 결속시키었다.

농조조직들이 혁명적으로 개편된 후부터 우리 나라 농민운동은 항일무장투쟁과 밀착되었다. 이것은 농민운동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되었다. 전국의 농민단체들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고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 과정에 국내혁명은 수많은 농조활동가들과 애국적인 농조원들을 잃었다.

농민운동은 노동운동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주축으로 하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사에서 뚜렷한 자기의 몫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총칼이 난무하는 일제의 파쑈적인 학정밑에서 민족자주권의 부활과 농민의 계급적 해방을 위해 생명까지 바쳐가며 싸워온 혁명선배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4. 독립여단시절의 최춘국


최춘국

중일전쟁이 일어나던 1937년 여름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주로 장백, 임강 지구에서 활동하면서 북만에서 떠난 독립여단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독립여단은 유격대초창기부터 우리와 생사고락을 같이해온 동무들을 골간으로 하여 편성된 부대였다.

1935년 봄에 있은 요영구회의결정에 따라 동만지방에 있던 인민혁명군의 각 부대들이 남북만의 넓은 지역에 진출하여 중국인부대들과의 협동작전을 활발히 벌인 사실은 이미 서술한 바이다. 우리도 북만에서 5군부대와의 연합작전을 하였다. 그 과정에 우리는 왕청연대와 훈춘연대의 일부 성원들을 김책, 최용건이 활동하고 있는 삼강지구로 파견하였다. 북만의 전우들을 찾아 먼길을 가는 과정에 그들의 역량은 증강되어 대부대로 장성하게 되었다. 1937년 봄에 독립여단은 서간도로 나오게 되었다. 그 독립여단의 당위원회 서기이며 1연대 정치위원이 바로 최춘국이었다. 독립여단의 조선사람들은 북만의 중국인부대들과 중국인민들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었다. 최춘국은 워낙 왕청에서 싸울 때에도 중국인민들이나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한테서 각별한 사랑과 존경을 받았었다.

서상회의 후 나는 북만땅에 외따로 떨궈두었던 부대성원들을 서간도로 불렀다.

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리던 독립여단은 보천보전투도 끝나고 7.7사변도 퍽 지나서야 임강지구에 당도하였다.

그들의 외모를 보고 우리는 모두 놀랐다. 누구라없이 군복은 찢어져 너덜거리였고 지하족은 닳고 터져서 천으로 발을 감싸고 노끈이나 새끼오리로 동여매였다.

나는 최춘국의 해진 군복장들을 어루만지면서 왕청시절부터 오늘까지 동무는 늘 힘든 과업을 받아안고 고생을 많이 한다고 위로하였다.

최춘국은 도착도 늦게 한데다가 오는 도중에 최인준중대장이나 박룡산소대장 같은 끌끌한 전우들을 적지 않게 잃어서 면목이 없다면서 눈물을 뚝뚝 떨구었다.

북만땅을 떠난 것이 5월초순이라니 원정행군이 여러 달 걸린 셈이었다. 그들이 출발했다는 의란땅에서 압록강연안까지 만리나 되었다. 그 머나먼 험로를 오느라니 그 과정에 무슨 일인들 없었겠는가.

임춘추는 17살적부터 보물처럼 건사해가지고 다니던 침통을 잃어버렸다고 몹시 분해하였다. 그 침통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과정에 닳고 또 닳아서 허리가 잘룩해진 값진 금침도 두 대나 들어있었다고 하였다.

≪참, 어려운 행군이었습니다. 여기에 와서 천막들을 주런이 친 것을 보니 별천지에 온 것 같습니다.≫

임춘추는 천막에서 자본지가 언제였던지 이제는 기억이 삭막할 정도라고 하였다.

나는 곧 후방부관을 불러 그들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천막들을 내주고 전체 성원들에게 새 군복을 갈아입히게 하였다. 그러나 최춘국을 비롯한 지휘관들은 저녁식사를 하기가 바쁘게 다시 나를 찾아왔다. 한참 푹 자면서 노독을 풀라고 하였으나 오래간만에 사령관결에 왔는데 누운들 잠이 오겠는가고 하면서 중일전쟁소식부터 물었다. 여러 달동안 유혈행군을 해온 그들은 중일전쟁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있다가 퍽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정세를 설명해주었다.

…3.18사변은 일본이 만주를 강점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7.7사변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중국인민은 일제침략군과 맞서 거국적인 항전을 벌이고 있다. 장개석도 더는 항일을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공산당의 주동적인 발기로 국민당과의 항일민족통일전선이 결성되었다. 그에 따라 서북지방의 홍군주력은 주덕을 총사령으로 하여 국민혁명군 8로군으로 개편되었다. 홍군과 국민당군대가 합동하여 장기전을 벌이면 국력과 병력이 제한되어있는 일본은 견디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최인준

지금 일본군은 위세를 떨치며 파죽지세로 나가고 있지만 그들의 일장기에는 벌써부터 멸망의 흉조가 비끼고 있다.

중일전쟁에 대처하여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회의도 하였고 해당한 결정도 채택하였다. 회의방침에 따라 적의 배후에서 맹렬한 교란작전을 벌이며 국내혁명역량을 더욱 확대강화하면서 전민항쟁준비를 갖추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다. 적배후교란작전에서 우리가 활동하게 된 기본전략지대는 압록강연안일대와 남만지구이다. 중일전쟁의 기본전선이 북지전선인 것만큼 일본군이 그곳에 군수물자를 조달하자면 압록강연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동무들도 앞으로 압록강연안이나 남만지구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보천보전투와 간삼봉전투에 참가하지 못한 것을 몹시 아쉽게 여기었다.

최춘국은 북만에 가있는 동안 항일연군부대들에 소속되어 있는 조선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는데 그들 모두가 백두산을 몹시 그리워하더라고 하였다. 그는 의란현성전투때 최용건도 만나 보았다고 하면서 그 정경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최용건은 그때 최춘국을 붙안고 동무가 **김**사령이 있는 곳에서 왔다지, 반갑소, **김**사령을 만난 것만 같소, **김**사령이 나와 김책을 만나려고 북만까지 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백두산으로 나갔다는 소식을 들으니 나도 섭섭하오 하면서 눈물을 머금더라는 것이었다.

해방 후 최용건도 의란현성전투때에 최춘국을 만나던 이야기를 자주 하였다. 그 전투는 최용건이네를 비롯하여 여러 북만부대들과 동만의 부대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큰 전투였다. 북만땅 여기저기에서 활동하던 부대들이 200리, 300리 밖에서 말들을 타고 와서는 밤사이에 적을 치고 날 밝기 전에 번개같이 철수하였다. 밤을 겁내는 적들은 병영주변과 토성 곳곳에 전등을 환하게 켜놓고 있었다. 최춘국이 속한 부대전투원들이 총 한 방에 전등알 한 개씩 모조리 꺼버렸는데 그때마다 일어나는 총성과 섬광에 적들은 혼비백산하여 응전할 생각도 못하더라는 것이었다.

그 후 새로 조직된 독립여단은 서간도쪽으로 나오라는 우리의 지시를 받게 되었

다. 그 지시가 여간 큰 충격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서간도쪽으로 나오게 된 독립여단동무들이 너무 기뻐 종일 밥을 먹지 않았다면 강건, 박길송처럼 북만에 그냥 남아있게 된 동무들은 또한 너무 낙심하여 밥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다.

독립여단의 남하행군은 우여곡절로 가득차 있었다.

최춘국은 지시를 받은 그날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각 부대들에 연락을 띄운 다음 자기가 데리고 있던 대원들에게 위만군 경찰복을 입혀가지고 대담하게 벌판에 나가 대로행군을 하였다. 여러 전투에서 된매를 맞은 적들이 유격대를 ≪토벌≫하겠다고 산속을 뒤지고 있을 때였으므로 벌판은 텅 비여있을 것이라는 타산을 했기 때문이였다. 일행은 대로행군의 덕으로 단 한번의 전투도 하지 않고 한 주일만에 동경성부근까지 가닿을 수 있었다.


지병학

행군의 첫 시작은 순탄하였으나 그 후 여러 부대가 합쳐지고 여단장 방진성이 행군대오를 지휘하게 되면서부터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임춘추, 지병학, 김홍파, 김룡근을 비롯한 여러 행군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단장인 방진성과 여단당서기인 최춘국이 용병전술상에서 근본적으로 상치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은 것이 문제거리였다.

동경성을 지나서부터 행군대오가 적의 대부대와 자주 조우하게 되자 최춘국은 교전을 피하고 희생을 덜기 위해 여단을 소부대로 분산시켜 제가끔 행군하게 하자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유격전의 요구에 맞는 정당한 주장이였다. 그런데 방진성은 대오를 분산시키면 다시 수습하기 어렵다. 분산되면 여단의 전투력이 약화된다, 여단은 함께 있어야 여단이지 흩어지면 여단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의 제기를 묵살해버리고 한사코 대부대행군을 고집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다나니 적들과 자주 맞다들게 되고 희생자수도 늘어나 부대의 활동은 이모저모로 제약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처럼 험한 고생에 시달리면서도 모든 대원들이 조국진출의 날만은 한 사람처럼 절절하게 고대하였다. 중상당한 한 어린대원은 최춘국의 무릎에서 숨을 거두면서 자기를 꼭 조선땅에 내다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였다고 한다. 당시의 정황에서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유언이였다.

최춘국은 그의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재 한줌을 종이에 싸서 사무장의 배낭속에 간수하게 하였다. 그 한줌의 유골재라도 조국땅에 내다 묻어주려는 것이였다.

그는 전우들의 희생을 덜기 위해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100여 필의 군마들을 감쪽같이 끌어다가 타고 가자고 제기하였다.

…우리는 이미 적들에게 노출되었다. 갈라져서 행군했어야 자취를 감출 수 있었겠는데 당신이 허락하지 않은 탓으로 우리는 화를 면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숱한 전우들까지 잃게 되었다. 지금처럼 행동해서는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 적들이 우리를 포위하지 못하게 신속히 빠져야 한다. 놈들이 우리를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끌어오게 만들어야 한다. 기마행군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주동에 서서 놈들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다가 족쳐버릴 수 있다. 지금처럼 계속 피동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는 부대가 전멸되고 만다. …

방진성은 그 제의도 거절해버리었다. 기마행군은 자살행위라는 것이었다. 아무리 설복을 해도 요지부동이었다. 최춘국의 제안은 결국 여단당위원회에까지 상정되었다.

당위원회의 모든 성원들은 최춘국의 전술적 방안을 지지하였다. 노획한 100여

필의 군마에 부상병들과 허약자들을 태우고 부대는 남하행군을 계속하였다. 말을 타지 않은 사람들은 군마에 짐을 얹고 맨몸으로 걸었다. 그런 즉 행군속도가 빨라지지 않을 수 없었다.

추격하던 적들은 최춘국의 예견대로 까마득히 떨어져 끌려오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여단은 관지부근에 와서 뒤따르던 적들을 소탕해버렸다. 그 후 군마들은 각을 떠서 식량으로 썼다.

부대는 기마행군의 덕으로 한동안 돌릴 수 있었으나 돈화－할바령간 철도연선에 이르러 또다시 난관에 봉착하였다. 철도연선이 온통 적군으로 뒤덮여 있었던 것이다.

여단장은 뒤로 물러서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하면서 퇴각을 주장하였다.

최춘국은 압록강을 향하여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야지 뒤로 물러서서야 되겠는가, 퇴로에서 적을 만나면 더욱 위험하다, 놈들은 분명 우리의 뒤로 증원부대를 파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의견을 반대하였다. 그러자 여단장은 이런 정황에서 어떻게 전진하느냐고 하면서 성을 벌컥 냈다.

그들이 논쟁을 한창 하고 있을 때 근처의 도로로는 위만군의 한 개 부대가 행군해가고 있었다. 최춘국은 그 행군종대들을 보자 위만군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였다.

여단장은 대뜸 눈이 둥그래져서 적을 따라가다니 그건 무슨 소린가고 하였다.

최춘국은 설명하였다.

…저 위만군놈들은 지금 포를 끌어가느라고 주변을 살필 경황이 없다. 설사 뒤따르는 우리를 본다 해도 제 편인줄 알지 대낮에 유격대가 버젓이 자기들을 따라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적의 뒤를 따라가다가 철도연선지대를 통과한 다음 슬그머니 산속으로 들어가자…

여단장은 그 주장만은 반대하지 못하였다.

최춘국의 제안을 따른 덕에 여단은 철길계선을 별고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적의 대소 ≪토벌≫부대들과의 조우와 교전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표하부근에서는 500여명의 적들과 맞다들어 연 이틀간이나 혈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 전투에서 되지 않은 대원들이 유골재를 건사한 사무장의 배낭도 거기서 잃어버렸다고 하였다.

최춘국은 시시각각으로 조여드는 적들의 포위속에서 여단을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출로는 소부대분산행군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단장 방진성은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한두 개 중대는 살아날지 모르나 여단은 전멸된다. 저만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자는가. 살려면 다같이 살고 죽으려면 다같이 죽어야 한다고 우기었다.

여단당위원회는 다시금 두 사람의 주장을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여단장의 우유부단한 행동에 분노한 최춘국은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불같은 말을 연방 내뿜었다.

…여기 이 자리에 자기만 살겠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우리는 누구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목적지까지 가닿기 전에 헛되이 죽을 수는 없다, 그토록 조국땅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중도에서 다 잃는다면 우리 지휘관들은 그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겠는가? 한두 지휘관의 우둔한 처사 때문에 대원들을 죽이고 우리 자신도 죽고나면 항일대전은 누가 하며 혁명은 누가 하겠는가, 여단역량을 보존해 가지고 서간도까지 나가려면 분산행군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 …

회의에 참가한 거의 모든 지휘관들은 대부대행군만을 한사코 고집해온 여단장

을 모험주의자라고 규탄하고 비판하였다. 몇몇 사람들은 동지애의 외피를 쓴 비겁분자라는 낙인까지 찍었다고 한다. 사실상 방진성이 훗날 적에게 귀순한 것을 보면 비겁분자라는 낙인이 무근거한 것은 아니였던 것 같다. 물론 방진성은 스스로 찾아가 귀순한 것이 아니라 적에게 체포된 후 위협공갈과 회유기만에 굴복하여 귀순하였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어찌되었든 투항과 변절의 싹은 그의 일상생활에서 종종 나타나군 하던 신념과 의지의 박약과 비겁성에서 오래 전부터 움텄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진성은 여단이 분산되어 전투력있는 구분대들과 유능한 지휘관들이 곁에서 떠나게 되면 자기의 신변이 위태로와질 것을 생각하여 겁을 먹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였다.

여단당위원회 표하회의가 있은 다음부터 독립여단은 비로소 분산행군으로 넘어가 적의 봉쇄를 돌파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방진성은 동지들의 충고를 종시 삭이지 못하였다. 그는 최춘국을 몹시 고깝게 생각하였다.

방진성은 정규적인 군사교육을 받은 구동북군 장교출신인데다 직급상에 있어서도 여단의 지휘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최춘국은 소학교정도의 교육조차 받아본 적이 없는 최하층출신이었다. 그는 유격대에 입대한 다음에야 글을 배우고 군사를 배우면서 성장한 지휘관이었다. 하지만 언제나 인물의 우열이 결코 학력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방진성은 몰랐다. 방진성이 스스로 자기를 회개하게 된 것은 며칠 후에 있은 송화강도하전투 때였다고 한다. 분산행군을 하던 여단은 그때 이미 대오를 다시 집결하여 대부대로 행군하고 있었다. 대열은 석양이 비끼였을 때 나루훈부근의 송화강에 당도하였다. 장마비로 엄청나게 불어난 송화강은 바다같이 넓어진데다 물결까지 사나왔다. 적들이 나타나기 전에 빨리 강을 건너야 하겠는데 도강기재는 대여섯 명이 겨우 탈 수 있는 매생이 하나뿐이었다. 그것으로 도강을 하다나니 적지 않은 인원들은 날이 샐녘까지도 강을 건느지 못하였다. 도하한 대원들이나 도하하지 못한 대원들이나 다같이 가슴을 조이며 느리게 움직이는 매생이와 밝아오는 하늘을 불안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때에 적들이 나타났다. 최춘국은 10여명의 날파람있는 대원들을 데리고 맞받아나가며 자기가 적들을 유인해 갈테니 어서 강을 건너 유수하자 부근의 숲속에 들어가 있어 달라고 하였다. 그가 적들을 유인해간 덕으로 나루터에 남은 사람들은 강을 무사히 건늘 수 있었다. 여단은 유수하자부근에 당도하여 며칠동안 최춘국이네 결사대원들을 기다리었다. 최춘국은 나흘만에야 결사대전원을 데리고 나타났다. 어떻게 구했는지 식량까지 한 짐씩 지고 왔다.

방진성은 그때에야 비로소 최춘국의 어깨를 붙잡고 사죄하였다.

…독립여단의 북만지구에서의 활동과 남하행군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그 여단의 전체성원들이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자기의 임무를 잘 수행하였다는 것과 그들이 우리 곁을 떠날 때보다 무척 성장하였다는 것이었다.

그 본보기가 바로 최춘국이었다. 물론 그는 우리 곁에 있을 때에도 유격전술에 능한 군사지휘관이었고 나무랄 데 없는 정치일군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독립여단의 북만에서의 활동과 남하행군과정에 그의 군사적 재능과 지휘능력은 원숙한 경지에 도달하였다.

어릴 적부터 남의 집 머슴을 살았고 철도공사장에서 잔뼈가 굵어진 최춘국은 유격대에 들어온 후 눈썰미가 빨라서 사격동작과 제식동작 같은 것도 인차 터득하였다. 그의 품성과 능력에서 좋은 인상을 받은 나는 그를 중대정치지도원으로 임명하

였다. 그때 최춘국은 울상이 되어 아직 여러 모로 준비가 부족한 자기가 어떻게 남들을 가르치는 정치지도원을 할 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자신있는 일은 그저 왜놈과 그 앞잡이들을 족치는 일뿐이니 평대원으로 남아있게 해달라고 사정하였다.

나는 그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일제를 증오하는 동무의 그 마음을 대원들의 가슴에 심어주라, 그러면 정치지도원으로서 자기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수첩 하나를 주면서 그 첫 페이지에 ≪땅에다 글을 쓰면서라도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써주었다.

그 후부터 최춘국은 학습과 훈련에서 남다른 열성을 보이었다. 그는 우리 글을 배우면서 동시에 한문까지 자습하였다.

그가 성급히 한문까지 넘보게 된 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어느 날 최춘국은 이정화령이란 말의 뜻을 몰라 나를 찾아왔다. 내가 뜻과 음을 풀어가며 이정화령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자 그는 ≪거참 한문이라는게 신기합니다. 서당공부를 못한게 후회됩니다.≫하고 중얼러리었다.

최춘국은 배낭속에 늘 옥편을 넣어가지고 다니였다.

소왕청방위전투가 90일 이상 걸린 전투였고 또 그 싸움이 아주 간고한 싸움이었다는 것은 앞에서도 서술하였다. 그런데 최춘국은 그 90일 사이에도 한문공부를 중단하지 않았다.

한번은 내가 최춘국이네 중대의 주둔지인 셋째섬에 찾아가서 그에게 정치지도원은 춤도 줄줄 알고 노래도 잘 불러야 중대를 생기발랄하고 낙천적인 중대로 꾸려나갈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 최춘국은 밤마다 밖에 나가 남몰래 춤연습을 하였다. 그가 얼마나 연습에 열중했던지 어느 날 어뜩 새벽에 그 광경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 중대작식대원 고현숙이 중대장에게 달려와 겁에 질린 소리로 정치지도원동지가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고 귀뜸하였다. 중대장은 그 바람에 허리가 부러지게 웃었다. 이것은 훗날 셋째섬의 유명한 일화로 되었다.

최춘국이 그처럼 성실하고 직심스러운 사람이였기 때문에 나는 사실 동만유격구에서 싸울 때에도 어려운 임무가 제기되며 그것을 늘 그의 중대에 맡기군 하였다.

5000여명의 적과 무려 90여일간에 걸친 치열한 싸움을 하던 마촌작전 당시에도 최춘국이네 2중대가 기동중대였다. 내가 적의 배후를 치기 위해 근거지를 떠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최춘국에게 근거지방어임무를 맡기었으며 그러면 그는 어김없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여 자연히 내가 없는 빈자리에는 최춘국을 남겨두게 되고 내가 미쳐 갈 수 없는 중요한 지점들에는 그를 보내게 되는 것이 어느덧 하나의 상례로 되었다. 나와 최춘국이 인간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면서도 늘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나는 최춘국의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항일대전의 풍운속에서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여러 전우들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최현, 안길, 김책, 최용건, 이학만, 허형식, 강건…

적들이 현상금을 걸고 있는 항일의 명장들 가운데는 황포군관학교교원까지 한 최용건을 내놓고는 정규적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군사교육은 커녕 몇 년 전까지만 하여도 군인으로 되리라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재능있는 군사지휘관으로 능숙한 정치일군들로 자라났는가!

나는 초연에 그슬린 최춘국의 미더운 모습을 보며 생각하였다.

(이미 우리에게는 능히 하나의 전략적 지대를 맡길 수 있는 믿음직한 인재들이 충분히 마련되어있다. 앞으로 때가 오면 이들에게 부대를 맡겨 동무는 함경북도로 가라, 동무는 낭림산줄기로 나가라, 동무는 태백산쪽으로 뻗어나가라는 식으로 조국해방작전을 위한 임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국내각지로 나간 부대들에 호응하여 곳곳의 생산유격대들과 인민들이 들고 일어난다면 일제는 패망하고 우리는 종국적 승리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여단이 도착한 그날밤 나는 왕청시절에 셋째섬의 2중대에 나갔을 때처럼 오래간만에 최춘국과 함께 천막안에 누웠다. 감회깊은 잠자리였다. 우리는 밤이 지새는 줄도 모르고 회포를 나누었다. 그날밤 최춘국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백두산쪽으로 간다는 생각만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마 중도에서 모두 쓰러졌을 겁니다. 기어이 살아서 조국땅을 밟아야겠다고 생각하니 죽을 고비에 들어섰을 때에도 살아날 구멍수가 보이고 지쳐 쓰러졌다가 일어날 기운이 생기더군요. 이 몇 해어간에 조국 땅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조국의 흙 냄새를 맡아보고 싶습니다.≫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저려 그의 손을 꽉 그러잡으며 그렇게 조국을 그리워하는 동무에게 조국 땅을 인차 밟아볼 기회를 주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였다. 결국 나는 하루나 이틀이 지나서 해주자던 이야기를 그 밤으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동만과 남만에서 활동하던 항일연군 부대들에서는 군정간부의 부족 때문에 애를 먹고 있었다. 적의 ≪토벌≫로 인하여 남만부대가 당한 손실은 파국적인 것이었다. 적들이 ≪남만의 공비는 완전히 숙청되고 치안은 확보되었다≫고 떠들만치 1군의 적으로 더더욱 중요해진 남만에서 유격투쟁을 확대강화하려면 우선 유능한 군사정치일군들을 보강해야만 하였다. 더구나 남만부대에서는 조국안사장의 희생으로 하여 지휘관들에 대한 경위사업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면한 현안문제로 나서고 있었다. 군이나 사단의 친위대, 핵심부대로 되어야 할 경위부대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유능한 군정간부들과 단련된 전투원들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지휘관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위증민은 그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이미 봄부터 최춘국이네 여단이 오게 되면 고스란히 자기네한테 넘겨달라고 요구해왔다.

남만부대의 어려운 형편도 잘 알고 남만유격투쟁의 전략적 의의도 잘 알며 위증민의 고충과 심정도 잘 아는 나로서는 그 간절한 청을 마다할 수 없었다.

내가 소망을 풀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자 최춘국은 오히려 나를 위로하면서 혁명의 요구라면 또 떠나야지요, 그렇지만 너무 상심마십시오, 곁에 와있을 날도 있을게고, 조국땅을 밟을 날도 이제 있게 되겠지요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소, 사실 왕청때부터 같이 지내던 동무들만이라도 내 곁에 두고 싶지만 로위(위증민)가 그런 사람들을 더 욕심내고 있소.≫

독립여단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위증민은 이튿날로 나를 찾아와 의미심장하게 말하였다.

≪독립여단동무들의 말을 듣고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대의 흥망은 역시 지휘관에게 달려있습니다. 지휘관이 똑똑하면 부대가 망합니다. 방진성은 여단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경위연대를 맡기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쏘련에서는 공민전쟁 때 짜르군대출신장교들의 덕을 많이 보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경위연대를 통솔할만한 군정간부 하나도 구하기 힘들게 되었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그 푸념에는 역시 우리 조선사람들 가운데서 연대장감과 연대정치위원감을 내달라는 속마음이 깔려있었다.

그날 진행한 독립여단의 행군총화서에서는 여단행군을 영활하게 지휘해온 최춘

국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행군에서 모범을 보인 전투원들을 표창하였다. 반면에 방진성과 그를 추종한 지휘관들은 응당한 비판을 받았다. 나는 모임을 결속할 때 우리가 수적으로 우세한 적과 싸우는데서 유격전술을 용의주도하게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우리가 유격전을 하지 않고 정규전을 한다면 그것은 제비가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고 땅을 밟고 다니며 먹이사냥을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옛 병법에도 싸울 것인가 싸우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아는 자가 승리자로 된다고 했고 적이 이길 수 없도록 만들어놓고 적을 이길 수 있는 기회로 노리는 자가 싸움을 잘하는 자라고 하였다.

우리는 어디에 가서 어떤 적과 맞다들든 영활한 유격전술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여야 한다…

그날의 행군총화에는 위증민을 비롯한 중국인 지휘관들과 대원들도 참가하였기 때문에 나는 연설을 조선말로도 하고 중국말로도 하였다.

행군총화가 있은 뒤 우리는 경위연대를 하나 새로 편성하였다. 연대장으로 우리 부대의 경위중대장이던 이동학을 임명하고 정치위원으로는 최춘국을 임명하였다. 임춘추도 위증민의 곁에 가서 그의 병치료를 도와주게 하였다. 독립여단에 소속되어있던 다른 사람들도 다 보내주었다. 결국 위증민은 소원대로 가장 유능하고 우수한 조선인군정간부들과 끌끌한 전투원들로 무어진 경위연대를 가지게 되었다.

위증민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으나 경위연대에 넘어간 사람들 중에는 우리곁에 있으려던 소원을 성취하지 못해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지어 임춘추까지도 국내에 들어간 정치공작조에 자기를 파견해줄 것을 간청하였다.

며칠 후 새로 편성된 경위연대는 위증민과 함께 남만의 휘남지구를 향해 떠나갔다. 출발전야에 최춘국은 작별차로 나를 찾아왔다. 추석이 갓 지난 때의 달밤이었다. 우리는 사령부천막옆의 풀밭에 앉아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동무는 북만의 신들메도 풀어볼 사이없이 또 남만으로 떠나게 됐구만, 숨돌릴 틈도 주지 않고 자꾸 멀리로 보내군 해서 안됐소.≫

≪원, 무슨 말씀입니까. 저를 그만큼 믿어주자니 힘이 생길 뿐입니다.≫

≪휘남은 적들의 경계가 삼엄한 고장이라는데 아무쪼록 몸을 조심하오. 온성에서 도선장파출소를 칠 때처럼 모험을 하거나 덤비지는 말아야겠소.≫

온성의 도선장 파출소 습격 사건이란 1935년 초 최춘국이 중대원들을 데리고 두만강을 건너가서 장덕나루를 들이친 전투를 말한다. 그것은 우리가 오래 전부터 구상하고 있던 국내진공작전을 위해 시범적으로 진행한 전투였다.

도선장에 자리잡고 있는 파출소는 두만강을 넘나드는 사람들을 단속통제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삼고 있었는데 거기에 틀고 앉아있는 경관놈들이 어찌나 못되게 구는지 온성쪽에서 도선장을 거쳐 원군물자를 날라오는 지하조직원들이 번번이 진땀을 뽑거나 통제물자를 압수당하군 하였다. 온성의 지하혁명조직에서는 도선장파출소놈들을 혼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그래서 우리는 최춘국의 중대에 그곳 도선장파출소를 습격할 데 대한 전투임무를 주었다.


온성 장덕나루

어뜩새벽에 전투원들과 함께 얼어붙은 두만강을 은밀히 건너간 최춘국은 대원들을 파출소주변에 배치해놓고 혼자

서 파출소안에 들어갔다. 경관 한 명이 당번을 서고 있는 정황이어서 싸움은 총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서도 쉽게 치를 수 있었다. 그런데 그 경관이 난로불을 제때에 피우지 않았다고 심부름군소년에게 발길질을 하는 바람에 최춘국은 그만 자제력을 잃고 그를 쏴갈기였다. 그 통에 도강등록을 하려고 파출소앞마당에 모여 있던 인민들앞에서 선동연설 한마디 못한 채 총총히 돌아오고 말았다.

경관 한 놈을 쏴눕힌 크지 않은 전투였으나 그 전투가 일으킨 파문은 아주 컸다. 유격대가 불과 몇 명의 전투원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국경초소를 치는 판이니 이게 무슨 큰 사변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 후 활발히 전개된 압록강, 두만강 대안의 적들에 대한 소탕작전의 신호로 되었다.

≪그땐 제가 설익었댔지요. 덤벼치지 않고 좀더 신중했더라면 인민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하는 선동연설을 하는건데…그만 덤비는 통에 기본목적을 놓쳤단 말입니다.≫

최춘국은 그때 정치사업을 하지 못한 것을 분하게 여겼다.

≪대담하게 행동하는 것은 좋으나 지휘관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용의주도해야 하오. 이제는 연대의 운명만이 아니라 군사령부의 운명까지 맡아안고 있는데 매사에 신중해야겠소. 쓸데없는 모험은 금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오. 동무는 조국광복회 대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살아서 우리곁에 돌아와야 하오. 조국해방작전을 할 때는 무조건 동무들을 데려오겠소. 보천보전투에 참가시키지 못한 빚을 몇 배로 갚지.≫

그 말이 효력을 냈던지 최춘국은 북만에 파견되던 때와는 달리 기쁜 낯으로 내곁을 떠났다. 그는 남만에 가서도 우리와의 밀접한 연계밑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나는 최춘국을 남만으로 보낼 때 환인, 즙안, 통화를 중심으로 압록강연안일대에서 활동하는 독립군들에 대한 포섭공작을 하라는 과업을 주었는데 그는 그 과업을 실행하는데서도 좋은 실적을 올리였다. 위증민은 나에게 통신을 보내올 적마다 경위연대의 활약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통보해주곤 하였다. 그가 통신원을 통해 보내온 소식들 가운데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최춘국의 편지 한 장으로 수백 명의 위만군을 쥐락펴락하였다는 이야기다.

연대를 이끌고 적들의 한 군사요충지근처를 지나가다가 정찰을 통하여 그곳에 수백 명의 위만군과 위만군경찰만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최춘국은 위만군부대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보냈다.

…우리는 중국사람들을 원쑤로 생각지도 않고 또 원수로 만들고 싶지도 않다. 당신들과 싸울 생각이 없으니 당신들도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 우리에게는 지금 휴식이 필요하다. 푸르허에 들려 당신네 토성안에서 잠간 쉬다가 가려고 하는데 방해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

이것은 유격대와는 될수록 총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위만군의 정신상태를 충분히 가늠하고 써보낸 편지였다.

위만군측에서는 연락병을 보내어 혁명군의 요구를 다 들어줄테니 30분간만 기다려달라는 부탁을 해왔다. 혁명군이 30분을 기다리는 사이 위만군부대는 성시를 비우고 뒤산으로 피하였다. 저들이 성안에 있으면서 유격대를 들여놓았다가는 훗날 일본군의 추궁을 면할 구실이 없겠기 때문이었다.

최춘국의 연대는 성안에 들어가 휴식도 하고 인민들에게 정치사업도 하였다.

날이 어두워지자 뒤산에 오른 위만군들은 조조해하며 연방 휘파람을 불어댔다. 일본군이 나타날까바 불안스럽기는 한데 유격대를 보고 감히 떠나가라는 말을 할 수 없으니 자기네의 딱하고 초조한 심정을 알아달라는 신호였다.

최춘국은 부대에 출발명령을 내리고 위만군부대장에게 짤막한 인사쪽지를 남기였다.

…잘 쉬고가게 해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우리를 벗으로 알고 도와주기를 바란다. 조중인민들의 공동의 원쑤 일본제국주의는 반드시 패망하고 조중인민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

최춘국은 그런 수법으로 수많은 위만군들을 쥐락펴락하면서 그들을 반일에로 돌려세웠다. 놀라운 것은 위만군부대장들에게 보낸 그런 중문편지들의 대부분을 그가 직접 썼다는 사실이다.

그는 1930년대 후반기의 첫 시작부터 마감까지 줄창 남북만 광야를 종횡무진으로 누비며 항일연군의 중국인유격부대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그래서 중국의 인민들과 혁명동지들로부터 국제주의전사로 떠받들리웠다. 중국의 벗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깊은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와 조중친선을 위해 바친 그의 공적을 찬양하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최춘국으로 하여금 온 남북만이 다 아는 당대의 이름난 항일대장으로 되게 하였는가?

항일혁명시절의 순간순간은 보통때의 하루나 한 달, 지어는 10년과 맞먹을 정도로 사람들을 몰라보게 변모시켜주었다. 떡쇠가 불속에서 강쇠로 단련되듯이 지난날의 까막눈들과 벌거숭이들, 천덕꾸러기들이 혁명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속에서 투사로, 영웅으로, 선각자로 자라나 사회를 개조하고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주인공으로 되었다.

최춘국은 바로 이 혁명에 온 넋과 육신을 다 바친 사람이며 투쟁을 통하여 자기자신을 부단히 단련시켜온 사람이다.

여기에 최춘국의 인간미를 보여주는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8.15해방 후 최춘국이 결혼을 하고 갓 살림을 시작했을 때 그 집을 방문했던 임춘추가 부인에게 농담삼아 남편이 마음에 드는가고 물은 적이 있었다. 부인은 수줍게 웃으면서 자기 남편이 정말 유격투쟁을 했는가고 되물었다. 그런 다음 며칠 전 최춘국이네 부대 운동회날에 있었던 일화를 들려주었다.

그날은 군무자가족들도 초청을 받고 운동회구경을 나갔다. 최춘국의 안해도 역시 명절옷차림으로 운동회구경을 하였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최춘국은 몹시 언짢은 기색으로 안해에게 물었다.

≪당신은 옷이 그렇게도 없소? 온 부대가 모인 곳에 하필 베옷을 입고 나오다니…≫

안해는 ≪베옷≫이라는 말에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모시옷을 천한 베옷으로 보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건 베옷이 아니라 모시옷이라는 거예요. 여름철 옷으로는 그보다 더 좋은 옷이 없답니다.≫

≪그렇소?≫

최춘국은 얼굴을 붉히며 당황해하였다. 그리고는 안해에게 잘못을 사죄하였다.

최춘국의 안해는 그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어질디 어진 사람이 무슨 담을 가지고 왜놈들과 싸웠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임춘추는 그 이야기를 듣고나서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었다. 그리고는 정색해서 말했다.

≪부인이 남편을 옳게 보았습니다. 최춘국동무는 정말 마음이 어질고 순진한 사람입니다. 온성의 도성장파출소 습격전투 때 순사놈한테 얻어맞고 코피를 흘리는

심부름꾼아이의 코피를 씻어주지 못하고 온 것을 몇 해 동안이나 두고두고 가슴아파하며 괴로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남편은 또한 무한정 강한 사람입니다. 그의 왼쪽다리를 잘 살펴보면 상처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탄알에 다리뼈가 부서진걸 내가 마취제도 없이 수술하고 봉합을 했는데 그는 신음소리 한마디 내지 않고 무서운 아픔을 참아냈습니다. 인민들과 동지들 앞에서는 순한 양 같고 적들 앞에서는 호랑이 같은 난관 앞에서는 강철같은 사람이 바로 부인의 남편입니다. 앞으로 오래 살아가느라면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 하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임춘추

임춘추의 말과는 달리 앞날이 구만리 같을 것 같던 그들의 부부생활은 오래 계속되지 못하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이 발발한 때로부터 한달 남짓하게 지난 때인 1950년 7월 30일 제12보병사단을 이끌고 안동해방전투를 지휘하던 사단장 최춘국은 안동시가를 지척에 둔 곳에서 그만 중상을 당하였다. 참모장 지병학이 최춘국의 곁으로 달려갔을 때 그는 길옆에 세워놓은 승용차안에 누워있었다. 운명이 이미 경각에 다달은 때였다. 지병학의 거듭되는 부름에 가까스로 눈을 뜬 최춘국은 군의에게 자기 생명을 5분만 더 연장시켜달라고 간청하였다. 그 최후의 5분동안에 사단장은 모지름을 써가며 안동의 적을 완전히 포위섬멸할 자기의 작전적 의도를 참모장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

≪내 대신 동무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끝까지 완수해줄 것을 부탁하오.≫

이것이 지병학의 손을 잡고 최춘국이 운명하면서 남긴 유언이었다.

최춘국이 전사했다는 비보에 그날 내 눈앞에는 왼쪽다리를 약간 절면서 걸어다니던 그의 모습이 너무도 선명하게 어려와서 그가 전사하였다는 사실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다. 그의 왼쪽다리는 항일전장에서 뼈가 부서진 탓으로 조금 짧아졌다. 하지만 그는 불편한 다리로 수만리길을 걸어다니였다. 해방 직후에는 보안간부훈련소 부소장의 중책을 맡고 훈련생들이 도하훈련을 하면 그들과 함께 도하훈련도 하고 산악훈련을 하면 험한 벼랑도 함께 타고 넘으면서 나라의 군사력강화에 헌신하였다.

애젊은 시절에 최춘국이 문턱넘듯 넘나들며 적들을 벌벌떨게 하던 두만강변의 그의 고향 온성거리에 지금은 그의 동상이 군복을 입고 항일혁명시절의 모습그대로 서있다.

동상제작자들은 최춘국의 모습과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그의 부인을 찾아갔다.

≪최춘국동지에 대한 추억가운데서 제일 인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인에게 던진 첫 질문은 이런 것이었다.

≪특별히 인상적이라고 할게 별로 없습니다. 있다면 말수더구가 적은 것이라고나 할까요. 결혼생활 몇 해 동안에 그이가 한 말을 모두 합친데야 아마 백 마디도 안될테니까요. 차라리 성미가 우락부락해서 내 뺨이라도 때렸으면 추억에라도 남을텐데…≫

최춘국의 안해는 추억에 남을만한 부부생활의 세부가 없는데 대하여 사뭇 아쉬워하였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뜻있는 말을 하였다.

≪우리 둘째를 한번 만나보시우. 그 애가 신통히 아버지모상을 닮았습니다. 양순하지오. 더 잘 닮자면 억센 맛도 있어야겠는데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

으로 꼭 그렇게 키우자고 합니다.≫

결혼초기와는 달리 부인은 자기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 끝없이 유하고 끝없이 억센 사람, 이것이 항일의 용장 최춘국이다.





혁명열사릉

5. 9월호소문



1937년 9월
전체 조선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1937년 9월 우리는 중일전쟁에 대처하여 전체 조선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많은 정치공작원들을 국내에 파견하였다. 나자신도 직접 국내로 들어갈 것을 결심하였다. 노동계급의 대부대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 가서 전민항쟁준비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였다. 첫 목적지는 함경북도 신흥지구, 두 번째는 풍산지구였고 수행성원은 10여명이었다.

조국땅이 위험한 적구로 되어있던 그 시기에 얼마 안되는 호위대원들을 데리고 국내종심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조련한 일이 아니었다.

우리 군정간부들은 나에게 국내에로 들어가는 것을 부디 삼가달라고 여러 번 간청하였다. 내가 양복차림을 하고 나서자 ≪대통영감≫은 사령관이 그런 행색을 하고 함흥근처에까지 들어가다니요, 적들의 경계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한사코 만류하였다.

하지만 나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다. 그 당시 내 심리에는 김주현이네 소부대의 국내공작실패로부터 오는 손실을 만회하려는 강한 모대김이 깔려있었다.

나는 9월초 호소문의 요구를 자기자신에 대한 요구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었다.

내가 국내깊이에로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제일 난처해한 것은 김주현과 그와 동행했던 소부대성원들이었다. 김주현은 마치 자기네 수부대가 대사를 망쳐놓았기 때문에 사령관이 직접 국내공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하였다. 하기는 노여움도 전혀 없은 것은 아니었다.

9월에 발표하였다고 하여 9월호소문이라고 불리우는 그 호소문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문제에 의의를 부여하였다. 9월호소문에서 중요하게 제기한 문제의 하나는 중일전쟁과 조선혁명과의 호상관계에 대한 옳은 인식을 줌으로써 우리 인민이 신심을 잃지 않고 반일투쟁을 강화해나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당시 신문깨나 보는 사람들 중에는 중일전쟁이 심화되고 일본군의 전과가 확대되어가자 조선독립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비관론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 해 8월초부터 최남선, 윤치호, 최린 등의 이른바 저명인사들은 내외신문들에 일제와의 타협을 설교하는 그들을 연속 발표하였다.

그 글들을 우리도 읽어보았다.

최남선은 일본의 존재와 그 발흥은 곧 아세아의 기운이요, 동방의 빛이라고 하면서 동방제민족은 일본을 맹주로 하여 대동단결하여야 한다고 썼다.

3.1독립선언문 기안자의 한 사람인 최남선은 일찌이 백두산을 동방만물의 최대의지, 동방문화의 최요핵심, 동방의식의 최고연원이며 동방대중의 원칙이며 그 활동의 주축이라고 하면서 동방의 풍운치고 그 기류의 동원이 백두산에서 발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 언제 아무데서고 이마를 스치는 것은 백두산의 바람이요, 목을 추기는 것은 백두산 샘물이요, 갈고 심고 거두고 다듬는 것은 백두산의 흙이라 하였다. 그러던 사람이 돌변하여 일본의 존재가 아세아의 기운이고 동방의 빛이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최린은 내선일체로 ≪국민적 적성≫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3.1독립운동발기자 33인에 속하는 사람의 발언치고는 너무도 배신적이고 매국적이었다.



윤치호

윤치호는 조선인과 일본인은 같은 배를 탄 동일운명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나라의 근대역사에 밝은 사람들은 구한국시대의 고관이었던 윤치호를 잘 안다. 그는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으나 ≪한일합병≫을 견결히 반대하였다. 그래서 감옥밥도 먹어보았다. 7.7사변당시 이 인사는 칠순을 넘긴 고령이었다. 이런 늙은이가 그 무슨 영달을 바라거나 목숨이 아까와 새삼스레 일제에게 아부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 늙은이는 해방이 되자 얼굴을 들고 하늘을 볼 수가 없어 80이 넘은 나이에 자살하였다고 한다. 자결로써 자기의 치욕을 씻으려고 한 것을 보면 그가 양심인이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런 사람이 왜적에게 전향하게 된 것은 일본을 과대평가했던 데다가 정세의 추이를 잘못 판단한 탓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신흥지구로 진출할 때 삼수근방에서부터 길안내를 한 장해우도 중일전쟁의 전도에 대하여 매우 궁금해하였다. 우리는 그에게 중일전쟁을 근시안적으로 보면 절망할 수 있다. 중일전쟁은 탐욕스러운 일본군국주의로 하여금 스스로 광대한 지역에 병력을 널어놓지 않을 수 없게 만듦으로서 그들이 병력난, 물자난, 보급난, 원료난으로 허덕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중일전쟁은 우리 인민의 독립전쟁에 절망이 아니라 밝은 전망을 열어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목적달성의 절호의 기회를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제와 결사전을 벌릴 수 있는 거족적인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쳐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9월호소문에서 중요하게 제기한 다른 하나의 문제는 전민항쟁준비의 전략적 방도를 밝혀주는 것이였다. 그래서 우리는 호소문에 중일사변은 더욱더 긴장한 성격을 띠고 있다. 종국적승리가 중국에 있게 되리라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도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이보다 더 유리한 기회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유사시에 가장 단호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후방에서 무장폭동과 파괴공작의 실현을 위한 전위적 집행조직으로서 생산유격대와 노동자돌격대를 조직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하며 긴요하다. 생산유격대와 노동자돌격대는 자기 조직의 성원들을 동원하여 무장폭동을 일으키며 후방에서 파괴공작을 조직하며 군수공장들과 기타 중요한 기업소들을 방화 및 파괴하며… 전인민적인 항쟁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행동에 합세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일본군대를 완전히 패배시켜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해야만 우리의 과업 즉 조선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박아 넣었다.

우리는 9월호소문을 발표한 이후 국내진출의 첫 목적지로 신흥지구를 선택한 것은 바로 이 지구가 함흥, 흥남 등 우리 나라 노동계급이 가장 많이 집결되어 있는 큰 공업도시들을 끼고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 정치공작원들에 의하여 부전령산줄기 남쪽 기슭에 위치한 신흥지구의 울창한 수림속에는 이미 여러 개의 밀영들이 꾸려져 소부대의 활동거점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그 밀영들 중의 어느 한곳에 흥남지구를 비롯한 동해안 각지에서 활동하는 정치공작원들과 노조, 농조 핵심성원들이 모이게 되어 있었다.

우리가 제2목적지로 풍산지구를 선택한 것은 그 지구에 수전공사장 노동자들과 조국광복회조직에 망라된 천도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였다.

신흥을 거쳐 풍산에까지 가야 했으므로 지도상에서 직선거리로 타산해도 우리가 가야 할 노정은 800리가 넘었다.

우리는 9월호소문을 등사하여 김봉석의 배낭속에 넣고 떠났는데 그것을 장해우에게 먼저 보여주었다. 장해우는 우리가 삼수부근의 청산령봉턱에서 휴식하는 사이에 호소문을 몇 번 반복해 읽고나더니 생산유격대와 노동자돌격대 조직문제를 중요하게 내놓은 것이 특히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원산총파업만 보아도 노동계급은 정말로 단결력이 대단하다고 하였다.

그의 말대로 1929년의 원산총파업에서 특기할 점은 노동계급의 단결력과 전투력이였으며 연대적인 협조정신이였다.

원산총파업이 있은 다음해에 신흥탄광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그 후에도 조선각지에서 노동자파업은 해마다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대중적 파업투쟁은 거의 다 요구조건을 관철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좌절되였다.

우리는 9월호소문을 작성할 때 과거 노동운동의 경험중에서 장점은 취하고 약점은 퇴치하는 방법으로 노동운동의 새 항로를 개척함으로써 더는 쓰라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려고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근대적인 산업노동이 발생한 것은 19세기말엽 개방정책의 흐름을 타고 외국자본이 쓸어들어오기 시작한 다음부터였다. 우리 나라 산업노동의 시초를 18세기로 보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때는 근대산업이 아직 맹아적 형태였다고 말할 수 있다. 봉건조정이 문호를 개방한 후부터 거침없이 밀려들어오는 외국자본이 사태속에서 항구가 건설되고 철도가 놓이고 공장들이 돌아가고 광산들이 개발되었으며 부두노동자, 광산노동자, 철도노동자, 토목건설노동자를 비롯한 산업노동자들의 대열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산업노동의 발생발전은 노동단체의 조직을 가져오게 하였다. 1890년대말에 벌써 이규순이라는 사람이 부두노동조합을 조직했는데 노동자조합으로서는 이것이 첫 산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초기의 노동단체들은 의형제나 부조계 형태로 조직되었으나 그것은 점차 노동계나 조합 형태로 발전하였다. ≪을사보호조약≫이 조작된 후에는 진남포노동조합, 평양 신창리노동조합, 군산의 공동노동조합을 비롯한 근대적 노동조합들이 전국각지에서 결성되었다.

물론 당시의 노동조합들은 거의 다 자연발생적으로 조직된 공장별 조합들이었지만 그러한 노조단체들이 발생되자 곧 계급의 이익을 위한 노동자들의 집단적 투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만은 틀림없다. 1920년대에 들어와 전국적인 합법적 노동단체로서 노동공제회, 노동대회, 노동연맹회 등이 조직되면서부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단순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쟁의가 아니라 일제의 침략에 항거하는 애국적 정치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신흥탄광의
한 갱입구

일제는 ≪치안유지법≫을 공포하여 대중적 노동단체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노동

쟁의를 일으키는 노동자들을 검거투옥하고 노동단체를 해체시켰으며 집회를 엄금시켰다. 그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노동운동은 큰 타격을 받았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1930년 9월 국제적색노동조합 집행국은 세칭 ≪9월테제≫라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노동조합을 산업별로 조직하여 거기에 공장위원회나 노동자상담실 같은 것을 만들어 조합이 공고한 하부조직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1931년 10월에는 범태평양노동조합 비서부가 또한 조선노동운동의 실태를 분석하고 비합법적 적색노조를 조직할 데 대한 당면임무를 규정하였다.

국제공산주의노조운동이 성원을 받으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1931년부터 평양, 흥남, 원산, 청진, 서울, 부산, 신의주 등 산업도시들에서 적색노조를 조직하기 위한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 적색노조들은 노동자대중속에 맑스주의를 보급하고 그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는데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으나 종파주의자들의 책동과 적들의 가혹한 탄압으로 성황기를 보지 못한 채 인차 자기 존재를 끝마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우리가 9월 호소문을 가지고 신흥지구로 진출할 당시에는 노조지도자들이 거의 다 투옥되거나 변절했거나 아니면 피신하여 은둔생활을 하는 형편이였으므로 사실상 노조는 유명무실하였다.


1937년 9월하순 신흥지구 삼밭산에 나와서 신흥탄광로동자와 담화하신 집

파란많은 우리 나라 노동운동역사가 주는 심각한 교훈도 역시 혁명군중을 옳게 지도하지 못한 데 있었다.

우리는 역사의 거울에 종래의 노동운동을 냉철하게 비쳐보면서 우선 노동계급속으로 들어가 노조를 빨리 재건하고 노동자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야만 전민항쟁준비를 옳게 진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9월호소문의 발표는 극도로 침체되었던 우리 나라 노조, 농조 운동을 중일전쟁이 발발한 정황에 맞게 다시 부활시키고 노선상 전환을 일으키는데서 하나의 계기로 되었다. 나는 장해우와 함께 청산령을 오르면서 줄곧 노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조선각지와 중국, 쏘련연해주 일대를 방황하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장해우는 지난 시기 함흥, 흥남 지구에서 활동하던 태평양노조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이 많았다. 그는 국제적색노동조합산하의 태평양노조블라디보스토크 조선지부 책임자가 김호반이라는 사람이였으며 그의 지도밑에 1931년 2월에 처음으로 함흥노동자연맹을 적색화한 함흥위원회가 조직되었다고 하였다.

나는 장해우에게서 함흥지구 적색노조 간부들의 이름을 적지 않게 알게 되었는데 그 노조간부들속에는 바바 마사오라고 하는 일본인노동자도 있었다. 장해우의 말에 의하면 김호반은 태평양노조 블라디보스토크지부에서 보낸 노조자금 1200원을 가지고 자기 부인과 함께 함흥, 평양, 서울 등지를 다니며 활동하다가 1931년 여름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한다. 태평양노조산하 함흥지구 일본인노조 성원들까지고 1932년인가 1933년에 모두 체포되었다.

함흥, 흥남 지구의 노조운동에 생긴 공백을 메꾸고 이 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리는 이미 박금준, 김석연 등 지하공작에 경험이 있는 정치공작원들을 이 일대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그들도 이 지구의 노동운동을 뿌리채 뽑아던지려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마수를 피할 수는 없었다. 박금준을 비롯한 여러 명의 노조지

도자들은 많은 일거리들을 남겨두고 감옥과 유치장으로 끌려갔다.

이런 실정을 고려하여 우리는 1937년 봄부터 흥남지구에 서간도에서 길러낸 정치공작원들을 여러 명 파견하였다.

우리 일행은 청산령마루에 올라섰을 때 신흥지구비밀근거지에서 활동하던 소부대 책임자인 한초남이 불쑥 우리를 찾아 왔다.

밀영에 대기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왜 왔느냐고 물으니 그는 부전에 노구찌의 밀장이 있고 적들의 경계도 다른 때보다 심하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아 달려왔다고 하였다. 그가 오자 우리는 장해우를 신파로 돌려보냈다. 그 다음부터 길안내는 한초남이 하였다.

얼마후 우리앞에는 넓고 푸른 호수가 나타났다. 한초남은 그것이 부전호 2호언제인데 이제 왼쪽기슭으로 올라가면 1호언제가 보인다고 하였다. 그 언제 가까이에 경찰관주재소가 있고 거기서 3-4리쯤 더 올라가면 노구찌의 별장이 있다는 것이었다.

일본의 신흥재벌인 노구찌는 조선에서 군수공업을 창설하고 전기, 화학 공업을 완전히 독점하기 위하여 수력발전소도 건설하고 흥남에 조선질소비료주식회사를 전개하고 군수공업회사도 세웠다. 그리고 부전과 허천에 건설하는 수력발전소를 감독하기 좋은 위치에 별장을 지어놓았다.

비화로 가득찬 부전호의 건설역사를 더듬어보아도 노구찌가 우리 조선사람들을 어떻게 잔인하게 착취하였는가를 잘 알 수 있다.

1925년에 누구찌는 부전고원을 돌아보고 사이또총독에게 여기에는 수력자원도 많고 산림자원도 많고 게다가 눅은 노동력도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사이또총독은 그 편지를 받고 눅은 노동력을 얼마든지 사서 수전공자를 시작하라, 대일본제국헌법이 그것을 보장할 것이므로 안심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격려해주었다고 한다.

부전호언제공사는 1920년대중기부터 시작되었는데 물길공사를 할 때 안전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은 탓에 각종 사고로 목숨을 잃은 조선인노동자가 무려 3000명이나 된다고 하였다. 언제공사를 마감지을 때에는 물을 빨리 채우려고 호수주변에 있는 농민가옥들을 이주시키지도 않고 수문을 막아버려 600여 세대나 되는 농민들이 인공수재를 입어 한지에 나앉는 참상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수식날에는 제물로 처녀를 바쳐야 수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나어린 조선처녀는 물속에 집어넣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고 한다.


신흥지구 동오골밀영의
사령부자리

노구찌는 늘 조선인노동자들을 우마로 생각하려고 지껄여댔다. 그가 언제공사를 할 때 얼마나 악독하게 놀았는지 일본사람들마저 ≪노구찌가 지나간 자리에는 풀도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를 비난하였다.

노구찌별장주변경계가 엄하였으므로 우리는 별장을 에돌아 며칠만에 기본목적지인 신흥의 동오골밀영에 도착하였다.

도중에 우리는 일제의 눈을 피해 산중생활을 하고 있는 20명 가까운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산으로 피신해온 경위는 각각이었다.

부전강발전소 공사장에서 악질감독을 돌로 까죽이

고 산에 들어박혀 있다는 청년도 있었고 공사에 쓰는 다이나마이트를 훔치다가 발각되어 도망친 청년들도 있었으며 함흥거리에서 흥남으로 내려가던 도중에 ≪일제를 타도하라!≫, ≪노구찌는 우리의 피를 짜서 비료를 만든다≫라고 쓴 삐라를 얻어가지고 다니다가 경찰에게 단속당하게 되자 도망친 청년들도 있었다.

고원출신의 ≪최면장≫이라고 키 큰 청년은 자기를 ≪관제공산주의자≫라고 하였다. ≪면장≫이라는 것은 관직이 아니고 얼굴이 무형으로 길었기 때문에 동무들이 붙인 별명이고 ≪공산주의자≫는 본인 스스로가 단 별명이라는 것이다. 서울에 가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집에서 학비를 대지 못해 중퇴하고 돌아온 그는 한동안 일정한 직업이 없이 고원거리에서 지냈다. 바로 그 무렵에 근처의 한 공장에서 적색노조사건이 터졌다. 놈들은 관계자들 뿐 아니라 미심쩍은 대상들도 모두 검속하였는데 ≪최면장≫도 거기에 걸려들었다. 심문이 시작되자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사실대로 말하였다. 거짓말을 한다고 고문이 가해졌다. 코 안에 고춧가루물까지 부어졌다.



위인찬

그는 고문을 못이겨 노조운동을 했다고 허위자백을 하였다. 그때부터 고등계형사는 ≪최면장≫에게 모르는 것을 배워주어 가면서 공산주의자를 하나 만들어내게 되었다.

형사가 ≪너는 왜 공산주의를 신봉하게 되었는가? 그 동기를 말하라. 그것도 너는 모른다고 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에서 착취와 억압을 없애고 노동자, 농민의 주권을 세운다고 하고 있다. 그래 너는 이것을 위해 공산주의를 하지 않는단 말인가? 어디 말해보라!≫이렇게 심문하면 그는 ≪네, 그렇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이런 식으로 3개월간의 예심을 받는 과정에 그는 공산주의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다. 1년간의 징역을 살고 나오자 이제는 당당한 ≪공산주의자≫가 되었다. 일제경찰은 그를 계속 미행하였다. 고원경찰서 고등계형사가 만들어낸 ≪공산주의자 최면장≫은 진짜공산주의운동선을 찾기 위해 산발을 타고 북으로 가던 중에 동료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산중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이었다.

≪공산주의자 최면장≫은 나에게 여기 모인 청년들은 모두 일제놈들과 싸울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공산주의운동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제일 많이 웃은 사람이 김평이었다. 김평은 맑스나 엥겔스도 이 말을 들으면 앙천대소할 것이라고 하면서 맑스는 부르조아지가 자기에게 이윤을 주는 상품 뿐 아니라 자기를 매장할 프롤레타리아도 만들어낸다고 하였는데 이제 보니 일제경찰이 바로 자기를 매장할 공산주의자를 만들어냈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도 우리 동무들에게 보라, 조국의 청년들은 모두 이렇게 일제와 싸울 각오들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 산을 헤매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그 청년들에게 9월호소문을 주고 부전령 비밀근거지에 있는 소부대성원들과 연계를 맺게 하였다.

부전령산줄기를 타고 오르면서 몇 개의 밀영들도 돌아보고 지형도 살펴보니 그 지대야말로앞으로 전민항쟁을 위한 무장투쟁근거지로 될 수 있는 명당자리였다.

그 산줄기는 백두산 줄기와도 잇닿아있었다.

우리가 참솔이 무성한 동오골밀영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에는 부전령산줄기를 끼고 있는 동해안지구



신흥촌
담화하신 곳

에서 30명 정도의 정치공작원, 혁명조직책임자, 노조, 농조의 핵심들이 와있었다.

김재수, **김정숙**의 지도를 받음 흥남지구의 지하조직을 개척한 위인찬이 김혁철의 안내를 받으며 동오골밀영에 나타났다. 그의 몸에서는 물고기비린내가 풍기였다. 웬 물고기냄새인가고 했더니 적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물고기장사로 가장하느라고 고등어를 한중태기 메고 왔다는 것이였다. 그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도천리에서 같이 자란 송아지동무였다. 그들은 소년시절에 사회주의나라 쏘련을 동경하던 나머지 연해주에 가보려고 김공수와 함께 부모들과 일가친척들은 사상경향이 대단히 좋았다.


박우현

위인찬이 도천리조국광복회조직으로부터 공작임무를 받고 흥남지구에 침투한 것은 1937년 6월경이었다. 그의 뒤를 이어 인차 김공수를 비롯한 여러 공작원들이 흥남지구로 증원되어갔다. 때를 같이하여 원산에는 허석선이 파견되었고 신흥탄광에는 이효준, 창성에는 강병선이 들어갔으며 청진에서는 박우현이 조국광복회조직과 연계를 맺고 사업하기 시작하였다.

조국광복회흥남지구위원회를 조직한 것이 그 해 8월이라고 하는데 벌써 많은 노동자들이 지회에 흡수되었고 조직의 운영도 활기있게 되어간다고 하였다. 지회책임자인 위인천은 자기 어머니에게 노동자간이음식점을 차려놓게 하고 그곳을 연락소로 이용하면서 사업내용을 수시로 **김정숙**, 김제수에게 보고하였다. 그들이 흥남에 와서 첫 조직을 꾸리던 이야기는 매우 교훈적이었다.

도천리에서 온 공작원들이 처음으로 발을 붙인 본궁화학공장 건설노동자들속에는 14살짜리 소년도 있었다. 그 소년이 하는 일은 불에 달군 쇠못을 운반해다가 높은 곳에서 일하는 리베트공에게 던져주는 것이였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년이 한순간에 시체로 변하는 참사가 생겼다. 그 애가 올려던진 불에 달군 쇠못이 공교롭게도 우에서 떨어지는 철편에 맞아 다시 밑으로 떨어졌는데 면바로 카바이드통에 내리꽂히었다. 그 바람에 카바이드통이 폭발하여 소년은 전신에 화상을 입고 쓰러졌다. 노동자들이 모여왔을 때 그는 이미 절명하였다.

일본인감독은 소년의 시체를 병원에 날라가려고 서둘렀다. 조금이라도 치료를 받다가 죽은 것으로 조작하게 되면 안전시설을 하지 않은데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을 무마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년의 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안주어도 되기 때문이였다. 공작원들이 감독의 속심을 폭로하자 노동자들은 분개하여 소요를 일으켰다. 감독놈들은 겁을 먹고 시체를 어쩌지 못하였다.

노동자들은 소년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부모들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장측에 압력을 가하였다.

그 사건을 계기로 흥남공작원들은 노동자들속에서 신망을 얻었으며 노동자들속에 첫 조직을 내올 수 있었다. 그들은 ≪협조계≫라는 합법적인 명칭을 띠고 조직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어떤 중년사나이가 불쑥 ≪협조계≫에 나타나서 느닷없이 ≪나는 프로핀테른이여!≫하고 자기 소개를 하였다. 프로핀테른이란 국제적색노동조합의 약칭이다. 그가 아마 한때 태평양노조에 관계하였던 모양이다. 스스로 격을 높여 자기를 프로핀테른이라고 소개한 그 사람은 ≪당신네한테 경고하는데 좀 자중하오. 중일전쟁으로 요즘 일본사람들이 사나와졌기 때문에 그들하구 엇서지 말아야 하오. 위자료요 뭐요 하면서 중뿔나게 나서지 마오. 당신들 때문에 요시찰인물인 내가 화를 입는단 말이오≫하는 충고를 남기고 총총히 사라져버렸다.

그 후부터 흥남공작원들은 노조관계자들이 극좌로부터 극우로 넘어갔다고 인정

하면서 그들을 경계하기 시작하였다.

서호지구의 노조속에 당조직을 확대할 데 대한 임무를 받고 파견된 김석연의 지난날의 로조관계자들 중에는 일제의 탄압에 겁을 먹고 일본의 ≪백색로조≫나 구라파의 노동조합주의자들처럼 타협의 길로 나가는 자들이 많다고 푸념하였다.

장해우의 말을 들어보면 원래 흥남지구 적색노조가 조직초기에는 반일투쟁을 아주 잘하였다고 한다. 1930년대초에만 하여도 흥남노동조합은 공장가까이에 비밀서류를 보관하는 지하실까지 꾸려놓고 활동을 본때있게 하였다. 조합성원들은 그 지하실에서 격문도 찍어냈다. 밤이면 거리에 나가 반일구호를 내붙이었다. 그날의 용감한 붉은노조는 모두 어디로 갔겠는가?

나는 흥남동무들에게 태평양노조관계자를 그대로 내버려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다. 그런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한다면 노조관계자들이 노동조합주의적 방향으로 나갈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투쟁방향을 제시해주었다.

…우리는 우선 동해안지구의 도시, 농촌, 어촌, 광산, 탄광들에 조국광복회하부조직을 더 많이 내오고 숨어있는 노조, 농조 관계자들을 다 찾아내어 적어도 몇 해 안으로 신흥, 흥남, 함흥, 원산 일대에 수만 명의 항쟁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부전령산줄기를 중심으로 비밀유격근거지를 꾸리고 당면하게는 수백 명씩 되는 몇 개의 무장부대를 상시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노동자들속에는 돌격대를 내오고 농민들속에는 생산유격대를 조직하되 그 모든 조직이 보이지 않는 비밀조직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9월호소문이 지하수처럼 소리없이 군중속으로 깊이 스며들게 하여야 한다.

항일혁명초기에 우리에게는 사람수보다 총이 적었지만 지금은 반대로 총은 많은데 사람이 부족하다. 남는 총으로 국내에 있는 전체 청년들은 무장시켜 결정적인 시각에 전민항쟁에로 넘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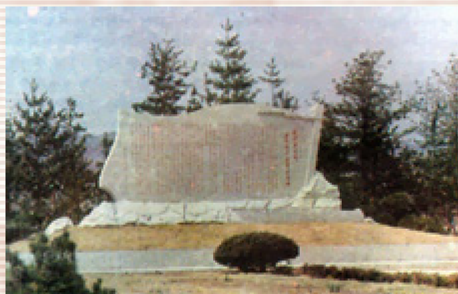
그때 내가 강조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상과 같다.

나는 담화를 마치고 다음날 경찰들의 감시가 덜 미치는 신흥탄광으로 발길을 돌리었다. 신흥탄광 대표로 온 이효춘이 나를 안내하였다.

수백 세대니 되는 불우한 탄부가족들은 낡고 찌그러진 바라크에 빼곡이 들어박혀 숨막히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고장에서는 질병과 노동재해로 해마다 수십 명의 생명이 무덤으로 갔다. 나는 이곳에 찾아온 조직원들과 노조핵심들을 삼발산의 비밀장송에 모여놓고 9월호소문을 해설해주고 당면과업도 주었다.

그때 한 탄광조직원이 찾아와서 적색노조에서 간부로 있던 자기 사촌형이 변성명을 하고 숨어산다고 하였다. 알고보니 그 사촌형은 노조성원들에 대한 검거선풍이 불 때 신흥으로 온 사람이었다. 노조가 파업을 잘못 지도하다보니 숱한 사람들이 감옥으로 끌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일제의 개가 되어 조직의 비밀을 팔아먹었다. 경찰이 노조지도자들은 잡아갈 때 사촌형이라는 사람은 겨우 몸을 빼어 탄광으로 왔는데 노조동무들 보기가 부끄러워 얼굴을 내밀지 못한다고 하였다.

나는 신흥탄광을 떠나기 전에 그의 형을 만나보았다. 그는 혁명을 같이하자는 우리의 청을 받자 지하에서 나와 만신창이 된 노조를 수습하여 어떻게 하나 9월호소문의 요구를 관철해가겠다고 하였다. 그에게는 노조원명단이 그대로 간수되어 있었다. 그 사람은 흥남지구의 노조관계자들을 거의 다 알고 있었다.



혁명사적비
≪삼발산이여 천세만세 길이 전하라≫

우리는 그와 흥남지구 조직원들과의 연계를 지어주고 가벼운 마음으로 풍산을 향해 떠났다. 불개미재밀영에서 하루밤 유숙한 다음 곧장 황수원 언제공사장으로 가보았다.

풍토사나운 영북땅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언제공사를 하고 있는 그곳 인부들의 참상은 고역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신흥탄부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른 점이 없었다.

풍산에서는 천도교출신의 우리 정치공작원인 ≪김빠이≫가 고급양복에 개화장을 짚고 다니면서 우리 일행을 안내하였다. 우리는 황수원언제공사장을 거쳐 풍산군 소재지를 지나 어느 화전마을의 외진 포수집에서 박인진을 만났다. 나는 오늘도 화로불에 햇감자를 구워먹으며 그와 함께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던 화전마을의 그 밤을 잊을 수 없다.

그날밤 박인진은 최린을 천하제일매국노라고 규탄하였다.

그가 제일 미워한 것은 ≪3대 애국자≫라고 자칭하는 최린, 최남선, 이광수였다. 박도정이 그들을 특별히 미워하는 까닭은 세사람이 조선민족을 미개민족처럼 근거없이 멸시한데 있다고 하였다.

≪제 민족을 못난 민족으로 보는 사람치고 길을 옳게 걷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박인진의 말이 옳았다. 혁명이란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신념이란 정치적 이념에 대한 믿음이기 전에 자기 인민에 대한 믿음과 긍지인 것이다. 자기 민족, 자기 인민에 대한 믿음과 긍지가 없다면 과연 어디서 애국심이 나올 수 있겠는가.

나는 그날 박인진과 함께 작별하고 캄캄한 밤길을 걸으면서 내내 그 생각을 하였다. 풍산지구 정치공작원들을 만나 9월호소문 사상을 해설하면서도 박인진의 말을 인용하였다. 우리는 우리 인민, 우리 노동계급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민항쟁을 준비하는 길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역설하였다.

조국의 산과 들에 가을빛이 짙어가던 그때 조국광복회 대강을 안고 멀고 험한 길을 소문없이 걸어간 우리의 조국편답은 헛되지 않았다.

우리가 신흥, 풍산지구를 돌고 난 뒤에 부전, 함흥, 흥남, 원산, 단천, 풍산, 신흥을 비롯한 국내각지에서는 전민항쟁세력이 급속히 장성하게 되었다.

황수원언제공사장에서 노동자돌격대가 무어진데 뒤이어 후치령생산 유격대가 조직되었다는 소식이 연방 날아들었다. 공장들에서는 연이어 파업이 일어나고 공사장들에서는 인부들이 집단탈주사건이 벌어졌다.

함흥-신흥지구의 여러 공장, 탄광들에서도 노동자돌격대가 조직되어 곳곳에서 태업과 오작시공, 폭발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함흥만세교 난간과 동흥산의 구천각에 9월호소문과 관련한 선전문이 나붙은 것도 그 무렵이고 **김일성**이 함흥거리에 나와 이발을 하고 갔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한 것도 그때였다. **김일성**이 일본육군병원에 입원했다는 풍문까지 떠돌았다고 한다.


신흥촌 - 두만강 건너오신 곳

함흥, 흥남지구공작원들은 9월 호소문을 접수한 다음 노조와의 사업에서도 혁신을 가져왔다. 그들은 숨어있는 노조관계자들을 100여명이나 찾아내어 그들 모두를 조국광복회조직에 흡수하였다. 흥남지구노조는 노동자돌격대의 원천지로 되었다.

≪혜산사건≫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흥남지구 조직원들은 더 많은 일을 하였을 것이다. 이 사건의 여파로 위인찬, 김공수, 김응정동무들은 체포되어

함흥형무소에 수감되였다.

원산, 문천, 천내리 지구에서도 우리 조직의 활동은 아주 왕성하였다. 천내리시멘트공장조직원들은 9월호소문이 발표된 그 해 가을에 1000여명의 노동자들을 망라한 파업투쟁을 조직하여 적들을 당황케 하였다.

그전에 부수상을 한 정일룡이 문천제련소출신이였는데 그는 해방 전에 자기네 문천제련소에 지하조직원들이 많았다고 자랑하였다. 자기도 그들의 영향을 받아 왜놈십장들과 투쟁을 많이 하였으나 당시까지는 뒤에서 자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지하조직원들인 줄은 몰랐다고 하였다.

내가 해방 후 평양에서 개선연설을 한 바로 그날에 문천제련소에서는 첫 쇠물을 뽑았다. 그것도 그 제련소에서 지하활동을 해오던 조국광복회조직원들이 발기한 애국적 소행이었다. 우리의 정치공작원들과 조직원들은 감방속에서도 9월호소문을 선전하여 투쟁을 계속하였다. 우리가 발표한 9월호소문이 미친 영향은 참으로 컸으며 그것은 국내의 혁명운동을 백두산과 연결시키는데서 결정적인 작용을 놀았다.


신흥촌 - 두만강을 건너가신 곳

수풍발전소 노동자출신으로서 건설상을 한 최재하도 생전에 말하기를 1930년대말부터는 중부조선이북의 큰 공장, 건설장의 노동자들은 거의 다 백두산과 연결된 조직의 영향밑에서 움직인 것 같다고 하였다. 그도 동무들을 따라서 파업과 태업운동에 여러 번 참가한 일이 있다고 하였다.

그의 말대로 당시 우리 나라 산업지대들에는 어디에나 다 조국광복회조직이 뿌리를 박고 있었고 그 조직들의 영향밑에서 노동계급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이것은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조선인민에 대한 폭압과 약탈에 혈안이 되어 날뛰는 일제에 대한 항거의 표시였다. 반일구국의 초지를 버리고 일제에게 전향한자들이 아무리 입을 모아 반공과 친일을 선전하여도 우리 노동계급은 동요없이 애국의 지조를 지켜 싸웠다.

9월호소문을 발표한 때로부터 5-6년이 지난 어느 날 신문지상에 조선청년학생들에게 학도병진출을 권고하는 조만식의 권고문이 실린 적이 있었다. 그것이 진짜 조만식이 쓴 글인지 아니면 일제가 조작한 글인지 그 내막은 알 수 없었으나 어쨌든 그 글은 세상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조만식이까지 전향하면 천하의 민족운동지도자들 중 전향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아마 사람들은 그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다.

하지만 노동계급은 동요하지 않고 우리가 내놓은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쳐나갔다. 특수무기를 연구하는 흥남지구의 어느 비밀군수공장에서는 세상을 법석 끓게 한 굉장한 폭발사고가 일어났는데 적들이 조사한데 의하면 사고의 원인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의식적인 파괴공작이었다. 우리 혁명조직성원들은 개미 한 마리도 얼씬 못한다는 그런 소굴에까지 침투해 들어가서 적들에게 타격을 가하는 투쟁을 조직하였다. 우리의 노동계급은 9월호소문을 적극 실천하였다.

9월호소문은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고 있던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중일전쟁으로 하여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근로대중속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을 깨우치고 조직하고 궐기시킴으로써 조국광복의 대업을 더욱 성과적으로 이룩해나갈 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었다.

6. ≪혜산사건≫을 겪으면서


유경수

1937년은 항일혁명의 전성기였다. 우리 주력부대의 백두산지구 진출이 일으킨 파도를 타고 역사적인 전환의 시대에 들어선 조선민족해방투쟁과 조선공산주의운동은 전례없는 폭과 심도를 가지고 앙양에로의 길을 걷고 있었다. 만사가 우리의 의도와 의지대로 다 잘되어가던 그때 조선혁명은 사나운 도전에 부딪히였다. 우리가 백두산지구를 떠나 무송, 몽강현 일대에서 활동하는 사이 적들이 세칭 ≪혜산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하여 우리의 혁명역량에 대한 대대적인 폭압선풍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것이다. 적들은 우리가 백두산지구에 나온 후 한 해 남짓한 기간 꾸려놓은 지하조직들을 닥치는대로 파괴하고 우리의 영도와 노선에 충실한 혁명가들을 무데기로 잡아다가 처형하였다. 수차에 걸치는 검거선풍을 통하여 적들은 수백수천명의 애국자들을 잡아가두었다. 옥중에서 고문치사를 당한 사람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사건으로 하여 조선혁명은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국내당공작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일사천리로 내달리던 당조직건설사업과 조국광복회조직건설사업은 심각한 손실을 당하였다.

나는 몽강현 대갑랍자밀영에서 김평과 김재수를 통하여 ≪혜산사건≫에 대한 상보를 처음으로 들었다. 그때의 통분하던 심정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 지 모르겠다. 그것은 수많은 억울한 희생을 낸 ≪민생단≫ 소동이후 처음으로 체험해보는 커다란 상실감이었다.

나는 ≪혜산사건≫을 겪으면서 혁명가의 신념과 의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혜산사건≫은 매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신념과 의지의 강도를 검증하는 일대 시련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 사건은 진짜 혁명가와 가짜 혁명가를 가르는 하나의 엄혹한 검열과정이었다. 신념과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혁명가로서의 절개를 지켜 원쑤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였고 반대로 신념과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은 혁명가로서의 존엄을 버리고 배신과 굴종의 길에 떨어졌다.

사건초기 고문에 못이겨 적들에게 대내의 비밀을 고스란히 섬겨바친 배신자들 가운데는 길혜선과 백무선의 철도공사장들에 파견되어 활동하던 지하공작원들도 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철도공사장의 노동계급속에 혁명조직들을 박으려고 했었다. 그런데 그들은 경찰서에 끌려가 곤장을 몇 개 맞고는 인차 적들에게 투항해버리고 말았다. 그들에게는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조직의 비밀을 지키고 혁명의 이익을 고수해야겠다는 철석같은 각오와 불굴의 투쟁정신이 부족하였다. 그 몇 사람이 비밀을 불지 않았더라면 장백일대 혁명조직들은 건재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벌써 1차 검거에서 권영벽, 이제순, 박인진, 서응진, 박록금 등 수많은 지도핵

심들과 조직성원들을 잃는 참변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신념과 의지는 혁명가가 갖추어야 할 기초적 자질이다. 이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혁명가라고 말할 수 없다. 참된 인간의 표징을 논할 때 우리는 그가 무슨 사상과 신념을 어떻게 지니고 있는가에 대하여 응당하게 중시한다. 왜냐하면 사상과 신념이 강한 인간일수록 삶의 목표가 뚜렷하고 그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노력에 성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혁명가들을 육성하는데서 모든 사람들이 공산주의적인 신념을 혁명가의 중요한 표징으로 보고 그 배양에 막대한 노력과 정력을 기울이는 것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기발밑에 진행되는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과정이 인류가 수행하는 모든 혁명가운데서 가장 간고하고 장기적인 변혁운동으로 되기 때문이다. 강철같은 신념과 의지가 없이는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과 도전으로부터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어려운 변혁운동을 끝까지 승리에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



혜산사건을 언급한 당시 일제의 문건

신념을 신념으로 존재하게 해주는 강력한 동반자, 보호자가 바로 의지이다.

신념과 의지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에 따라 더욱 굳건해질 수도 있으며 약화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는 것이 신념과 의지이다. 혁명가의 신념과 의지에 변질이 생길 때 그 혁명은 헤아릴 수 없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런 이유로 하여 우리는 신념교양을 공산주의적 인간육성의 필수적인 공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신념과 의지의 연마는 혁명적인 조직생활과 실천활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부단한 교양과 자체수양과정을 거쳐야 견고하고 확실한 것으로 될 수 있다. 이런 공정을 경과하지 않은 신념이나 의지는 사상누각과 같다. 혜산경찰서의 취조실에서 혁명가의 신념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였다. 그들은 혁명적인 조직생활과 실천과정을 거쳐 신심을 충분히 단련하지 못한 사람들이였다. 그들의 사상의식은 폭풍속에서 연마되지 못한 것이였다. 그들은 모두 항일혁명의 전성기에 입대하여 승리하는 싸움질만 체험한 사람들이였다. 혁명이 상승단계에 있을 때에는 그 흐름을 타고 이처럼 대열내에 사상적으로 견실하지 못한 우연분자들이 끼어들게 된다.



이용술

≪혜산사건≫에 대한 보고를 들은 우리는 인차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 비상회의를 열고 위기에 직면한 혁명조직들을 보호하고 당건설과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였다.

1차 검거를 통하여 장백일대의 지도핵심들을 대부분 잡아 가둔 적들은 수사의 폭을 넓혀 서간도 전역과 압록강건너 갑산일대에 검은 마수를 뻗치고 있었다. 적들은 조선혁명의 명줄을 다 끊어놓기라도 할 것처럼 그 무슨 실적을 뽐내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었지만 우리가 애써 건설해놓은 지하조직들이 다 망가진 것은 아니었다. 장백과 갑산 일대에는 적들의 폭압망에서 벗어나 타고장에 피신했거나 깊은 산중에 들어가 숨어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장백현당과 장백현조국광복회조직의 지도부는 권영벽, 이제순, 서응진, 박인진 등의 체포로 해체상태에 이르렀지만 박달, 김철억, 이용술 등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민족해방

동맹지도부는 그대로 살아움직이고 있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장증열과 마동희를 국내에 파견하여 피신 중에 있는 조선민족해방동맹 지도성원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통하여 조직들의 피해정형을 요해장악하며 파괴된 조직을 재건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다. 우리의 총적인 지향과 의도는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오는 손실을 최대한으로 막고 화를 복으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김철억

조선민족해방동맹성원들의 행방을 찾아 갑산군 일대의 산간부락들을 차례로 훑어나가던 마동희와 장증열은 남흥동에서 산농지도구 서기로 일하는 김태선이라는 자의 밀고로 적들에게 체포되었다.

김태선은 마동희의 동향친구였다. 그 두 사람은 갑산땅에 와서도 청소년시절을 남다른 우정속에서 보냈다. 김태선이 장백현에 건너가서 무슨 강습소에 다니다가 학비난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에게 돈을 대준 사람이 다름아닌 마동희였다. 김태선이 강습소를 그만두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처하게 되자 마동희는 서당돈을 5원이나 돌려 그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 후에도 그는 삯김을 메주고 번 돈과 땔나무를 팔아서 번 돈, 대서인 노릇을 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모아 친구의 뒤받침을 직심스레 해주었다.

강습소를 졸업하고 산농지도구 서기의 자리에 취직하였을 때 김태선은 장길부어머니를 찾아가 어머니, 내가 지식청년이 되어 밥술이나 얻어먹을 수 있게 된 것은 다 동희가 나를 진심으로 도와준 덕입니다. 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내 한평생 동희의 우정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동희가 조선민족해방동맹 지도부와의 연계를 지을 과업을 받고 갑산땅에 나갔을 때 남흥동의 김태선네 집을 피신처로 정한 것은 이런 우정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동안 적들의 충실한 노복으로 변해버린 김태선은 마동희와 장증렬이 자기 집에 나타나 숙식을 보장해달라고 하자 따뜻한 음식과 잠자리를 마련해주고는 **김일성**의 부하 두 사람이 자기 집에 와있다고 신고하였다. 그 김태선이라는 자가 아주 고약한 놈이었다.

마동희와 장증열은 적들에게 체포된 때로부터 서로 다른 운명의 길을 걸었다.

마동희가 어떻게 고문을 이겨냈고 어떤 방법으로 비밀을 지켜냈는가 하는 것은 항일투사들의 회상기들과 문예작품들을 통하여 많이 소개되었다고 생각한다. 마동희가 어떤 사람인가고 물으면 인민학교 아이들까지도 조직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혀를 끊은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사람이 자기 혀를 스스로 끊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각오는 살아서 역적으로 되는 것보다 죽어서 충신이 되기를 바라는 참인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일단 죽음을 각오하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마동희의 용기와 희생성은 신념이 강한데서 나온 것이었다. 그 용기와 희생성은 어떤 고문이나 위협으로써도 거세할 수 없는 무쇠같은 의지의 발현이었다. 마동희는 자기가 비밀을 지키면 조직은 건재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자기가 죽어도 혁명은 승리한다고 말하였다.

마동희를 신념이 강한 인간으로 만들어준 것은 혁명실천이었다. 그는 백암지방에서 살 때 반일회도 조직해보았고 인민혁명군에 입대한 후에는 구대원들과 함께 간고한 무송원정도 해보고 경위중대의 학습강사로서 대원들의 정치, 문화적 자질

을 높이기 위한 계몽사업도 해보았다. 그 과정에 사람이 망국노가 되면 상가집 개만도 못한 신세가 되며 민족이 살아나갈 길은 투쟁에 있다는 것, 혁명을 해야 살길이 열리고 혁명을 하지 않으면 자자손손 마소보다도 못한 노예살이를 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의 진리로 받아들이였고 그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었다.

마동희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신념의 소유자로 될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불공정한 것, 몰염치한 것, 비양심적인 것과는 추호도 타협하지 않았다. 상대가 너절한 인간이라는 것을 간파하게 되면 담임교원과도 단호히 결별하였다.


마동희

소학교 시절의 마동희의 담임교원 조가는 교육자의 양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시정배와 같은 인간이였다. 그는 학업성적을 실력에 따라 평가한 것이 아니라 친, 불친을 가려가며 불공평하게 평가하였다. 뇌물을 많이 먹이는 집 아이들과 부자집 자식들, 권세가의 출신들에게는 실력에 관계없이 모두 후한 점수를 주었다.

담임교원은 자기가 편애하는 학생들을 내세우기 위해서라면 다른 우수생들의 점수를 깎아내리는 것과 같은 비행도 서슴지 않았다. 마동희가 졸업반에서 공부할 때에도 조가는 그 버릇을 좀처럼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에게 뇌물을 듬뿍 찔러준 어느 권세가의 자식을 1등생으로 내세우기 위해 전과목 최우수생인 마동희의 역사시험성적을 일부러 ≪갑≫이 아니라 ≪을≫로 매겨 버리였다. 교원의 처사에 불만을 느낀 마동희는 담임교원한테 서슴없이 찾아가 자기의 시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조가는 시험지를 보여줄 대신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라고 하면서 그의 뺨을 후려갈기였다. 조가의 행위는 마동희의 분노를 격발시키였다. 그는 스스로 퇴학을 선언한 다음 담임교원앞에서 성적증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마동희의 아버지 마호룡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린 나이에 학교를 단념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낮에 장마당에서 사온 소학생모자를 아


유화 ≪사령부는 우리의 심장속에 있다≫

들에게 내보이며 네가 맨머리바람으로 다니는 것이 민망스러워 방금전에 모자까지 사왔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를 짓겠다니 그게 무슨 망발이냐, 훈장이 부자집자식편을 든다든가 권문세가의 눈치를 보는거야 다반사인데 그런다고 선생한테 시비를 걸면 어쩔 셈이란 말이냐, 어서 담임선생을 찾아가서 사죄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마동희는 끝까지 타협을 거부하였다. 그는 심지어 아버지가 담임선생을 찾아가는 것까지 한사코 막아 나섰다.

그 후 마동희와 담임교원은 각기 적대되는 길을 걷게 되었다. 마동희가 시대의 반항아가 되어 애국전선에 떨쳐나섰다면 조가는 교단을 버리고 매국반역의 길에 나섰다. 그는 순사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형사로 승진되어 애국자색출에 혈안이 되어 돌아갔다. 그가 눈을 곤두세우고 감시한 첫 대상이 바로 마동희였다. 조가는 마동희의 일거일동을 짖궂게 주시하였다. 똑똑한 건덕지가 없으면 사건을 날조해서라도 마동희를 형장으로 끌고갈 잡도리었다.

조가가 마동희를 본격적으로 미행하기 시작한 것은 그가 장백땅에 들락날락하면서 인민혁명군의 물을 먹기 시작했을 때부터였다. 어느 날 마동희는 장백에 건너가서 유격대대표인 김주현을 만나 입대승인을 받아 가지고 돌아오다가 압록강 다리목에서 도사리고 있는 조형사와 맞다들었다. 조형사는 눈살이 꼿꼿해서 마동희를 노려보고 있었다. 마동희는 다리목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대번에 직감했으나 태연자약하게 집에 돌아가 출발준비를 하였다.

그날 마동희의 어머니는 백두산으로 떠나가는 아들에게 하직밥을 지어주었다. 그러나 마동희는 그 밥마저 먹지 못하고 총총히 집을 나서지 않으면 안되었다. 조가가 그를 잡아가려고 순사들과 함께 뜨락에 나타났던 것이다. 마동희는 뒤문으로 집을 탈출하여 무사히 압록강을 건넜다.

스승이 제자를 잡으려고 돌아치는 것과 같은 말세기적인 현상은 일제통치자들이 강요하는 반인륜적인 풍조가 빚어낸 비극이였다. 해방 후 장길부녀사는 나를 만날 때마다 이 일화를 옛말처럼 들려주곤 하였다.

마동희는 구시산전투 후 전투장 근처에서 우리 부대에 대한 ≪토벌≫에 나섰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도망치는 조형사를 만났다. 그자는 마동희를 보자마자 무작정 총질부터 하였다. 마동희는 조국도 민족도 제자도 안중에 없는 이 후안무치한 친일반동을 즉석에서 처단해버리었다.

이 일화를 통해서 마동희의 인간상을 알 수 있고 마동희가 지니고 있던 신념이 어떤 토양위에 서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내가 마동희를 데리고 다닌 것은 1년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마동희는 만사람의 사랑을 받은 충실한 유격대원이었지만 그가 유격대에서 생활할 때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이나 일화를 남긴 것은 별로 없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한 가지 일화는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가 무송원정을 끝내고 동강밀영에서 군정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식량을 구해들이던 때의 일이다. 그때 마동희네 7련대 3중대도 매일같이 식량공작에 동원되었다. 어느 날 밤 중대장은 식량공작을 떠나면서 발에 동상을 당한 마동희와 그 밖의 신입대원 동상자들에게 밀영에 남아 다음날 아침식사준비를 위해 통강냉이들 망에 갈라는 과업을 주었다.

마동희는 중대장의 명령대로 망에다 통강냉이를 갈기 시작했다. 종일 힘에 부친 설상행군을 한데다가 식곤증까지 겹쳐 그는 참을 수 없는 피로를 느끼었다. 그러나 마동희는 찬눈으로 얼굴을 문지르면서 졸음을 이겨냈다. 그런데 다른 대원들은 자기들은 먹지 않아도 좋으니 피곤해서 누워있겠다고 하였다. 그들은 마동희가 혼자서 망질을 할 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정말로 누워있었다. 그러다가 마동희가 통강

냉이를 다 갈아놓자 수고한 값을 어떻게 갚으면 좋겠느냐고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걱정하였다. 우리 신입대원들 가운데는 그들처럼 동서남북을 전혀 모르는 얼떨떨한 사람들이 간혹 끼어있었다. 마동희는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 두 신대원을 호되게 꾸짖었다.

내가 밀영에 도착하자 마동희는 이 사연부터 말하였다. 동지애는 없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저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혁명을 하겠는가고 하면서 한탄하였다. 그가 몹시 낙심해하기에 나는 지금은 조직적 세련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교양을 잘하면 그들도 훌륭한 대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 신대원들은 물론 그 후 일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진짜배기 장병이 되었다.


마동희의 안해 김용금

마동희는 입대 후 짧은 기간에 훌륭한 전투원으로 성장하였다. 그는 보천보시가에 대한 정찰도 아주 책임적으로 수행하였다. 임무수행에서 발휘한 헌신성과 적극성을 높이 평가하여 나는 보천보전투승리를 경축하는 군민연환대회장에서 인민대표단이 우리에게 축기를 증정할 때 마동희를 조선인민혁명군 병사대표로 내보내어 그 축기를 받는 영예를 지니게 하였다.

그 후 생활이 증명해준 것처럼 마동희는 확실히 조선인민혁명군의 모든 병사들을 당당히 대표할 수 있는 뛰어난 혁명전사였다. 그는 한 마디로 말하여 공산주의자의 표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마동희는 누구보다도 사령부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비밀을 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사할 수 있었다.

마동희가 희생된 다음날 마호룡은 관을 짜가지고 혜산에 와서 아들의 시신을 싣고 경찰서앞으로 지나가다가 최경부와 맞다들었다.

최경부는 마호룡을 보자 이렇게 말을 걸었다.

≪영감, 죽은 아들을 싣고가니 감상이 어떤가?≫

민족에게 백정질을 하는 최경부를 평소부터 밉살스럽게 보아오던 마호룡은 흐르는 눈물을 훔치면서 분연히 대답했다.

≪내 아들 동희는 조선을 독립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다. 딸과 며느리도 그렇게 죽었다. 왜놈들의 물건을 훔치다가 죽은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자랑으로 여긴다.≫

마동희의 아버지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후 체포되어 함흥형무소에서 옥사하는 마지막순간까지 혁명투사의 아버지, 애국자로서의 지조를 조금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교형리들과 맞서 싸웠다.

마동희와는 대조적으로 장증열은 곤장맛을 몇 대 보기 바쁘게 인차 자기가 아는 밀영들과 지하조직들을 다 불었다. 마동희는 혀를 끊으면서도 혁명가의 절개를 지켰는데 장증열은 어찌하여 혁명앞에 다진 맹세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저주스러운 배신의 길을 택하였는가.

학력이라든가 이론수준이라든가 사업능력으로 볼 때 그는 마동희한테 조금도 짝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유격내연한을 따지면 오히려 마동희의 선배라고 할 수 있었다. 똑똑하고 붙임성이 좋은 장증열은 입대하자마자 일반대원들로부터 ≪간부감≫이라는 평판을 들었다. 우리 사령부도 역시 그를 ≪간부감≫이라고 점찍어두었다. 그는 입대 후 보통사람들이 대체로 거쳐야 하는 계단식공정을 밟지 않고 일약 사단청년과장자리에까지 도약해 오른 인물이었다. 사단청년과장이면 그가 권영벽이나 김평에 못지 않은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장증열을 어느 정도로 신임했는가 하는 것은 장백현당이 조직되었을 때 그를 현당위원으로 선거한 사실만 놓고 보아도 충분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는 장증열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다.

그는 우리와 함께 밥도 굶어보고 손발도 얼궈보고 밤도 밝혀보았다. 장증열은 우리가 당하는 곤란을 두고 비관에 잠기거나 신심을 잃어본 적이 별로 없었다. 그저 우리와 함께 만난을 묵묵히 참아냈다. 그러나 그는 철창안에 끌려가자마자 쉽게 흰기를 들고 말았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곤란을 다 참아내면서도 형장에서의 고문만은 견디여 내지 못하고 휴지장을 집어버리듯이 혁명가로서의 체면과 지조를 얼른 집어던지였다.

장증열의 변절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나는 철창밖의 인생관이 다르고 철창안의 인생관이 다를 수 있다는 진실을 통감하였다. 철창밖에서의 장증열의 세계관이 공산주의적인 것이 있다면 철창안에서의 그의 세계관은 유다의 것과 같은 것이였다. 그는 자기 개인의 육체와 혁명의 이익을 바꾸어먹은 장사군으로 전락한 셈이였다.

장증열은 많은 비밀을 적들에게 섬겨바치었다. 그는 자기가 관여한 조직들을 다 공개하였고 장백현의 상강구와 중강구관하에서 자기와 연계를 맺고 있던 혁명조직의 지도핵심성원들을 다 불었으며 사령부의 위치와 밀영들의 위치까지도 아는 것은 다 대주었다. 그리고 경찰들을 데리고 19도구아지트에까지 와서 지태환과 조개구를 체포하게 하였다.

조개구도 장증열처럼 변절하였다. 그는 우리 재봉대가 자리잡고 있는 간파하자 밀영에 경찰들을 안내하여 재봉대원전원이 희생되게 하였다. 간파하자에서 전사한 여대원들 가운데는 마동희의 안해 김용금도 있었다.

어찌하여 장증열은 이처럼 너절하고 추악한 인간으로 변질되였는가, 평상시 그가 지니고 있던 공산주의적 신념은 허울뿐이였단 말인가.

그도 물론 신념에 대한 말은 많이 하였다. 하지만 그가 소유한 신념은 공고한 기초를 가지지 못한 서푼짜리 것이였다. 그는 형장의 어마어마한 광경과 경관들의 독기어린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대일본제국의 위용에 겁을 집어먹은 것 같고 항일혁명으로 그 제국을 타승한다는 것은 실현불가능의 부질없는 공상이라고 회의주의에 침식된 것 같다.

공고한 기초위에 선 신념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자기가 숭상하는 이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며 그 이념을 위해서라면 굶어죽을 각오, 얼어죽을 각오, 맞아죽을 각오까지 되어있는 그런 신념이다. 달리 말하면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 계급, 자기 인민의 힘에 대한 확신이며 자체의 주체적인 힘으로 만난을 극복하면서 혁명을 끝까지 완수해나가려는 각오를 의미한다. 그런데 장증열에게는 맞아죽을 각오가 없었다. 자기가 맞아죽더라도 혁명의 이익을 고수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하겠는데 그는 반대로 혁명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만 무사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였다.

장증열은 혁명을 팔아먹은 값으로 육체적 생명은 건질 수 있었으나 그 대신 그보다 더 값비싼 정치적 생명은 잃어버리었다. 사람들이 마동희를 기억하면서도 장증열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마동희와 장증열이 걸어온 서로 대조되는 두 인간의 행로를 돌이켜볼 때마다 나는 김혁과 장소봉을 의례히 회고해보곤 한다. 그들도 같은 시각에 같은 지점에서 같은 궤도를 타고 혁명을 시작하였지만 그 종착점은 서로 남극과 북극과 같은 차이를 자기고 있었다. 이 격차의 출발점 역시 두 인간이 지니고 있던 신념과 의지의 질적

차이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김혁이 조직생활과 혁명적 실천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장소봉은 이론에 밝고 두뇌가 명석한 대신 실천이 굼뜨고 자만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김혁은 어떤 고생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소봉은 육체를 혹사하는 그런 성격의 일에 몸을 깊이 잠그지 않았다. 한 사람은 물불을 모르고 열정의 사나이였고 다른 한 사람은 소낙비라 쏟아지는 날에도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고 진창속에서 돌을 골라 디디면서 신등에 흙을 묻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냉철하고 타산이 밝은 사나이였다.

우리가 카륜이나 고유수같은 고장으로 왔다갔다할 때만해도 나의 친구들은 김혁을 재사라고 인정하면서도 그가 혁명을 위해 큰 몫을 담당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시나 쓰고 작곡이나 하는 선비가 혁명을 하면 얼마나 잘하랴 하는 선입견이 작용했던 것 같다.

기타를 메고 거리를 몇 번만 오락가락하여도 풍각쟁이 대접을 받던 세월이었으니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김혁을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은 그다지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장소봉에 대해서는 모두가 상당히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가 후에 변절은 하였지만 명물이었다. 그는 가명으로 글을 많이 써서 발표하였다. 잡지 ≪볼쉐이크≫에 글을 제일 많이 낸 사람도 바로 장소봉이었다. 그 사람은 차광수가 동열에 놓을 수 있는 한다하는 이론가이고 선동가였다. 그가 이론수준이 얼마나 높았던지 화요파의 거두인 김찬도 그와 논쟁을 하면 늘 수세에 몰려 허둥지둥하였다. 우리는 카륜회의 때에도 장소봉네 집에 가있었다.

나와 나의 동료들은 그가 몇 해 후 유치장에서 전향문을 쓰고 일제의 충견이 되어 우리를 반대하는 ≪귀순≫공작에 나서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이처럼 육체적 생명 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생명의 나이는 신념의 유무와 대소에 의해 결정된다. 신념이 강하고 의지가 강할수록 그 인간은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는데서 장수자가 된다. 신념을 일찍이 줴버린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은 비명에 요절하고 만다.

우리 주력부대의 참모장으로 활동하다가 적들에게 투항한 임수산은 이종락이나 장소봉보다 더 한심한 반역행위를 하였다. 그는 ≪토벌대≫대장이 되어 지난날 한 전호에서 싸우던 전우들을 해치기 위해 미친 듯이 돌아다니었다. 적들은 그를 주구로 써먹다가 쓸모가 없게 되자 내던지었다. 그 후부터 임수산은 말구지를 끌고 다니며 술장사를 하였다. 사단 참모장으로부터 술장사에로의 전락, 그것은 신념을 잃어버린 그에게 차례진 서글픈 운명의 귀결이었다.

그는 해방 직후 달구지에 술통을 싣고 안도에서 삼지연을 거쳐 혜산으로 오다가 길가에서 유경수가 인솔하는 소조를 만났다. 그날 유경수네 일행은 백두산주변에서 출몰하는 일본군패잔병들을 소탕할 데 대한 나의 명령을 받고 현장으로 가던 중이었다.

임수산은 지난날 자기의 휘하에 있던 사람들을 보자 어색해하면서 당신들도 이제는 산에서 내려왔구만, **김일성**장군은 아직도 산에 있는가, 그때 유경수, 이두익을 비롯하여 패잔병숙청사업에 동원된 항일투사들은 모두 일본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임수산은 그들이 모두 자기처럼 일본사람들에게 귀순한 줄로만 알았다. 얼마나 정세에 암둔했던지 일본이 망한 것도 모르더라는 것이었다. 사람이 신념을 잃고 지조를 지키지 않으면 이 지경이 되고 만다.

손에 무장을 들고 우리와 함께 험난한 항일혁명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절대다

수는 물론 신념도 강하고 의지도 강한 백절불굴의 투사들이였다. 그들은 최악의 역경에 처한 순간에도 혁명가의 지조를 버리지 않았고 조국해방에 대한 신념을 더럽히지 않았다. 우리의 전우들과 전사들은 낯설은 이역에서 황야의 티끌로 사라지면서도 ≪미래를 사랑하라!≫고 부탁하였으며 ≪공산주의는 청춘!≫이라고 부르짖었다. 신념을 가진 강자들만이 최후를 이렇게 장식할 수 있다. 이런 신념이 없었다면 우리의 항일유격대원들이 만주의 그 모진 추위와 주림을 견디여내지 못했을 것이다.

혁명가의 신념과 의지를 두고 논할 때마다 나는 언제나 그 전열에 유경수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곤 한다. 자기 수령이나 지도자의 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그 신념을 고수하기 위해 한생을 곧바르게 걸어가는데서 유경수는 만 사람이 따라 배울만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나와 유경수와의 첫 상봉은 1933년 동녕현성전투직후에 이루어졌다. 싸움을 끝내고 소왕청으로 돌아와 대원들을 휴식시키고 있을 때 최현이 인솔한 연길유격대의 대원들이 나를 찾아왔다. 그 대원들 중에 최현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는 어린 대원이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유경수였다.

유경수는 통신원의 불찰로 연길유격대가 동녕현성전투에 참가하지 못한데 대하여 몹시 원통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전투에 참가하지 못하고 ≪지각생≫의 신세가 된 분풀이를 최현에게 막 해댔다.

≪중대장동지, 소왕청까지 와서 밥만 얻어먹다가 어떻게 거저 돌아가겠습니까. 아무데라도 좋으니 **김**대장을 모시고 한번 답새기고 갑시다.≫

그 한마디의 말만으로도 나는 유경수가 보통배짱군이 아니라는 것을 인차 간파할 수 있었다. 그 당시 그의 나이는 18살이였다. 그가 혁명대오에 들어선 것은 16살때였다.

≪**김**대장, 저 삼손이가 나이는 어려도 싸움군입니다. 애가 녹록치 않수다≫

삼손이란 유경수의 본명이었다.

이것이 유경수에 대한 최현의 총적 평가였다. 나는 그 한마디의 평가를 듣고 최현이 유경수를 몹시 애지중지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8살밖에 안되는 이 어린 대원의 짤막한 인생속에는 망국으로 해와 달마저 빛을 잃었던 내 나라의 구슬픈 얼굴이 비껴있었다. 유경수의 경력가운데서 특기할만한 점은 어릴 때부터 머슴살이를 한 사실과 10대에 춘황폭동에 참가하였다가 군벌당국에 체포되어 용정감옥에서 곤장맛을 본 사실이였다. 간도지방에 혁명가들이 많았지만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물고문이나 고춧가루고문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장중열이나 이종락과 같은 인간들과는 달리 유경수의 손을 잡아보았는데 손바닥에 썩살이 어찌나 험하게 배겼던지 쇠판대기 같았다.

나는 유경수가 어렸을 때 이삭공부를 했다는 말을 듣고 동정심을 금할 수 없었다. 이삭공부란 남들이 공부할 때 그곁에서 눈과 귀로 글자를 익히고 이치를 새기면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학문을 섭취하는 학습방법을 말한다. 그는 나무짐을 지고 장에 갔다올 때마다 사립학교 창문밑에 쭈그리고 앉아 나무가지를 들고 교원이 칠판에 쓰는 글을 열심히 따라썼다. 그 과정에 조선말 자모와 구구표를 완전히 익히였다.

유경수의 이삭공부를 미구에 온 학교가 다 알고 동정하게 되었다. 유경수의 향학열에 감동된 곽찬영(곽지산)교원은 그를 학교에 입학시키였다. 그리고 학비는 자기가 부담하였다. 이삭글을 배우는 나무군총각에도 쉽지 않은 소년이었지만 낯도 모르는 생명부지의 아이에게 입학을 허락하고 그에게 학비까지 대준 훈장 역시 쉽지

않은 교육자였다.

하지만 유경수는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학교를 졸업할 수 없었다. 그는 학교를 중퇴하고 지주집에 머슴군으로 끌려갔다. 그가 학교를 그만두게 되자 곽찬영도 큰 충격을 받고 교사직에서 물러나 노동자, 농민들속에서 혁명적인 계몽사업을 시작하였다. 후에는 항일유격대에 입대하여 지휘관으로 활동하였다.

유경수는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계속 곽찬영의 지도를 받았다. 자기 제자에 대한 곽선생의 사랑과 관심은 실로 각별한 것이였다. 그런데 이 선생이 그만 억울하게도 ≪민생단≫올가미에 걸려들어 심판대위에 서게 되었다. 좌경배타주의자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를 중대장자리에서 철직시키였다. 그의 일거일동은 감시병들의 감시속에 놓여있었다.


유경수

곽찬영이 군중심판장에 끌려나온 날 유경수는 목숨을 걸고 그를 보증해나섰다. 그가 심판장에서 자기의 은사를 보증해나선 것은 사실 만인의 찬양을 받을 만한 큰 용단이었다. 그 당시는 유경수자신도 ≪민생단≫혐의자의 명부에 등록되어있었다. ≪민생단≫혐의자가 ≪민생단≫의 딱지가 붙은 ≪피고≫를 두둔하거나 동정한다는 것은 총구앞에 달려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청원하는 것과 같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유경수는 가슴을 내대고 스승의 무죄를 증명하였다. 그 ≪죄≫로 하여 그는 ≪민생단≫감옥으로 끌려갔다.

유경수의 용감한 행위는 제자가 스승을 위해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의리였다. 그는 한평생 스승의 은정을 잊지 않고 제자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가 그처럼 의리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은 신념이 강했기 때문이였다. 신념이 강한 사람은 도덕과 의리도 잘 지키는 법이다. 혁명가는 정의를 옹호하고 불의를 증오하며 진리만을 말해야 한다는 것, 혁명하는 사람들이 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의리를 잘 지키자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가 지니고 있던 생활의 신조였다.

그는 좌경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이 ≪민생단≫이라고 규정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는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며 혁명에 충실한 사람들을 ≪민생단≫으로 몰아 아무렇게나 처형하는 것은 범죄이라고 단호히 까밝히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비록 반≪민생단≫투쟁이 극좌적으로 벌어져 혁명대오내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지만 언제인가는 꼭 수습될 날이 견실한 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을 견결히 옹호하였다.

생사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심판장에서 자기의 은사를 구원해낸 유경수의 용감한 소행에 대한 풍문은 동만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을 격동시키었다. 나도 다홍왜에서 그 소식을 듣고 소왕청에서 있었던 그와의 상봉을 감개무량한 심정으로 돌이켜보았다.

나는 마촌에서 연길유격대의 전우들을 바래줄 때 최현에게 이런 농을 하였다.

≪저 삼손이는 어느 모로 보든지 욕심나는 싸움꾼이입니다. 우리의 상봉기념으로 저 애를 우리한테 넘겨주지 않겠습니까?≫

최현은 그 말에 농담절반, 진담절반으로 응수하였다.

≪최현은 안 되우다. 저 녀석이 싸움은 본때있게 잘하지만 아직 속은 좀 궁글었수다. 3년만 더 키워서 **김**대장에게 바칠테니 그때까지 참아주시오.≫

유경수가 우리의 가까이에 와서 중대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소할바령회의

이후부터였다. 소왕청에서의 첫 상봉이 있은 때로부터 근 10년 세월을 그는 최현부대에서 기관총수로 복무하였다. 그러다나니 그를 자주 만나보지도 못하였고 살뜰히 돌보아주지도 못하였다. 내가 유경수를 위해 해준 것이 있다면 ≪어린 혁명가≫라는 칭호를 준 것밖에 없었다.

그러나 유경수는 그 칭호를 자기자신에 대한 표창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우리를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혁명을 위해 한 생을 바칠 것을 결심하였다.

나는 지금도 우리가 무산지구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천보산일대에로 진출하던 때의 일을 잊을 수 없다.

우리의 행적을 탐지한 적들은 그때 천보산과 그 주변지구에 ≪토벌≫무력을 집결하여 인민혁명군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전을 벌이려고 획책하였다. 최현부대는 우리에게로 쏠리는 적들의 싸움을 하였다. 그 시가공격전이 얼마나 가렬했는가 하는 것은 적들이 여자들까지 내몰아 수류탄을 던지게 한데서도 잘 알 수 있다. 성시의 적들은 대부분 섬멸하였다.

하지만 최현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더 많은 ≪토벌≫역량을 소멸하기 위해 유인전을 벌이기로 결심하고 50명 남짓한 부대의 일부 성원들로 전투조를 조직한 다음 천보산시가에서 20리쯤 떨어진 수림속에 매복전을 펴놓았다. 바로 그 전투조에 유경수가 망라되어 있었다. 유경수소조는 적을 유인하기 위해 ≪토벌대≫의 숙영지들을 연속적으로 기습하였다. 어떤 날 밤에는 같은 숙영지를 두 번씩이나 습격하였고 또 어떤 날 밤에는 ≪토벌대≫의 작전지도까지 탈취해옴으로써 적들로 하여금 악에 받쳐 인민혁명군을 추격해 오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유경수는 그때 옹근 사흘동안 물도 변변히 마시지 못하고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싸움을 도맡아하였다. 이 작전에서 유경수가 세운 공로를 두고 최현은 해방 후에도 이따금씩 생동한 회상을 하였다.

최현부대는 산고개를 일곱 개나 넘으면서 숨돌사이도 없이 적들을 연방 족치였다. 적들은 흔들레판에서도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다.

최현부대의 덕으로 우리 주력부대는 적들의 저항을 많이 받지 않고 천보산일대에 무사히 진출할 수 있었다. 우리는 거기서 당초에 계획했던 최현부대와의 상봉을 이루지 못하고 그 대신 최춘국부대를 만났다. 우리가 최춘국이네 부대를 만나고 있을 때 최현부대는 오히려 천보산으로부터 수십 리 떨어진 지점에서 다음차례의 유인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현의 말에 의하면 그때 4사의 전체 유격대원들은 우리를 만나지 못하는데 대하여 몹시 섭섭했다고 한다.

우리에 대한 유경수의 의리는 참으로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의리가 얼마나 고결하고 진실한 것인가를 나는 소부대활동시기에 더욱 절절하게 체험하였다.

혁명가로서의 유경수의 인간미는 자기 사령관의 명령, 지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행정신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는 사령관의 명령을 집행하는데서 맹세나 약속을 번지르르하게 하지 않았지만 일단 한 맹세나 약속은 어김없이 이행하는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사령관동지의 품밖에 없다. 사령과 동지를 잘 모시고 받들어야 우리는 조국의 해방도 이룩할 수 있고 자기자신의 운명도 개척할 수 있다. 사령관동지의 의도대로 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긴다. 이것이 바로 유경수가 일상적으로 간직하고 있던 신념이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악조건에서도 나의 명령이나 지시를 훌륭하게 집행할 수 있었다.

1941년 이른봄에 나는 만주각지와 국내에서 활동하는 소부대들의 사업을 지도하기 위해 유경수네 중대를 데리고 쏘련 원동의 훈련기지를 떠나 백두산일대에 나온 적이 있었다. 그때 유경수는 중대성원들과 함께 나의 일을 많이 도와주었다.

우리는 한총구에 사령부자리를 정한 다음 각지에 소조들을 파견하였다. 유경수도 나의 명령을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연락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는 사령부를 떠날 때마다 자기네 소조에 차례진 식량을 경위대원들에게 맡기며 장군님께 밥을 지어드리라고 당부하군 하였다. 그리고 우리한테 화가 미치지 않게 하려고 유인전을 자주 조직해서 적들의 주의를 딴데로 돌리군하였다.

사령부가 한총구에 자리잡고 있을 때 나는 유경수에게 화전현 노금창에 있는 연락지점에 가서 위증민을 만나고 오라는 과업을 준 적이 있었다.

그것은 몇 십겹을 헤아리는 적의 보초소들과 봉쇄구역들을 돌파해야 하는 어려운 과업이었다. 그래서 사령부에서는 그에게 10명에 가까운 인원을 떼주었다. 그러나 유경수는 사령부호위를 염려하면서 두 명만 데리고 노금창으로 떠나갔다. 그는 3명분을 식량으로 내가 배당한 한 포대의 쌀마저 전문섭에게 슬그머니 맡기고 대여섯 되박밖에 안 되는 쌀만 휴대하였다.

유경수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한총구는 온통 ≪토벌대≫의 불무지로 가득차 있었다. 사령부가 천막을 치고 있던 자리에서도 여러 개의 불무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내가 돌아오라고 명령한 마지막시간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나어린 두 대원은 나의 생사를 걱정하면서 눈물을 흘리었다. 사실 그날밤 한총구에 펼쳐진 불바다를 보고서는 사령부가 살아서 건재해있다고 생각할 사람이 없었다.

그렇지만 유경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이제 남은 시간은 30분밖에 없다. 이 30분 동안에 우리가 저 불무지가 있는 사령부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어기게 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 위험속에서도 우리 세 사람을 끝까지 기다리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는 대원들을 달래였다. 그리고는 그들을 산봉우리에 남겨두고 사령부의 천막자리를 향해 주저없이 기여 내려갔다. 그러다가 그 근처에서 우리가 떨궈두고온 대원을 만났다. 유경수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사령부자리부터 어김없이 찾을 것이라는 나의 확신과 정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자기 사령관이 소조를 기다릴 것이라는 유경수의 판단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하였다.

내가 정해준 날자와 시간과 장소를 털끝만큼한 편차도 없이 엄수하려는 유경수의 드팀없는 자세와 철저한 집행정신은 자기 사령관은 어떤 정황에서나 대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사령관의 신임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나 고통도 각오해야 한다는 진정한 의리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이런 신념과 의리심을 가지고 유경수는 해방 후 철도경비대를 조직하고 땡크부대를 건설하였으며 전쟁의 매 단계에서 최고사령부의 작전적 방침을 실현하는데서도 큰 공헌을 하였다.

그러기에 나는 지금도 인민무력부의 지도간부들을 만날 때마다 군인들을 그 어떤 정세변화나 역경속에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신념과 의지를 굳건히 지키는 강의한 투사, 충신들로 키우라고 말하군 한다.

역사적 경험은 혁명이 승승장구하고 정세가 유리할 때에는 대오안에서 동요분자, 변절자들이 나오지 않지만 내외정세가 복잡하게 변하고 혁명의 길에 어려운 난관이 조성될 때에는 대열안에서 사상적 혼란과 동요가 생기고 투항분자, 낙오분자들이 나와 막대한 해독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제의 만주강점이나 중국본토침공과 같은 큰 국제적 사변들은 우리 나라 민족

해방투쟁이나 공산주의운동 대열안에서 터다란 정치적 자극과 사상적 혼란을 일으키는 하나의 계기로 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9.18사변이후 일제를 반대하는 전면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할 역사적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고 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었다면 일부 민족운동자들과 혁명적 각오가 굳세지 못한 공산주의운동자들은 만주까지 강점한 일제를 더는 당해낼 수 없다고 단정하고 투쟁을 포기하는 길로 나갔다.

일제의 중국본토에 대한 침공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일제가 중국을 대거 침공하는 것은 불피코 역량의 분산과 소모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는 것만큼 중국 동북지방에서의 항일무장투쟁발전에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물론 이러한 해석을 할 때에 우리는 중일전쟁이 가져오게 될 새로운 정치군사적 난관을 모르거나 무시한 것은 아니였다. 우리는 중일전쟁으로 하여 급변하는 어려운 정세에서 유리한 측면을 중시하고 불리한 국면을 유리하게 전변시키기 위하여 주동적으로 노력하였다. 혁명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조성된 난국을 과감히 뚫고 나가는 이러한 백절불굴의 투지와 신념인 것이다.

그런데 이때에도 항일운동대열내에 끼여든 우연분자들과 일시적 동반자들속에서는 수습하기 어려운 사상적 혼란이 일어났다. 그들은 일제가 중국본토로 쳐들어가 무한, 삼진까지 삼키는 것을 보고서는 이미 대세가 기울어졌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런 대세를 돌려세울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사상적 변질과정은 결국 패배주의를 낳고 그것을 온상으로 하여 적지 않은 혁명의 탈락분자들과 시정배들, 배신자들이 나오게 되었다.

게다가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중국영토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태평양전쟁준비에 달라붙는 한편 만주에서의 항일운동을 종국적으로 말살하기 위한 대대적인 ≪토벌≫공세를 연속 벌였다. 결과 남북만 도처에서 소용돌이속에서 남만의 양정우부대마저 큰 피해를 당하였다.

열하원정의 실패로 하여 동북항일연군의 적지 않은 부대들 이 시련을 겪고 있던 그 무렵에는 중국사람들속에서도 투항분자, 도주분자들이 생기였다.

1938년 여름 양정우휘하의 1군부대는 열하에로의 또 한 차례의 원정을 개시하자마자 적의 대포위에 들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 그 당시는 적들이 군사적 공세와 함께 항일유격대원들에 대한 귀순공작을 집요하게 벌이고 있던 때였다. 항복한 자들을 처형하지 않고 귀순자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른바 만주국 황제의 ≪은사의 대조≫라는 것이 공포되어 혁명에서 타락한 사람들과 비겁분자들, 의지박약자들을 유혹하였다. 항일무장부대들에 대한 ≪토벌≫작전이 악랄하고 끈질지게 벌어지는 가운데 유격대와 인민을 갈라놓기 위한 ≪비밀분리≫책동도 심화되었다. 혁명군은 인민들의 지원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정들고 때묻은 본래의 유격근거지를 떠나 열하방면에로의 승산없는 원정길에 오른 항일연군부대들은 아무런 파악도 없는 생소한 땅에서 인민들의 지원도 별로 받지 못하고 적의 거듭되는 ≪토벌≫에 시달릴대로 시달리었다.

이런 때 양정우의 오른팔이라고 불리우며 남만의 항일맹장으로 명성을 날리던 1군 1사 사장 정빈이 요녕성 본계에서 투항을 반대하는 정치일군을 총으로 쏘아죽인 다음 부대를 데리고 적들에게 귀순하는 배신행위를 하였다. 이것으로 하여 1군 앞에는 심각한 난국이 조성되었다. 동북항일연군 제1군 지휘일군들의 활동경로와 소속부대의 번호, 밀영설치의 비밀들을 잘 알고 있는 정빈의 변절은 1군에 있어서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정빈의 귀순으로 하여 1군의 서정계획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다.

정빈은 그 후 통화성경무청장 기시다니의 앞잡이가 되어 양정우포살작전의 돌격대로 나섰다. 그가 안내하는 ≪토벌대≫와의 격전에서 남만의 명망높은 항일용장 양정우는 애석하게도 전사하였다. 기시다니가 열하성부성장으로 조동된 다음 정빈은 거기에 따라가서 ≪열하일심대≫라는 경찰≪토벌대≫를 무어가지고 대장노릇을 하였다.

정빈이나 전광이와 같은 자들의 실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이지만 직급이 높은 사람들의 변절일수록 그 양상은 보다 악랄했고 후과도 몇 곱절 더 컸다. 정빈이 적들에게 투항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적들의 진영으로 넘어갈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였다. 그는 직위불만도 없는 사람이였다. 그렇다면 그가 투항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다. 내 판단에 의하면 정빈의 배신행위는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린데서 온 것이다. 그는 7.7사변 후 매일과 같이 전과를 확대해가고 있는 일본군의 위세앞에서 겁을 집어먹었고 따라서 혁명의 전도를 암담한 것으로 보았다. 언제 성사될 지 모를 혁명을 하느라고 고생할 바에는 차라리 역적이라는 말을 듣더라도 내 한 몸이 안락하게 살아가는 길을 택하자, 이것이 분명 정빈이 적들의 편으로 넘어가게 된 사상적 동기라고 본다.

정빈은 이름난 싸움꾼이였지만 보매 사상수양을 잘하지 못한 것 같다. 내가 염두에 둔 사상적 수양이란 주로 신념교양, 낙관주의교양을 의미한다. 사람이 사상단련을 잘하지 않으면 역경에 부닥쳤을 대 곤란앞에서 인차 굴복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지금도 사상제일론을 주장한다.

상전이였던 기시다니는 패전 후 가족들과 함께 자결하였다. 그러나 정빈은 그 더러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많은 일본인 포로들을 제 손으로 사살한 다음 정체를 속이고 팔로군에 들어가 지휘관의 자리에까지 기여올라갔다.

하지만 그런 행운이 오래갈 리는 만무하였다. 정빈은 보호색을 쓰고 애국자로 가장하였지만 배신자로서의 자기 정체를 오래 숨길 수가 없었다. 해방 후 어느 해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그가 우산을 받쳐들고 비내리는 심양의 거리를 걸어갈 때 그 우산밑에 기여들어 비를 긋는 사람이 있었다. 그자도 역시 정빈이처럼 보호색을 쓰고 살던 반역자였다. 그는 정빈이 어떤 자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 무슨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지 그들은 당국에 찾아가 서로 상대방을 변절자라고 고발하였다. 그 과정에 정빈이 투항분자였다는 것이 폭로되었다. 신념을 버리고 적의 품에 기여 들어 혁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이 너절한 인간에게 인민재판은 응당한 판결을 내리었다.

정빈의 운명은 신념을 버리고 동지들을 배반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생동한 실례로 된다.

양정우부대가 녹아난 다음부터 ≪토벌≫의 포화는 우리에게로 집중되었다. 적들은 **김일성**부대만 소멸하던 만주와 조선의 항일운동은 끝장이라고 하면서 사면팔방으로부터 우리를 포위하고 필사적으로 달려들었다. 우리앞에는 실로 헤아릴 수 없는 난관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타도제국주의동맹 시절부터 혁명투쟁을 해오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비겁분자, 투항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무렵에 동북항일연군앞에서 지휘관으로 있던 방진성, 박득범도 적들에게 투항하였다.

쏘련과 일본사이에 중립조약이 체결되었을 때에도 우리 대오에서는 도주자가 생기었다. 우리의 적지 않은 대원들속에는 쏘련에 대한 의존심 즉 지금말로 하면 사대주의가 있었다. 일부 지휘관들이 민족자주의식을 배양하는 사상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다나니 쏘련만 믿고 의존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폐단이

생겨났다. 말하자면 쏘련의 지지나 도움이 없이는 조선독립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때처럼 내가 민족자주의식이야말로 혁명가의 신념을 좌우하는 하나의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는 진리를 절감한 때는 일찌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혁명을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자력독립의 관점을 확고히 가지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도주자나 변절자가 생기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자신이나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은 하찮은 것으로 보면서 큰 나라의 덕으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보려고 시도하던 사람들가운데서는 낙오자들과 투항분자들이 생겨났다.

사람이 자기 인민의 힘을 믿지 않으면 어려운 환경에 부닥칠 때 예외없이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며 패배주의에 빠지면 곧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잃고 투쟁을 포기하거나 중도반단하게 된다.

이런 류의 인간들은 큰 나라들이 혁명에서 곡절을 겪을 때면 자기 나라 혁명도 다 망한 것처럼 생각한다. 혁명이 국제적 성격을 띠는 것만큼 국제반제역량과의 단결을 지향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다른 나라 공산주의자들의 실패에 동정을 표시하거나 그들의 슬픔을 자기의 슬픔으로 여기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다. 또 큰 나라 혁명의 실패가 자기 나라 혁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큰 나라 혁명이 일시적인 좌절을 당한다고 하여 작은 나라 혁명도 다 망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발을 내던진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혁명은 국제적 성격을 띠기 전에 우선 민족적 성격을 띤다. 혁명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완수하려는 확고한 결심과 신념을 가지고 자기 나라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완강하게 투쟁을 벌려나간다면 어떤 어려운 고지든지 능히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시종일관한 주장이며 지론이다.

나의 체험에 의하면 혁명을 식은죽먹기로 생각하고 무장대오에 들어왔던 사람들, 신념이 뚜렷하지 못하고 의지가 박약한 자들, 종파근성에서 예외없이 내외정세가 복잡하고 혁명앞에 시련이 닥쳐올 때 배신의 길로 굴러떨어진다.

임수산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한 후부터 나는 전우들에게 이런 말을 종종 하군 하였다.

≪정세는 엄혹하고 투쟁은 점점 더 간고해진다. 우리 혁명위업이 열매를 맺어 나라가 반드시 독립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일치하게 믿고 있은 바이지만 그런 날이 언제쯤 오겠는가 하는 것은 누구도 모른다. 그런 즉 우리를 끝까지 따라갈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놓고 집으로 돌아가라. 도주는 비열한 것이지만 보고하고 가는 것은 일없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10년이상이나 혁명을 같이하다가 인사도 하지 않고 헤여지겠는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바래워주겠다. 그리고 투쟁을 중도반단한데 대하여 문제시하지 않겠다. 힘이 모자라고 신념이 약해서 대오를 떠나는 거야 어떻게 하겠는가. 갈 사람은 가라.≫

이런 식으로 내놓고 말하면서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을 가지도록 대원들을 교양하였다. 내가 이렇게 선언했지만 대원들가운데는 전우들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없었다.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은 아무리 정세가 복잡하고 난관이 심하여도 신심을 잃지 않고 완강하게 항쟁을 계속하였으며 종당에는 일제를 때려부수고 조국해방의 대업을 훌륭히 성취하였다.

우리는 ≪혜산사건≫을 통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았지만 제때에 수습책을 세우고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불요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당 조직 건설과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하는 사업은 중단됨이 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항일전쟁이 낳은 영웅들의 뒤를 이어 지금은 어려운 초소들에서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백절불굴의 강자들이 끝없이 배출되고 있다. **김정일**시대의 거창한 혁명투쟁과정은 곧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을 낳는 온상이며 터전이다. **김정일**동무가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내세우고 높이 평가하고 있는 이인모의 실례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가. 온 나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동무가 말한대로 이인모를 따라배우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1990년대는 신념과 의지가 황금보다도 훨씬 더 값비싸게 평가되는 때이다. 우리 시대는 전체 인민들이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집요한 봉쇄정책과 반동적인 사상공세로부터 우리의 신념과 제도를 고수하며 금강석같은 의지를 가지고 조성된 난국을 뚫고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혁명선열들이 피로써 고수해온 신념을 버리고 그 신념의 창조물인 사회주의를 버린 것으로 하여 지금 적지않은 나라들에서는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온갖 사회악과 패륜패덕이 난무하고 있다. 역사는 신념을 버린 자들에게서 응당한 대가를 받아내는 법이다.

우리 나라가 그 어떤 역풍에도 드놀지 않는 강한 나라로 된 것은 우리 당의 신념이 강하고 우리 인민의 신념이 강한 덕이다. 신념이 강한 당은 변질되지 않고 신념이 강한 국가는 붕괴되지 않으며 신념이 강한 인민은 와해되지 않는다.

우리는 지난날 어려운 길을 걸어왔지만 앞으로는 그보다 더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그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념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변함없이 전진하는 인민들만이 자주시대의 상상봉에 올라설 수 있다.

